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



HANSUNG
UNIVERSITY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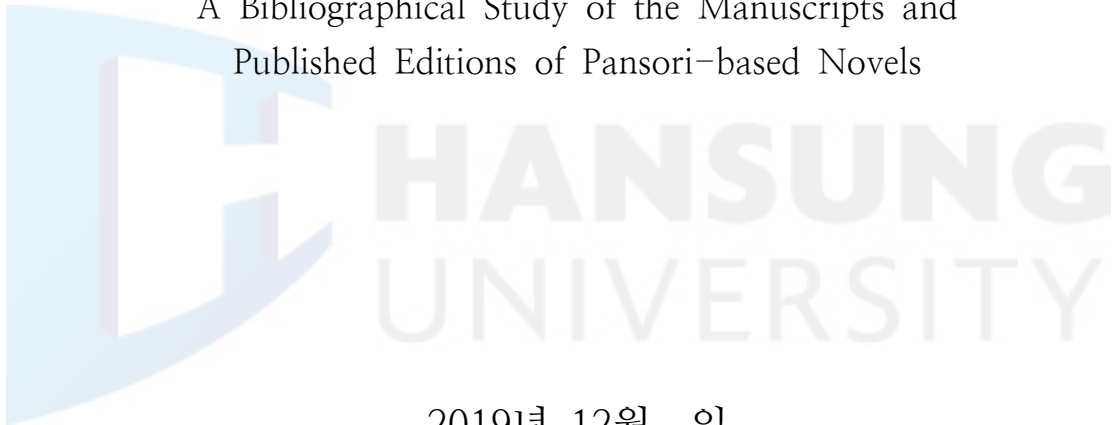
이 옥 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Manuscripts and
Published Editions of Pansori-based Novels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이 옥 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Manuscripts and
Published Editions of Pansori-based Novels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이 옥 성

이옥성의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이 옥 성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계열을 구분하였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나타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180종 316책으로 확인되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82종 117책, 『심청전』 57종 89책, 『토끼전』 41종 50책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117종 117책, 목판본 33종 70책, 신연활자본 30종 129책으로 나타났다. 표기문자별로는 한글본 151종 247책, 국한문혼용본 24종 61책, 한문본 5종 8책으로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 81

종 102책,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29종 45책,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 33종 98책, 기타 및 비옥중화/비강상련/비불로초 계열 37종 71책으로 나타났다.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은 형성기(1860~1880년대)에 판소리 사설이 이야기 형태로 개작되어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발달기(1880~1920년대 중반)에는 사본이 증가하고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어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쇠퇴기(1920년대 후반~1940년대)에는 사본과 간행본의 제작과 유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형성기에는 『춘향전』 7종 8책, 『심청전』 1종 1책, 『토끼전』 3종 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8종 8책과 목판본 3종 4책으로 확인되었다. 『춘향전』은 산문체로 개작된 형태에서 판소리의 사설과 문체가 가미된 형태로 변모하였고, 『심청전』과 『토끼전』은 창본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본만 유통되었다. 발달기에는 『춘향전』 66종 155책, 『심청전』 46종 74책, 『토끼전』 34종 4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92종 92책, 목판본 28종 58책, 신연활자본 26종 122책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 모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이 꾸준히 필사 및 간행되었다. 쇠퇴기에는 『춘향전』 11종 22책, 『심청전』 10종 14책, 『토끼전』 4종 4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16종 16책, 목판본 2종 8책, 신연활자본 7종 16책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기타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었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은 서울 52종, 전라도 24종, 충청도 10종, 경기도 9종, 경상도 6종, 강원도 2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주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의 사본과 신연활자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전라도에서는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충청도에서도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목판본이 간행되었으며, 경상도에서는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셋째,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은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해 소설의 인물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유발하고 소설의 상품적 가치를 높였다. 채색표지화는 『춘향전』 15종, 『심청전』 6종, 『토끼

전』 3종에 사용되었으며, 주로 소설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였다. 삽화는 『춘향전』 9종과 『심청전』 4종에 수록되었으며, 장면삽화와 인물삽화로 나뉜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또한 한글본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필사 및 간행 과정에서 독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개작되었다. 즉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판소리계 소설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소설이었다.

【주요어】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3 선행연구의 개관	8
II.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	19
2.1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19
2.2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	25
2.3 판소리계 소설의 선정과 현황	42
III. 『춘향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56
3.1 사본	56
3.2 간행본	72
IV.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105
4.1 사본	106
4.2 간행본	125
V.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152
5.1 사본	152
5.2 간행본	170
VI. 판소리계 소설의 종합적 분석	186
6.1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186
6.2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210

6.3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한 소설의 시각화 양상	220
VII. 결 론	240
참 고 문 헌	244
부 록	247
ABSTRACT	277



표 목 차

[표 1] 연구의 단계 및 방법	6
[표 2]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서사 구조와 대목별 중심 내용	47
[표 3]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	51
[표 4]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	55
[표 5] 사본 『춘향전』 중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59
[표 6] 사본 『춘향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60
[표 7] 사본 『춘향전』 중 완판본 전사 또는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66
[표 8] 사본 『춘향전』 중 옥중화 계열의 서지사항	69
[표 9] 사본 『춘향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71
[표 10] 경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75
[표 11] 안성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76
[표 12] 완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81
[표 13]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의 서지사항	86
[표 14] 신연활자본 「신역 별춘향가」의 서지사항	87
[표 15] 신연활자본 「선한문춘향년(鮮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	88
[표 16] 신연활자본 「증상연예옥중가인」의 서지사항	91
[표 17] 신연활자본 「특별무쌍춘향전」의 서지사항	93
[표 18] 신연활자본 「獄中佳花」의 서지사항	94
[표 19] 신연활자본 「(演演訂정春춘향傳전)」의 서지사항	94
[표 20] 신연활자본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의 서지사항	95
[표 21] 신연활자본 「절디가인 춘향전」의 서지사항	96
[표 22] 신연활자본 「만고렬녀 춘향전」의 서지사항	97
[표 23] 신연활자본 「懷中 春香傳 춘향년」의 서지사항	97
[표 24] 신연활자본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의 서지사항	98
[표 25] 신연활자본 「萬古烈女 圖上獄中花」의 서지사항	99
[표 26] 신연활자본 「倫理小說廣寒樓」의 서지사항	100
[표 27] 신연활자본 「약산동덕」의 서지사항	101

[표 28]	신연활자본 「고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102
[표 29]	신연활자본 「懸吐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	103
[표 30]	신연활자본 「原本春香傳(廣寒樓記)」과 「廣寒樓記」의 서지사항	103
[표 31]	신연활자본 「우리덜전」의 서지사항	104
[표 32]	신연활자본 「오작교(烏鵲橋)」의 서지사항	104
[표 33]	사본 『심청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107
[표 34]	사본 『심청전』 중 완판본 전사 계열의 서지사항	110
[표 35]	사본 『심청전』 중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112
[표 36]	사본 『심청전』 중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115
[표 37]	사본 『심청전』 중 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	118
[표 38]	사본 『심청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124
[표 39]	경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128
[표 40]	안성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130
[표 41]	완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136
[표 42]	신연활자본 「강상련(江上蓮)」의 서지사항	141
[표 43]	신연활자본 「증상연등 심청전」의 서지사항	143
[표 44]	신연활자본 「교등 심청전」의 서지사항	147
[표 45]	신연활자본 「만고효녀 심청전」의 서지사항	148
[표 46]	신연활자본 『심청전』 중 비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	151
[표 47]	사본 『토끼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159
[표 48]	사본 『토끼전』 중 중산망월전 계열의 서지사항	163
[표 49]	사본 『토끼전』 중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164
[표 50]	사본 『토끼전』 중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165
[표 51]	사본 『토끼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169
[표 52]	경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171
[표 53]	완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173
[표 54]	신연활자본 「불로초」의 서지사항	177
[표 55]	신연활자본 「별鰲主부簿전傳」의 서지사항	183
[표 56]	신연활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184

[표 57] 신연활자본 「兎의肝(별주부가)」의 서지사항	185
[표 58]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	187
[표 59] 판소리계 소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211
[표 60]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지와 간행지	219
[표 61] 신연활자본 『춘향전』과 『심청전』에 수록된 삽화의 현황	230



그 립 목 차

[그림 1]	5권 1책(216장) 「남원고수」(파리 대학언어문명도서관) 권1 제1장	57
[그림 2]	10권 10책(287장) 「춘향전」(일본 동양문고 소장) 권1 제1장	58
[그림 3]	94장본 「별춘향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62
[그림 4]	39장본 「별춘향가」(국회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63
[그림 5]	29장본 「春香歌」(권영철 소장) 필사기, 제1장	64
[그림 6]	64장본 「獄中花 春香歌演訂」(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67
[그림 7]	45장본 「춘향전」(홍운표 소장) 제1장, 표지	71
[그림 8]	경판 30장B본 「춘향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73
[그림 9]	경판 16장A본 「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장	74
[그림 10]	안성판 20장A본 「춘향전」(서강대 로올라도서관 소장) 간기, 제1장	76
[그림 11]	완판 29장A본 「⊗별춘향전이라극상」(여태명 소장) 판권지, 제1장	78
[그림 12]	완판 84장A본(여승구 소장) 하권 제1장 전면, 상권 간기, 제1장	80
[그림 13]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삽화	83
[그림 14]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국립중앙도서관) 추가된 삽화, 채색표지화	84
[그림 15]	「獄中花(春香歌演訂)」 17판(국립중앙도서관)에 새로 추가된 삽화	85
[그림 16]	「선한문춘향전」 초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표지화	87
[그림 17]	「증상연예옥증가인」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표지화	89
[그림 18]	「증상연예옥증가인」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실린 삽화	90
[그림 19]	「특별무쌍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판 1면, 삽화, 재판 표지화	92
[그림 20]	「절디가인 춘향전」 초판(국립중앙도서관) 판권지, 제1면, 표지화	95
[그림 21]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제1면 표지화	98
[그림 22]	「倫理小說廣寒樓」(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표지화	100
[그림 23]	「고본 춘향전」(울곡기념도서관) 판권지, 제1면, 서문	101
[그림 24]	「懸吐漢文春香傳」 초판(울곡기념도서관) 판권지, 제2면, 제1면	102
[그림 25]	26장본 「심청전」 제1장(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106
[그림 26]	29장본 「심청전」 제1장(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소장)	107
[그림 27]	48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108

[그림 28]	46장본 「심청전」(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 권1 제1장, 표지	109
[그림 29]	53장본 「심청전」(이태영 소장) 제1장, 표지	111
[그림 30]	12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113
[그림 31]	30장본 「심청록」(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1장	114
[그림 32]	45장본 「심청전이라 沈淸傳 이라」(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17
[그림 33]	30장본 「심청전」(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전면	118
[그림 34]	32장본 「심청가」(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필사기, 제1장	119
[그림 35]	28장본 「효여심청전」(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122
[그림 36]	39장본 「심청전 이라」(이태영 소장) 제1장, 표지	123
[그림 37]	경판 24장본 「심청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126
[그림 38]	경판 24장A본 판권지(좌), 경판 24장B본 판권지(우)	127
[그림 39]	경판 20장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 간기, 제1장 전면, 표지	128
[그림 40]	안성판 21장A본 「심청전」(일본 동양문고 소장) 제1장	129
[그림 41]	완판 41장본 「심청가 라」(이태영 소장) 제41장 후면 간기, 제1장	131
[그림 42]	완판 71장A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 상권 간기, 제1장	133
[그림 43]	완판 7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하권 간기, 상권 제1장	134
[그림 44]	완판 71장D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상권 제1장	135
[그림 45]	「강상련(江上蓮)」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표지	138
[그림 46]	「강상련(江上蓮)」 5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1~10	139
[그림 47]	5판 채색표지화(좌), 8판(A) 채색표지화(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0
[그림 48]	「증상연명 심청전」 6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서문, 채색표지화	142
[그림 49]	「교당 심청전(A)」(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144
[그림 50]	「교당 심청전(D)」(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1(좌), 채색표지화(우)	146
[그림 51]	「만교효녀 심청전」 재판본(개인소장) 삽화	148
[그림 52]	「신경심청전 몽금도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채색표지화	150
[그림 53]	43장본 「鰲兔歌」(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제1장	153
[그림 54]	21장본 「별주부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154
[그림 55]	20장본 「슈궁록이라」(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55
[그림 56]	59장본 「경화수궁전」(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57

[그림 57] 53장본 「특기 전」(울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58
[그림 58]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하버드 앤칭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	160
[그림 59] 40장본 「토전」(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제1장	162
[그림 60] 32장본 「주부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164
[그림 61] 60장본 「免公辭」(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166
[그림 62] 41장본 「토끼전」(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1장, 표지	167
[그림 63] 경판 9장본 「토싱전」(울곡기념도서관 소장) 간기, 제1장	170
[그림 64] 완판 21장A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간기, 제1장 전면	173
[그림 65] 「불로초」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175
[그림 66] 「불로초」 초판 표지(좌), 재판 표지(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76
[그림 67] 「별繫주부簿전傳」 초판(국립중앙도서관) 판권지, 1면, 표지화 ...	178
[그림 68] 「별繫주부簿전傳」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표지화	181
[그림 69] 「古代小說 兎에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채색표지화 ...	182
[그림 70] 「兎의肝(별주부가)」 4판(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1면, 표지화...	185
[그림 71] 『춘향전』의 주요 장면을 소재로 한 채색표지화	221
[그림 72] 화중화 방식으로 『춘향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222
[그림 73] 『심청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224
[그림 74] 『심청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225
[그림 75] 『토끼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226
[그림 76] 『토끼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227
[그림 77]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장면 삽화	231
[그림 78] 신연활자본 『심청전』의 장면 삽화	232
[그림 79]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인물 삽화	233
[그림 80] 신연활자본 『심청전』의 인물 삽화	234
[그림 81] 관재 이도영의 채색표지화	235
[그림 82] 관재 이도영의 삽화와 낙관	237
[그림 83] 우석 김기창의 삽화와 낙관	239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유교적 이념이 약화되고, 실학과 동학사상이 널리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급변했던 시기이다. 전통 규범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양반 중심의 관료 체제와 가부장적 질서가 약화되었고, 중인과 평민, 여성의 의식이 한층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경제적 부를 축적한 중인과 평민 부농층은 양반 사대부와 함께 사회 경제 및 문화를 움직이는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문학을 창작하고 수용하는 계층과 집단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반 사대부가 주축이 된 한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중인과 여성, 평민, 천민들도 문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들은 소설이나 판소리, 민요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통해 유교적 이념과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민중의 삶과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조동일, 1994a, pp.165-206). 판소리는 민중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면서도 봉건 사회의 부조리함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소설은 독자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현실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판소리와 소설의 인기를 눈여겨 본 개인 필사자나 출판 관련업자들은 두 갈래를 접목시켜 사본(寫本)과 간행본(刊行本) 형태의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특히 민간에서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방각본(坊刻本)과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독자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판소리계 소설은 대표적인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은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변이 과정에서 판소리와 밀접한 상호 교섭 관계를 맺고 있는 문학작품이다(임동철, 1997, p.18). 1843년(헌종 9)에 송만재(宋晩載, 1788~1851)가 지은 「관우희(觀優戲)」에 한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 12마당 중에서, 오늘날 판소리와 소설이 모두 전승되

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등이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한다.¹⁾ 이 소설들은 겉으로는 유교사회의 중요 덕목인 정절과 충효, 우애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봉건사회의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구비문학(口碑文學)과 서사문학(敍事文學)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필사자나 간행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개작되어, 독자들은 같은 작품인데도 인물의 특성과 사건, 이야기의 결말이 다른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 『춘향전』 82종 177책, 『심청전』 57종 89책, 『토끼전』 41종 50책 등 모두 180종 316책에 이른다는 점은 판소리계 소설이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판소리계 소설들은 대체로 1860~1940년대 사이에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즉 판소리계 소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필사자와 간행자,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우리나라 고소설사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우리나라 고소설의 필사 및 간행과 유통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작품의 주제와 인물,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나타난 서지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다. 개별 작품론을 결합하거나 판소리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뤄진 경우는 있지만 그마저도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온전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판소리계 소설이 가장 인기 있는 대중소설이었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상업화가 오히려 판소리계 소설의 구비문학적·서사문학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소설의 질적인 하락과 쇠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의 역사

1) 판소리 12마당은 「춘향가」, 「적벽가」, 「박타령」, 「강릉매화타령」, 「가루지기타령」, 「왈차타령」, 「심청가」, 「배비장타령」, 「웅고집타령」, 「가짜신선타령」, 「토끼타령」, 「장끼타령」이다. 이 중에서 판소리와 소설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작품은 「춘향가」, 「심청가」, 「토끼타령」, 「박타령」, 「적벽가」이고, 이 사설을 개작한 판소리계 소설이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홍부전』, 『화용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계 소설 다섯 작품 중에서 판소리 사설이 개작을 거쳐 독서물 형태의 소설로 정착되었고, 사본과 목판본(경판/완판), 신연활자본 형태로 모두 제작·유통되어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적 배경을 고찰한 후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계열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지적 특징과 계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 및 간행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문학계, 국어학계, 서지학계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및 박물관의 실무자나 개인 소장가, 판소리계 소설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무자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분석하고자 한다. 판소리계 소설은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변이 과정에서 판소리와 밀접한 상호 교섭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판소리계 소설들이 대체로 1860~1940년대 사이에 필사 및 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되어 독서물 형태의 판소리계 소설로 만들어져 유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소리 창자들은 사설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창자의 소리와 고수의 장단을 옮겨 적은 소리책(창본)을 만들었다. 판소리 연행이나 창본을 보고 흥미를 느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돌려 읽을 목적으로 판소리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판소리의 인기를 눈여겨 본 세책업자들은 상업적인 대여를 목적으로 소설 형태로 개작한 세책본(貰冊本)을 만들었다. 판소리 창본이나 세책본을 읽은 일반 독자들은 개인적인 소장을 목적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설 형

태로 개작하였다. 방각업자와 출판업자들은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을 간행하여 유통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을 ‘창자가 연행하던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되어 독서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형태의 소설로 개작된 문학작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3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소설들은 판소리 사설이 개작을 거쳐 독서물 형태의 소설로 정착된 것이며, 오늘날 판소리 사설과 소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서 내용의 개작과 변이 양상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작품이다.²⁾ 또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형태로 모두 제작·유통되어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유용한 작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대상으로 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나타난 서지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개념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18~19세기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소설의 유통과 대중화,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성격, 형성 및 발달 과정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계통 및 작품론 등으로 나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관련 인물의 문집과 역사기록을 조사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전국 도서관 및 박물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지 정보를 종합하여 1차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의 서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1차 서지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본과 간행본의 서지목록을 추가하였다. 1차 서지목록을 바탕으로 소장처를 방문하여 실물 또는 영인본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열람이 불가능했던 자료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와 해제 정보를 참고하여 서지목록을 수정·보완하

2) 판소리 사설은 전해지지 않고 소설만 전해지고 있는 『장끼전』, 『옹고집전』, 『변강쇠전』, 『배비장전』, 『강릉매화전』, 『계우사』, 『숙영낭자전』, 판소리 사설과 소설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짜신선타령』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은 판소리로 불렸다는 문헌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판소리 사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판소리계 소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였다. 1차 서지목록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 및 범위에 부합하는 사본과 간행본 180종 316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종 서지목록을 완성하였다.³⁾

셋째, 판소리계 소설별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으로 나눠 각각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고 계열을 구분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180종 316책의 필사 및 간행 시기와 지역, 판식, 서체(자체) 등을 조사하여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서사 구조와 문체, 주요 대목의 개작 양상을 확인하여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종합하여 판소리계 소설별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의 계열 구분을 시도하였다. 사본은 세책본(貰冊本) 및 경판본(京板本) 계열, 창본(唱本) 및 완판본(完板本) 계열,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 기타 계열로 구분하였다. 목판본은 경판본 계열과 안성판본 계열, 완판본 계열로 나누었으며, 신연활자본은 옥중화/비옥중화 계열, 강상련/비강상련 계열, 불로초/비불로초 계열로 구분하였다.

넷째,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나타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판소리계 소설별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의 계열을 같거나 유사한 것끼리 묶은 후 4가지 계열로 다시 분류하였다.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경판, 안성판)을 하나로 묶고,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완판)을 하나로 묶었다.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의 사본과 신연활자본을 하나로 묶었으며, 기타 계열의 사본과 비옥중화/비강상련/비불로초 계열의 신연활자본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형성기(1860~1880년대)와 발달기(1890~1920년대 중반), 쇠퇴기(1920년대 후반~1940년대)로 나눠,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계열별로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필사지, 간행지, 소장지를 알 수 있는 사본과 간행본을 대상으로 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을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여섯 지역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나타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은 각 소설별로 소재와

3)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통칭할 때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으로 서명을 표시하였다. 각각의 사본과 간행본을 가리킬 때는 「 」 안에 권수제(卷首題)를 표시하였으며, 권수제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제(表題)를 사용하였다. 권수제와 표제에 부연되어 있는 ‘단, 단권’ 등은 생략하였다. 권수제와 표제가 모두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으로 표시하였다.

내용에 따라 그림을 유형화하고,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채색표지화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와 상징물을 소재로 한 표지화, 주인공의 외양을 묘사한 표지화로 나누었으며, 삽화는 소설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삽화와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삽화로 나눠 각 그림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시기별 변모 양상과 지역별 분포 현황,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며,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밝혔다.

본 연구의 단계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단계 및 방법

단계	목적	방법
1단계 문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분석 역사기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물의 문집 - 필사 및 간행 관련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분석
2단계 서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 파악 분석 대상의 선정 및 서지 목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도서관 및 박물관, 한국 고전적종합목록의 서지 정보 조사, 1차 서지목록 작성 선행 연구의 서지 조사 내용 분석 및 서지목록 추가 자료 수집 및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영인본, 원문 이미지, 해제 정보 조사 및 열람 - 서지 목록 수정·보완 분석대상 분류 및 선정 최종 서지목록 완성

3단계 판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나타난 서지적 특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적 특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사 및 간행시기 필사 및 간행지역 판식, 서체(자체) 채색표지화, 삽화 내용적 특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사 구조 및 문체 주요 대목의 개작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 구분을 위한 기준 정립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주요 대목에 나타나는 개작의 정도와 양상을 확인하여 비교
4단계 분석 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종합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을 같거나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4가지 계열로 재분류 형성기, 발달기, 쇠퇴기로 나눠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분석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여섯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분석 신연활자본의 채색표지화 및 삽화를 그림의 소재와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화용도』와 『홍부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과 달리 『화용도』는 구전이나 소설로 전해오던 이야기가 판소리로 연행된 것이며, 『홍부전』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본과 간행본 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또한 『홍부전』은 경판본만 간행되었고 『화용도』는 완판본만 간행되었다. 이로 인해 『화용도』와 『홍부전』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과 필사 및 간행 양상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사본과 간행본 중에서 필사 또는 간행 시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추정할 수 없는 것, 자료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형태적·내용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여규형이 원각사 공연을 위해 개작한 유인본(油印本), 판소리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었거나 일부 어휘, 어구, 문장, 단락을 개작한 창본, 1910~40년대 사이에 간행된 외국어 번역본 및 현대어역본, 195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사본 및 간행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선행연구의 개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소설의 유통과 대중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 및 간행본 현황을 파악하고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성격, 형성과 발달 과정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과 판소리계 소설의 계통 및 작품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1.3.1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판소리의 기원과 역사, 판소리의 서사 구조와 연행 방식, 판소리 창자와 향유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동일(1978, 1994a)은 판소리가 민속악이면서 구비문학(구비서사시)에 해

당하며, 몸짓을 하면서 서사문학을 노래하는 장편의 창악(唱樂)이라고 규정하였다. 판소리에는 유식하고 화려한 문체와 민중의 일상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광대만이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사무가를 흥미 있고 세속적인 서사시로 개작하면서 음악적으로 장단을 세분화하고, 널리 알려진 설화를 수용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판소리의 서사 구조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김홍규(1978)는 판소리 「춘향가」와 「수궁가」의 사설을 분석하여 판소리의 서사 구조를 ‘정서적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라고 규명하였다. 판소리가 긴장을 유발하는 창과 이완을 유발하는 아니리의 반복적인 교체를 통해 청자들에게 비장과 골계, 극적인 몰입과 해방이라는 정서적 체험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서대석(1979)은 판소리와 서사무가의 구연 방식을 비교하여, 창과 아니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판소리의 연행 방식이 노래와 말을 교차하면서 장단과 추임새에 맞춰 몸짓을 곁들이는 서사무가의 공연 방식과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판소리와 서사무가는 직업적 집단이 부르는 구비서사시이자 공연물이고,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비중이 큰 가정사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이 복잡하고 길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판소리가 서사무가에서 기원하였음을 밝혔다. 신동훈(1998)은 설화 구연 현장을 조사하고 판소리와 이야기꾼의 소재 및 구연방법을 비교하여, 말로만 구연되던 이야기가 이야기꾼의 경쟁으로 인해 말과 노래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판소리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종철(1996a, 1996b)은 판소리의 창자와 수용층, 음악적·문학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판소리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17~18세기에 국가에 역(役)을 지고 연회장에서 기예를 팔던 천민 출신의 창자들이 궁중과 문희연(聞喜宴)에서 공연을 하고 명창(名唱)이라 불리며 명예직 벼슬까지 받게 되면서, 판소리 창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19세기 들어 판소리의 진양조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계층 간의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판소리 12마당 중에 옹호해야 할 인물이 등장하고 비장미가 강한 5가는 전승되었으며, 부정해야 할 인물을 풍자하고 골계미가 강한 7가는 연행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판소리의 향유층은 상층과 중간층, 하층으로 나누고 계층별 수용 태도를 분석하여, 하층민의 민속 예술에

서 출발한 판소리가 탈계층화 되어 대중적인 예술로 변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정충권(2002)은 대중예술의 관점에서 19세기 판소리의 성행과 미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판소리가 상층의 기호에 영합해 간 것이 아니라 전 계층을 향유층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중예술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소리가 민중예술에서 대중예술로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정된 이야기의 호소력과 창자의 개성적인 일탈, 이질적인 계층에 토대를 둔 담론의 혼재, 청중에게 호소력 높은 정서의 구현 등을 제시하였다.

1.3.2 소설의 유통과 대중화

소설의 유통과 대중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 후기 소설의 형성과 발달 과정, 한글소설의 상업화 및 대중화, 독자층의 확대, 이야기꾼 및 서적중개상과 소설 발달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형택(1974)은 18~19세기 소설의 발달과 이야기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야기꾼의 활동이 소설의 보급과 독자층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야기꾼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예능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성격에 따라 강담사(講談師)와 강창사(講唱師), 강독사(講讀師)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강독사는 전기수와 같이 시장이나 부호의 가정에서 소설을 낭송하여 국문 통속소설의 대중화에 공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이민희(2007a)는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의 관계를 분석하고, 책패(冊儼)가 작가와 독자, 출판업자를 이어주는 제4의 문학담당층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책패는 독자의 주문을 받아 서적과 소설을 구해주고 이득을 취하던 전문적인 서적중개상으로, 세책업과 방각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도 서적을 공급하고 서민 독자의 문화 수요까지 충족시켜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개화기에는 민간 출판사에서 간행한 신소설과 구활자본 소설을 지방으로 유통시켜, 조선 후기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장효현(2002)은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소설의 유통과 독자층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18~19세기에 장편 가문소설과 통속적 영웅소설, 한문 단편 및 장편소설, 판소리계 소설, 세태 소설, 우화소설 등이 가장 성행하였다고 보았다.

장편 가문소설은 사대부가의 남성과 여성 독자층이 즐겨 보았고, 통속적 영웅 소설은 주로 평민층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판소리계 소설과 세태소설, 우화 소설은 19세기의 사회 현실과 민중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정병설(2005)은 17~18세기 문헌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 한글소설의 발달과 유통 과정을 분석하였다. 17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한글이 보편화되어 소설이 유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에서 들어온 번역 소설과 창작 장편소설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한글소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세책본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각본이 발달하여, 소설을 읽고자 하는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임성래(2008)는 『숙향전』과 『소대성전』, 『임장군전』, 『유충렬전』, 『조웅전』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소설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방각본 소설이 등장하면서 상품화 된 대중소설이 성행하였다고 보았다. 대중소설은 결연과 복수, 보은 등을 소재로 하고 권선징악적 구조를 갖추어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전기수의 활동과 판소리의 보급, 세책가의 출현이 소설의 독자층을 여성과 중인, 문자 미해득층(未解得層)까지 확대시켰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대중소설의 소재와 줄거리, 인물 묘사와 사건 전개 등이 정형화되고 도식화되어 작품의 개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서혜은(2008)은 『춘향전』, 『심청전』, 『숙향전』, 『정수정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의 필사본과 방각본을 비교하여 경판본 소설이 대중성을 얻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경판본 출판업자들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필사본 소설을 선정하여 고정된 서사구조를 지닌 방각본으로 간행하였으며, 간행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어구나 문장을 축약 또는 삭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유교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지배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으며, 비현실적인 적강담(謫降談)과 환생담(還生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인물의 행동 방식이 전형화(典型化)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윤석(2015a)은 조선 후기 한글 고소설의 발생과 유통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7단계는 ‘궁중에서 중국소설을 번역하는 시기, 번역소설을 읽고 궁중에서 한글소설을 창작하는 시기, 번역 및 창작 한글소설이 민간 상류층으로 퍼지는 시기, 세책집을 중심으로 한글소설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기, 세책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한글소설이 창작되는 시기, 세책본 한글소설을 축약한 방각본 소설이 나타나는 시기, 세책과 방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활판본 고소설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글 소설의 독자층과 유통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대중적인 읽을거리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1.3.3 판소리계 소설의 전반적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성격,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발달 과정,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석배(1985)는 신재효의 창본과 방각본 『토끼전』을 비교하여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판소리 사설은 광대의 공연을 목적으로 한 서사기록물이고, 판소리계 소설은 강독사나 일반 독자에게 읽혀지기 위한 목적으로 전사(轉寫) 또는 인쇄된 구독물 형태의 서사기록물이라고 보았다. 판소리 사설이 방각본으로 출판되어 창본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독서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 판소리계 소설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완전한 형태의 판소리 서사를 즐기고 싶은 독자층의 욕구와 세책가 및 방각업자, 강독사들의 상업적인 영리 활동이 확대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임동철(1997)은 『춘향전』과 『심청전』, 『홍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전문적인 이야기꾼에 의해 이야기 문화가 확대되고 세책가와 방각업자에 의해 판소리 사설이 개작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출현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을 작품의 생성과 전승, 변이에 있어서 판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으로 정의하고,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홍부전』, 『화용도』 등이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최정락(1998)은 창본과 방각본 『심청전』을 중심으로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 소설의 변별성을 분석하고, 판소리 사설이 소설적 개작을 거쳐 독서물로 전환된 것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보았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는 판소리 창본과 달리 서사 구조의 합리성과 필연성, 유기성을 지향하

고 시점을 단순화하였으며, 고소설에 나타나는 과거시제 종결법과 사건전환 표지어인 ‘각설이라’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의 유형은 개작의 정도에 따라 ‘판소리의 문학적 특질을 제거하고 서사 구조에 변이가 발생한 것, 서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소리의 문학적 특질이 제거된 것, 판소리의 문학적 특질은 유지하고 서사 구조에 변이가 발생한 것, 일부만 개작이 이루어져 판소리 사설과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누었다.

김현주(1991)는 창본과 방각본 『춘향전』을 비교하면서 판소리와 판소리 창본, 판소리계 소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판소리 문학’을 사용하였다. 또한 판소리 문학의 유형을 구술성과 기술성의 정도에 따라 ‘판소리, 판소리 사설, 구술적 판소리 소설, 기술적 판소리 소설, 문어체 소설’로 분류하였다. 판소리는 구술성은 없지만 ‘말’이라는 표현 매체로 공연되는 것이고, 판소리 사설은 창본과 같이 판소리의 현장성과 연극성, 음악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구술적 판소리 소설은 창본과 완판본, 일부 필사본 소설과 같이 작가가 모방하거나 개작한 것이며, 기술적 판소리 소설은 판소리나 판소리 사설의 이야기를 차용하면서도 문어체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진형(2016)도 판소리 사설의 구술성과 기술성을 분석하여, 소리꾼에 의해 연창되는 ‘판소리’와 필사본이나 판본으로 만들어진 ‘판소리 독서물’을 구분해야 하며, 이 둘을 모두 아우를 때는 ‘판소리 서사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화 되면서 서사 단위의 불필요한 확장과 서사적 모순 및 불일치, 이질적인 개작과 완결성이 결여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김현주(1996)는 19세기 경판과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지역에 따른 독자층의 성향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서울 지역의 독자층은 대체로 서민과 위향인들이었고, 전주 지역의 독자층은 농민층이 많았다고 보았다. 또한 완판본에서는 춘향의 신분이 상향되어 양반과 서민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심봉사는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완판본의 독자들이 양반 문화에 대한 동경과 저항의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정충권(2005)도 19~20세기에 유통된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을 분석하여 판소리계 소설에 유교

적 이념과 민중의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성은 사회적 모순과 지배층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민중의 소박한 삶과 정서를 표현하는데서 나타나는데, 20세기에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인물의 신분 상승과 방자형 인물의 축소, 인물 간의 대립 둔화로 인해 민중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반면에 충, 효, 우애 같은 유교적 이념과 민중의식이 함께 나타나고, 자신의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중성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1.3.4 판소리계 소설의 계통 및 작품론

판소리계 소설의 계통 및 작품론에 대한 연구는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과 서지적 특징, 계통에 따른 분류, 계통별 주제와 구조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동일(1970, 1972)은 판소리계 소설의 구조와 등장인물, 소설에 반영된 사회적 현실을 종합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심청전』은 심청의 효심과 희생의 숭고함을 추구하는 표면적 주제 속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자는 이면적 주제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토끼전』은 고정체계면과 비고정체계면으로 내용 단락을 나누고, 봉건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점에 『토끼전』의 비장미와 골계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김동욱(1965)은 사본과 경판 방각본, 완판 방각본 『춘향전』을 발굴하여 소개하면서, 근원설화가 판소리로 불리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향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여 『춘향전』의 계열을 기생 계열과 비기생 계열로 구분하였다. 완판 방각본은 29장본에서 33장본, 84장본 형태로 점차 확대 간행되었고, 경판 방각본은 35장본에서 30장본, 23장본, 17장본, 16장본의 순으로 간행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설성경(1980, 1994)은 『춘향전』 사본과 간행본 70종을 비교하여 남원고스 계통, 별춘향전 계통, 옥중화 계통으로 구분하였다. 판소리 「춘향가」는 ‘제의(祭儀)로서의 춘향굿 단계, 제의적 연창(祭儀的 演唱)으로서의 춘향소리굿 단계, 판노름 연창으로서의 춘향소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설화가 결합되고 연희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별춘향전 계열

이 형성되었고, 별춘향전 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남원고사 계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판 35장본은 남원고사 계열을 축약한 것이며, 경판 30장과 23장본, 17장본, 16장본은 축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김석배(1992, 1994)는 『춘향전』 사본과 간행본의 주요 대목을 만남과 사랑, 이별, 수난, 재회로 나눠 대목별 변모 양상을 분석하고, 『춘향전』의 계통을 남원고사계, 경판본계, 완판본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완판본 방각업자들이 신재효의 판소리 「춘향가」를 축소, 개작하여 26장본과 29장본을 간행하였으며, 새로운 사설을 추가하고 흥미로운 대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33장본과 84장본을 간행하였다고 보았다. 차충헌(2004)은 한글 필사본 『춘향전』 51종의 내용을 단락별로 비교하여, 완판 29장본 계열과 완판 29장본·33장본 혼합 계열, 완판 33장본·84장본 혼합 계열, 도서관 약속 계열, 몽룡의 춘향 위협 계열, 옥사장 구속 계열, 남원고사(경판) 계열, 완판·남원고사(경판) 혼합 계열, 기타 계열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남원고사(경판) 계열보다는 완판 계열과 완판·남원고사(경판) 혼합 계열에 속하는 이본이 많다고 보았다.

최운식(1982)은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 32종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한남본, 송동본, 완판본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선행하는 판본은 한남본 계열이라고 보았다. 유영대(1989)는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 68종의 내용 및 문체를 분석하여 판소리체 계열과 문장체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판소리 창본을 판소리계 소설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강산제 「심청가」가 방각본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김영수(2001)는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 130종을 완판본 계열과 완판본 이후 계열로 나누었으며, 완판본 계열은 심봉사의 이름에 따라 심맹인, 심팽규, 심운, 심학규 계열로, 완판본 이후 계열은 완판본 필사 계열과 강상련 계열로 구분하였다. 신호림(2016)은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을 장승상 부인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장자 계열, 장자부인 계열, 장승상부인 계열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사단락을 ‘심청의 출생, 성장, 매신(賣身), 인당수행, 투신, 환세, 맹인잔치, 심봉사의 황성행, 부녀상봉 및 개안, 후일담’ 등으로 나눠 각 계열별로 서사 단락과 주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인권환(1991)은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 34종의 결말 부분을 비교하여 토생전 계열, 수궁가 계열, 별토가 계열로 구분하고 이본 간의 상관 관계를 분

석하였다. 『토끼전』의 주제는 사본과 간행본에 따라 충에 대한 권장과 찬양, 봉건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 풍자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수궁과 육지,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는 이원적 서사 구조가 갈등을 고조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여 극적 효과를 높인다고 분석하였다. 김동건(2001)은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 77종의 서지적·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가람A본 계열, 신재효본 계열, 수궁가 계열, 경판본 계열, 연경A본 계열, 가람B본 계열, 기타 계열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계열의 서사 방식과 현실인식 태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적 이념을 추구하는 토끼와 보수적 이념을 추구하는 별주부의 대립이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적 상황에서 당대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보았다. 이진오(2014)는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 77종의 계통을 판소리 「수궁가」와 소설본 「토끼전」으로 구분하고 각 계열의 서사 구조와 문체,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판소리 「수궁가」 계열은 율문 문체를 통해 서사 구조를 확장하고 완판본 「퇴별가」처럼 별주부를 충신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산문 문체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본 「토끼전」 계열은 부도덕한 군주와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는 문장체 소설 계열과 용왕을 성군으로 묘사하고 별주부에 대해 분노와 증오감을 드러내는 율문체(律文體) 소설 계열로 나뉜다고 분석하였다.

류탁일(1980)은 완판 방각소설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춘향전』은 완판 29장본에서 33장본, 84장본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완판 29장본은 1850년~1890년 사이에, 33장본은 1906년 전후에, 84장본은 1906~1916년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심청전』은 완판 71장본 5종을 다가서포 간행본 4종과 서계서포 간행본 1종으로 구분하여 계통을 수립하였으며, 완판 21장본 「퇴별가」는 신재효본 「퇴별가」를 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창현(2000)은 경판 방각소설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경판 『춘향전』은 30장본에서 23장본, 17장본, 16장본 형태로 축소되었으며, 35장본은 독립된 계열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심청전』은 가장 선행하는 판본으로 35장본을 설정하고, 이것을 모본으로 하여 장수를 줄이고 개각한 것이 26장본이라고 보았다. 또한 26장본에서 25장과 26장이 낙장된 형태가 24장A본이고, 24장의 마지막 행 일부가 생략된 것을 24장B본이라고 보았다. 송동

에서 간행된 20장본은 판소리 사설을 토대로 판각한 것이며, 이를 개각한 것이 21장본이라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부터 형성 및 발달 과정,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 및 계통, 소설의 주제와 서사 구조, 소설의 민중성과 대중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고유성과 변별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물 형태의 서사기록물과 판소리 서사체, 판소리 독서물, 판소리 문학 등을 가리키는 대상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 판소리가 독서물로 전환된 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켰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서지학적, 문헌학적 연구는 계통 분석의 근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문헌적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지적 특징에 대한 분석이 치밀하지 못하고 국문학 연구의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일부 고서 목록이나 논문에는 동일한 사본과 간행본의 서지사항이 다르게 기술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실물 자료나 원문 이미지를 열람하지 않고 영인본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자료를 참고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 및 서지적 특징, 보존 상태, 소장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서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대목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변모 양상을 비교하여 사본과 간행본의 계통을 수립한 것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소리계 소설마다 계통을 구분한 기준이 달라서 모든 사본과 간행본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춘향전』은 남원고사, 별춘향전, 옥중화 계통으로 구분하는데 고착되어 다양한 내용으로 개작된 자료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설의 유사성만

가지고 사본의 계통을 너무 세분화하여, 각 계통에 나타나는 특성과 이본 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심청전』은 방각본을 기준으로 계통을 구분하여 방각본보다 먼저 만들어져 유통된 사본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판소리 창본이 판소리계 소설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역할, 성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계열을 구분하여, 같은 계열에 속하는 사본과 간행본 간에 이질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토끼전』은 서사 구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을 기준으로 삼아, 결말과 같은 주요 대목이 다르게 전개되었는데도 같은 계열로 분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본과 간행본 『토끼전』의 공통적인 대목과 특수한 대목을 모두 고려하여 계열을 구분하였지만 나머지 대목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어, 같은 계열로 분류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넷째,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와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민중성과 대중성 측면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적 특징과 소설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여러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영웅소설, 애정소설, 세태소설, 우화소설 등과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대중소설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 및 서지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태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종합하여,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을 같거나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재분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형태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기준으로 계열을 구분할 때, 사본과 간행본 간의 영향관계나 계열 간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해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밝히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Ⅱ.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

19세기~20세기 후반의 조선은 신분 체제의 동요와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양반의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중인과 여성, 평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 참여가 확대된 시기이다. 중인과 여성, 평민층이 경제활동과 문예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민중의식이 담긴 소설과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탈춤 등이 성행하였다(조동일, 1994a, pp.568-621). 특히 민중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면서도 사회적 모순을 풍자한 판소리는 이전 시대부터 여러 계층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던 소설과 접목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성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세책본과 방각본, 신연활자본을 통해 서적의 상업적 유통이 활발해지고 책패와 이야기꾼의 활동으로 독자층이 두터워지면서, 판소리계 소설은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을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 판소리계 소설의 선정과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

2.1.1 판소리의 기원과 전개

판소리는 직업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창자가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창과 아니리로 구성된 사설을 연창하는 예술이다. 창자가 사설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調)를 가르고 창과 아니리를 번갈아가며 소리를 하면, 고수는 창자의 소리에 적절한 장단과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운다(조동일, 1994a, pp.580-584). 사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창자는 고수의 가락에 맞춰 갈등의 전개와 해소 과정에 알맞은 표정, 손짓, 몸짓을 보여준다. 이처럼 판소리는 문학성과 음악성, 연극성을 지니고 있는 종합 연행예술이다.

판소리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17~18세기 사이에 호남 지역의 서사무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는 장형 구비서사시인 서사무가의 장단을 세분화하고 널리 알려진 설화를 수용하여,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민중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개작하면서 성립되었다(조동일, 1994a, pp.569-591).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나 소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창우(倡優) 집단에 유래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판소리는 만화재 유진한(晩華齋 柳振漢)이 호남 지역을 돌아본 후 1754년(영조 30)에 「가사춘향가이백구(歌詞春香歌二百句)」를 지었다는 점에서, 늦어도 18세기 초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이 시기에는 판소리 창자가 악공 집단이나 줄타기, 땅놀음 재인 등 함께 농촌과 어촌, 장터를 돌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공연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차 판소리 창자가 단독으로 공연하거나 전문 음악인과 함께 공연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판소리의 주된 향유층도 중인과 양반 사대부, 왕실의 임금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철, 1996a, pp.57-68).

19세기에는 판소리가 인기 있는 시정문화(市政文化)로 자리를 잡으면서, 널리 인정받은 명창들의 단독 연행이 활발해졌다. 창자들은 도시의 장터에서 청중을 모으기도 하고, 양반들의 문회연이나 지방 수령의 연회, 왕실이나 궁중에 초청을 받아 판소리를 공연하였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최초의 명창으로는 우춘대(禹春大)와 하은담(河殷譚), 최선달(崔先達) 등이 알려져 있다. 송만재가 지은 「관우희」에는 장안의 사람들이 우춘대의 뒤를 이을 소리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습과 우춘대 다음으로 권삼득(權三得), 모흥갑(牟興甲) 등이 어려서부터 명창이었다고 나온다.⁵⁾ 이들은 고수관(高壽寬), 송흥록(宋興祿), 염계달(廉季達)과 함께 19세기 전반기에 두각을 드러냈던 명창이며, 19세기 후반에는 박만순(朴萬順), 박유전(朴裕全), 김세종(金世宗), 이날치(李捺致) 등의 명창이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대행, 2000, p.33.). 고수관과 송흥록은 각각 경상감영과 대구감영에 불려가 연회장에서 소리를 하

4) 『晩華集』 卷1 「行錄」. 先考癸酉春 南遊湖南 歷觀 其山川文物 其翌年春還家 作春香歌一篇.

5) 현종 9년(1843). 「觀優戲」. 장안에서 모두들 우춘대를 일컫는데 오늘날에 그 누가 그 소리 이을꼬. 한바탕 소리에 비단이 천 필인데, 권삼득 모흥갑 아이적부터 명창이었지(長安盛說禹春大 當世誰能善繼聲 一曲樽前千段錦 權三牟甲少年名). (구사회, 김규선, 이대형, 이미라, 박상석, 유춘동. (2013). 『송만재의 관우희 연구』. 서울: 보고사, pp.65-82. 재인용.)

였고, 염계달과 모흥갑은 현종 및 고관대작 앞에서 공연을 하고 명예직 벼슬인 동지(同知)를 제수 받았다. 흥선대원군 집권 후에는 천민 출신의 박만순과 박유전도 선달(先達), 참봉(參奉)의 직위를 받고 서울을 오가며 노래를 불렀다(김종철, 1996a, p.94). 이처럼 하층의 민중예술로 시작한 판소리가 점차 상하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연행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판소리 창자들이 중인층의 시조 관객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가야금이나 거문고와의 병창은 중인이거나 상인들을 판소리의 향유층으로 끌어들이었다. 경제적 부를 축적한 평민들은 연회 자리에 창자를 불러서 판소리를 즐기기도 하였다. 신재효(申在孝, 1812~1884)와 같이 판소리에 대한 식견과 조예가 있는 중인들은 단순한 향유층에 머무르지 않고 비평가이자 후원자, 교육자의 역할도 하였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이나 부녀자들은 경창대회(競唱大會)를 보러 가거나 양반 또는 평민 부호의 집에서 연행되는 판소리를 구경하였다(김종철, 1996a, pp.125-127). 신위의 「관극절구(觀劇絶句)」와 송만재의 「관우희」에는 부녀자들이 담장 너머에 모여 판소리 공연을 보고 듣는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⁶⁾

판소리의 대중적 위상이 높아지자 창자들 사이에는 음악적·지역적 특징에 따라 유파(流波)와 사승(師承) 관계가 형성되었다. 송흥록과 주덕기, 박만순이 부른 판소리는 동편제(東便制)라 하고, 박유전과 이날치가 부른 판소리는 서편제(西便制)라 일컬었다. 이들은 소리 대목의 구성과 장단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더늠을 개발하여 덧붙임으로써, 문학적으로 풍부하고 음악적으로 차별화된 판소리를 공연하였다(유영대, 2000, pp.110-115). 또한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규범을 긍정하였지만 이면적으로는 현실 세태를 해학적·골계적으로 풍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시나 시조, 한문투의 문장과 같은 상층의 문화와 욕설, 비속어, 민요 같은 하층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에 잘 나타난다(김대행, 2000, pp.15-20). 특히 창자들은 양반 사대부의

6) 「觀劇絶句 十二首」 중 제1수. 무대엔 비단이 산처럼 쌓이고 소리 소리 북 울리며 춤을 춘다. 바느질 수놓기에 지친 아낙네 누가 불렀나, 담장 너머 줄지어 섰네(春簇優場錦繡堆. 聲聲動鼓且裴徊. 懶針倦繡庸粧女. 誰喚牆頭一字來). 「관우희(觀優戲)」. 손들어 빙 돌고는 부채 탁 치니 낮은 소리 떨어지는 소리에 우스개도 한다네. 수수한 저 아낙 뉘집 사람인지 살구꽃 담장으로 얼굴 살짝 내밀어네(舉手徘徊一打扇 商沈宮仄笑談閑 誰家墮髮庸粧女 紅杏牆頭露半顏).

취향에 맞는 허두가(虛頭歌)나 단가(短歌)를 지어 판소리 연행에 앞서 유식하고 현학적인 문구를 늘어놓기도 하였다. 특히 신재효는 「광대가(廣大歌)」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인물·사설·득음·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루지기타령」 등 판소리 6마당의 사설을 정리하면서, 잘못 쓰인 문자를 바로잡고 비합리적인 부분과 비속한 표현은 합리적이고 전아한 표현으로 고쳤다. 「춘향가」와 「심청가」는 지나치게 전아하고 수식적인 한문투를 사용하여 판소리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독서물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토끼 타령」은 아전으로서 나름대로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루지기타령」은 남녀 관계의 비속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고 평가받았다. 이 중에서 「춘향가」는 남창(男唱)과 동창(東唱)으로 나뉘어 어린 광대의 수련을 위한 판소리 사설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였다(조동일, 1994a, pp.197-198).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과 당시 유행하던 허두가, 단가 14종은 6권 6책의 필사본 「신오위장본집(申五衛將本集)」(서울대 규장각 소장)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⁷⁾

2.1.2 전승 5가를 중심으로 한 판소리 연행

1843년(헌종 9)에 지어진 송만재의 「관우희」는 아들의 진사시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창우를 부르는 대신에 한시를 지어 아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관우희」에는 줄타기, 땅재주 같은 연희 마당과 함께 판소리 12마당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없지만 한시의 내용으로 볼 때, 제9수는 「춘향가」, 제10수는 「적벽가」, 제11수는 「박타령」, 제12수는 「강릉 매화타령」, 제13수는 「가루지기타령」, 제14수는 「왈짜타령」, 제15수는 「심청가」, 제16수는 「배비장타령」, 제17수는 「웅고집타령」, 제18수는 「가짜신선타령」, 제19수는 「토끼타령」, 제20수는 「장끼타령」이다. 「관우희」에 수록된 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7) 「신오위장본집(申五衛將本集)」은 고종 연간(1863~1907)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각 권의 필체와 필사시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책에는 국한문혼용으로 된 「童唱春香歌」와 「男唱春香歌」, 제2책에는 「심청가」와 「赤壁歌」, 제3책에는 「변강전」과 「治産歌」, 「烏蟾歌」, 제4책에는 「虛頭歌」와 「成造歌」 등 12종의 단가, 제5책에는 「퇴별가」와 「토끼타령」이 수록되어 있다.

제9수 금슬의 꽃다운 시절은 「회진기」를 떠올리게 하며, 광한루에 수의사도 당도하니
정인은 미인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아, 옥에 갇힌 춘향에게 어느덧 봄이 돌아왔다.
제10수 가을비 속에 화용도로 도망친 아만, 말 위 염공 칼을 쥐고 쳐다보니
군졸 앞에서 꼬리 흔들며 아첨하네. 우습구나 간옹이여 오골이 오싹했겠지
제11수 제비가 박씨로 은원을 보답하니 어진 아우 못난 형 분명하구나.
박 속에서 형형색색 보배와 괴물, 툭질 한 번에 소동 한 번 생기는구나
제12수 매화와 이별한 후 눈물 자욱, 돌아오니 소소는 무덤만 남겼네.
어리석은 정 때문에 점차 속임수에 빠져 황혼녘에 혼이 돌아왔나 착각하네.
제13수 관도의 이정표를 패서 땀감 삼으니 완피가 호통치며 꿈에서 성내네.
고은 얼굴 속절없이 산에서 우니 오이밭에서 어리석게 부은 사람 몇이던가.
제14수 장안의 한량으로 알짜패들은 붉은 옷 초립 쓴 우림 패거리
동원에서 술 마시며 놀이판이니 뉘라서 의낭 잡아 여주에 비할까
제15수 효녀가 가난한 아버지 위해 몸 버리고 상선 따라 가서 물귀신 아내 되려 하니
하늘이 연꽃을 보호하고 왕비되어, 잔치 끝에 밝은 눈동자로 부친을 알아보았지
제16수 욕망에 빠져 버려 체면도 상관 않고 기꺼이 상투 자르고 또 이빨을 뽑아서
술자리에서 기생 업은 배비장은 스스로 가소롭게 멍청이 되었네.
제17수 웅생원이 꼭두각시와 싸운 맹랑한 이야기가 맹랑촌에 전하네.
부처님의 붉은 부적이 아니었다면 진짜와 가짜를 누가 분간했으리
제18수 봄날에 어리석은 놈이 신선이 되고자 금강산에 들어가 노승에게 물었네.
천년에 열리는 해도와 천일주를 먹었다고 무엇에 속았던가 가짜 신선들이었네.
제19수 동해의 파신 자라가 사신이 되어 한 마음으로 영약을 찾아나섰네.
알뜰게도 토끼는 말재간으로 간을 넣다 뺏다 할 수 있다고 용왕을 우롱했네.
제20수 푸른 목 붉은 가슴 장끼와 까투리, 목은 발 무덤가의 붉은 팔을 의심하면서도
한 번 꼬다 뒷에 걸려 죽어 가는데 추운 산 마른 가지에는 잔 눈만 녹네

위 한시에는 판소리 12마당의 내용 중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이 잘 드러

- 8) 제9수 「춘향가」 錦瑟繁華憶會眞 廣寒樓到繡衣人 情郎不負名娃節 鎖裏幽香暗返春
제10수 「적벽가」 秋雨華容走阿瞞 髯公一馬把刀看 軍前搖尾眞狐媚 可笑奸雄骨欲寒
제11수 「박타령」 燕子銜瓠報怨恩 分明賢季與愚昆 瓢中色色形形怪 鋸一番時鬧一番
제12수 「강릉매화타령」 一別梅花尙淚痕 歸來蘇小只孤墳 癡情轉墮迷人圈 錯認黃昏返倩魂
제13수 「가루지기타령」 官道松垓斫作薪 頑皮嚙眼夢中噴 紅顏無奈青山哭 瓜圃癡黏有幾人
제14수 「알짜타령」 遊俠長安號曰者 茜衣草笠羽林兒 當歌對酒東園裏 誰把宜娘示視獲驪
제15수 「심청가」 娥孝爺貧愿捨身 去隨商舶妻波神 花房天護椒房貴 宴罷明眸始認親
제16수 「배비장타령」 慾浪沈淪不顧身 肯辭剃髮復捶齷 中筵負妓褻裨將 自是恠侗可笑人
제17수 「웅고집타령」 雍生員鬪一芻偶 孟浪談傳孟浪村 丹籙若非金佛力 疑眞疑假竟誰分
제18수 「가짜신선타령」 光風癡骨願成仙 路入金剛問老禪 千歲海桃千日酒 見欺何物假喬佺
제19수 「토끼타령」 東海波臣玄介使 一心爲主訪靈丹 生僧缺口偏饒舌 愚弄龍王出納肝
제20수 「장끼타령」 靑鞵繡臆雄雌雌 留畝蓬科赤豆疑 一啄中機紛迸落 寒山枯樹雪殘時
(구사회 외 5인, 전게서, pp.65-82. 재인용.)

나거나 극적인 긴장감이 유발되는 대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우희」가 쓰인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판소리 12마당이 창자들에 의해 연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판소리 12마당을 온전히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드물다. 판소리 창이 전해지고 있는 전승 5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는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창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나머지 7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판소리를 듣고 쓴 한시 「관극팔령(觀劇八令)」에는 전승 5가와 「변강쇠가」, 「배비장타령」, 「장끼타령」이 수록되어 있다. 1872년(고종 9)에 정현석이 엮은 『교방가요(敎坊歌謠)』에는 전승 5가와 「강릉매화타령」만 포함되어 있으며,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6마당에도 전승 5가와 「가루지기타령」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승 5가를 포함하여 일부 판소리 마당만 연행되었고, 나머지 7가는 점차 소리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박기홍(朴基洪), 이동백(李東伯), 송만갑(宋萬甲) 등 근대 5명창이 활동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전승 5가를 중심으로 판소리 연행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동현, 2000, pp.130-134).

판소리 12마당 중에서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만 전승된 이유는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내적 요인은 판소리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승 5가는 표면적으로 충효, 우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가는 내용은 비장미와 골계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청중을 웃기고 울리는 두 가지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창을 잃은 7가는 부정적인 유형의 주인공을 내세워 평민들의 세속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인공의 행동과 가치관, 성격적인 결함을 골계적으로 풍자하는데 편중되어 있다(김종철, 1996a, p.44-48). 봉건 사회의 부조리함과 대결하는 인물을 내세워 극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향유층의 소망을 반영했던 전승 5가와 대조적이다. 외적 요인은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판소리 향유층의 취향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창자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 창자들은 판소리를 통해 생

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설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전승 5가는 향유층의 소망을 대신해주는 인물과 극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슬픔과 기쁨, 긴장과 감동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 창자와 청중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판소리는 하층민의 민중예술로 시작하여 상하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연행예술로 발달하였다. 판소리 창자들은 유파 및 사승 관계에 따라 다양한 사설과 더늠을 개발하고 소리 대목의 장단을 세분화하여, 문학적으로 풍부하고 음악적으로 차별화된 판소리를 공연하였다. 특히 전승 5가는 상층의 유교적인 가치관과 하층의 해학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있어서, 20세기 초반까지 양반과 중인, 평민층의 호응을 얻으며 창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행되었다. 전승 5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홍부전』, 『화용도』 등이 세책본과 방각본, 신연활자본으로 모두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이해조가 산정(刪正)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한 판소리 창본 「춘향가」와 「심청가」, 「수궁가」, 「홍부가」 등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점은 당시 전승 5가의 인기와 대중성을 잘 보여준다.⁹⁾ 이처럼 판소리의 발달과 성행은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

2.2.1 소설의 유행과 독자층의 확대

조선 후기의 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한문으로 된 중국소설이 국내에 유입되어 사대부가의 문인이나 아전, 역

9) 이해조는 <매일신보>에 1912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옥중화」라는 이름으로 박기홍 창본 「춘향가」를 연재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강상련」이라는 이름으로 심정순 창본 「심청가」를 연재하였다. 4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의각」이라는 이름으로 「홍부가」를 연재하였으며, 6월 16일부터는 「토의간」이라는 이름으로 심정순, 곽창기 창본 「수궁가」를 연재하였다.

관과 같은 일부 중인층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그런데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의 문인이나 부녀자, 중인, 역관 등에 의해 중국소설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을 익힌 사대부 여성과 중인, 일반 평민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설을 반윤리적이라고 비판하며 금기시했던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소설의 번역본을 모방한 창작 영웅소설이 등장하고, 장편 가문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글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다(장효현, 2002, p.31-50). 독자들은 서책을 직접 필사하거나 빌려 보는 방식으로 소설을 읽었으며, 이야기꾼의 구송(口誦)을 듣는 방식으로 소설을 즐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설의 유행과 독자층의 확대는 사대부 가문의 소설 필사 및 전승과 소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7세기의 소설은 사대부가의 남성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었다. 이 시기의 소설 필사 및 독서는 문예활동에 대한 개인적 욕구보다는 가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풍토에서 이뤄졌다(박영희, 1995, pp.321-340). 조태억(趙泰億, 1660~1722)의 「언서서주연의발(諺書西周演義跋)」과 권섭(權燮, 1671~1759)의 「제선조비수사삼국지후(題先祖妣手寫三國志後)」, 「선비수사책자분배기(先妣手寫冊子分排記)」에는 당시 사대부 가문에서 소설을 필사하여 돌려 읽거나 후손에게 나눠주고 보관하게 했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어머니께서 「서주연의」 열 몇 편을 국문으로 필사해 놓았는데, 그 중 한 권이 없어져 서운해 하셨다. 얼마 후 호고가(好古家)에게 전질을 얻어서 잃어버린 한 권을 채웠다. 얼마 후 여항(閭巷)의 여자가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전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여자가 한 권을 잃어버렸다. …(중략)… 2년 후 내가 아내와 함께 남산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친척 부인에게 책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했더니 책 한 권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그 책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책임을 알고 친척 부인에게 출처를 물었더니, 동네사람이 길에서 주운 것을 자기 친척에게 팔았고, 자기는 그 친척에게 빌렸다고 했다. 아내가 잃어버린 상황을 말하고 책을 돌려 달라고 청하였으며, 친척 부인이 책을 돌려주어서 완전하게 한 질을 채우게 되었다.¹⁰⁾

10) 趙泰億, 『謙齋集』 卷 42 「諺書西周演義跋」. 我慈闈既諺寫西周演義十數編, 而其書闕一筭, 秩未克完, 慈幃常嫌之, 久而得一全本於好古家, 續書補亡, 完了其秩, 未幾有閭巷女從慈幃, 乞窺其書, 慈幃即舉其秩而許之, 俄而女又踵門而謝曰, 借書謹還, 但於途道上逸一筭, 求之不得, 死

「삼국지」 한 책은 조모인 정경부인 함평이씨가 필사한 책이다. 세 권의 책이 있었는데 나의 종친 첨추군(僉樞君)이 병들었을 때 월송숙(越松淑)의 처가 가지고 가서 두 권을 잃어버렸다. 내가 한권을 찾아와 종손 제응에게 부탁하여 장식을 바꾸고 표지를 써서 선필(先筆)의 상자에 넣어 가묘(家廟)에 보관하였다.¹¹⁾

어머니 용인이씨가 필사한 책 중에서 「소현성록」 15책은 장손 조응(祚應)에게 주어 가묘 안에 보관하게 했다. 「조승상칠자기」와 「한씨삼대록」은 내 동생 대간군(大諫君)에게 주었다. 다른 「한씨삼대록」 한권과 「설씨삼대록」은 내 누이 황씨부인에게 주었다. 「의협호구전」, 「삼강해록」은 둘째 아들 덕성(德性)에게 주었다. 「설씨삼대록」은 내 딸 김씨부인에게 주었다. 각 가정의 자손은 대대로 보존함이 가당할 것이다.¹²⁾

위 글에 나타난 사대부 가문의 독서 문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적으로 엄격했던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소설의 필사하여 돌려 읽고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다. 조태억의 어머니와 권섭의 조모인 함평이씨, 어머니 용인이씨는 소설의 독자이면서 동시에 필사자이다. 조태억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어떤 책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있었고, 친척부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책을 빌려주었다. 함평이씨와 용인이씨는 가문의 남성 후손들과 출가한 여성 후손들에게 소설을 나눠주거나 물려주었다.

둘째, 소설책을 귀중한 독서물로 인식하고 보존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조태억의 어머니는 책의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 원본을 빌려 보완했을 정도로 소설을 소중하게 여겼다. 권섭은 종손 제응에게 부탁하여 조모

罪死罪。慈幃姑容之，問其所逸，即向老者續書而補亡者也。秩之完了者今復不完，慈幃意甚惜之，越二年冬，余媳婦僑居南山下，婦適病且無聊，求書於同舍族婦所，族婦乃副以一卷子，婦視之媳前所逸慈幃手書者也。要余視之，余視果然，於是婦乃就其族婦，細訊其卷子所迺來，其族婦云，吾得之于吾族人某，吾族人買之于其里人某，其里人於途道上拾得之云，婦乃以前者見逸狀具告之，且請還之，其族婦亦異而還之。向之不完之秩，又將自此而再完矣，不亦奇歟(張孝鉉，(2002). 『韓國古典小說史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pp.7-8, 재인용.)

11) 權燮, 『玉所稿』雜著 四 「題先祖妣 手寫三國志後」. 右三國志一冊 我祖妣贈貞敬夫人 咸平李氏手書也 凡三冊而我宗僉樞君病昏時 越松淑之妻 持去而失其二 余聞而警駭 推此一冊而來 申囑宗孫濟應 使之整疊. 其裱擢改粧而書其面 納千先筆之箱 藏於家廟中. (박영희, (1995). 장편 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서울: 집문당, p.322, 재인용.)

12) 權燮, 『玉所稿』雜著 四 「先妣手寫冊子分排記」. 先妣贈貞夫人龍仁李氏 手寫冊子中 蘇賢聖錄 大小說十五冊 付長孫祚應 藏于家廟內 趙丞相七子記 韓氏三代錄 付我弟大諫君 韓氏三代錄又一件 薛氏三代錄 付我妹黃氏婦 義俠好速傳 三江海錄 一件 付仲房子德性 薛氏三代錄 付我女金氏婦 各家子孫世世善護 可也. (상계서, p.322, 재인용.)

인 함평이씨가 필사한 책을 새로 장정하고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머니 용인이씨가 필사한 책을 동생과 누이, 아들과 딸에게 분배하면서 잘 보존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셋째, 중국소설을 번역한 연의(演義)류 소설과 장편 가문소설을 주로 읽었다. 이 소설들에는 양반 사대부가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이 지켜야 할 윤리 덕목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교훈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박영희, 1995, pp351-358). 독자들은 『서주연의』와 『삼국지』 같은 연의류 소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소현성록』과 『한씨삼대록』, 『설씨삼대록』 같은 가문소설은 사대부 집안의 현실과 닮아 있어서 깊은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사대부가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소설을 읽고 필사하여 후손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문의 기틀을 다지고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또한 지적인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 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희를 목적으로 소설을 읽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설의 인기는 여성들이 소설에 탐닉하는 세태를 지적한 체제공(蔡濟恭, 1720~1799)의 「여사서서(女四書序)」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사소설(士小節)」 부의(婦儀) 편에 잘 나타나 있다.

근래에 부녀자들이 능사로 삼는 일은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것뿐인데,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천여 종에 이르렀다. 왜가(儂家)는 이것을 깨끗하게 필사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값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였으며, 부녀자들은 생각 없이 비녀나 팔지를 팔거나 빗을 내서라도 다투어 빌려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음식을 만들고 바느질해야 하는 책임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기 일쑤다.¹³⁾

한글로 번역한 전기(諺譚傳奇)에 빠져 읽어서는 안 된다. 집안일을 내버려두거나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주고 빌려 보면서 깊이 빠져 그만두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까지 있다. 투기와 음란한 내용이 있어서 부인의 방탕함과 방자함이 여기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간교한 무리들이 염정의 이야기나 기이한 일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⁴⁾

13) 1824년(순조 24) 간행. 『樊巖先生文集』권 33 「女四書序」. 竊觀近世閨閣之競以爲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千百其種 儂家以是淨寫 凡有借覽 輒收其直 以爲利 婦女無見識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賁來 以消永日 不知有酒食之議 組紉之責者 往往皆是 夫人獨能不屑爲習俗所移 女紅之暇間 以誦讀 則惟女書之可以爲範於閨壺者耳.

위 글에서 체제공과 이덕무는 공통적으로 부녀자들이 본래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소설을 빌려 읽는데 빠져 있다고 우려하였다. 체제공이 말한 ‘패설’과 이덕무가 말한 ‘한글로 번역한 전기’는 바로 소설을 가리킨 표현이다. 심지어 부녀자들이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고 소설을 빌려 읽기 위해 귀금속을 팔거나 빚을 내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버릴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체제공은 왜가에서 소설을 깨끗하게 필사하여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부녀자들이 소설 읽기에 빠져 날이 갈수록 소설의 종류가 늘어가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왜가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거나 대여해주는 서적중개상 책패(冊僇)의 집(이민희, 2007a, p.125)으로, 18세기 중반에는 한 장소에 머물면서 소설을 필사하여 빌려주고 이윤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가 남녀 간의 애정이나 기이한 이야기로 여성 독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한 ‘간교한 무리’도 왜가나 세책가, 서적중개업자를 가리킨 표현으로 보인다. 왜가를 세책가라고 보기에겐 무리가 있지만 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서적중개업이 성행하였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 독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2.2.2 세책의 등장과 소설의 상업화

세책은 세책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책을 말한다. 세책가에서는 주로 한글본 소설과 노래책을 취급하였으며, 주된 독자층은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와 궁녀, 경제적 부를 축적한 평민층의 여성이었다(이윤석, 정명기, 2003, pp.41-43).

세책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세기 중반에 이미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술한 체제공의 「여사서」 서문과 이덕무의 「사소절」 부의 편에는 여성들이 본래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소설을 빌려 탐독하는데 빠져 있는 세태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책업의 규모와 운영 실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8세기 중반에 여성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소설책을 빌려 읽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세책 소설은 유교사

14) 1795년 간행(정조 19) 간행. 『靑莊館全書』 권 30 「士小節」7. 婦儀 1. 諺讖傳奇, 不可耽看, 發置家務, 怠棄女紅. 至於與錢而貰之, 沈惑不已, 傾家產者有之. 且其說皆妬忌淫亂之事, 流宕放散, 或由於此. 安知無奸巧之徒, 鋪張艷異之事, 挑動歆羨之情乎.

회의 엄격한 규율에 속박되어 억눌린 채 살아왔던 여성들이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통로였다(이민희, 2007b, p.19). 당시 세책본으로 유통되던 소설은 이덕무가 언급한 ‘언변전기(諺變傳奇)’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들어와 한글로 번역된 연의소설이나 전기소설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창작된 『구운몽』, 『숙향전』, 『임경업전』 등도 세책본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설들은 흥미성과 교훈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체제공이 세책의 종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천백가지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당시 세책업자들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세책소설들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세책과 세책업의 인기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도 지속되었다. 19세기 말에 조선에 머물렀던 일본인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와 프랑스 외교관으로 재직했던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기록에는 당시 세책업의 운영 실태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조선에는 세책가가 있는데, 대개 언문으로 쓰인 이야기책이 있다. 조선인이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서유기」, 「수호전」, 「서상기」 등 중국소설을 언문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 책을 빌리려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세책가에 가져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빌려 온다. 요금은 한 권당 2~3일 기한으로 2, 3리(厘) 정도이다. 세책가에서 빌려주는 책은 시정에서 파는 것처럼 조악하지 않다. 폭이 넓고 긴 종이에 선명하게 붓으로 찍어져 있으며, 책을 읽기가 대단히 편하다. 책사도 세책가도 서울에만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평양, 송도와 같은 도시에도 세책가가 전혀 없다고 한다.¹⁵⁾

세책가에서는 소설이나 노래 같은 책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거의 한글판 인본이나 사본이다. 이곳에 있는 책들은 잘 간수되었고, 책방에서 파는 것보다 양질의 종이에 인쇄되었다. 주인은 10분의 1, 2분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빌려주며, 돈이나 물건으로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돈 몇 냥, 운반하기 쉬운 화로나 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장사가 서울에 예전에는 많았으나 점점 희귀해진다고 몇몇 한국의 사람들이 일러주었다. 나는 송도, 대구,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¹⁶⁾

15) 이윤석, 정명기. (2003). “새책 고소설 연구의 현황과 과제”, 『蕢冊 古小說 研究』, 서울: 해안, pp.51-52. 재인용.

위 글에 나타난 세책가의 특징과 운영 실태를 종합해보면, 당시 세책가는 한글로 된 방각본과 사본, 중국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책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 도시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독자들은 물건을 담보로 맡기거나 저렴한 요금을 내고 질적으로 우수한 책을 빌려 볼 수 있었다. 이해조는 1910년(융희 4)에 간행된 『자유종』에서 세책의 내용이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종이에 주옥같은 글씨로 쓰였으며 전국 각처에 세책이 없는 집이 없다고 설명하였다.¹⁷⁾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세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세책의 인기는 20세기 초반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책업자들은 하나의 대본을 놓고 필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설을 만들었다. 먼저 상업적 판매를 위해 널리 알려져 친숙하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울 지역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본이나 방각본을 기초 대본으로 삼고, 소설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본이나 방각본을 참고 대본으로 하여 필사하였다(유광수, 2010, pp.465-470). 또한 섬세하고 우아한 한글 서체와 고급스러운 장정(裝幀)을 통해 시장성과 대중성을 가진 상품화 된 세책 소설을 만들었다. 현전하는 세책 소설은 대부분 2권 이상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으로 집게 되는 부분은 글자가 지워지는 것을 대비하여 1~3자 정도 빈칸으로 두었다. 각 장의 전면 상단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권말의 필사기는 세제(歲在) 다음에 필사한 해의 간지와 달, 세책점이 있던 동네의 이름이나 상호명을 표기하였다(이운석, 정명기, 2003, pp.45-48).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전문 세책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책 소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전하는 세책 소설은 모두 59종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필사된 것이다. 『삼국지』, 『수호지』처럼 중국소설을 번역한 연의류 소설부터

16) Maurice Courant. (1894).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s.n, 이희재 역. (1994). 『한국서지』. 서울: 일조각, pp.3-4.

17) 제반악징의 괴괴망칙흔 말을 다 국문으로 기록하야 출판흔 판칙도 만고 등출흔 세책도 만아 경향 각처에 불췌 췌여 빅이듯 업는 집이 업스니 그것도 오거셔라 평싱을 보아도 못다보요 ... (중략)... 그칙을 나도 여간 보앗거니와 도흔 죠희에 주옥 갓흔 글시로 세세성문하야 ... (중략)... 빅히무리흔 그칙을 갑을 주고 사며 세를 주고 엇더보니 그 돈은 헛돈이 아니요(이해조, 1910년(융희 4). 『자유종』. 경성: 대한황성광학서포, pp.11-12.)

『유충렬전』, 『임경업전』, 『소대성전』 같은 영웅소설,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같은 판소리계 소설 등이 전해지고 있다. 연대별로 나뉘보면, 1860년대 1종, 1870년대 1종, 1890년대 16종, 1900년대 60종, 1910년대 12종으로 확인되었다(정명기, 2001, 456-466). 1900년대까지는 세책이 방각본과 함께 활발하게 유통되다가 신연활자본 고소설이 간행된 1910년대 들면서 점차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기를 통해 확인된 세책가의 상호명이나 동네 이름은 20여 곳으로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항목동에 필사된 책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 7종, 향슈동 6종, 익현과 약현 5종, 사직동과 농서, 한림동, 안현이 2종으로 확인되었다. 누동과 묘동, 토정, 송교, 갑동, 광신희지전택, 남쇼동, 동호, 파곡, 청파, 간동, 옥동, 운곡 등은 1종으로 확인되었다(정명기, 2001, p.470).

세책 소설에는 책을 빌려간 독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단순한 감상을 적은 글부터 글자 연습, 오탈자와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 음담패설, 세책점 주인에 대한 욕설과 비난까지 다양한 낙서들이 적혀 있다. 이러한 낙서의 내용으로 볼 때, 현전하는 세책 소설의 독자들은 대체로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일반 부녀자보다는 서민층의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이민희, 2007b, pp.64-68). 1900년대 초반에 항목동에서 작성한 세책 대출장부에 기록된 대여자들의 신분이 관료층과 상인층, 군인층이 많고 여성층이 적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세책 장부에는 세책집에서 책을 빌려주고 반납할 때까지 일련의 대출 관계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작품의 제목과 대출한 권차, 대출자의 이름 및 주소, 직업 및 직책, 대출 날짜, 담보물의 명칭, 외상 기록 등 대여자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장부에 기재된 대출자는 모두 1,700명이고 그중에서 전·현직 관료층 대출자가 약 1,430여건(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인층은 700여 건(17%), 군인층은 240여건(6%), 천민층은 60여건(1%)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대출자는 56건(1.3%)으로 확인되었다(전상욱, 2008, p.245-251). 물론 이 대출장부만 가지고 세책 이용자들의 신분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18세기 중반에는 양반 사대부와 부호층의 여성들이 주로 세책을 이용하였는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여성 대출자가 줄어들고 남성 대출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층민뿐만 아니라 하층민들도 세책가를 드나

들며 책을 빌려 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세책 소설은 일부 계층의 독서물에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물로 정착되어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화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2.3 방각본 및 신연활자본 소설의 간행과 대중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간행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한글본이 많다는 점에서 소설의 상업화와 대중화를 가속화시켰다.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소설이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으로 간행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이창현, 2005, pp.238-249).

방각본은 민간에서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서적을 말한다. 초기의 방각본은 1576년(선조 9)에 간행된 한문본 『고사촬요(攷事撮要)』와 1637년(인조 15)에 간행된 『사서언해(四書諺解)』¹⁸⁾처럼 학문 수양과 학습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서적이 주를 이루었다(천혜봉, 2007, pp.250-253). 그런데 소설의 인기가 높아지자 세책가에서 필사한 책으로는 독자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방각본을 간행했던 방각업자들도 소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방각본 소설은 1725년(영조 1) 나주 오문(午門)에서 간행된 2권 2책의 금성판(錦城板) 한문본 『구운몽(九雲夢)』과 이를 번각하여 1803년(순조 3)에 간행된 6권 3책의 완판본 『구운몽』이다.¹⁹⁾ 한글로 된 방각본 소설은 1780년(정조 4)에 경기(京畿)에서 간행된 경판본 『임경업전』과 1823년(순조 23) 석구 부락에서 간행된 완판본 『별월봉기(別月峯記)』 등이 있다. 이후 방각본 소설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상업이 발달하고 종이나 목재, 각수, 물 등의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서울과 안성, 전주를 중심으로

18) 『고사촬요』의 권말에는 ‘1576년 7월에 수표교 아래 북쪽 수문 입구에 있는 하한수의 가각판을 사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라(萬曆四年七月日 水標橋下 北邊二第里門入 河漢水家刻板 買者尋來)’는 간기가 있다. 『사서언해』의 권말에는 ‘맹자언해는 청탁이 갖추어져 아름답다. 가난한 선비들은 비싼 가격을 병통으로 여겨 분량을 줄여 썼다. 승정10년 정축년 간행(時用孟子諸解 清獨具備 盡美矣 窮儒寒士 病其價重 故略書如左 崇禎十年丁丑月日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19) 1725년(영조 1) 간행본의 하권 말미에는 ‘승정 이후 두 번째 맞는 을사년에 나주 남문에서 새로 찍다(崇禎再度乙巳錦城午門新刊)’는 간기가 있다. 1803년(순조 3) 간행본의 6권 말미에는 ‘崇禎後三度癸亥’는 간기가 있다.

간행되었다.

서울 지역에서 간행된 경판본 소설은 영웅소설과 중국 변안소설, 역사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우화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 52종이 전해지고 있다. 간기를 통해 확인된 방각소는 모두 19곳으로, 경기, 광통교, 남곡, 동현, 미동, 무교, 송동, 석교, 석동, 어청교, 유동, 야동, 유천, 자암, 합동, 홍수동, 화산, 화천, 효교 등이 있다(이창헌, 2000, pp.445-460). 경판본의 자체는 대체로 흘림체이며, 전체 분량은 소설의 내용을 축약하여 20~30장 내외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간행비용을 낮추기 위해 장수를 10~20장으로 줄였으며, 종이의 질과 인쇄 상태도 떨어지게 되었다.

안성 지역에서 간행된 안성판본 소설은 경판본 소설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한 판본이 많다.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등 15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간기와 판권지를 통해 확인된 방각소는 안성동문이방각소와 북촌서포, 박성칠서점 등 3곳이 있다. 안성판본의 자체는 경판본과 같이 대체로 흘림체이지만 글자의 판각 및 인쇄 상태는 경판본에 비해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다.

전주 지역에서 간행된 완판본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과 영웅소설, 가정소설, 세태소설 등 21종이 전해지고 있다. 간기와 판권지를 통해 확인된 방각소는 7곳으로, 완남과 완서, 서계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책방, 완흥사서포 등이 있다. 이 방각소들은 주로 상품 교역이 활발했던 전주 사대문 밖의 시장과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이태영, 2018, pp.145-168). 완판본의 자체는 대체로 크고 넓은 형태의 정자체가 사용되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또한 판소리 사설과 다양한 삽입가요를 많이 수용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분량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과 안성, 전주 지역의 방각업자들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방각본 소설을 간행하였다. 먼저 독자층의 요구와 취향을 고려하여 필사본 소설을 선정하고, 서사 구조를 고정시키거나 획일화한 후 방각본으로 간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미 출간된 방각본 소설 가운데 독자층의 수요가 많고 상업적인 이윤을 많이 남긴 판본을 선정하여 재출간하였다(서혜은, 2017, pp.45-56). 이 과정에서 경판 방각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구나 문장을 축약하고, 면당 행자수를 늘려서 전체 분

량을 줄이기도 하였다. 간행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내림으로써 더 많은 서민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소설이 유통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완판 방각업자들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설이나 삽입가요 등을 추가하여 소설의 분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문학적으로 풍부하고 흥미있는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경판본 소설은 분량을 줄이고 간행비용을 낮춰서 상업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작하여 대중성을 얻게 된 반면에 완판본 소설은 독자들의 흥미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고 문학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작하여 대중성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883년(고종 20)에 박문국(博文局)에서 새로 도입된 신연활자를 이용하여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행하였다. 이어 1884년(고종 21)에 광인사(廣印社) 인쇄소가 신연활자 인쇄 시설을 갖추고 책을 출간하면서 점차 근대적인 인쇄술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천혜봉, 2007, p.408). 이를 계기로 하여 출판사와 인쇄소가 늘어나고, 신문과 잡지, 단행본을 대량으로 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서적의 상업화와 대중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출판사마다 정가제와 우편통신 판매 제도를 시행하여 서적 간행 및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독자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작자나 발행자, 편집검발행자 등 저작권 관련사항을 판권지에 명시하여, 다른 출판사의 간행물과 차별화하고 광고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이주영, 1998, pp.77-84).

신연활자본 출판사들은 1909년(융희 3)에 「출판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간행물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사전·사후 검열을 받아야 했다. 출판 전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날인한 원고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판 후에는 책 2부를 납본해야만 했다. 당시 출판사들은 큰 인기를 누리던 역사전기소설과 신소설의 출판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검열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문 서적이거나 종교 서적, 노래책이나 점술책 같은 대중오락 서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08년(융희 2)에 발행된 「중앙서관발태서목(中央書館發兌書目)」에는 역사전기 40종, 신간소설 23종이 간행되었다고 나오는데, 1914년에 발행된 「신문관발태서적총목록」에는 역사전기가 28종으로 줄어들고 신구소설이 147종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다(이주영, 1998, pp.43-44). 신구소설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신소설에 비해 쉽게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고소설들이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소설들은 세책본과 방각본을 통해 상업성과 대중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독자층을 확보하고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적합한 상품이었다.

신연활자본 고소설에는 국내외의 고전소설과 그것을 개작한 소설, 고전이나 역사에서 유래한 서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등이 있다(최호석, 2013a, p.227). 1906년(광무 10)에 박문사(博文社)와 대동서시(大東書市)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서상기(西廂記)』를 시작으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61개 출판사에서 250여종이 간행되었다. 출판사별 발행횟수는 신구서림이 13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동서관 93회, 박문서관 91회, 덕흥서림 80회, 대창서원 72회, 영창서관 51회, 경성서적업조합 49회, 유일서관 46회, 한성서관 46회, 광동서관 34회, 조선도서주식회사 31회, 조선서관 30회 순으로 나타났다(이주영, 1998, p.40). 출판업자들은 주로 판소리계 소설과 영웅소설, 군담소설, 중국소설의 번역소설 등을 간행하였다. 간행 횟수는 『춘향전』이 10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청전』 49회, 『조웅전』 46회, 『적벽대전』과 『옥루몽』 45회, 『유충렬전』 41회, 『삼국지』 34회 등으로 나타났다(최호석, 2013b, p.286). 특히 판소리계 소설은 「獄中花(春香歌演訂)」가 17판, 「강상련(江上蓮)」이 12판, 「兎의 肝(별주부가)」이 4판까지 간행되었을 정도로 당시 큰 인기를 누렸다.

신연활자본 고소설의 간행과 유통은 소설의 대중화와 독자층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방각본 소설이 쇠퇴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방각본은 각수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신연활자본은 활판 인쇄를 통해 표준화된 내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게다가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채색표지화와 소설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삽화는 독자들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출판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연활자본의 간행 비용과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내용을 축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표제와 일부 내용만 달리하여 여러 출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행하거나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판본을 표지만 바꿔서 재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신연활자

본 고소설도 경판본처럼 질적으로 떨어지는 책이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점차 독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2.2.4 책패 및 이야기꾼의 활동과 소설의 대중화

방각본과 신연활자본 고소설의 간행 및 유통은 문학의 대중화를 통해 누구나 독서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의 주된 독자층은 출판시장이 형성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었다.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과 중인, 서민들은 책패나 행상을 통해 소설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었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한글을 모르거나 책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하층민들은 주로 길가나 장터에 모여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구연하는 소설을 들었다.

책패는 독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서적과 소설을 구해주고 이득을 취하던 개인 또는 집단 서적중개상을 말한다. 이들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작가와 독자, 출판업자를 이어주는 제4의 문학담당층 역할을 하였다. 책패는 서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민이나 중인, 몰락한 양반들이 하였다. 이들은 주로 양반 사대부나 부호층의 집을 방문해 서적을 공급해주고 대가를 받았다. 또한 동서양의 서적을 번역하거나 편술(編述)한 책들을 양반이나 서원 등의 상층 독자층과 서리, 군관 등의 하층 독자층에게 판매하였다(이민희, 2007a, pp.19-30.). 유재건(劉在建, 1793~1880년)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는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서적중개상 조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생은 해만 뜨면 저자 거리로, 골목으로, 서당으로, 관청으로 달렸다. 위로 높은 벼슬아치부터 아래로 소학을 읽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달리는 것은 나는 듯했고, 그의 가슴과 소매에 가득한 것은 책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사는 곳을 알지 못했고, 밥 먹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벼룩 한 벌, 짙은 한 결레로 달리면서 계절과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²⁰⁾

20) 實是學舍 古典文學研究會. (1997). 『里鄉見聞錄』. 서울: 민음사, p.468.

위 글에서 조생은 1년 내내 벼웃 한 벌과 짚신 한 켤레로 버틸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 조생은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장터와 서당, 관청을 오고가며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책을 판매하였다. 이처럼 책패들은 상업 체계가 발달하고 서적의 수요가 늘어나자 조생과 같이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전국의 장터를 돌아다니며 서민 독자들에게 책을 팔았다(이민희, 2007a, pp.73-77). 특히 책패들은 세책업과 방각본 출판이 발달하지 못한 지방 소도시나 농촌을 찾아다니며 서적 유통과 독자층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8~19세기의 소설은 강담사 또는 강독사라고 불리는 직업적인 이야기꾼을 통해 구연의 형태로도 유통되었다. 강담사는 흔히 ‘이야기보따리, 이야기주머니’라고 불리던 자들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고, 강독사는 소설을 청중에게 낭독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다(임형택, 1974, pp.2-9). 특히 강독사들은 집을 방문하여 개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고, 길거리나 시장의 가게에서 상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소설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의 내용을 청중의 기호에 맞게 개작하거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하여 구연하였다. 때로는 표정과 몸짓을 곁들여 실감나게 표현하여,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임동철, 1997, pp.27-38).

직업적인 이야기꾼은 자유롭게 시장을 드나들 수 없는 사대부 가문의 여성과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책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독자들에게 소설과 서적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책패가 유형의 서적을 상층의 여성이나 지식인 독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직업적인 이야기꾼은 무형의 이야기를 상층과 하층의 청자 모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이민희, 2007a, p.145). 그러나 신분과 계층에 따라 소설을 듣는 방식과 장소에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가의 남성과 여성, 부호들은 직업적인 이야기꾼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으며, 돈을 주고 책을 빌려보기 어렵거나 한글을 모르는 하층민들은 길가나 장터의 담뱃가게, 밥집 등에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구수훈(具樹勳, 1685~1757)의 「이순록(二旬錄)」과 『청구야담(靑邱野談)』에 수록된 「실가인수탄박행(失佳人數歎薄倖)」에 잘 나타나 있다.

몇 년 전에 한 쌍놈이 여나무 살적부터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분화장을 하고서 여인 언서체(諺書體)를 익히더니 패설을 잘 읽어 목소리조차 여인과 닮이 없었다. 그가 홀연 자취를 감추었는데 실은 여자로 변복(變服)을 하고 사대부가에 출입하며, 혹은 진맥을 한다, 혹은 방물장수를 한다, 혹은 패설을 읽는다 일컬으며 한편으로 여승과 결탁하여 불공 기도를 드려주기도 하였다. 사대부의 부녀자들이 그를 보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 판서 장봉익은 이를 탐지하고 그를 죽여서 입을 막아 버렸다.²¹⁾

이업복은 겸인(僉人)의 부류이다. 아이적부터 언문소설책을 맏시있게 읽어서 그 소리가 마치 노래하는 듯, 원망하는 듯, 웃는 듯, 슬퍼하는 듯하였다. 때로는 호탕하여 걸출한 무사의 형상을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곱고 예쁜 계집의 아름다운 자태를 짓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그 책의 내용에 따라 그 태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의 부호들은 그를 불러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들곤 했다.²²⁾

「이순록」에는 여장을 하고 사대부가의 규방에 드나들며 소설을 읽어주었다는 상놈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꾼은 분장과 변복을 하고 실감나는 목소리로 소설을 구연하였다. 부녀자들이 이야기꾼을 지나치게 좋아하자 판서 장봉익이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이야기꾼을 죽였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이야기꾼이 집을 방문하여 소설책을 읽어주었던 정황은 「실가인수탄 박행」에도 잘 나타난다. 이업복은 양반가의 잡일을 처리하고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한글소설을 읽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다양한 소리와 표정으로 소설을 실감나게 읽었으며, 무사의 형상이나 여인의 자태를 몸짓과 행동으로 연기하였다. ‘상놈’과 ‘이업복’처럼 천한 신분의 이야기꾼이 사대부나 부호의 초대를 받았을 정도로, 당시에 전문적인 이야기꾼을 집으로 불러 소설 구연을 보고 듣는 행위가 상당히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집(秋齋集)』 「기이(紀異)」편에는 전문

21) 具樹勳. 「三句錄」. 『大東轉杯』. 서울: 국학자료원, pp.452-453. “頃年一常漢, 自十餘歲, 畫眉粉面 習學女人諺書體, 善讀稗說, 聲音如女人矣. 忽不知去處, 變爲女服, 出入士夫家, 或稱知脈, 或稱方物興商, 或以讀稗說, 且締結僧尼, 供佛祈禱. 士夫婦女之見之者, 莫不愛之, 或與同宿處, 因作行淫. 張判書鵬翼知之, 鉗其口殺之.”

22) 『靑邱野談』 권4 「失佳人數歎薄倖」. 李業福 僉輩也 自童稚時 善讀諺書稗官 其聲 或如歌 或如怨 或如笑 或如哀 或豪逸而作傑士狀 或婉媚而做美娥態 蓋隨書之境 而各逞其態也 一時豪富之流 皆招而聞之”. (이우성, 임형택. (1973). 『이조한문단편집』. 서울: 일조각, p.241. 재인용.)

적인 이야기 능력을 갖춘 전기수(傳奇叟)가 동네 입구나 다리 밑에서 한글 소설을 구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기수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같은 언문 소설책을 잘 읽는다. 매달 초하루는 제일교 아래, 초이틀은 제이교 아래, 초사흘은 배오개, 초나흘은 교동 입구,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 초엿새는 종각 앞에 앉는다. …(중략)…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다시 아래로 옮겨 한 달을 마친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하였다. 책을 잘 읽기 때문에 구경하는 이들이 겹겹이 둘러싼다. 그는 가장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면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회를 듣고자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를 일컬어 요전법이라 한다.²³⁾

위 글에 따르면, 전기수는 주로 주인공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가는 영웅 소설이나 군담소설, 판소리계 소설을 구연하였다. 이들은 한 달 간격으로 고정된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네 입구나 다리 밑에서 소설을 구연하였다. 특히 전기수는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는 구연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전법(邀錢法)을 사용하였다. 청자들은 전기수의 말솜씨에 더욱 몰입하여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정조대왕실록(正祖大王實錄)』과 심노승(沈魯崇, 1762-1837)의 『효전산고(孝田散稿)』에는 소설 구연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흥 사람 신여척이 이웃집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발로 차서 죽게 하였다. …(중략)… 항간에 이런 말이 있다. 종로거리 담배 가게에서 야사를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한 대목에 이르러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뿜으며, 폴 베틀 칼을 들고 곧바로 달려들어 책 읽는 사람을 찔러 그 자리에 선 채로 죽게 하였다고 한다. 때때로 맹랑한 죽음도 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²⁴⁾

23) 趙秀三, 『秋齋集』, 권7, 「紀異」, 傳奇叟. 叟居東門外. 口誦諺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溯上既, 自七日, 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 而以善讀故, 傍觀匝圍, 讀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欲聽其下回, 爭以錢投之, 曰此乃邀錢法云.

24) 1790년(정조 14) 『正祖大王實錄』, 권31, 14년, 庚戌 8월 戊午 3번째 기사. 長興人申汝倜, 見隣人兄弟相鬩, 奮身踢之, 至死. 刑曹請訊推置法. 判曰: "諺有之, 鍾街烟肆, 聽小史稗說, 至英雄失意處, 裂眦噴沫, 提折草劍直前, 擊讀的人, 立斃之

덕삼이가 「임장군전」이라 하는 언문소설을 가지고 왔으나 그는 치통 때문에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였다. 내가 그것을 취하여 등불 아래에서 보니 사적이 어그러지고 말이 비루하여 잘못되거나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이것은 서울의 담배 가게, 밥집의 파락악소배(破落惡少輩)들이 낭독하는 언문소설이다. 예전에 어떤 이가 김자점이 장군에게 없는 죄를 씌워 죽이는 대목에 이르자 분기가 솟아 올라 담배 썬 큰 칼을 잡고 미친 듯이 낭독자를 베면서, ‘네가 자점이더냐?’라고 말하니, 같이 듣던 시장 사람들이 놀라 달아났다고 한다.²⁵⁾

위 글은 종로의 담뱃가게에서 소설을 듣던 사람이 이야기꾼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정조대왕실록』은 1790년(정조 14)에 장흥 사람 신여척(申汝僖)의 살인죄를 기록한 대목으로, 종로 담뱃가게에서 소설책을 읽어주다가 죽게 된 이야기꾼을 예로 들며, 허망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심노승의 『효전산고』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담배를 썬 칼로 이야기꾼을 베자 시장 사람들이 놀라 도망쳤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시장 사람들은 주로 장터에 나온 평민이나 천민, 물건을 파는 장사꾼으로, 한글을 모르거나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인다. 『정조대왕실록』과 『효전산고』의 기록에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청자들이 이야기꾼의 소설 구연에 깊이 몰입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소설은 일부 계층의 지적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서물로 시작하여 세책본과 방각본, 신연활자본 등으로 만들어져 유통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은 한글본이 많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소설의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책패와 이야기꾼은 소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양반과 중인부터 한글을 모르거나 형편이 어려운 하층민까지 독자층이 확대되는

25) 沈魯崇, 『孝田散稿』 7책. 1802년 11월 8일조. “村中得諺書 所謂林將軍傳 德三持 而爲通齒 聲不堪聞 燈下 余輒取覽 事蹟謬舛 詞理陋錯 不成爲說 此是京裡草市饌肆破落惡少輩所讀諺傳 昔有一人聽讀此 至金賊自點構殺將軍 氣憤憤衝起如狂 手引切草長刀 斫讀者曰 汝是自點耶 一市駭散.” (김영진, (1996).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소설의 상업적 유통과 대중화는 판소리계 소설이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즉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를 소설 형태로 개작하여 즐기고 싶었던 일반 독자들과 소설을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2.3 판소리계 소설의 선정과 현황

2.3.1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고유성 및 변별성, 판소리 사설의 소설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졌다. 김석배(1985)는 창본의 기능이 약화되고 독서물의 성격이 강해진 구독물 형태의 서사기록물이라고 보았고, 김현주(1991)는 판소리 사설을 모방하고 개작한 정도에 따라 구술적 판소리 소설과 기술적 판소리 소설로 나누고 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판소리 문학을 제시하였다. 임동철(1997)은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변이 과정이 판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야기꾼과 세책가, 방각업자에 의해 판소리 사설이 개작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최정락(1998)도 판소리 사설이 소설적 개작을 거쳐 독서물로 전환되었다는 관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최진형(2016)은 소리꾼에 의해 연창되는 판소리와 필사본이나 판본으로 만들어진 판소리 독서물을 구분해야 하며, 둘을 모두 포함할 때는 판소리 서사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 연구들은 판소리 사설이 개작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독물 형태의 서사기록물과 판소리 서사체, 판소리 독서물, 판소리 문학을 가리키는 대상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 판소리가 독서물로 전환된 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이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변이 과정에서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판소리계 소설들이 대체로 1860~1940년대 사이에 필사 및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 형태의 판소리계 소설로 만들어져 유통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 창자들은 사설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사본 형태의 소리책을 만들었다. 소리책은 창자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새로운 더늠을 개발하여 첨가하고, 각 소리대목마다 고수의 장단을 표시한 것이다(배연형, 2008, p.39). 학계에서는 ‘판소리 창본’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둘째, 판소리 공연을 보고 흥미를 느낀 청중이나 판소리 창본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들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돌려 읽기 위한 목적으로 판소리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본 역시 판소리 사설을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학계에서는 소리책과 더불어 ‘판소리 창본’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셋째, 판소리의 인기를 눈여겨 본 세책업자들은 상업적인 대여를 목적으로 소설 형태의 세책본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었다. 세책업자들이 직접 개작과 필사를 담당하였거나 아니면 세책업자가 개작한 내용을 전문 필사자에게 의뢰하여 세책본을 만들었다. 세책본이나 판소리 창본을 읽은 일반 독자들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돌려 읽기 위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로 개작한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었다. 특히 이야기의 개작은 단순한 어구나 문장의 부연과 첨가, 축약부터 구성과 등장인물, 사건 전개, 결말의 재구성까지 소설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방각업자와 출판업자들은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방각업자들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본이나 판소리 창본을 개작하여 방각본으로 간행하였고, 출판업자들은 상업

성이 검증된 방각본을 모본으로 하여 신연활자본을 간행하였다.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한글본으로 간행된 책이 많아서, 판소리계 소설의 대중화와 독자층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형성 및 발달 과정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을 ‘창자가 연행하던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되어 독서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형태의 소설로 개작된 문학작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유통된 고소설

둘째,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 변이가 판소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소설

셋째, 판소리 사설이 개작을 거쳐 소설 형태의 독서물로 정착된 작품

넷째, 판소리 사설과 소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는 작품

다섯째,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형태로 모두 만들어진 작품

위 기준에 부합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 『화용도』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판소리와 소설의 선후 관계, 필사 및 간행의 양상에서 차이점이 있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은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 형태로 전환되어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반면에 『화용도』는 구전이나 소설 형태로 전해오던 이야기에서 주요 대목을 발췌하여 판소리로 연행되었다. 또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은 경판본과 완판본으로 모두 간행되었지만 『흥부전』은 경판본만 간행되었고 『화용도』는 완판본만 간행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사본과 목판본(경판, 완판), 신연활자본으로 모두 제작·유통되어, 필사 및 간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3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소설들은 판소리 사설과 소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개작과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작품이다.

2.3.2 계열 구분의 기준

판소리계 소설의 계열 구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본과 간행본의 서사 단락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대조하여 변모 양상을 파악한 후 선후 관계 및 계열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계열을 구분한 기준이 서로 달라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본이나 간행본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계열로 구분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요 대목의 유사성만 가지고 계열을 세분화하여, 같은 계열에 속하는 사본과 간행본 간에도 이질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분류 기준으로 삼은 대목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말과 같은 주요 대목이 다르게 서술되었는데도 같은 계열로 묶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적인 대목과 특수한 대목을 모두 고려하여 계열을 구분한 연구도 있지만 그마저도 다른 대목의 이질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공통되거나 특수한 서사 단락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요소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소리계 소설이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열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계열을 구분하기 위해 1차적 기준은 형태적 특징, 2차적 기준은 내용적 특징을 적용하고자 한다. 계열 구분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적 기준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으로 구분한 후 필사 및 간행연대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판소리가 독서물로 개작되어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본 형태로 꾸준히 필사되었고, 세책본과 목판본(방각본), 신연활자본 순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수적 요소로만 다루었던 판식과 서체(자체), 필사 및 간행시기, 필사지 및 간행지 등 형태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적 기준인 내용적 특징에 따라 주요 대목을 대조하여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의 계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각 소설의 서사 구조를 18개 대목으로 나눈 후 각 대목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하였다(〈표 2〉 참조). 그리고 18개 대목 중에서 내용의 축소와 생략, 첨가, 확대 등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대목을 선정하여, 사본과 간행본 간에 나타나는 개작의 정도 및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소설별로 내용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춘향전』은 1(배경 소개), 2(춘향과 이도령의 광한루 만남), 5(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첫날밤), 7(오리정에서 이도령을 전송하는 춘향), 9(춘향을 잡아와 수청을 강요하는 신관사또), 10(춘향의 수청 거절과 투옥), 11(춘향의 탄식과 옥중 고초), 14(옥중에 있는 춘향과 이어사의 만남), 16(어사 출도 및 탐관오리 징벌), 18(후일담) 등 10개 대목을 중심으로 내용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 중에서 2, 5, 7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10, 11, 14에서는 춘향의 정절과 열녀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9, 10, 11은 신관사또의 횡포와 탐관오리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사본과 간행본에 따라 5, 9, 11, 16, 18 대목은 내용의 축약 또는 확대가 심하게 나타나며, 2, 9, 14, 16 대목은 해학적이고 골계적으로 개작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심청전』은 1(배경 소개), 3(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4(심청의 성장과 부친 봉양, 동냥을 자청하는 심청), 8(인당수로 향하는 심청), 9(인당수에 투신하는 심청), 14(심봉사의 한양 상경과 뽕덕어미 등장 및 도망), 15(안씨맹인의 등장과 해몽, 심봉사와 결연), 17(부녀간의 상봉, 눈을 뜨게 되는 심봉사), 18(후일담) 등 9개 대목을 중심으로 내용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 중에서 4, 8, 9 대목에서는 심청의 효성과 안타까운 처지가 잘 드러나며, 14, 15 대목에서는 해학적이고 골계적으로 개작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사본과 간행본에 따라 3, 8, 9, 14, 15, 18 대목은 내용의 확대 또는 축약이 심하게 나타난다.

『토끼전』은 1(배경 소개), 2(용왕의 득병과 병의 원인), 3(초월자의 등장과 명약 지시), 4(어족회의 및 별주부의 자원, 토끼화상), 5(별주부 전송 및 가족과의 이별), 7(별주부와 짐승들의 만남), 8(모족회의 및 상좌 다툼), 10(토끼를 유혹하는 별주부와 방해자 등장), 13(묘책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 14(토끼를 환대하고 수궁 잔치를 여는 용왕), 16(별주부를 조롱하고 도망

〈표 2〉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서사 구조와 대목별 중심 내용

구분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1	배경 소개	배경 소개	배경 소개
2	춘향과 이도령의 광한루 만남	심청의 출생과 성장	용왕의 득병(得病)과 병의 원인
3	춘향을 그리워하는 이도령	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초월자의 등장과 명약 지시
4	춘향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이도령	심청의 성장과 부친 봉양, 동냥을 자청하는 심청	어족회의 개최 및 별주부 자원, 토끼화상
5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結緣) 및 첫날밤	화주승이 물에 빠진 심봉사 구출, 시주 약속	별주부 전승 및 가족과의 이별
6	이도령의 부친 소식과 춘향에게 이별 통보	시주 사실을 고백하는 심봉사를 위로하는 심청	토끼를 찾아 육지로 나가는 별주부
7	오리정에서 이도령을 전송하는 춘향	심청의 거짓말과 부녀간의 이별	별주부와 산짐승들의 만남
8	신관사또의 남원 부임	인당수로 향하는 심청	모족회의 및 상좌 다툼
9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신관사또	인당수에 투신하는 심청	호랑이를 만난 별주부의 위기 극복
10	춘향의 수청 거절과 투옥(投獄)	심청의 구출과 용궁 생활	토끼를 유혹하는 별주부와 방해자 등장
11	춘향의 탄식과 옥중 고초(苦楚)	심청의 환생과 선인(船人)의 연꽃 발견	수궁으로 향하는 별주부와 토끼
12	이도령의 장원급제, 이어사의 남행(南行)	왕과 결연하여 황후에 오르는 심청	토끼를 생포하고 간을 요구하는 용왕
13	이어사의 춘향집 방문, 월매와의 만남	맹인잔치 개최를 알리는 심황후	묘책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
14	옥중에 있는 춘향과 이어사의 만남	심봉사의 한양 상경과 뽕덕어미 등장 및 도망	토끼를 환대하고 수궁 잔치를 여는 용왕
15	신관 생신잔치에 참가한 이어사	안씨맹인의 등장과 해몽, 심봉사와 결연	육지로 향하는 별주부와 토끼
16	어사 출도 및 탐관오리 징벌	심봉사의 맹인잔치 참석, 심황후의 탄식	별주부를 조롱하고 도망가는 토끼
17	이어사와 춘향의 재회, 기뻐하는 춘향모	부녀간의 상봉, 눈을 뜨게 되는 심봉사	별주부의 도피 및 자결, 용왕의 죽음
18	후일담	후일담	후일담

가는 토끼), 17(별주부의 도피 및 자결, 용왕의 죽음) 등 12개 대목을 중심으로 내용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4, 5, 17 대목에서는 별주부의 충신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13, 16 대목에서는 임기응변에 능한 토끼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사본과 간행본에 따라 5, 7, 8, 10, 16, 17 대목은 내용의 확대 또는 축약이 심하게 나타나며, 2, 4, 7, 8, 13, 14, 16 대목은 해학적이고 골계적으로 개작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춘향전』 10개 대목, 『심청전』 9개 대목, 『토끼전』 12개 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의 계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각 계열의 범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옥중화/강상련 계열, 기타 계열로 구분하였다.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은 세책본으로 유통되었거나 세책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 경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것,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판본의 서사 구조와 친연성(親緣性)이 있는 것이 해당된다. 세책본 계열과 경판본 계열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두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의 주요 대목과 서사 구조에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책본과 경판본 계열의 사본들이 대체로 서울 지역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영향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끼전』은 세책본으로 확인된 사본이 없어서 경판본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은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 완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것,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완판본의 서사 구조와 친연성이 있는 것이 해당된다. 이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은 대체로 해학적이고 골계적으로 풍자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후일담이 장황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창본 계열과 완판본 계열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판소리 사설이나 삽입가요, 문체, 어휘, 판소리 연행 흔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사 구조와 주요 대목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이 대체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영향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옥중화/강상련 계열은 1912년 이후 간행된 신연활자본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것으로, 서사 구조와 주요 대목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 옥중화 계열은 「獄中花(春香歌演訂)」와 「증상연예 옥중가인」을 전사 또는 개작한 것이

고, 강상련 계열은 「강상련(江上連)」과 「증상연등 심청전」, 「교등 심청전」을 전사 또는 개작한 것이다. 『토끼전』은 신연활자본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사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계열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계열의 내용이 혼합되어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인물과 배경 설정, 사건의 구성과 전개가 바뀌었더라도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유사한 부분 있는 사본은 모두 기타 계열에 포함시켰다.

둘째, 목판본은 경판본 계열과 안성판본 계열, 완판본 계열로 구분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간행된 경판본 계열은 소설의 서사 구조가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판소리 사설의 문체와 삽입가요가 대체로 사라지고 산문 형태로 서술되었으며, 해학적·골계적으로 풍자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축약되었다. 창본의 내용이 일부 혼합되어 있는 판본은 경판본 계열로 분류하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할 때 창본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안성 지역에서 간행된 안성판본 계열은 경판본을 번각하였거나 축약한 것으로, 소설의 서사 구조는 경판본 계열과 동일하다. 일부 어미나 음절, 단어가 바뀌었으며, 안성이나 충청도 지역의 방언이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전주 지역에서 간행된 완판본 계열은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판소리 사설의 어휘와 문체, 삽입가요, 장단 표시, 연행의 흔적 등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대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권말에 후일담이 장황하게 부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신연활자본은 옥중화/비옥중화 계열, 강상련/비강상련 계열, 불로초/비불로초 계열로 구분하였다. 『춘향전』은 「獄中花(春香歌演訂)」의 내용과 대조하여 서사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것은 옥중화 계열로 분류하고, 다르거나 개작의 정도가 심한 것은 비옥중화 계열로 분류하였다. 『심청전』은 「강상련(江上連)」의 내용과 대조하여 서사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것은 강상련 계열로 분류하고, 다르거나 개작의 정도가 심한 것은 비강상련 계열로 분류하였다. 『토끼전』은 「불로초」의 내용과 대조하여 서사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것은 불로초 계열로 분류하고, 다르거나 개작의 정도가 심한 것은 비불로초 계열로 분류하였다. 소설의 인물과 사건,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더라도 주제나 서사 구조가 「獄中花(春香歌演訂)」, 「강상련(江上連)」, 「불로초」와 유사한 것은 모두 옥중화, 강상련, 불로초 계열에 포함시켰다.

2.3.3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 및 특징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을 ‘창자가 여행하던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되어 독서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형태의 소설로 개작된 문학작품’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유통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전해지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사본과 간행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소리계 소설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첫째, 주요 대목이나 서사 구조가 판소리 사설과 같거나 유사한 것
- 둘째, 판소리 사설의 단락이나 삽입가요를 전체 또는 일부 수용한 것
- 셋째, 판소리 사설의 읍문체와 소설의 산문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 넷째, 등장인물의 특성과 역할이 판소리 사설과 같거나 유사한 것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본과 간행본은 판소리계 소설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완전히 산문체로 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요 대목이나 서사구조, 삽입가요 등에서 판소리 사설의 흔적이 확인된 것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인물과 배경, 서사구조가 많이 개작되어 판소리 사설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 지나치게 축약되어 소설의 서사구조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은 180종 316책으로 확인되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이 82종 177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청전』이 57종 89책, 『토끼전』이 41종 50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태별로 살펴보면, 사본 117종 117책, 목판본 33종 70책, 신연활자본 30종 129책으로 나타났다.²⁶⁾ 사본은 『춘향전』 43종 43책, 『심청전』 40

26) 신연활자본은 간행년도나 출판사, 판식이 다르더라도 본문 내용이 동일하면, 모두 같은 종으로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신연활자본이 주로 간행된 1910~20년대에 동일한 내용을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간행한 판본이 많았고, 내용은 동일하고 권수제나 표제만 다르게 만든 판본, 동일한 내용의 재판본에다가 채색표지화나 삽화만 붙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 40책, 『토끼전』 34종 34책이고, 목판본은 『춘향전』 19종 44책, 『심청전』 11종 22책, 『토끼전』 3종 4책이다. 신연활자본은 『춘향전』 20종 90책, 『심청전』 6종 27책, 『토끼전』 4종 12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이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춘향전』에 비해 『심청전』과 『토끼전』의 간행 종수와 책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기문자별로는 한글본 151종 247책, 국한문혼용본 24종 61책, 한문본 5종 8책으로 나타났다. 한글본은 『춘향전』 65종 120책, 『심청전』 51종 83책, 『토끼전』 35종 44책이고, 국한문혼용본은 『춘향전』 14종 51책, 『심청전』 6종 6책, 『토끼전』 4종 4책이다. 한문본은 『춘향전』 3종 6책, 『토끼전』 2종 2책이고, 『심청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 현황

구분		한글본	국한문혼용본	한문본	합계
춘향전	寫本	30종 30책	11종 11책	2종 2책	43종 43책
	木板本	19종 44책	-	-	19종 44책
	活字本	16종 46책	3종 40책	1종 4책	20종 90책
	소계	65종 120책	14종 51책	3종 6책	82종 177책
심청전	寫本	34종 34책	6종 6책	-	40종 40책
	木板本	11종 22책	-	-	11종 22책
	活字本	6종 27책	-	-	6종 27책
	소계	51종 83책	6종 6책	-	57종 89책
토끼전	寫本	28종 28책	4종 4책	2종 2책	34종 34책
	木板本	3종 4책	-	-	3종 4책
	活字本	4종 12책	-	-	4종 12책
	소계	35종 44책	4종 4책	2종 2책	41종 50책
합계		151종 247책	24종 61책	5종 8책	180종 316책

모두 내용이 동일하고 개작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종으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6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2종 2책이 전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춘향전』 사본 중에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이 1종 1책, 기타 계열이 1종 1책으로 확인되었다. 『심청전』과 『토끼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87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88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9종 10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5종 6책, 『심청전』 1종 1책, 『토끼전』 3종 3책이고, 형태별로는 사본 6종 6책, 목판본 3종 4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2종 2책과 목판본 3종 4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 1책과 기타 계열 1종 1책이며, 목판본은 모두 경판본 계열에 해당한다. 『심청전』은 기타 계열에 속하는 사본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토끼전』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에 속하는 사본 2종 2책과 기타 계열에 속하는 사본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넷째, 189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24종 25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6종 6책, 『심청전』 9종 9책, 『토끼전』 9종 10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19종 19책, 목판본 5종 6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5종 5책, 목판본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모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에 해당하고, 목판본은 경판본 계열에 해당한다. 『심청전』은 사본 6종 6책과 목판본 3종 3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2종 2책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3종 3책으로 나타났으며, 목판본은 경판본, 안성판본, 완판본 계열이 각각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토끼전』은 사본 8종 8책과 목판본 1종 2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경판본 계열 1종 1책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5종 5책, 기타 계열 2종 2책으로 나타났으며, 목판본은 모두 완판본 계열에 해당한다.

다섯째, 190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29종 32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16종 17책, 『심청전』 6종 8책, 『토끼전』 7

종 7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22종 22책, 목판본 7종 10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11종 11책, 목판본 5종 6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이 5종 5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이 4종 4책, 기타 계열이 2종 2책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판본은 경판본 계열 1종 2책, 안성판본 계열 1종 2책, 완판본 계열 3종 3책으로 확인되었다. 『심청전』은 사본 5종 5책, 목판본 1종 3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이 1종 1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이 2종 2책, 기타 계열이 2종 2책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판본은 모두 완판본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끼전』은 사본 6종 6책, 목판본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5종 5책, 기타 계열 1종 1책이고,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191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73종 135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38종 81책, 『심청전』 20종 34책, 『토끼전』 15종 20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40종 40책, 목판본 12종 24책, 신연활자본 21종 71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18종 18책, 목판본 6종 14책, 신연활자본 14종 49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1종 11책, 옥중화 계열 4종 4책, 기타 계열 3종 3책으로 확인되었다. 목판본은 안성판본 계열 2종 2책, 완판본 계열 4종 12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 9종 27책, 비옥중화 계열 5종 22책으로 확인되었다. 『심청전』은 사본 11종 11책, 목판본 5종 9책, 신연활자본 4종 14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2종 2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 5종 5책, 강상련 계열 1종 1책, 기타 계열 3종 3책으로 확인되었다. 목판본은 안성판본 계열 1종 1책, 완판본 계열 4종 8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강상련 계열 2종 10책, 비강상련 계열 2종 4책으로 확인되었다. 『토끼전』은 사본 11종 11책, 목판본 1종 1책, 신연활자본 3종 8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경판본 계열 1종 1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 7종 7책, 기타 계열 3종 3책으로 확인되었다.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불로초 계열 2종 7책, 비불로초 계열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192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27종 87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8종 51책, 『심청전』 14종 28책, 『토끼전』 5

종 8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17종 17책, 목판본 4종 18책, 신연활자본 7종 56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2종 2책, 목판본은 2종 11책, 신연활자본은 4종 38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옥중화 계열이 각각 1종 1책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판본은 모두 경판본 계열로 확인되었다.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이 2종 21책, 비옥중화 계열이 2종 17책으로 확인되었다. 『심청전』은 사본 10종 10책, 목판본 2종 7책, 신연활자본 2종 11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4종 4책, 강상련 계열 3종 3책, 기타 계열 3종 3책으로 확인되었다. 목판본은 모두 경판본 계열에 해당하며, 신연활자본은 강상련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끼전』은 사본 5종 5책, 신연활자본 3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3종 3책, 기타 계열 2종 2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모두 불로초 계열에 해당한다.

여덟째, 193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13종 16책이 전해지고 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4종 5책, 『심청전』 7종 9책, 『토끼전』 2종 2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9종 9책, 목판본 1종 1책, 신연활자본 3종 6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사본 1종 1책, 목판본 1종 1책, 신연활자본 2종 3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옥중화 계열,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청전』은 사본 7종 7책과 신연활자본 2책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4종 4책, 강상련 계열 2종 2책, 기타 계열 1종 1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모두 강상련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끼전』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 1종 1책, 불로초 계열의 신연활자본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1940년대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은 3종 9책이 전해지고 있다. 『춘향전』 사본 2종 2책과 목판본 1종 7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심청전』과 『토끼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옥중화 계열이 각각 1종 1책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²⁷⁾

단위 : 종수(種數)/책수(冊數)

계열 연대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계
춘 향 전	사 본	세책본 및 경판본	1/1				5/5					6/6
		창본 및 완판본			1/1	5/5	4/4	11/11	1/1		1/1	23/23
		옥중화						4/4	1/1	1/1	1/1	7/7
		기타	1/1		1/1		2/2	3/3				7/7
	목 판 본	경판본			3/4	1/1	1/1		2/11			7/17
		안성판본					1/2	2/2				3/4
		완판본					3/3	4/12		1/1	1/7	9/23
	신연 활자 본	옥중화						9/27	2/21	2/3		13/51
		비옥중화						5/22	2/17			7/39
	소계		2/2		5/6	6/6	16/17	38/81	8/51	4/5	3/9	82/177
심 청 전	사 본	세책본 및 경판본				2/2	1/1	2/2				5/5
		창본 및 완판본				3/3	2/2	5/5	4/4	4/4		18/18
		강상련						1/1	3/3	2/2		6/6
		기타			1/1	1/1	2/2	3/3	3/3	1/1		11/11
	목 판 본	경판본				1/1			2/7			3/8
		안성판본				1/1		1/1				2/2
		완판본				1/1	1/3	4/8				6/12
	신연 활자 본	강상련						2/10	2/11	/2		4/23
		비강상련						2/4				2/4
	소계				1/1	9/9	6/8	20/34	14/28	7/9		57/89
토 끼 전	사 본	경판본				1/1		1/1				2/2
		창본 및 완판본			2/2	5/5	5/5	7/7	3/3	1/1		23/23
		기타			1/1	2/2	1/1	3/3	2/2			9/9
	목 판 본	경판본					1/1					1/1
		완판본				1/2		1/1				2/3
	신연 활자 본	불로초						2/7	/3	1/1		3/11
		비불로초						1/1				1/1
	소계				3/3	9/10	7/7	15/20	5/8	2/2		41/50
합계			2/2		9/10	24/25	29/32	73/135	27/87	13/16	3/9	180/316

27)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현황은 ‘종수/책수’로 표시하였다. 1930년대에 간행된 강상련 계열의 신연활자본과 1920년대에 간행된 불로초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종수를 표시하지 않고 책수만 표시하였다. 이것은 초판의 재판본이거나 다른 출판사에서 초판과 동일한 판본을 재출간한 것이다.

Ⅲ. 『춘향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3.1 사본

사본 『춘향전』은 현재 43종 43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6종 6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3종 23책, 옥중화 계열 7종 7책, 기타 계열 7종 7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사본 『춘향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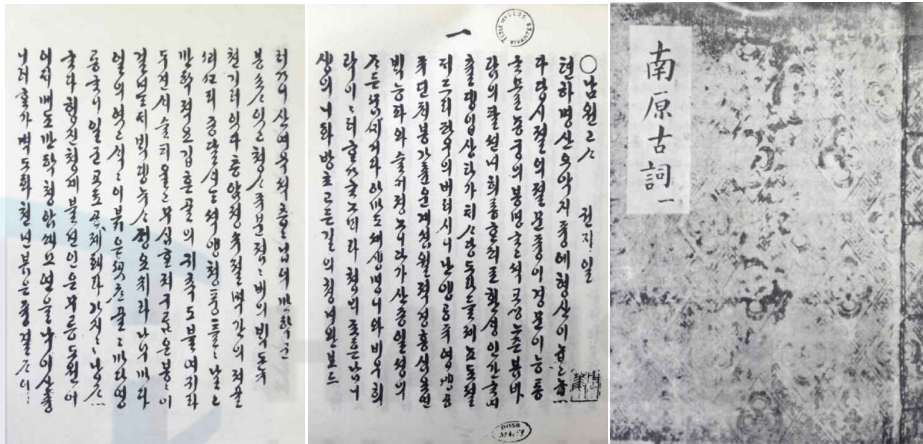
3.1.1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이 계열은 사본 「남원고소」와 이를 개작한 세책본, 세책본을 축약한 경판본 『춘향전』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현재 한글본 6종 6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64년(고종 1)과 1869년(고종 6)에 필사된 「남원고소」(파리 대학 언어문명도서관 소장)는 5권 1책(216장)으로 된 세책본이다.²⁸⁾ 권1·2는 1864년(고종 1) 6월에 필사되었으며, 권3은 같은 해 7월, 권4·5는 1869년(고종 6) 9월에 필사되었다. 1864년(고종 1)에 처음 만들어진 후 유통 과정에서 훼손·분실된 책을 새로 써서 2차례 대체하였다. 권3과 권5는 누동(서울 종로구)에서 필사되었고, 권 1·2·3의 필사지는 알 수 없다. 서체의 형태가 유려한 흘림체로 일정하다는 점에서, 한 명의 전문적인 필사자가 쓴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 장차를 표기하였으며,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본문은 기생 춘향의 모습과 정절을 지키는 열녀 춘향의 모습이 대비되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장함과 안타까움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

28) 「남원고소」는 1887년(고종 24)에 프랑스 외교관으로 조선에 머물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수집하여 동양어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1887~1890년, 1896~1906년에 플랑시의 보좌관이었던 모리스 구랑은 그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 서적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1894년 파리에서 『Bibliographie Coréenne』로 출간하였다.

및 결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결말에는 변부사가 파면을 당하고 춘향에게 정렬부인 직첩(職牒)이 내려진다. 그리고 이어사와 춘향이 혼례를 올린 후 자녀를 낳고 화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 정철의 「사미인곡」처럼 당시 유행하던 시조와 가사, 민요 등을 수용하여 본문 속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선징악적 서사 구조와 다양한 삽입가요를 통해 독자들은 흥미성과 대중성이 있는 장편소설 『춘향전』을 접할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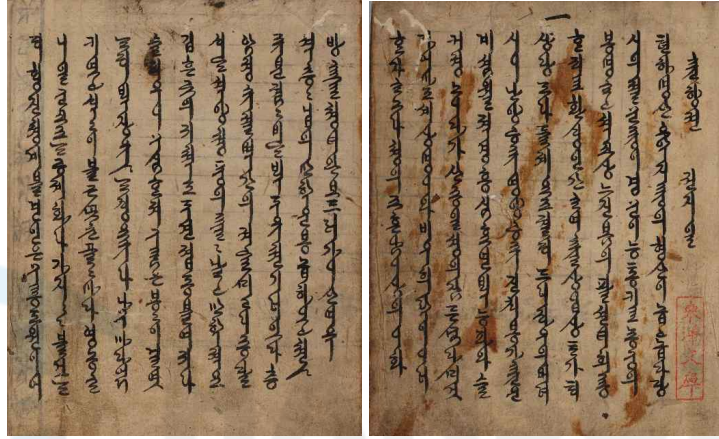
<그림 1> 5권 1책(216장) 「남원고소」(파리 대학언어문명도서관 소장) 권1 제1장, 표지²⁹⁾

둘째, 「남원고소」를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세책본은 2종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1900년(광무 4)~1911년(융희 5)에 향목동(서울 종로구)에서 필사된 「춘향전」(동양문고 소장)은 10권 10책(287장)으로 된 세책본이다.³⁰⁾ 권8은 1900년(광무 4), 권6은 1904년(광무 8), 권1·2·3·4는 1909년(융희 3), 권5·7·9·10은 1911년에 필사되었다. 1900년(광무 4)에 처음 만들어진 후 책이 훼손·분실될 때마다 새로 써서 대체하였다. 권6을 제외한 나머지 9권은 서체가 유려하고 일정한 흘림체여서 한 명의 전문적인 필사자가 쓴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1907년(융희 1)에 간동(서울 중구)에서 필사된 「춘향전」(아천문고

29) 金東旭, 權寧徹, 金泰俊. (1977). 『春香傳寫本選集 1』 영인본. 서울: 明知大學出版部, pp.45-189.

30) 이 책은 오오타나 모리시게(大谷森繁)가 구입하여 소장하다가 동양문고에 기증한 것이다. 그는 ‘1927년 서울의 고서점을 통해 구입한 세책은 「三國志」 69책, 「列國志」 42책, 「唐泰演義」 42책, 조선소설 「춘향전」 10책, 「하진양문록」 29책, 「창선감의록」 10책 등이 있다’고 밝혔다(大谷森繁. (2003). “朝鮮後記의 賞冊 再論”, 『賞冊 古小説 研究』, 서울: 해안, p.30.).

소장)은 9권 2책(238장)으로 된 세책본이다. 동양문고 소장본의 권1~6을 그대로 필사하고, 권7~10은 3권으로 축약하였다.³¹⁾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로 쓰였으며, 권1에는 어절이나 문장 단위로 온점(·)이 찍혀 있다. 독자가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두 세책본 모두 전면 상단에 장차를 표기하였으며,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행의 하단은 비워두었다.



〈그림 2〉 10권 10책(287책) 「춘향전」(일본 동양문고 소장) 권1 제1장

셋째, 세책본을 축약한 경판본 『춘향전』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은 3종이 전해지고 있다. 1902년(광무 6)에 필사된 「춘향전」(이재수 소장)은 2권 1책(73장)으로 된 세책본으로, 경판 3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³²⁾ 권1은 10월에 반흘림체로 필사되었고 권2는 7월 은곡(서울)에서 흘림체로 필사되었다. 7월에 처음 만들어진 후 권1이 훼손·분실되어 10월에 새로 써서 대체하였다. 권2의 필사지인 ‘은곡’은 ‘운곡’의 오기로 보인다. 본문은 춘향이 오리정에서 이도령을 전송하는 대목부터 이어사와 춘향이 재회하는 대목까지 대체로 축약되었으며, 서두에는 자연에서 사는 인생을 노래한 허두가가 길게 삽입되어 있다. 1906년(광무 10)에 필사된 55장본 「춘향전」(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은 방자의 천자뒤풀이 대목처럼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도 삽입되어 있다.³³⁾ 매 장마다 손으로 집계 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었다는 점

31) 朝鮮學會. (1988). “춘향전 영인본.” 『朝鮮學報』, 126: 103-129.

32) 이재수. (1972). 『古典文學選』. 영인본. 서울: 東光出版社, pp.24-87.

에서, 세책본을 보고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9년(융희 3)에 청주 북면에서 필사된 42장본 「별춘향전」(충남대 도서관 소장)는 경판 30장본과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서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첫날밤 대목에 권주가, 비점가 등 다양한 시가를 삽입하여 길게 확장하였고, 신관 생신잔치와 어사출도 대목은 축약하였다.

사본 『춘향전』 중에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사본 『춘향전』 중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서체	표기문자	소장처
南原古詞 남원고스	남원고스	5권 1책 (216장)	1864~1869년 (고종 1~6)	누동 (서울)	흘림체	한글	파리 대학 언어문명 도서관
春香傳	춘향전	10권 10책 (287장)	1900~1911년 (광무 4~융희 1)	항목동 (서울)	흘림체	한글	일본 동양문고
-	춘향전	2권 1책 (73장)	1902년 (광무 6)	은곡 (은곡)	흘림체 반흘림체	한글	이재수
-	춘향전	1책(55장)	1906년 (광무 10)	미상	흘림체 반흘림체	한글	계명대 동산도서관
春香傳	춘향전	9권 2책 (238장)	1907년 (융희 1)	간동 (서울)	흘림체 반흘림체	한글	일본 동경대 아천문고
별춘향전	별춘향전	1책(42장)	1909년 (융희 3)	청주 북면	흘림체 반흘림체	한글	충남대 도서관 (학산문고)

3.1.2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이 계열은 판소리 창본 「춘향가」를 개작하였거나 완판본 『춘향전』을 전사 또는 개작한 것으로, 모두 23종 23책이 전해지고 있다.

33) 金光淳. (1994). 『(金光淳所藏 筆寫本)韓國古小說全集 13』. 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pp.1-109.

3.1.2.1 판소리 창본 개작

판소리 창본 「춘향가」를 개작한 것은 한글본 2종 2책이 확인되었다. 1901년(광무 5)에 동촌(전북 무주)에서 필사된 35장본 「춘향가 타령이라」(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는 신재효의 「男唱 春香歌」를 개작하였다.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필사자는 송운서이다. 본문은 배경 소개를 생략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대목은 사랑가만 남겨 두고 축약하였다. 오리정에서 춘향모가 이도령을 전송하는 대목과 옥중 고초를 겪은 춘향이 전생에 선녀였다는 꿈을 꾸는 대목 등 독특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1944년에 필사된 39장본 「춘향전」(김광순 소장)은 창본과 완판 29장본을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³⁴⁾ 본문은 서두 부분이 낙장되어 이도령이 광한루로 봄나들이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나귀치레 사설부터 시작한다. 광한루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대목부터 어사출도 대목까지 주요 내용이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으며, 39장 후반에는 ‘광디 목도 쉬고’처럼 판소리 사설의 흔적도 남아 있다.

사본 『춘향전』 중에서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사본 『춘향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별춘향전	춘향가 타령이라	1책(35장)	1901년 (광무 5)	동촌 (전북 무주)	한글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춘향전	춘향전	1책(39장)	1944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김광순

3.1.2.2 완판본 『춘향전』 전사 또는 개작

완판본 『춘향전』을 전사 또는 개작하였거나 완판본 『춘향전』과 친연성이 강한 사본은 모두 21종 21책이 전해지고 있다.

34) 金光淳, 전거서, pp.166-244.

첫째, 1881년(고종 18)에 필사된 30장본 「춘향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과 1893년(고종 30)에 필사된 30장본 「別春香傳이라」(김진영 소장), 1896년(건양 1)에 필사된 26장본 「별춘향전이라」(김일근 소장)³⁵⁾는 완판 29장본과 친연성이 강한 것이다. 30장본 「춘향전」은 서두가 일부 낙장되어 이도령이 광한루의 경치를 보기 위해 봄나들이라는 가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및 첫날밤 대목이 축약되었으며, 권말에는 2장 분량의 「가톨릭이전이라」가 합철되어 있다. 30장본 「別春香傳이라」는 광한루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에 ‘蟹, 雁, 蝶’자를 적어서 보내고 집에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에서는 거문고로 연주하는 봉구황곡(鳳求凰曲)과 음양가, 비점가 등 다양한 시가가 삽입되어 있으며, 어사출도 대목 이후로는 낙장되었다. 30장본 「춘향전」과 「別春香傳이라」는 서체가 반흘림체이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정교함이 떨어진다. 반면에 26장본은 서체가 단정하고 일정한 정자체여서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천자뒤풀이 대목처럼 골계적인 내용들이 축소되었으며,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대목은 춘향의 사랑가만 남기고 다른 노래들은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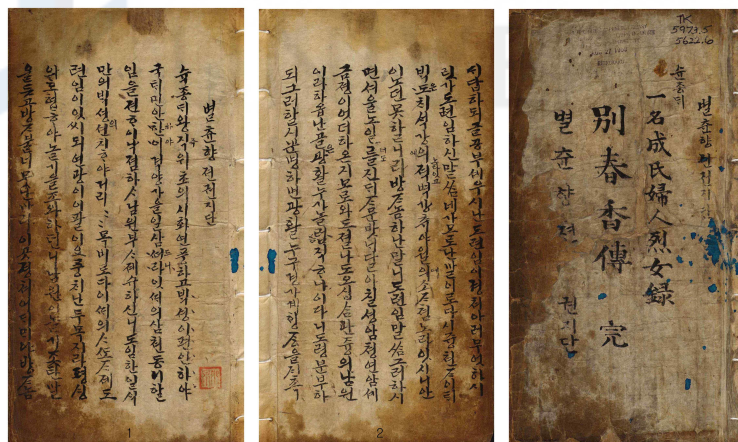
둘째, 1914년에 필사된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완판 33장본을 전사한 것이다. 뒷표지에 쓰여 있는 마동면 장○리(충남 서천군)는 책을 소유했던 사람이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반흘림이지만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15년 필사된 90장본 「열여춘향전」(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은 완판 84장본을 전사하였고, 1918년 괴산군 칠성면에서 필사된 67장본 「춘향전」(충주박물관 소장)은 완판 84장본을 개작하였다. 두 사본 모두 반흘림체로 쓰였으며 서체의 크기와 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90장본은 오자와 탈자, 표기 형태가 다른 어휘들을 제외하고는 서계서포에서 간행한 완판 84장본과 동일하다. 반면에 67장본은 신관사또가 춘향을 회유하다가 실패하는 장면과 옥사장이 춘향의 목에 걸린 칼을 풀어주었다가 발각되는 장면 등 독특한 내용을 첨가하여 골계성이 나타나도록 개작하였다.

넷째, 1896년(건양 1)에 필사된 52장본 「별춘향전 중 別春香傳」(사재동 소장)과 1897년(광무 1)에 필사된 94장본 「별춘향전」(하버드 옌칭도서관 소

35) 김일근. (1978). “〈資料〉 成烈傳.” 『人文科學論叢』, 11: 187-205.

장), 1899년(광무 3)에 필사된 40장본 「춘향전」(서울대 규장각 소장)은 완판 29장본과 33장본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52장본은 시대 배경이 ‘중원 甲子 乙丑간’이고 춘향의 성은 신(申)으로 설정되어 있다. 춘향의 탄식과 옥 중 고초 대목부터 축약되었으며, 이어사가 춘향집을 방문하여 춘향모를 만나는 대목부터 낙장되었다. 서체는 정자체로 쓰였으나 글자의 형태가 투박하고 오자와 낙자가 많다. 반면에 94장본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첫날밤 대목에 사랑가와 음양가, 비점가 등 다양한 시가를 삽입하여 길게 확장하였다. 결말은 춘향에게 열녀 직첩이 내려지고, 향단이가 행복하게 사는 내용으로 끝난다. 권말에는 일본인 하시모토 쓰주(橋本蘇洲)가 경기도 안성에 사는 류양근에게 이 책을 받아서 교열하였다는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³⁶⁾ 서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로 일정하게 쓰였으며, 행간에는 빠진 글자나 문장을 추기하고 오자를 바로 잡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3〉 참조). 40장본은 신관사포의 지시를 받은 사령이 춘향에게 찾아오는 옥중고초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다. 34장까지는 반흘림체로 일정하게 쓰였지만 35장부터는 흘림체에 가까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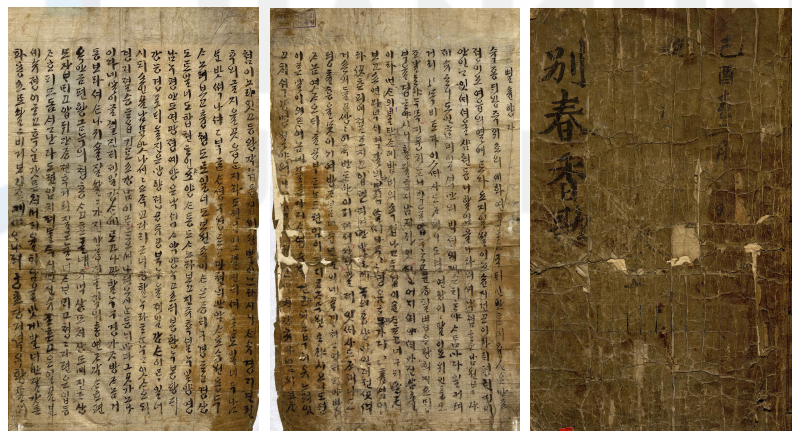
〈그림 3〉 94장본 「별춘향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다섯째, 1909년(융희 3)에 청주군 북면에서 필사된 39장본 「별춘향가」(국회도서관 소장)과 1911년에 필사된 75장본 「춘향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36) 丁酉(1897)十月初十日 京畿 安城郡 居士人 柳洋根 大日本稿本蘇洲應需書之(전면), 丁酉冬至月初七日校閱了 全羅道南平望美樓 日本漫遊士 稿本蘇洲(후면)

소장)은 완판 33장본과 84장본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39장본은 이도령의 이름이 ‘춘득’이고 변학도가 충신의 후예로 설정되어 있다.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춘향을 부르자 바로 건너온다고 설정되어 있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은 사랑가와 비점가, 업음질 등 당시 유행하던 시가들을 삽입하여 길게 확장되어 있다. 이도령이 방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고, 권말에는 ‘효주 충신 녀녀ㄹ 웃지 송하 잇스리요’라고 춘향의 정절을 높이 평가하는 후기가 쓰여 있다. 서체는 크기가 작고 조밀한 형태의 반흘림체로 일정하게 필사되었다(〈그림 4〉 참조). 75장본은 완판 84장본을 필사하면서 완판 33장본의 정표 교환 장면과 오리정 이별 장면 등을 첨가하였다. 춘향을 잡으러 간 사령들이 술을 먹고 돌아와서 헛소리를 하는 대목도 첨가되어 독특하다. 신관 생신잔치 대목부터 낙장되어 결말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서체는 일정하게 쓴 정자체이고,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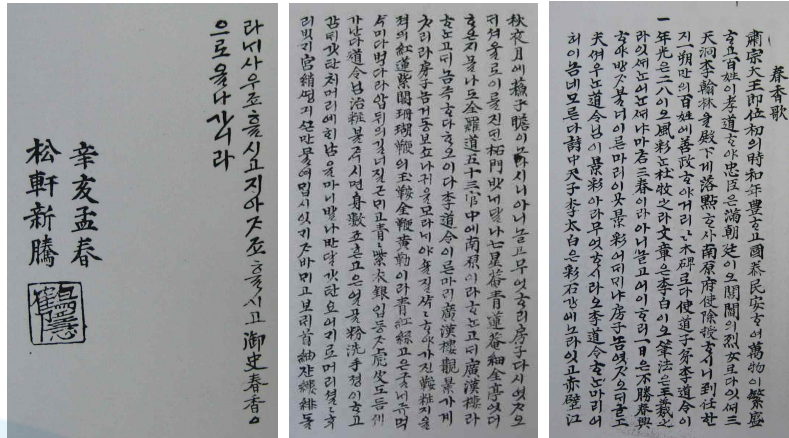


〈그림 4〉 39장본 「별춘향가」(국회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여섯째, 1911년에 안동군 임하면에서 필사된 30장본 「春香歌」(권영철 소장)는 완판 29장본 및 8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³⁷⁾ 본문에는 고전이나 한문 어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서체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나타나고 있다. 양반 사대부가의 남성이나 한문에 소양이 있는 식자층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는 한자로

37) 金東旭, 權寧徹, 金泰俊. 전게서, pp.297-328.

장차를 표기하였으며, 30장 후반에는 송헌(松軒)에서 새로 베꼈다는 내용의 필사기와 학은(鶴隱)이란 인장이 찍혀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30장본 「春香歌」(권영철 소장) 필사기, 제1장

일곱째, 모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완판본 『춘향전』과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9종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완판본 『춘향전』을 개작하여 주요 대목과 삽입가요 등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07년(융희 1)에 용계(전북 장수)에서 필사된 59장본 「춘향전」(박순호 소장)은 이도령의 이름이 ‘이순백’으로 바뀌었고, 기생과 명창의 이름을 나열하는 장면이 첨가되었다.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방자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시키면서 서약서를 작성해주는 대목이 나온다.³⁸⁾ 1908년(융희 2)에 필사된 28장본 「별춘향가라」(김광순 소장)에도 이도령이 방자에게 도서원 읍창색(都書員 邑倉色)을 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대목이 나온다.³⁹⁾ 이도령이 춘향집을 찾아가는 대목의 사벽도 사설은 「삼국지연의」를 인용하여 길게 서술하였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첫날밤 대목은 간략하게 축약하였다.

1913년에 필사된 51장본 「춘향전」(사재동 소장)과 1916년에 필사된 50장본 「춘향전」(김진영 소장), 1927년에 필사된 61장본 「춘향전」(김광순 소장)⁴⁰⁾에도 이도령이 방자에게 도서원 읍창색을 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대목이

38)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99』.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573-690.

39) 金光淳, 전게서, pp.110-165.

나온다. 51장본은 서두 부분이 낙장되어 광한루 경치를 읊는 대목부터 시작하며, 시조와 한시, 가사 등 당시 유행하던 시가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 이도령이 방자의 요청에 따라 춘향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에 화답하여 춘향이기도 편지를 써서 이도령에 보내는 장면이 첨가되었다. 서체는 일정하고 단정하게 쓴 정자체이다. 50장본은 이도령의 이름이 ‘이순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생점고 장면을 간략하게 축소되었다. 61장본은 오리정에서 이도령이 춘향에게 자신의 칼을 내어주는 장면이 첨가되었으며, 결말은 정열부인이 된 춘향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는 후일담으로 끝난다. 서체는 반흘림체가 사용되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필체가 가늘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1914년에 청원군 용흥면에서 필사된 94장본 「別春香傳抄 별춘향전」(박순호 소장)⁴¹⁾은 시대 배경이 ‘아조 중연 즉위 초’이고 방자의 이름은 ‘초썩이’로 설정되어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에는 권주가와 사랑가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도령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집에 가버린 춘향을 잡아서 곤장을 치자고 말하는 장면과 춘향의 꿈을 해몽해주는 허판수가 개똥을 짚는 장면 등 해학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 장차를 표기하였다. 1917년에 청주 동촌에서 필사된 72장본 「춘향전」(충남대 도서관 소장)도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에 권주가와 짝타령 등 당시 유행하던 시가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허판수가 개똥을 짚는 장면도 나타난다. 1918년에 필사된 59장본 「춘향전」(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에도 이도령이 춘향을 잡아서 곤장을 치자고 말하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은 축약되었고, 옥중에 있는 춘향과 이어사의 만남 대목은 길게 서술되어 있다. 1919년에 필사된 70장본 「춘향전」(사재동 소장)도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대목을 간략하게 축소하였다. 이도령이 춘향을 잡아서 곤장을 치자고 말하자 방자가 곤장보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만류하는 내용이 나온다. 결말은 어사출도 후 남원부사가 파직을 당하고, 춘향이 정열부인에 오르는 것으로 끝난다.

사본 『춘향전』 중에서 완판본 전사 또는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40) 金光淳, 전게서, pp.245-365.

41)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8』.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1-190.

〈표 7〉 사본 『춘향전』 중 완판본 전사 또는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	춘향전	1책(30장)	1881년 (고종 18)	미상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春香傳	別春香傳이라	1책(30장)	1893년 (고종 30)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김진영
성년전 成烈傳	별춘향전이라	1책(26장)	1896년 (건양 1)	미상	한글	정자체	김일근
春香傳	별춘향전 중 別春香傳	1책(52장)	1896년 (건양 1)	미상	국한문 혼용	정자체	사재동
一名成氏婦人 烈女錄 別春香傳	별춘향전	1책(94장)	1897년 (광무 1)	경기 안성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	춘향전	1책(40장)	1899년 (광무 3)	미상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서울대 규장각
-	춘향전	1책(59장)	1907년 (융희 1)	용계 (전북 장수)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박순호
-	별춘향가라	1책(28장)	1908년 (융희 2)	미상	한글	정자체	김광순
別春香歌	별춘향가	1책(39장)	1909년 (융희 3)	청주군 북면	한글	반흘림체	국회도서관
-	춘향전	1책(75장)	1911년	미상	국한문 혼용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古談 成春香歌	春香歌	1책(30장)	1911년	안동군 임하면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정자체	권영철
-	춘향전	1책(51장)	1913년	미상	한글	정자체	사재동
열녀춘향 수절가라	열녀춘향 수절가라	1책(33장)	1914년	마동면 장○리 (충남 서천군)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別春香傳抄 별춘향전	-	1책(94장)	1914년	청원군 용흥면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박순호
-	열여춘향전	1책(90장)	1915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	춘향전	1책(50장)	1916년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김진영
-	춘향전	1책(72장)	1917년	청주 동촌	한글	반흘림체	충남대 도서관 학산문고
-	춘향전	1책(67장)	1918년	괴산군 칠성면	한글	반흘림체	충주박물관
-	춘향전	1책(59장)	1918년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	춘향전	1책(70장)	1919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사재동
-	춘향전	1책(61장)	1927년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김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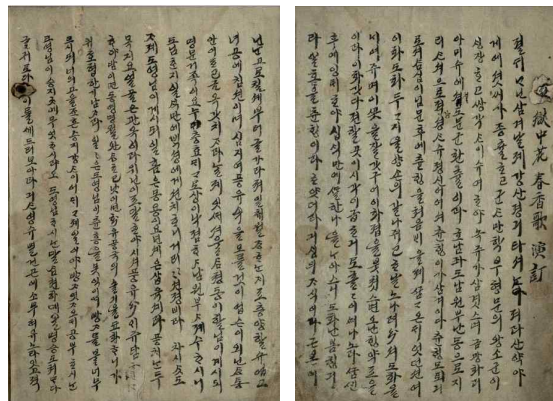
3.1.3 옥중화 계열

이 계열은 옥중화 계열에 속하는 신연활자본 『춘향전』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것으로, 현재 7종 7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獄中花(春香歌演訂)」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것은 5종 5책이다.

1912년 7월에 중국동(서울 광진구)에서 필사된 89장본 「獄中花」(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이해조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옥중화」를 전사한 것이다.⁴²⁾ 필사 시기가 1912년 8월에 발행된 「獄中花(春香歌演訂)」 초판본보다 한 달이 빠르다. 서체는 가늘고 일정하게 쓴 흘림체이다.

1915~1916년에 필사된 77장본 「訂正五刊 獄中花(春香歌演訂)」(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과 1916년에 강릉군 사천면에서 필사된 71장본 「옥중화라 春香傳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1925년에 산정리(경기 안성)에서 필사된 64장본 「獄中花 春香歌演訂」(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獄中花(春香歌演訂)」를 전사한 것이다. 77장본과 64장본의 서체는 일정하게 쓴 반흘림체이고, 71장본의 서체는 투박한 형태의 정자체이다. 77장본과 71장본은 세책본처럼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을 빈칸으로 놔두었다. 64장본의 표지에 적힌 ‘南原府 鳳竹面 降仙里’는 춘향이가 점을 보는 대목에 나오는 춘향의 집 주소이다. 본문은 춘향과 재회한 이어사가 미음을 권하며 백년해로하자고 약속하는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64장본 「獄中花 春香歌演訂」(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42) 朴鍾洙. (1993). 『羅孫本筆寫本古小説資料叢書 74』. 영인본. 서울: 保景文化社, pp.185-361.

71장본과 64장본은 서울에서 간행된 「獄中花(春香歌演訂)」이 강원도와 경기도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14년에 필사된 54장본 「옥중화」(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는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를 모본으로 하여 개화의식이 드러나도록 개작하였다.⁴³⁾ 춘향이가 자신의 신분을 양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풍속 개량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타난다. 이어사의 남행 대목에서 농부들이 농부가 대신에 장부사업가(丈夫事業歌)를 부르고 있어서 개화기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권말에는 필사자가 ‘최근 경성에서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연정한 책이 있는데, 무식하지 않고 잡담도 없어서 필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서체는 가늘고 작은 크기의 반흘림체로 일정하게 필사하였다. 행간에 한자를 병기한 부분도 있고 ‘ ’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하였다.

둘째, 1930년에 필사된 151장본 「증상연예 옥중가인」(박순호 소장)⁴⁴⁾과 1944년에 필사된 88장본 「옥중가인」(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은 신연활자본 「증상연예옥중가인」을 전사한 것이다.

151장본은 반흘림체와 정자체로 쓰였는데, 글자가 세로획은 두텁고 가로획은 얇은 형태여서 완판 방각본의 중후횡박(縱厚橫薄)형 서체와 유사하다. 표지에 쓰인 ‘天下太平春 月中丹桂香’는 ‘춘향’이란 이름의 내력을 소개한 것이고, 서두에는 월매와 춘향을 소개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88장본은 정자체로 쓰였으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오자와 낙자가 많다. 대체로 아래아(·) 표기가 사라지고 현대어로 표기된 어휘가 사용되었다. 151장본은 신림면 송룡리(전북 고창)에서 필사되었으며, 88장본은 밀양군에 살았던 필사자가 부산에 가서 쓴 것이다.⁴⁵⁾ 이는 서울에서 간행된 「증상연예 옥중가인」이 1930~40년대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본 『춘향전』 중 옥중화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43) 상계서, pp.75-181.

44)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7. 영인본. 서울: 昨晟社, pp.505-806.

45) 소호십팔년 기미십이월초오일 밀양군 부북면 후사포리 박원희가 부산부 범일정자성덕우거시에 시작하여 좌청정 팔박옥십이변지에 이거하야 익연십월십일에필서라(표지 후면)

〈표 8〉 사본 『춘향전』 중 옥중화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	獄中花	1책(89장)	1912년	중곡동 (서울 광진구)	국한문 혼용	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	옥중화	1책(54장)	1914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最新小説 雪中梅花	訂正五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책(77장)	1915~ 1916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	옥중화라 春香傳이라	1책(71장)	1916년	강릉군 사천면	국한문 혼용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	獄中花 春香歌演訂	1책(64장)	1925년	산정리 (경기 안성)	한글	반흘림체	국립 한글박물관
-	증상연에 옥중가인	1책(151장)	1930년	신림면 송릉리 (전북 고창)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박순호
춘향전	옥중가인	1책(88장)	1944년	부산	한글	정자체	국립 한글박물관

3.1.4 기타 계열

기타 계열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계열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서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현재 7종 7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64년(고종 1)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25장본 「春香新說」(화봉 문고 소장)과 1880~1890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103장본 「益夫傳」(류탁일 소장)은 『춘향전』의 서사 구조를 개작한 한문소설이다. 25장본은 낙향한 선비가 절개를 지킨 향낭의 사연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⁴⁶⁾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도령의 가계가 4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신관이 춘향을 동정하며 회유하는 장면과 춘향이 감옥을 빠져나와 이도령을 만나는 장면, 어사출도 후 월매가 죽게 되는 장면 등 독특하게 개작된 내용들이 나타난다(허호구·강재철,

46) 懼其香娘之節行事跡 壤爛泯滅 而不得於後世 故作也 … 香娘之節 亘萬世 烈千秋 而世上民間 作風流話本 其不朽而在者 愈遠而彌久也 靑鼠仲秋○望序(「春香新說」1~4장 新說序) 화봉문고(여승구)에 소장된 「春香新說」은 1966년 박헌봉이 공개한 영인본과 동일한 사본이다(박헌봉, (2008). 『창악대강(唱樂大綱)』 개정판. 영인본. 서울: 국악예술중고등학교. pp.667~691.).

1998, pp.7-25). 권수제는 후대에 추기한 것이며, 「新說」이란 표제도 1941년에 새로 표지를 씌우면서 적은 것이다. 반면에 103장본 「益夫傳」은 판소리 「춘향가」를 9회의 회장제 형식으로 개작하였다.⁴⁷⁾ 필사자가 아전층으로 보이는 만와(晩窩)의 글을 읽고 나서 쓴 것으로, 이도령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춘향은 철저하게 기생으로 묘사되어 있다(류준경, 2003,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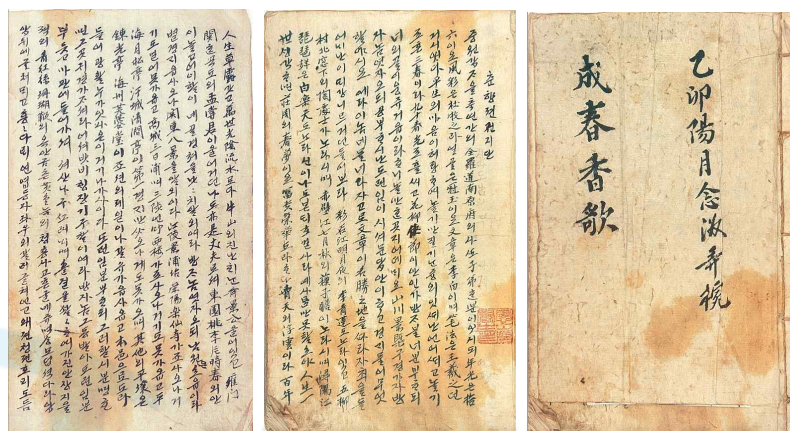
둘째, 1905년(광무 9)에 필사된 20장본 「추월가」(서울대 규장각 소장)는 『춘향전』의 인물과 배경을 모두 개작하였다. 정도령은 주색을 좋아하는 인물이고, 추월은 이방의 딸이자 정절을 지키는 열녀로 묘사되어 있으며, 변학도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약화되었다. 공간적 배경은 평양으로 설정되어 있다.

셋째, 1909년(융희 3)에 필사된 87장본 「춘향전」(사재동 소장)은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대목이 길게 확장되었고, 이도령과 방자의 골계적인 대화도 나온다. 이도령이 오리정에서 춘향의 울음소리를 듣는 장면과 이도령이 신관의 질문에 답변으로 못하고 ‘天’자를 가리키는 장면은 독특한 내용이다. 1914년에 필사된 2권 1책(69장)의 「춘향전」(동국대 도서관 소장)에서는 춘향이 이도령의 요청에 길일을 택하기를 요구하고, 춘향을 잡으러 간 사령들이 돈과 술대접을 받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온다. 춘향의 꿈에서 원귀들의 인명과 죄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며, 결말은 방자와 향단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다. 1911년에 진천군 서암면에서 필사된 68장본 「춘향전」(사재동 소장)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대목에 권주가가 길게 서술되어 있고, 신관생신 잔치 대목에서 적벽가와 심청가를 부르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다. 87장본과 69장본, 68장본의 서체는 모두 반흘림체로 쓰여 있다.

넷째, 1915년에 필사된 45장본 「춘향전」(홍윤표 소장)는 남호거사(南湖居士)가 1915년 음력 10월에 쓰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필사를 마친 것이다. 방자가 이도령의 가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춘향을 설득하는 장면과 오리정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인에게 원정을 올리는 장면, 춘향모가 춘향의 성장 과정을 말하면서 통곡하는 장면 등 독특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신관사또는

47) 一回 李再興讀書登蔭仕(이재흥이 이 글을 읽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다) 二回 李陵令出幸龍岡縣(이재흥이 용강현으로 고을살아가다) 三回 李龍岡復職南原府(이재흥이 남원부사로 복직하다) 四回 李道令月夜宴春香(이도령이 달 밝은 밤에 춘향과 결연하다) 五回 李道令母親上京(이도령이 어머니를 모시고 상경하다) 六回 春香再上書李道令(춘향이 이도령에게 거듭 편지를 보내다) 七回 李道令登科拜繡衣(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다) 八回 李御使出道南原府(이어사가 남원부에 출도하다) 九回 李御使出道各營邑(이어사가 각 영읍에 출도하다)

자약골에 사는 엄판서의 둘째 아들 ‘엄숙’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결말에는 춘향이 낳은 3남 1녀의 이름과 등과(登科) 내용, 춘향이 시집가는 딸에게 경험담을 말해주면서 효성과 효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서체는 작은 크기로 일정하게 쓴 반흘림체이다(〈그림 7〉 참조).



〈그림 7〉 45장본 「춘향전 권지단」(홍윤표 소장) 제1장, 표지

사본 『춘향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사본 『춘향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新說	春香新說	1책(25장)	고종 1년 (1864)	미상	한문	해서체	화봉문고 (여승구)
-	新刪 李益夫傳	1책(103장)	1880~1890	미상	한문	행서체	류탁일
추월가	추월가	1책(20장)	광무 9년 (1905)	미상	한글	반흘림체	서울대 규장각
-	춘향전	1책(87장)	융희 3년 (1909)	미상	한글	반흘림체	사재동
-	춘향전	1책(68장)	융희 5년 (1911)	진천 서암면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사재동
-	춘향전	2권 1책(69장)	1914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동국대 중앙도서관
成春香歌	춘향전	1책(45장)	1915년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홍윤표

3.2 간행본

3.2.1 목판본

목판본 『춘향전』은 현재 19종 44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한글로 된 방각본이다. 간행지역에 따라 경판본 7종 17책과 안성판본 3종 4책, 완판본 9종 23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목판본 『춘향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1 경판본 『춘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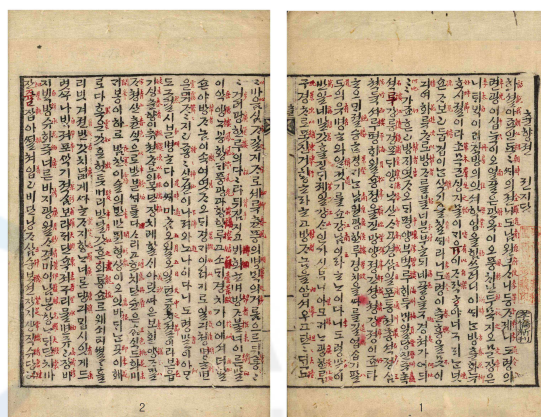
경판본 『춘향전』은 장수에 따라 30장본 3종 3책, 23장본 1종 2책, 17장본 1종 1책, 16장본 2종 11책으로 나뉜다.

첫째, 경판 30장본은 세책본 『춘향전』의 내용과 판소리 창본의 사설을 수용한 판본이다(전상욱, 2006, pp.50-59). 권수제는 모두 「춘향전」으로 동일하며, 판식과 내용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1894년(고종 31)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30장A본(파리 대학언어문명도서관 소장)은 간기가 없어서 간행지와 간행자는 알 수 없다.⁴⁸⁾ 본문은 30장 후면 1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혼용되었다. 1~30장 모두 판심제는 ‘춘’이고, 어미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다. 21~30장의 장차는 ‘十一, 十二 … 十九’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30장에는 춘향의 충절지행과 장부의 일편단심을 강조하는 필사자의 후기가 덧붙여 있다.⁴⁹⁾ 반면에 1887년(고종 24)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30장B본(엔칭도서관 소장)은 A본과 판식이 대체로 동일하지만 권말의 후기가 축약되어 30장 전면 14행까지 판각되어 있다. A본을 번각하면서 30장을 보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수제 아래에는 ‘孝橋新刊’이 새겨져 있는데, 효교는 19세기 중엽 또는 그 이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방각소다(이창현, 2000, p.460). 1~2장의 행간에는 가늘고 붉은

48) 金東旭, W. E. Skillend, D. Bouchez, (1975). 『景印古小説板刻本全集 5』. 영인본. 서울: 羅孫書屋, pp.941-955. 경판30장A본은 1894년(고종 31)에 발행된 모리스 꾸랑의 『朝鮮書誌』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1894년(고종 31)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9) 창가녀조로 정절을 직하여 필경 뜻을 이루니 … 덕강 기록후여 이후 스람으로 충절지행을 효측 게 흐노니 비록 장부라도 님군 섬기는 죽난 반다시 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30장 전면~후면).

글씨체로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자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참조). 고종 34년(1897)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30장C본(동경외국어대학교 소장)는 B본을 번각한 것이다. 간기는 없지만 장서인을 통해 1887~1897년 사이에 동경외국어대학교의 전신인 고등상업학교(高等商業學校)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상욱, 2006, p.25). 판식은 대체로 A본, B본과 동일하며 21장에만 판심제가 없다. 자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본문은 30장 전면 15행까지 판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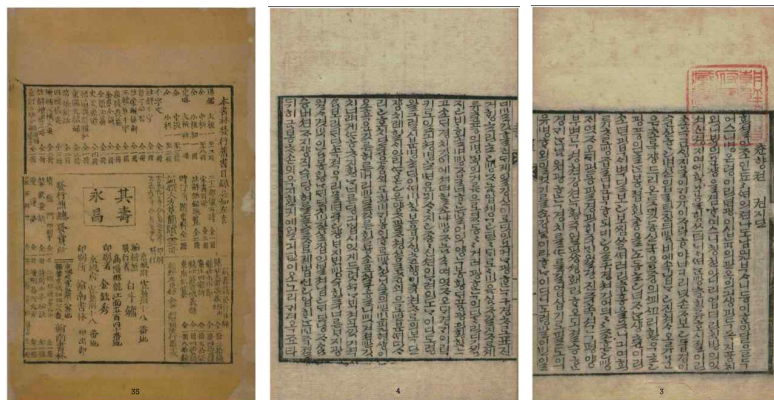
〈그림 8〉 경판 30장B본 「춘향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둘째, 1889년(고종 26)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23장본 「춘향전」(한국고회사연구소)⁵⁰⁾는 경판 30장본을 축약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23장 전면 14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대체로 반흘림체이다. 판각 과정에서 권수제 밑에 새겨진 ‘권지단’의 ‘ㄴ’이 탈각되었거나 판목이 마모되어 ‘권지다’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프랑스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1888~1889년에 조선을 다녀간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7~1893)가 수집하여 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전상욱, 2006, pp.29-30). 이를 근거로 하여 경판 23장본이 늦어도 1889년(고종 26) 이전에는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03년(광무 7)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경판 17장본 「춘향전」(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는 경판 23장본의 1~10장을 번각하고, 11~23장 50) 설성경. (1987). 『춘향전』, 1. 영인본. 서울: 고려서림. pp.481-527.

을 7장으로 축약하여 보판한 것이다. 본문은 17장 전면 13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경판 17장본의 1~10장은 판식과 내용, 권수제 밑의 ‘권지다’까지 경판 23장본과 동일한 반면에 11~17장은 행자수가 32~34자로 늘어나 글자가 작고 판식이 조밀하다. 어미는 1, 2장은 상하향흑어미, 3~10장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 11~17장은 상하내향흑어미이다. 행간에는 작은 글씨로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권말에 ‘以春香爲貞節夫人, 以戒後之爲女子者也’라는 필사자의 당부가 덧붙여 있다.

넷째, 경판 16장본 「춘향전」은 1920년 에서 간행된 경판 16장A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192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16장B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등 2종 11책이 전해지고 있다.⁵¹⁾ 두 판본 모두 간기는 없지만 권말에 판권지가 붙어 있다. A본은 경판 17장본의 1~10장을 번각하고, 11~17장을 6장으로 축약하여 보판한 것이다. 본문은 16장 전면 16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어미는 1~10장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 11~16장은 상하향흑어미이다. 판심제는 1~16장 모두 ‘춘’이고 상어미 위에 있다. 11~16장은 글자 크기가 작고 판식이 조밀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자체의 ‘흘림의 정도’가 심해진다. 행자수를 늘리고 장수를 줄임으로써, 간행 비용과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판권지의 인쇄 및 발행일은 붓으로 가필되어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경판 16장A본 「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장

51) A본과 동일한 판본이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2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고려대 중앙도서관,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등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B본과 동일한 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영남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책씩 소장되어 있다.

경판 16장B본은 A본의 후쇄본으로 판식과 내용이 동일하며, 일반 양지에 양면으로 인쇄되었다. B본의 표지 뒷면에는 A본과 다른 형태의 판권지가 붙어 있다. 인쇄자는 조명천으로 바뀌었으며, 분매소가 새로 추가되었다. 간행년도는 가필할 수 있도록 ‘大正十一年’이라고 표기하였다. 글자의 번짐이 심하고 탈각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등 대체로 인쇄 상태가 거칠고 고르지 못하다.

경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경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경판 30장A본	-	춘향전	1책(30장)	고종 31년 (1894) 이전	미상	미상	반흘림체 흘림체	파리 대학 언어문명 도서관
경판 30장B본	춘향전	춘향전	1책(30장)	고종 24년 (1887) 이전	孝橋 (서울)	미상	반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경판 30장C본	-	춘향전	1책(30장)	고종 34년 (1897) 이전	미상	미상	반흘림체 흘림체	동경외국어 대학교
경판 23장본	-	춘향전	1책(23장)	고종 26년 (1889) 이전	미상	미상	반흘림체	한국교회사 연구소
경판 17장본	春香傳	춘향전	1책(17장)	광무 7년 (1903) 이전	미상	미상	반흘림체 흘림체	연세대 학술정보원
경판 16장A본	春香傳	춘향전	1책(16장)	1920년	翰南書林 (서울)	白斗鏞	흘림체 반흘림체	국립중앙 도서관
경판 16장B본	춘향전	춘향전	1책(16장)	1921년	翰南書林 (서울)	白斗鏞	흘림체 반흘림체	서울대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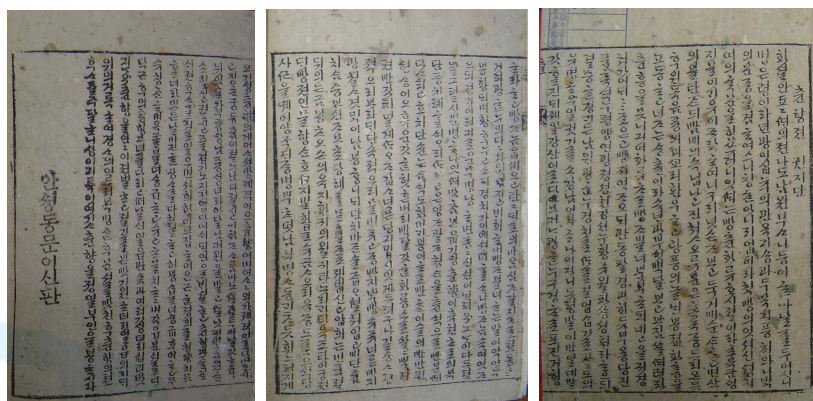
3.2.1.2 안성판본 『춘향전』

안성판본 『춘향전』은 3종 4책이 전해지고 있다. 권수제는 모두 「춘향전」이고 판식과 장수, 내용은 동일하다.

1906년(광무 10) 이전에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된 안성판 20장A본(서강대 로올라도서관 소장)은 경판 23장본을 축약하여 간행한 것이다.⁵²⁾ 본문은 20장 후면 11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 간기 ‘안성동문이신판’이 새겨져 있

52) A본과 동일한 판본이 일본 동양문고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다. 자체는 흘림체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흘림의 정도가 심해지고 판식이 조밀해진다. 어미는 20장 모두 상하향이엇화문어미이고, 그 위에 판심제 ‘춘’이 새겨져 있다(〈그림 10〉 참조). 표지에는 1910년에 미동과 궁내정동에서 소장했다는 장서기가 있어서, 안성판 20장본이 서울에서도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안성판 20장A본 『춘향전』(서강대 로올라도서관 소장) 제20장 후면 간기, 제1장

1912년 북촌서포(北村書舖)에서 간행된 안성판 20장B본(충남대 도서관 소장)은 A본을 번각하고 판권지를 붙여 간행한 것으로, 저작검발행자는 박성칠이다. 1917년 박성칠서점(朴星七書店)에서 간행된 안성판 20장C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B본의 재판본으로, 글자의 탈각과 마멸이 심하며 인쇄상태가 거칠고 고르지 못하다. B본과 C본의 판권지에는 간행일자를 가필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안성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안성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안성판 20장A본	춘향전	춘향전	1책(20장)	광무 10년 (1906) 이전	안성 동문리	미상	흘림체	서강대 로올라 도서관
안성판 20장B본	春香傳	춘향전	1책(20장)	1912년	北村書舖 (안성)	박성칠	흘림체	충남대 도서관
안성판 20장C본	춘향전	춘향전	1책(20장)	1917년	朴星七書店 (안성)	박성칠	흘림체	국립중앙 도서관

3.2.1.2 완판본 『춘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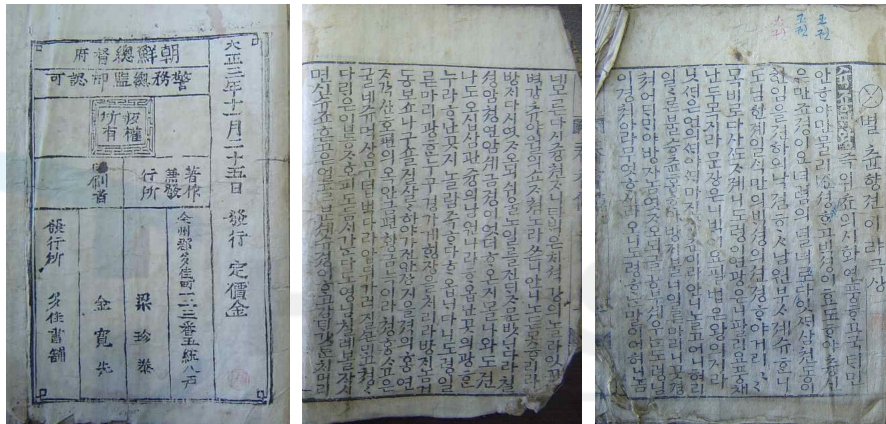
완판본 『춘향전』은 9종 2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장수에 따라 26장본 1종 1책, 29장본 2종 2책, 33장본 1종 3책, 84장본 5종 17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08년(융희 2)에 완서(전북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 26장본 「별춘향전이라」(임형택 소장)은 완판 29장본 및 경판 30장본과 내용적으로 친연성이 높은 판본이다.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고, 완판 29장본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도 나타나며, 권말에는 경판 30장본과 동일한 교훈적인 후기가 덧붙여 있다. 본문은 26장 후면 12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서 ‘戊申季秋完西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판심제는 대체로 ‘春香’이고, 10장은 ‘春香傳’, 21장은 ‘춘향’, 1장과 6장, 7장, 14장은 알 수 없다. 장차 표기가 9장은 ‘八’, 10장은 ‘九’, 11장은 ‘十’, 13장은 ‘十二’, 15장은 ‘十四’, 16장은 ‘十五’로 되어 있어서 장의 순서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1~9장과 16~20장은 12행 반흘림체이고, 15장 후면과 21장 후면, 22장은 13행 반흘림체, 10~15장 전면과 21장 전면, 23~26장은 14행 정자체로 되어 있다. 완판 방각소설의 서체가 대체로 반흘림체에서 정자체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완판 26장본은 본래 12행 반흘림체로 간행되었다가 나중에 13행 반흘림체와 14행 정자체로 두 차례 보판된 것으로 보인다(전상욱, 2008, pp.205-206). 행자수를 늘리고 장수를 줄여서 간행비용을 절약하고자 한 방각업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완판 29장본 『춘향전』은 1914년 다가서포(多佳書舖)에서 간행한 완판 29장A본(여태명 소장)과 1932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29장B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이 전해지고 있다. 모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창본을 토대로 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완판 29장A본은 권수제가 「⊗별춘향전이라극상」이고, 본문은 29장 후면 14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행자수는 5~13장, 18~29장은 14행이고, 1~4장과 15~17장은 12행, 14장 전면은 10행, 후면은 11행이어서 일정하지 않다. 판심제는 대체로 ‘春香傳’이고, ‘춘향전, 春香, 別春香傳’ 등도 나타난다.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와 상하

내향일엽화문어미,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등이 혼재되어 있다.⁵³⁾ 28, 29장은 장차 표기가 각각 ‘三十九’와 ‘四十’으로 오각되어 있다. 18~29장은 다른 장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판식이 조밀하여 보판된 부분으로 보인다. 서두 부분의 ‘**숙종덕왕**’은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소리 대목을 구분하기 위해 ‘○, ●, ①, ②, ◇, ◎, ⑤, ⑥’와 같은 부호가 사용되었다. 29장 후면은 ‘어스또 형장을 찰려 춘향이를 거늘려 경성으로 가다 광덕 목도 쉬니 쿵 “ ”’으로 끝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완판 29장A본 「⊗별출향전이라극상」(여태명 소장) 판권지, 제1장

완판 29장B본은 A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이며, 자체와 판식이 일정하지 않고 오각과 탈각이 많이 나타난다.⁵⁴⁾ 권수제는 「별출향전이라」이고 본문은 29장 후면 14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자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간기는 없지만 장서기를 통해 1932년에 김동호라는 사람이 책을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본 권수제의 ‘극상’과 B본 권수제의 ‘별’은 저본이나 다른 판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판각하는 과정에서

53) 판심제는 1~5, 7, 8, 11~22, 25~28장은 ‘春香傳’이고 6, 9, 10장은 ‘춘향전’, 23, 24장은 ‘春香’, 29장은 ‘別春香傳’이다. 어미는 1, 2, 4, 5, 19, 22, 24, 28장은 상하내향흑어미, 6~15, 18, 20, 21, 25, 29장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3, 17장은 상하내향일엽화문어미, 23, 26, 27장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하상향흑어미 혼합이다. 16장은 낙장되어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

54) 판심제는 대체로 ‘春香傳’이지만 6, 9, 10장은 ‘춘향전’, 29장은 ‘別春香○’이다. 행자수는 1~4, 15~17장은 12행이고, 나머지 장은 14행이다. 14장은 전면 10행, 후면 11행으로 되어 있다. 어미는 대체로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4~6, 22장은 上下內向黑魚尾, 16장은 어미가 없다.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06년(광무 10) 완산(전북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라」(김동옥 소장)는 완판 29장본의 내용을 확대·개작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완판 33장본은 총 24,710여자인데, 그 중에서 47%는 완판 29장본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새롭게 개작하였다(전상욱, 2008, p.213). 29장본과 같이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천자뒤풀이 대목과 삽입가요 등은 길게 확장되었다. 서두 부분의 **「속중」**은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다. 본문은 33장 후면 5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서 간기 ‘丙午孟夏完山開刊’이 새겨져 있다. 판식 면당 15행으로 일정하며, 23장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와 하상향일엽화문어미가 혼합되어 있고, 1, 2, 24, 33장은 심하게 훼손되어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 자체는 대체로 정자체인데, 24장은 다른 장과 달리 좌우가 나란히 균형을 이룬 정자체여서 후대에 보판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완판 84장본 『춘향전』은 2권 1책으로서, 현재 5종 21책이 전해지고 있다. 완판 33장본을 모본으로 하되 춘향의 열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확장하여 간행하였다. 상권 권수제는 「열녀춘향수절가라」이고 하권 권수제는 「춘향전하권이라」이다.

1908년(융희 2)에 구동(龜洞, 전북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 84장A본(화봉문고 소장)은 상권의 간기가 ‘戊申 仲夏 龜洞新刊 春香傳 上終(45장 후면)’이고, 하권의 간기는 ‘戊申 季夏 龜洞新刊 春香傳 下終(39장 후면)’이다. 상권은 1908년(융희 2) 5월에 판각되었으며, 본문은 45장 후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하권은 같은 해 6월에 판각되었으며, 본문은 39장 후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하권의 권수제는 **「춘향전하권이라」**와 같이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자체는 일정하게 새겨진 정자체이다(<그림 12> 참조). 1912년 완흥사서포(完興社書舖)에서 간행한 완판 84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판식 및 자체가 A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A본의 판목에 새겨진 간기를 제거한 후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어미는 대체로 상하내향흑어미이며, 상하향이엽화문어

55) (고) 김동옥 교수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완판 33장본은 『影印解説古小説選』에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실물의 행방은 알 수 없다(김동옥·김태준, (1977). 『影印解説古小説選』. 영인본. 서울: 개문사, pp.11-27.). 완판 33장본은 배연형도 1책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 완판 84장B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미와 하상향흑어미 혼합도 있다. 판심제는 대체로 ‘춘향上’과 ‘춘향下’이고, 일부 ‘춘향上終’, ‘춘향上’, ‘춘향上’, ‘춘향下’, ‘춘향’ 등도 나타나고 있다.⁵⁷⁾ 하권 18장은 글자 크기가 작고 판식이 조밀하여 후대에 보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완판 84장A본(여승구 소장) 하권 제1장 전면, 상권 제45장 후면 간기, 제1장 전면

1915년 이전에 완서계서포(完西溪書舖)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84장C본(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B본을 저본으로 하여 새로 판각한 판목을 이용하여 간행된 것이다.⁵⁸⁾ 상권의 간기는 ‘春香傳上終(45장 후면)’이고 하권의 간기는 ‘完西溪書舖(39장 후면)’라고 추가되어 있다. 하권의 권수제는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39장 다음 장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다. 서계서포의 판권지가 낙장된 것으로 보인다. 1916년 다가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84장D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B본에 사용된 판목으로 인출한 책에다가 판권지를 붙여서 발행한 후쇄본이다.⁵⁹⁾ 상권 45장과 하권 39장의 공란에는 기존에 판각되어 있던 간기를 제거한 흔적이 보인다. 책의 인쇄 상태도 전체적으로

57) 판심제는 상권의 경우 1, 2, 4~19, 21, 22, 24~28, 30~36, 38~44장은 ‘춘향上’이고, 3, 20, 23, 37장은 ‘춘향上’, 29장은 ‘춘향上’, 45장은 ‘춘향上終’이다. 하권의 경우 1~18, 20~27, 29~39장은 ‘춘향下’이고, 19장은 ‘춘향’, 28장은 ‘춘향下’이다.

58) 완판 84장C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명대 동산도서관에도 1책씩 소장되어 있다. 1915년에 필사된 90장본 「열여춘향전」(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이 서계서포에서 발행된 완판 84장본을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완판 84장C본은 늦어도 1915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9) 완판 84장D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경북대 도서관 등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고르지 못하고 글자의 번짐이 많이 나타난다. 경북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완판 84장D본에는 다른 형태의 다가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分賣所 京鄕各書館’가 추가되었으며, 판매가격과 인쇄자 부분은 가필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두었다. 1949년 조선진서간행회(朝鮮珍書刊行會)에서 간행된 완판 84장E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김삼불이 소장하고 있던 C본의 판목을 이용하여 50부 한정판으로 발행한 후쇄본이다.⁶⁰⁾ 김삼불의 해제가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판권지에는 ‘金三不氏藏板’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인쇄 상태가 매우 흐리고 글자의 번짐과 마멸이 심하게 나타난다.

완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완판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완판 26장본	-	별춘향전이라	1책(26장)	1908년 (융희 2)	完西 (전북 전주)	미상	반흘림체 흘림체	임형택
완판 29장A본	-	⊗별춘향전이라극상	1책(29장)	1914년	多佳書舖 (전북 전주)	梁珍泰	반흘림체 정자체	여태명
완판 29장B본	別春香	불 별춘향전이라	1책(29장)	1932년 이전	미상	미상	흘림체 반흘림체 정자체	연세대 학술정보관
완판 33장본	-	열녀춘향수절가	1책(33장)	1906년 (광무 10)	完山 (전북 전주)	미상	정자체	김동욱
완판 84장A본	열여춘향 수절가	열여춘향수절가라(상권) 춘향전하권이라(하권)	2권 1책 (84장)	1908년 (융희 2)	龜洞 (전북 전주)	미상	정자체	화봉문고 (여승구)
완판 84장B본	春香傳	열여춘향수절가라(상권) 춘향전하권이라(하권)	2권 1책 (84장)	1912년	完興社書舖 (전북 전주)	朴敬輔	정자체	국립중앙 도서관
완판 84장C본	-	열여춘향수절가라(상권) 춘향전하권이라(하권)	2권 1책 (84장)	1915년 이전	完西溪書舖 (전북 전주)	미상	정자체	고려대 중앙도서관
완판 84장D본	春香傳	열여춘향수절가라(상권) 춘향전하권이라(하권)	2권 1책 (84장)	1916년	多佳書舖 (전북 전주)	梁珍泰	정자체	국립중앙 도서관
완판 84장E본	烈女春香 守節歌	열여춘향수절가라(상권) 춘향전하권이라(하권)	2권 1책 (84장)	1949년	朝鮮珍書 刊行會 (서울)	미상	정자체	서울대 중앙도서관

60) 완판 84장E본은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2책,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화봉문고(여승구), 김동욱 등에 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3.2.2 신연활자본

신연활자본 『춘향전』은 현재 20종 90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옥중화 계열 13종 51책과 비옥중화 계열 7종 39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2.1 옥중화 계열

옥중화 계열은 1912년에 간행된 국한문혼용본 「獄中花(春香歌演訂)」와 이를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현재 13종 51책이 전해지고 있다.

1) 「獄中花(春香歌演訂)」

「獄中花(春香歌演訂)」는 이해조가 1912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박기홍 창본 「춘향가」를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1912년 초판을 시작으로 17판까지 간행되었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은 판본이다. 춘향의 정절과 이도령과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이도령이 변학도를 용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1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초판과 재판, 3판, 10~16판은 실물 판본이 없어서 내용과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⁶¹⁾

첫째, 1913년 6월 보급서관에서 간행한 4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獄中花」이고 권수제는 「訂正四刊 獄中花(春香歌演訂)」이다. 본문은 188면 7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 한글을 병기하였다. 행자수는 면당 11행에 2~34자로 일정하지 않다. 매면 상단에는 옥중화(썩수면), 獄中花(홀수면)란 면주(面註)와 면수(面數)가 표시되어 있다. 인물의 대화는 지문과 구분하기 위해 한 칸 내려졌으며, 대화 앞에는 화자를 표시하였다. 삽화는 오리명예 리도령을 작별하다(삽화 1), 신관이 춘향을 형장치다(삽화 2), 어스카 춘향을 옥에 가 찾다(삽화 3) 등 3장이 실려 있다. 삽화 1과 3에는 당시 서화가로 활동했던 관재(貫齋) 이도영(李道榮)의 낙관이 찍혀 있다(<그림 13> 참

61) 초판과 재판, 3판의 간행일자는 4판의 판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판은 1912년 8월 27일, 재판은 1913년 1월 10일, 3판은 1913년 4월 5일에 간행되었다.

조). 1913년 10월 보급서관에서 간행된 5판 「訂正五刊 獄中花(春香歌演訂)」(여승구본)의 내용과 판식은 4판과 동일하다.



〈그림 13〉「獄中花(春香歌演訂)」4판(영남대 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2면, 제1면, 삽화 3장

둘째, 1914년 2월 보급서관에서 간행된 6판 「訂正六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판식과 내용이 4판과 동일하며, 관재 이도영이 그린 채색표지화와 삽화 1장이 추가되었다.⁶²⁾ 표지는 화중화(畵中畵) 방식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노란색과 빨간색 국화 사이에 광한루의 산수풍경이 그려진 서책을 끼워 넣은 형상이다. 삽화는 방자가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 ‘리도령이 광한루에 춘향을 부른다’라는 화제가 제시되어 있다. 표지와 삽화에는 이도영의 낙관이 찍혀 있다(〈그림 14〉

62) 6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화봉문고(여승구)에도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참조). 4판은 보급서관에서 발행과 판매를 모두 담당하였지만 6판은 보급서관에서 발행하고, 청송당서점(靑松堂書店)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림 14〉「獄中花(春香歌演訂)」 6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추가된 삽화, 채색표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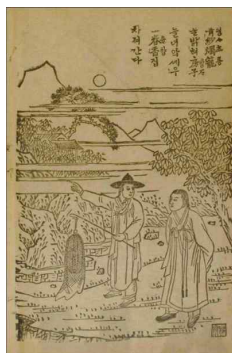
1914년 12월 보급서관에서 간행된 7판 「訂正七刊 獄中花(春香歌演訂)」(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6판과 동일한 판본으로, 표지 배경에 청록색이 사용되었다. 분매소는 청송당서점에서 회동서관(滙東書館)과 광한서림(廣韓書林)으로 바뀌었다. 1920년 12월 대창서원(大昌書院)에서 간행된 8판 「訂正八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4판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삽화를 모두 생략하였다. 판권지에는 편역자 이해조를 생략하고 저작점발행자가 승목양길(勝木良吉)로 바뀌었다. 이와 동일한 8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1921년 1월에 재출간되기도 하였다.

셋째, 1917년 5월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간행된 9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행자수가 면당 13행 35자로 늘어나고 전체 분량이 157면으로 줄어들었다. 7판에서는 본문 사이에 있었던 삽화들이 모두 1면 앞으로 옮겨졌으며, 〈삽화 2〉의 화제 ‘신관이 춘향을 형장 치다’는 생략되었다. 1921년 12월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17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9판과 동일한 판식이지만 삽화가 11장으로 늘어났다. ‘오리덩에 리도령을 작별하다’는 ‘만년수식으로 유정낭군을 작별하느 오리정 하에 춘향’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그림이 7장 추가되었다. 새로 추

가된 삽화 1, 3, 7에는 관재 이도영의 낙관이 찍혀 있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모습을 그린 <삽화 1>은 채색되어 있다(<그림 15> 참조). 17판은 1921년 이후에 「고딕소설옥중가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표제와 채색표지화를 바꾸고 다시 한번 발행되었다. 1926년 10월에 간행된 6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도 9판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발행자가 노익형(盧翼亨)으로 바뀌었고 삽화는 모두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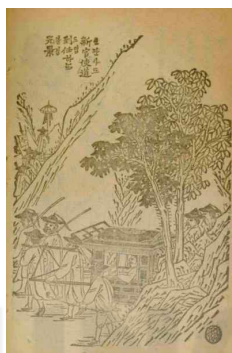
<삽화 1> 춘향과 이도령



<삽화 3> 청스초롱 불 밝히 房子들너 압세우고 春香 집 차져간다



<삽화 4> 만던수식으로 유경남군을 작별하는 오리정 하에 춘향



<삽화 5> 新官使道 到任하는 光景



<삽화 7> 花落하니 能成 實이오 鏡破하니 豈無聲가 春香 편지 보고 하고 滋味있게 解夢한다 이



<삽화 8> 御使道 길에서 春香 편지 보고 어이이



<삽화 10> 御使道가 本官生日잔치에 드러나니 눈치잇는 雲峯 營將~



<삽화 11> 御使道 春香 집 차자가서

<그림 15> 「獄中花(春香歌演訂)」 17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새로 추가된 삽화

1923년 1월에 대창서원과 보급서관에서 공동으로 2차례 발행한 「訂正八刊 獄中花」(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면당 11~21행으로 바뀌었으며 전체

분량은 174면이다. 17판과 동일한 삽화 11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다. 161면부터는 행간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간격을 줄여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獄中花(春香歌演訂)」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역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본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獄中花	訂正四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13년 6월 20일	4판	李海朝	金容俊	普及書館	40전	188면	3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	訂正五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13년 10월 30일	5판	李海朝	金容俊	普及書館	40전	188면	3장	여승구
獄中花 춘향가	訂正六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14년 2월 5일	6판	李海朝	金容俊	普及書館 (靑松堂書店)	40전	188면	4장	국립중앙 도서관
獄中花 춘향가	訂正七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14년 12월 25일	7판	李海朝	金容俊	普及書館 (滙東書館) 廣韓書林	40전	188면	4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	訂正九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17년 5월 28일	9판	李海朝	金容俊	博文書館	40전	157면	4장	국립중앙 도서관
-	訂正八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20년 12월 30일	8판	勝木良吉	勝木良吉	大昌書院	50전	188면	-	국립중앙 도서관
		1921년 1월 10일	8판	勝木良吉	勝木良吉	大昌書院	50전	188면	-	국립중앙 도서관
-	訂正九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21년 12월 25일	17판	李海朝	金容俊	博文書館	45전	157면	11장	국립중앙 도서관
고딕소설 옥중가인	訂正九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21년 이후	-	-	-	-	-	157면	11장	국립중앙 도서관
-	訂正八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23년 1월 22일, 25일	초판	玄公廉	玄公廉	大昌書院 普及書館	45전	174면	11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	訂正九刊 獄中花 (春香歌演訂)	1926년 10월 15일	6판	李海朝	盧翼亨	-	-	157면	-	영남대 중앙도서관

2) 「獄中花(春香歌演訂)」 개작

첫째, 1913년 7월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한글본 「신역 별춘향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獄中花(春香歌演訂)」의 내용을 24절의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하였다. 권수제 아래에는 ‘原著 東溪 朴頤陽’이라고 개작자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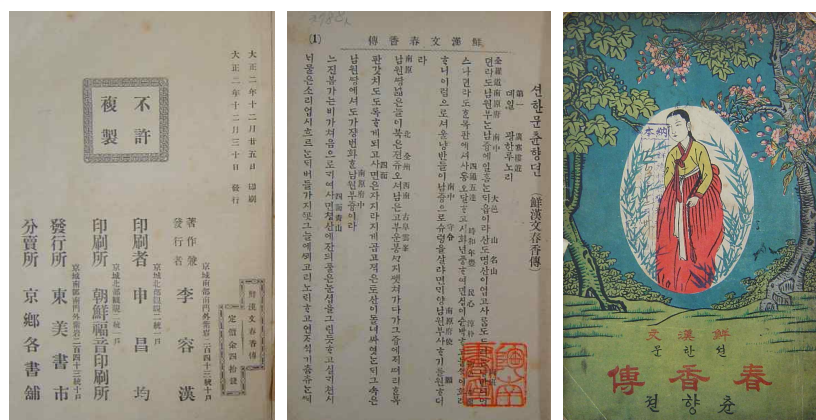
본문은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과 관련이 없는 대목을 축소·생략하였다. 어절 또는 문장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고사나 시구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채색표지화는 화중화(畵中畵) 방식을 적용하여 좌측에는 섬세하게 그려진 모란꽃이, 우측 하단에는 광한루로 보이는 누각이 네모 칸 안에 그려져 있다.

「신역 별춘향가」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신연활자본 「신역 별춘향가」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신역 별춘향가	신역 별춘향가	1913년 7월 20일	초판	朴頤陽	南宮濬	唯一書館 (京鄕各書舖)	30전	144면	-	국립중앙 도서관

둘째,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은 「獄中花(春香歌演訂)」의 내용을 13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하였다.⁶³⁾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드러내고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는 대목이 길게 확장되었다. 1913년 12월에 초판을 시작으로 1923년에 5판까지 간행되었다. 현재 초판과 4판이 각각 1책, 4판을 재출간한 판본 2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한글본으로 되어 있다.



<그림 16> 「선한문춘향전」 초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63) 데일 광한루노리, 데이 천즈뒤푸리, 데삼 춘향의집간다, 데사 빅년결약, 데오 스랑가, 데옥 리 별, 데칠 신관도임, 데팔 옥중고혼, 데구 리도령대과급데, 데십 옥중희몽, 데십일 룡부가, 데십이 직봉춘향, 데십삼 신관생일잔치

1913년 12월 동미서시(東美書市)에서 간행된 초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본문이 208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삽화 8장은 이도영이 그린 것으로 각 그림마다 화제를 제시하였다. 표지화는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중앙의 원 안에 대나무 잎으로 둘러싸인 춘향을 그려 넣었고, 우측에는 매화나무, 좌측에는 오동나무를 그렸다(〈그림 16〉 참조).

1918년 3월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增修春香傳증수춘향전」이고 권수제는 「증수춘향전(增修春香傳)」으로 바뀌었다. 본문은 110면 16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삽화는 6장이 실려 있다. 초판의 삽화 1과 삽화 2는 삭제되었고, 삽화 3은 '리도령이 춘향집에서 이별하다'로 바뀌었다. 9면부터는 행간에 병기하던 한자를 생략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화와 지문도 구분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표지화는 춘향의 집 후원에 있는 누각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춘향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도령의 모습을 부감 시점으로 표현하였다. 판권지에 나온 분매소가 광한서림과 동미서시 등 6곳이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4판은 1923년 3월에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4년 12월에 재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으로 재출간되었다. 삽화 8은 생략되고 이도령과 춘향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삽화가 추가되었다. 재판의 표지화는 이도령과 춘향이 누각의 계단에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강렬한 원색으로 채색되었다.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신연활자본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선한문춘향전 (鮮漢文春香傳)	선한문춘향전 (鮮漢文春香傳)	1913년 12월 30일	초판	李容漢	李容漢	東美書市	40전	208면	8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增修春香傳 증수춘향전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1918년 3월 17일	4판	李容漢	李容漢	淮東書館 (광한서림 외 5곳)	40전	110면	6장	국립중앙 도서관
增修春香傳 증수춘향전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1923년 3월 6일	초판	高裕相	高裕相	淮東書館 (광한서림 외 5곳)	35전	110면	6장	국립중앙 도서관
增修春香傳 증수춘향전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1924년 12월 23일	재판	高裕相	高裕相	淮東書館 (광한서림)	35전	110면	6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셋째, 「증상연예옥중가인」은 정북평 창본을 독서와 연극에 응용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1914년 4월 초판을 시작으로 1923년에 13판까지 간행되었다. 현재 12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국한문혼용본이다. 표제는 「增像演藝獄中佳人(漢鮮文春香傳)」이고 권수제는 「증상연예옥중가인」이며, ‘玉蓮菴 監校 古優 丁北平 唱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문은 19막으로 된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되었으며,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리정 이별대목을 추가하였다.⁶⁴⁾ 서문에는 『춘향전』이 창우에 의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참된 가치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감하였다고 밝혔다.⁶⁵⁾ 재판과 3판, 9판은 실물이 없어서 내용과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7〉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1914년 4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221면 8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⁶⁶⁾ 각 막의 서두에는

- 64) 제1막 그네뛰는디, 제2막 칩방에글넌는디, 제3막 빅년결약하는디, 제4막 사랑노리, 제5막 리별, 제6막 슈심상사, 제7막 신관도임, 제8막 기침덥고, 제9막 춘향잡혀오는디, 제10막 춘향옥에갓치는디, 제11막 리도령과거보는디, 제12막 어스남원느려오는디, 제13막 옥중에서히몽하는디, 제14막 어사춘향집쳐조오는디, 제15막 어사옥에차자가는디, 제16막 신관싱일잔치하는디, 제17막 어사출도하는디, 제18막 어사춘향을방송하는디, 제19막 어사와춘향의감구정담
- 65) 춘향면이 세상에 던흔지 오리라. …(중략)… 그 글은 능히 텃하 사람의 연연한 사랑과 불갓흔 욕심과 췌긋흔 절개와 억울흔 한탄과 참혹흔 정상과 상쾌흔 신명과 덩딘흔 떼모와 기결묘절흔 싱각을 모왔스며 …(중략)… 세상 인정에 대하여 큰 교훈을 췌친바 잇스니 이는 참 죠션 문예의 조흔 산물이라. 그러는 불헝히 문인의 붓췌를 친치 못헝고 창우의 구두에마 흘너 던헝고로 …(중략)… 창본(唱本)이 출판되랴흠에 너 붓딕를 드러 덩길며 곳치는 수고를 잇기지 아니헝노니 이 글을 넉고 참갑을 알아주는 이 잇스면 그곳 나의 췌를 안다헝리로다. 「옥련음」

장소, 무대, 소품을 설명한 설비(設備)와 배우, 인물을 설명한 출장(出場)이 제시되어 있다. 대화 부분은 지문과 구분하여 한칸 내려쓰고, 대화 앞에는 괄호 안에 화자를 표시하였다. ‘△…△’ 부분은 연극에 응용할 수 있는 노래 대목을 표시한 것이다. 표지화는 관재 이도영이 그린 것으로, 우아한 전서체의 표제와 섬세한 필선,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전통 민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활짝 핀 매화꽃과 모란꽃 위로 나비 두 마리가 날아드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그림 17〉 참조). 본문 앞에는 소설의 인물과 주요 장면을 묘사한 삽화 9장이 제시되어 있다. 춘향을 그린 삽화 1은 채색되어 있으며, 삽화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림에는 이도영의 낙관이 찍혀 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실린 삽화

1916년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면당 12행으로 바뀌면서 전체 분량이 203면으로 줄어들었고, 이도령을 그린 채색 삽화가 1장 추가되었다.

66) 초판본은 화봉문고(여승구)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같은 해 간행된 5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서는 춘향모와 상단의 모습, 기생 점고 장면을 그린 삽화가 생략되었다. 1918년 간행된 8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부터는 면당 16행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분량이 144면으로 줄어들었다. 초판의 삽화 중에 춘향을 그린 삽화가 ‘이도령이 춘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춘향이 손으로 이도령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을 그린 삽화로 대체되었다. 남녀 간의 자유 연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8판과 동일한 판본이 1923년 13판까지 재출간되었으며, 같은 해에 박문서관에서도 한차례 발행하였다. 박문서관 간행본(여승구 소장)은 서로 바라보고 서 있는 춘향과 이도령에게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그린 삽화는 색감이 진하고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증상연예옥중가인」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신연활자본 「증상연예옥중가인」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4년 4월 30일	초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0전	221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6년 1월 12일	4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0전	203면	10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6년 5월 17일	5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0전	203면	8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6년 12월 16일	6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0전	203면	10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7년 3월 25일	7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0전	203면	10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8년 1월 15일	8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50전	144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9년 3월 15일	10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50전	144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20년 10월 25일	11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5전	144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22년 1월 20일	12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5전	144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23년 2월 27일	13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45전	144면	9	국립중앙 도서관
増像演藝 獄中佳人	증상연예 옥중가인	1923년	-	-	-	博文書館	-	144면	9	여승구

넷째, 「특별무쌍춘향전」은 「獄中花(春香歌演訂)」를 모본으로 하여 『춘향전』을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한 것이다. 1915년 초판을 시작으로 1920년에 4판까지 발행되었으며, 현재 초판과 재판 1책, 4판 2책이 전해지고 있다.

1915년 12월 조선서관(朝鮮書館)에서 간행된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본문이 14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마다 서두에는 소제(小題)를 제시하였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음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두 사람이 첫날밤에 한시를 주고받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본문은 148면 11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10면까지는 행간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본문 앞에는 등장인물과 기생점고 장면을 묘사한 삽화 2장이 실려 있으며, 『춘향전』을 읽는 4가지 방법(讀春香傳四法)⁶⁷⁾이 소개되어 있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특별무쌍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판 제1면, 삽화, 재판 채색표지화

1917년 1월 조선서관에서 발행한 재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행간에 병기했던 한자를 생략하고, 화중화 방식으로 그린 채색표지화를 사용하였다. 원안에는 나귀를 탄 이도령이 방자를 앞세우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밖에는 춘향을 상징하는 빨간색 모란꽃이 둘러싸고 있다(<그림 19> 참조). 1920년 8월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독춘향전사법이 생

67) 춘향전을 지으면서 술을 마시고 고인에 대해 통곡을 했으니 읽는 자 역시 술을 마시고 읽어야 한다(一曰飲酒讀), 춘향전은 거문고 가락과 같아 哀調, 怨調, 艷調, 蕩調가 있으니 거문고 가락을 알지 못하는 자와 더불어 여기에 음악이 있다고 논할 수 없다(二曰彈琴讀), 춘향전은 슬프고 처량하며 한편 한스럽고, 한편 흥이 있으니 달을 보면서 읽으면 그러한 느낌을 더할 수 있다(三曰對月讀), 춘향전 한편을 꽃으로 보고, 그 구성을 꽃의 피고짐에 비유하고 있다(四曰看花讀).

략되었고 삽화가 9장으로 늘어났다.⁶⁸⁾ 삽화 1(절디가인 성춘향과 풍류지자 리도령)은 채색되어 있고, 삽화 4(新官下學道와 新官下人行列)와 삽화 8(어사 출도), 삽화 9(영등춤 추는 춘향모)에는 이도영의 낙관이 찍혀 있다. 표지화의 구도는 재판과 동일하지만 묘사가 투박하고 단순해져 섬세함이 떨어진다.

「특별무쌍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신연활자본 「특별무쌍춘향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特別無雙 春香傳	특별무쌍 춘향전	1915년 12월 25일	초판	朴健會	朴健會	朝鮮書館 (唯一書館) (漢城書館)	35전	148면	2장	국립중앙 도서관
特別無雙 春香傳	특별무쌍 춘향전	1917년 1월 20일	재판	朴健會	朴健會	朝鮮書館 (唯一書館) (漢城書館)	35전	149면	2장	국립중앙 도서관
特別無雙 春香傳	특별무쌍 춘향전	1920년 8월 8일	4판	朴健會	朴健會	唯一書館	45전	146면	9장	국립중앙 도서관

다섯째, 1916년 1월 세창서관에서 간행된 한글본 「獄中佳花」(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特定新刊 獄中佳花」이고, 본문은 140면 12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⁶⁹⁾ 서두 부분에 춘향모가 상단에 춘향과 같이 추천을 가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표지화는 「증상 연예옥중가인」 초판과 유사하지만 매화꽃의 꽃봉우리와 수술을 크게 그렸고 우측 하단에는 춘향의 인물상을 그려 넣었다. 1918년 11월 대창서원에서 재출간된 「獄中佳花」(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獄中佳花 춘향전」으로 바뀌었다. 본문은 108면 4행까지 인쇄되었으며, 행자수가 늘어나고 판식이 조밀해져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표지화는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원 안에는 방자가 춘향에게 이도령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오작교를 건너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원 밖에는 나비 두 마리가 매화꽃에 날아드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獄中佳花」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68) 4판은 영남대 중앙도서관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69) 초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표 18〉 신연활자본 「獄中佳花」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特定新刊 獄中佳花	獄中佳花	1916년 1월 10일	초판	姜義永	姜義永	世昌書館	40전	140면	-	국립중앙 도서관
獄中佳花 춘향전	獄中佳花	1918년 11월 21일	-	姜義永	姜義永	大昌書院 (普及書館)	40전	108면	-	국립중앙 도서관

여섯째, 1917년 9월 한성서관에서 간행한 「(演演訂정춘춘향향傳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南原 獄中花(춘향전)」이고 본문은 147면 3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서두 부분만 일부 개작되었으며, 나머지는 「獄中花(春香歌演訂)」와 동일하다.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고 대화와 지문을 구분하였다. 표지화는 「獄中花」 6판과 유사하지만 산세풍경의 색채가 선명하여 시각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준다. 삽화는 12장이 실려 있으며, 이도령과 성춘향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삽화 1〉은 섬세하게 채색되었다.

「(演演訂정춘춘향향傳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신연활자본 「(演演訂정춘춘향향傳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南原 獄中花 (춘향전)	(演演訂정춘 춘향향傳전)	1917년 9월 5일	초판	南宮楔	南宮楔	漢城書館	40전	147면	12장	국립중앙 도서관

일곱째, 1917년 7월 한성서관·유일서관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萬古烈女日鮮文春香傳」(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행간에 일본어를 병기한 판본이다. 본문은 161면 1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문장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표지화는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원 안에는 꽃을 들고 있는 춘향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원 밖에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매화나무와 정절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리본으로 묶어서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표현하였다.

1929년 1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재판본(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판식은 초판과 동일하다. 표지화는 춘향의 얼굴이 둥근 형태로

바뀌었으며, 선명한 색감과 명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높였다.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신연활자본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1917년 7월 30일	초판	南宮楔	南宮楔	漢城書館 唯一書館	50전	161면	-	국립중앙 도서관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1929년 1월	재판	-	洪淳泌	朝鮮圖書 株式會社	50전	161면	-	영남대 중앙도서관

여덟째, 1918년 11월 대창서원에서 발행한 「절디가인 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絶代佳人」이고 본문은 108면 4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판식이 조밀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표지화에는 신연활자본 『춘향전』 중에서 처음으로 원근법이 적용되었다. 근경에 있는 이도령과 춘향은 크고 돋보이게 묘사하였으며, 중경과 원경에 있는 강과 광한루는 작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절디가인 춘향전」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절디가인 춘향전」은 같은 해 12월에 대창서원에서 동일한 내용과 판식으로 재출간되었다. 표제와 권수제는 「新獄中佳人 신옥중가인」으로 바뀌었으며,

표지화는 광한루의 경관이 그려진 화첩 뒤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922년 대창서원에서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만 「絶代佳人」으로 바뀌었고 판식과 내용은 동일하다. 1925년 10월에는 영창서관과 한흥서림에서 권수제를 「옥중 절대가인 춘향전」으로 바꾸고, 본문 앞에 삽화 13장을 추가하여 다시 발행하였다. 이도령과 춘향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린 삽화 1은 채색되어 있다. 1933년 2월에는 영창서관과 한흥서림, 진흥서림에서 권수제를 「獄中絶代佳人옥중절대가인」으로 바꿔서 재판본을 발행하였다. 본문은 157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고 일부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판식은 달라졌지만 삽화와 내용은 1925년 간행본과 동일하다.

「절대가인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신연활자본 「절대가인 춘향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絶代佳人	절대가인 춘향전	1918년 11월 28일	초판	李敏澤	李敏澤	大昌書院 (普及書館)	50전	108면	-	국립중앙 도서관
新獄中佳人 신옥중가인	新獄中佳人 신옥중가인	1918년 12월 24일	초판	石田孝 次郎	石田孝 次郎	大昌書院 (普及書館)	55전	108면	-	국립중앙 도서관
絶代佳人	절대가인 춘향전	1922년 1월 3일	4판	李敏澤	李敏澤	大昌書院 (普及書館)	35전	108면	-	국립중앙 도서관
絶代佳人 鮮漢文春 香傳	옥중 절대가인 춘향전	1925년 10월 10일	초판	姜義永	姜義永	영창서관 한흥서림	40전	108면	13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	獄中絶代 佳人옥중절 대가인	1933년 2월 8일	재판	姜義永	姜義永	영창서관 한흥서림 진흥서림	45전	157면	13장	고려대 중앙도서관

아홉째, 1925년 4월 영창서관과 한흥서림에서 공동 발행한 「만고렐녀 춘향전」(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絶代佳人 成春香傳 성춘향전」이고, 본문은 70면 8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본문은 판식이 조밀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떨어진다. 삽화는 12장이 실려 있는데, 삽화가인 우석(愚石) 김기창(金基昌)의 낙관이 찍혀 있다. 표지화는 화중화 방식과 원근법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원 안에는 방자가 춘향에게 이도령의 편지를 전하는 모습이 크게

그러져 있고, 광한루 주변의 경관은 작게 그려서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1925년 10월에는 회동서관에서 권수제를 「고딕소설 언문춘향전」으로 바꾸고 삽화를 생략하여 다시 출간하였다. 일부 띄어쓰기를 하여 분량이 79면으로 늘어났으며, 표지화는 광한루가 그려진 화첩 뒤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판권지 뒷면에는 회동서관 대구지점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려 있다. 1926년 1월 덕흥서림에서 간행한 재판본은 표제만 「萬古烈女 언문 春香傳(춘향전)」으로 바뀌었고, 판식과 내용은 초판본과 동일하다.

「만고렬녀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신연활자본 「만고렬녀 춘향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絶代佳人 成春香傳 성춘향전	만고렬녀 춘향전	1925년 4월 20일	초판	姜義永	姜義永	永昌書館 韓興書林	25전	70면	12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春香傳 (춘향전)	고딕소설 언문춘향전	1925년 10월 30일	초판	高裕相	高裕相	滙東書館	25전	79면	-	영남대 중앙도서관
萬古烈女 언문 春香傳	만고렬녀 춘향전	1926년 1월 6일	재판	金東潛	金東潛	德興書林	25전	70면	12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열째, 1928년 1월 광한서림에서 간행한 「懷中 春香傳 춘향년」 재판본은 표제가 「春香傳(소춘향가)」이고, 본문은 120면 11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에는 ‘부신식창가급장가’라는 부제가 있다. 판권지가 훼손되어 초판본의 간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표지화는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월 안에는 광한루에서 방자가 춘향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중경과 원경에는 광한루에 앉아 있는 이도령과 나귀, 주변 경관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

「懷中 春香傳 춘향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신연활자본 「懷中 春香傳 춘향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春香傳 (소춘향가)	懷中 春香傳 춘향년	1928년 1월 26일	재판	金天熙	金天熙	廣韓書林	40전	120면	-	영남대 중앙도서관

열한째, 1934년 12월 영창서관·한홍서림·진홍서림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남녀 간의 자유로워진 연애 풍속을 보여주는 판본이다. 본문은 157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표지화는 부드러운 곡선미가 느껴지며,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름 안에 광한루의 경관을 묘사하였고, 구름 밖에는 춘향이 이도령의 품에 안긴 모습을 그렸다. 삽화는 본문 앞에 19장이 실려 있으며, 만화처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춘향과 이도령이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삽화 7), 이도령과 춘향모가 술잔을 나누는 모습(삽화 13)은 남녀 관계와 자유연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제1면, 채색표지화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신연활자본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萬古烈女 特別無雙 新春香傳	萬古烈女 特別無雙 春香傳	1934년 12월 25일	초판	姜義永	姜義永	永昌書館 韓興書林 振興書館	60전	157면	19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열두째, 1937년 12월에 세창서관과 삼천리서관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萬古烈女 圖上獄中花」(한국현대문학관 소장)는 『춘향전』을 8회의 회장제 형식

으로 개작한 것이다. 앞 부분이 낙장되어 표제와 권수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본문의 행간에는 한글을 병기하였다. 삽화는 39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 면에 본문과 삽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1952년 세창서관에서 발행한 재판본은 표제와 권수제가 「萬古烈女 圖上獄中花」이고, 권수제 아래에는 ‘李國唱 唱本, 無然居士 校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⁷⁰⁾

「萬古烈女 圖上獄中花」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신연활자본 「萬古烈女 圖上獄中花」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圖上獄中花 도상옥중화	萬古烈女 圖上獄中花	1937년 12월 25일	초판	申泰三	申泰三	世晶書館 三千里書館	50전	190면	39장	한국현대 문학관
圖上獄中花 도상옥중화	萬古烈女 圖上獄中花	1952년 12월 30일	재판	申泰三	申泰三	世晶書館	-	190면	39장	국립중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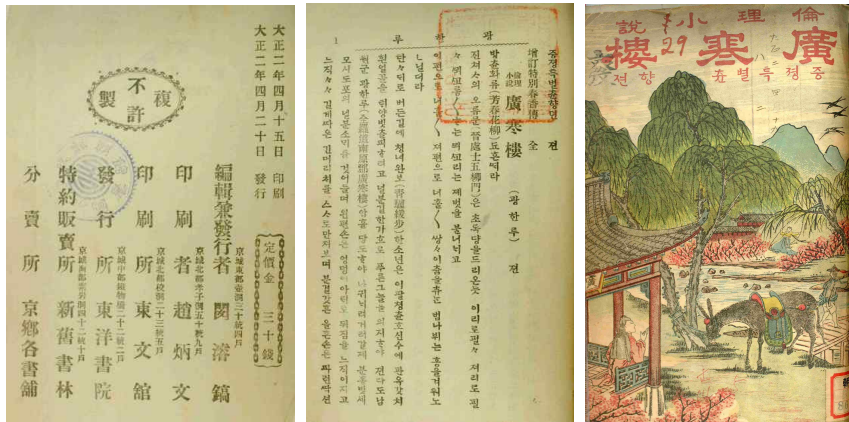
3.2.2.2 비옥중화 계열

비옥중화 계열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거나 서사 구조가 「獄中花(春香歌演訂)」와 다른 것으로, 모두 7종 39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913년 4월 동양서원(東洋書院)에서 간행한 한글본 「倫理小說廣寒樓」(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춘향의 정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개작되었다. 박영운(朴永運)의 서문에는 『심청전』의 효도, 『홍부전』의 우애와 더불어 『춘향전』의 지조와 절개가 귀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지화는 원근법과 부감시점을 적용하여 광한루에 앉아 춘향을 바라보는 이도령과 오작교를 건너가는 방자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광한루의 경관은 연하고 부드럽게 채색하여 산수화를 보는 것처럼 화사한 느낌이 든다(<그림 22> 참조).

1918년 11월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재판본은 행자수를 늘려서 전체 분량이 85면으로 줄어들었다. 표지 그림은 진하고 선명하게 채색되어 있다.

70) 재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중앙도서관에도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그림 22〉「倫理小説廣寒樓」(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倫理小説廣寒樓」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신연활자본 「倫理小説廣寒樓」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소장처
倫理小説廣寒樓 증경특별준향전	倫理小説 廣寒樓	1913년 4월 20일	초판	閔濬鎬	閔濬鎬	東洋書院	30전	119면	국립중앙 도서관
倫理小説廣寒樓 증경특별준향전	倫理小説 廣寒樓	1918년 11월 20일	재판	金用濟	金用濟	博文書館	20전	85면	서울대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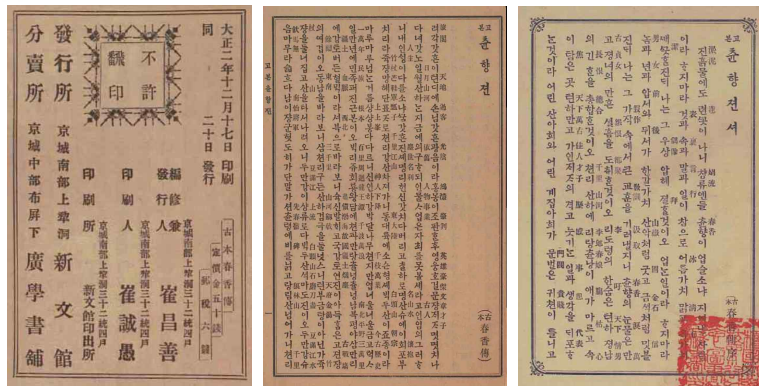
둘째, 1913년 11월 광동서국에서 간행한 한글본 「약산동덕」(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평안북도 영변군 약산을 배경으로 하여 유생 송경필과 기생 빙옥의 사랑 이야기로 개작되었다. 송경필은 충청도에서 온 인물로 고귀한 혈통과 탁월한 재주를 지니고 있으며, 빙옥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다. 변학도는 탐관오리로서의 모습이 축소되고 단순하게 묘사되었다. 서두에는 빙옥의 정절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문장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1921년 3월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4판은 면당 행자수를 늘리고, 띄어쓰기와 한자를 생략하여 전체 분량이 89면으로 줄어들었다.

「약산동덕」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신연활자본 「약산동덕」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소장처
藥山東臺	약산동덕 藥山東臺	1913년 11월 10일	초판	李鍾楨	李鍾楨	光東書局	30전	171면	국립중앙 도서관
藥山東臺	약산동덕 藥山東臺	1921년 3월 2일	4판	李鍾楨	李鍾楨	博文書館	30전	89면	국립중앙 도서관

셋째, 1913년 12월 신문관에서 간행한 한글본 「고본 춘향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최남선이 판소리 사설을 모본으로 하여 교정하고 개작한 것이다. 본문은 신연활자본 『춘향전』 중에서 가장 긴 240면이고,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대화 부분은 지문과 구분하기 위해 한 칸 내려썼다. 한반도의 명승고적과 역사적 인물을 둘러보는 노정기 형식으로 시작하며, 음란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개작하였다. 최남선은 서문에서 성춘향은 열녀의 거울이고 이몽룡은 사내의 본보기이며, 믿음과 절개가 사라진 때에 이 책을 내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⁷¹⁾(〈그림 23〉 참조) 또한 1914년 발행한 「신문관발행서적총목록」에서 「고본 춘향전」에 대해 명창의 사설을 그대로 적은 진본(珍本)에 교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림 23〉 「고본 춘향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서문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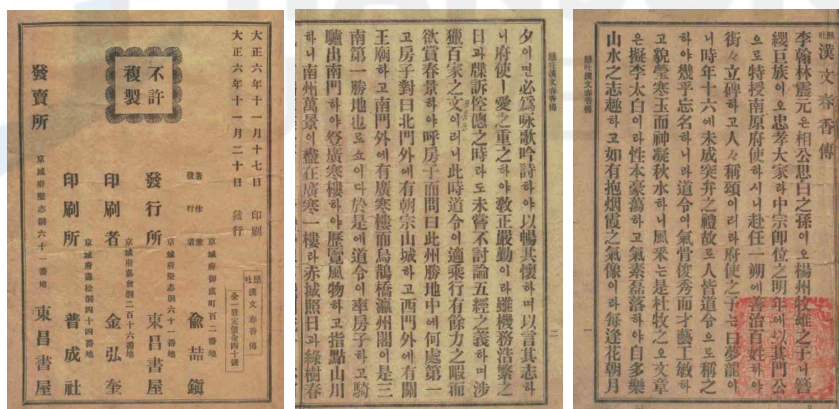
71) 춘향의 눈물은 만고 정녀의 만흔 설함을 도취했것시오 리도령의 한숨은 텃하 정남의 긴 혼을 종합했것시오 …(중략)… 열녀의 거울은 내 성춘향에 보고 정랑의 본은 내 리몽룡에 보았도다 슬프다 원 세상이 밋밋이 업고 고등이 업서 직힐것을 직힐줄 모르고 벗설것을 벗서지 못흐는 이씨에 가만히 춘향의 마음과 일을 생각하니 원 텃하 슈염 잇는 즈층 대장부를 위하야 쓰거은 눈물이 왕연히 쓰다짐을 억제치 못홀지라 이씨에 이척을 남이 더욱 도이지 아니함을 늦기리로다 남약쥬인적다

「고본 춘향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8>와 같다.

<표 28> 신연활자본 「고본 춘향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자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분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고본 춘향전	고본 춘향전	1913년 12월 17일	초판	崔昌善	崔昌善	新文館 (廣學書舖)	50전	240면	-	울곡기념 도서관

넷째, 1917년 11월 동창서옥(東昌書屋)에서 간행한 국한문혼용본 「懸吐漢文春香傳」(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소장)은 사본 「춘향신설」을 모본으로 하여 국문토(吐)를 달아서 읽기 쉽게 개작하였다.⁷³⁾ 원문은 대자로 쓰고 주석은 소자를 사용하였다. 사랑가와 기생점고 등 비속하고 골계적인 내용들이 주로 생략되었다. 1923년 12월에 재판본이 간행되었으며, 초판에 비해 활자 크기가 작아 지고 전체 분량이 40면으로 줄어들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懸吐漢文春香傳」 초판(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2면, 제1면

「懸吐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29>과 같다.

72) 「고본 춘향전」은 연세대 학술정보관과 서울대 도서관에도 2책씩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화봉문고(여승구), 동국대, 고려대, 영남대, 서강대 도서관에도 1책씩 소장되어 있다.

73) 초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화봉문고(여승구)에도 1책씩 소장되어 있다. 재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책,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 중앙도서관, 화봉문고(여승구),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퇴계기념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표 29〉 신연활자본 「懸吐漢文春香傳」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	懸吐漢文 春香傳	1917년 11월 20일	초판	俞喆鎭	俞喆鎭	東昌書屋	40전	88면	-	울곡기념 도서관
懸吐漢文 春香傳	懸吐漢文 春香傳	1923년 12월 15일	재판	俞喆鎭	俞喆鎭	東昌書屋	30전	40면	-	고려대 중앙도서관

다섯째, 1918년 8월 고금서해(古今書海)에서 발행한 한문본 「原本春香傳(廣寒樓記)」(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과 1924년 4월 남원군청 서무과에서 비매품으로 발행한 한문본 「廣寒樓記」(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⁷⁴⁾는 사본 「廣寒樓記」를 신연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고금서해 간행본은 8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앞에는 작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飲酒讀, 彈琴讀, 對月讀, 看花讀’을 소개하였다.⁷⁵⁾ 남원군청 간행본도 8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앞에 「讀廣寒樓記四法」을 소개하고 있다. 각 회마다 소제를 붙이고 첫 머리와 끝에는 작가의 평문(評文)이 달려 있다. 1927년 7월에 간행된 「廣寒樓記」 중간본(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에는 오작교와 광한루, 오류정(五柳亭) 등을 찍은 사진 4장과 52면 분량의 일본어 번역본이 함께 실려 있다. 「原本春香傳(廣寒樓記)」과 「廣寒樓記」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신연활자본 「原本春香傳(廣寒樓記)」과 「廣寒樓記」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분매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漢文原本 春香傳	原本春香傳 (廣寒樓記)	1918년 8월 12일	초판	李鍾一	李鍾一	古今書海	-	56면	-	서울대 중앙도서관
廣寒樓記	廣寒樓記	1924년 4월 10일	초판	南原郡廳 庶務課	南原郡廳 庶務課	南原郡廳 庶務課	비매품	50면	-	서울대 중앙도서관
-	廣寒樓記	1927년 7월 15일	재판	南原郡廳 庶務課	南原郡廳 庶務課	南原郡廳 庶務課	비매품	50면	사진 4장	영남대 중앙도서관

74) 초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 전남대 도서관에 1책, 화봉문고(여승구)에 2책이 전해지고 있다.

75) 第一回 探香(烏鵲橋仙郎醉春風 楊柳提佳人送秋千), 第二回 尋春(斟紅露酒杯結約 把綠綺琴韻送情), 第三回 凝情(爲雨爲雲香閣夢 如金如玉金錢書), 第四回 惜別(半窓殘月無眠夜 一杯斜陽斷腹時), 第五回 拷艷(評花品暴客弄春 叙人倫烈女勵言), 第六回 保信(芙蓉對月來訪 持丹携酒相慰言), 第七回 踐約(請分主憂着繡衣 爲察民情坐芳陰), 第八回 續緣(殺風景繡虎路跡 返香魂錦燕逢雙).

여섯째, 1925년 4월 신명서림(新明書林)에서 간행한 한글본 「우리덜전」(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희곡적 성격이 강한 판본이다. 두 명의 재담가가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개작되었다.⁷⁶⁾ 매 면마다 한 행에 대자와 소자가 함께 사용되었다. 대자 부분은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절 단위 띄어쓰기를 하였다. 소자 부분은 쌍란(雙欄)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란은 소소(昭昭)의 평(評)이고 왼쪽 란은 합합(哈哈)이 답(答)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덜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1>와 같다.

<표 31> 신연활자본 「우리덜전 권상」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분매소)	가격	면수	소장처
우리덜전 一名別春香傳	우리덜전	1925년 4월 29일	초판	沈相泰	沈相泰	新明書林	60	148면	영남대 중앙도서관

일곱째, 1927년 12월 회동서관과 홍문당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한글본 「오작교(烏鵲橋)」(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는 인물의 사실과 재담이 점잖고, 첫날밤과 기생점고 대목이 생략되는 등 개작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⁷⁷⁾ 서명이나 관직명, 장소명, 나라명을 나타낼 때는 괄호 안에 한자를 표시하였다. 권말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기이한 인연이 견우와 직녀의 인연과 닮아 있어서 소설의 제목을 오작교로 지었다고 밝혔다. 표지화는 원근법과 부감시점을 동시에 적용하여, 근경에는 이도령과 방자가 오작교를 건너가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중경 및 원경에는 산천초목과 춘향의 집을 묘사하였다.

「오작교(烏鵲橋)」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2>과 같다.

<표 32> 신연활자본 「오작교(烏鵲橋)」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판차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발매소)	가격	면수	소장처
奇緣小說烏鵲橋 오작교	오작교 (烏鵲橋)	1927년 12월 25일	초판	高裕相	高裕相	滙東書館 弘文堂	30전	103면	영남대 중앙도서관

76) 상권은 영남대 중앙도서관과 화봉문고(여승구)에도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77) 초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IV. 『심청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4.1 사본

사본 『심청전』은 현재 40종 40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8종 18책,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5종 5책, 강상련 계열 6종 6책, 기타 계열 11종 11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심청전』 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이 계열은 판소리 창본 「심청가」를 개작한 것과 완판본 「심청전」을 전사 또는 개작한 것으로, 모두 18종 18책이 전해지고 있다. 한글본은 16종 16책이고 국한문혼용본은 2종 2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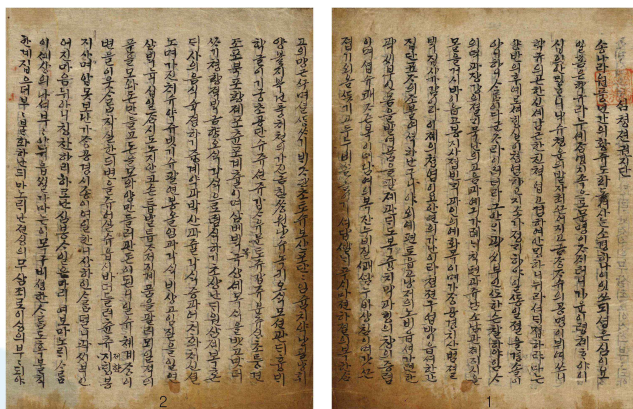
4.1.1.1 판소리 창본 개작

판소리 창본 「심청가」를 개작한 것은 5종 5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97년(광무 1)에 필사된 36장본 「심청전」(엔칭도서관 소장)은 일본인 하시모토 아키미(橋本彰美)가 19세기 말 전라도 남평(전남 나주)에 머물고 있을 때 판소리 공연이나 창본을 보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본문은 36장 후반 1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가늘게 쓴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혼용되었다. 판소리 창본의 사설과 문체가 많이 나타나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 전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대목에서 괄씨부

78) 하시모토 아키미(橋本彰美)는 19세기 말 조선에 건너와서 10여종의 소설을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병설, (2016).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45-46.). 현재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에는 하시모토 아키미가 필사한 「동선기(洞仙記)」, 「심청가검오륜가(沈淸歌兼五倫歌)」, 「중산망월전(中山望月傳)」, 「별주부전(竈主簿傳)」, 「별춘향전(別春香傳)」, 「흥보전(興甫傳)」, 「유생전(劉生傳)」, 「진대방전(陳大方傳)」,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박씨전(朴氏傳)」, 「이진사전(李進士傳)」, 「옥단춘전(玉丹春傳)」 등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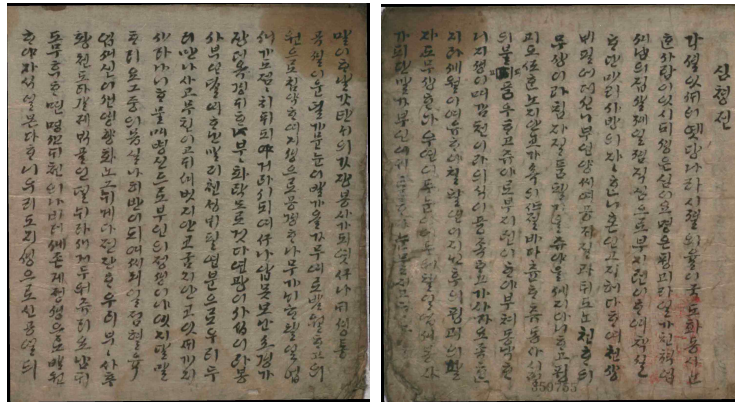
인 상여의 종소리와 북망산에 갈 때의 상여소리가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으며, 평토제에서 심봉사가 읊는 축문에는 ‘혜여’를 덧붙여서 현장감을 높였다. 권말에는 ‘어허둥둥 어허둥둥 내 간간이야 내 사랑이야 … 광대 목도 쉬고 어질더질’처럼 판소리 광대의 연창 흔적이 나타난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26장본 「심청전」 제1장(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둘째, 1898년(광무 2)에 필사된 29장본 「심청전」(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과 1912년에 성북리(경북 경주군)에서 필사된 28장본 「심청가라」(사재동 소장)는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

29장본 「심청전」은 본문이 29장 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혼용되었다. 시공간적 배경은 당나라 시절 유리국 도화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심청의 전생은 선녀로, 심봉사의 이름은 심평괴, 부인은 양씨로 설정되어 있다. 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대목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심봉사와 안씨매인의 결연 대목과 심봉사의 맏간지 참석 대목은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권말에는 황성에 도착한 뽕덕어미가 지난 날을 후회하는 내용과 황제가 심청을 칭찬하고 과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후일담이 덧붙여 있다(〈그림 26〉 참조). 반면에 28장본 「심청가라」는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과 심청이 투신하는 대목처럼 판소리 창본에서 인기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나머지는 축약하였다. 표지에는 경북 경주군에서 소장했다는 장서기가 남아 있어서, 판소리 창본 「심청가」가 경상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6〉 29장본 「심청전」 제1장(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셋째, 1921년에 필사된 46장본 「효녀실기심청」(박순호 소장)⁷⁹⁾과 1937년에 필사된 59장본 「심청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판소리 창본의 사설이 많이 나타나고, 완판본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개작하였다. 46장본은 판소리 창본의 문체와 어투가 많이 나타난다. 뽕떡어미의 등장 및 도망, 방아타령의 음란한 대화 등 골계적인 대목들이 축약되었으며, 심봉사가 부원군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후일담도 생략되었다. 59장본은 「심청전」 앞에 6장 분량의 한글로 된 산문이 합철되어 있다.

사본 『심청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3〉와 같다.

〈표 33〉 사본 『심청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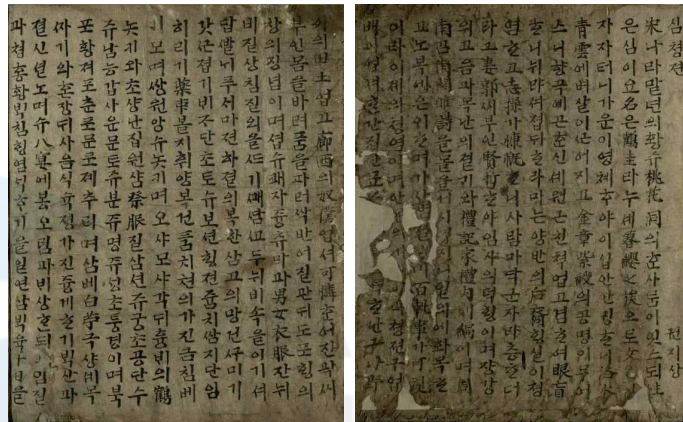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沈淸傳	심청전	1책(36장)	1897년 (광무 1)	全羅道 南平 (전남 나주)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심청전	심청전	1책(29장)	1898년 (광무 2)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을곡 기념도서관
심천가	심천가라	1책(28장)	1912년	성북리 (경북 경주군)	한글	반흘림체	사재동
효녀실기심청	-	1책(46장)	1921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박순호
심청전	-	1책(59장)	1937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국립중앙도서관

79)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74.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237-327.

4.1.1.2 완판본 전사

완판본 『심청전』을 전사한 것은 6종 6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900년(광무 4)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48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은 완판 41장본을 전사한 것이다. 필사기나 장서기는 없지만 1898년(광무 2)에 간행된 완판 41장본의 간행년도를 고려할 때, 1900년(광무 4)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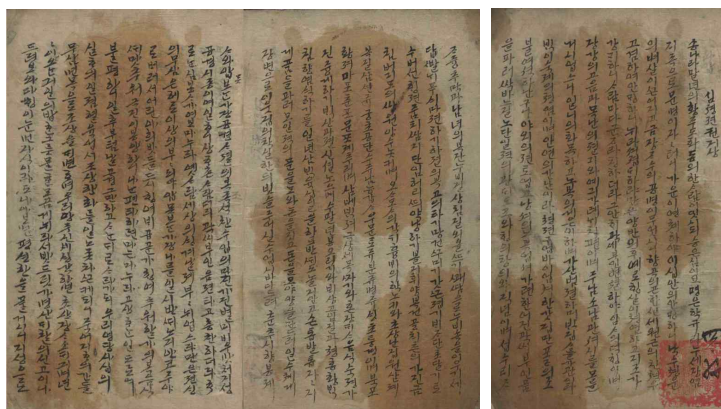
〈그림 27〉 48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48장본 「심청전」의 본문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은 21장이고 하권은 27장이다. 상권의 권수제는 「심청전」이고 하권의 권수제는 「심청전」이다. 권수제 아래에는 ‘권지상, 권지하’라고 쓰여 있다. 서체는 반듯하고 일정하게 쓴 정자체여서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권은 ‘泛彼中流 舳舻相逐’로 끝나서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위해 배를 타러 가는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고, 하권은 그 이후부터 시작한다. 인명이나 지명, 한문 고사 등은 한자로 표기하였고, 그 외에는 한글로 필사하였다(〈그림 27〉 참조).

둘째, 1913년에 필사된 77장본 「심청전」(충남대 도서관 소장)과 1920년에 필사된 69장본 「심청전」(박순호 소장)은 완판 71장본을 전사한 것으로, 모두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어휘나 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77장본 「심청전」은 상권의 권수제가 「심청전이라 상 沈淸

傳 上」이고 하권의 권수제는 없다. 본문은 77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69장본 「심청전」은 상권의 권수제는 「심청전 권지상이라」이고 하권의 권수제는 없다. 상권은 34장 전면 3행까지, 하권은 69장 후면 12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글자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며,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상권 24장부터는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에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⁸⁰⁾

셋째, 1916년에 필사된 46장본 「沈淸傳」(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과 1922년 필사된 64장본(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沈淸傳」, 1937년에 필사된 72장본 「沈淸傳」(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완판 71장본을 전사하면서 하권의 권수제를 추가하였다. 모두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일부 표기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46장본은 경기도 안성에서 필사되었으며, 표제 옆에는 ‘出天孝女沈淸傳 上下’라고 쓰여 있다. 상권의 권수제는 「심청전권지상」이고 하권의 권수제는 「심청전권지하라」이다. 상권의 본문은 21장 후면 5행까지, 하권의 본문은 22장부터 46장 후면 12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일정하게 쓴 반흘림체이고, 완판 71장의 내용을 46장으로 필사하여 글자 크기가 작고 조밀하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46장본 「심청전권지상」(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권1 제1장

64장본은 전북 순창에서 필사된 것으로, 상권의 권수제가 「심청전권지상

80)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73.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131-270.

리라」이고 하권의 권수제는 「沈淸傳 卷之○ 심청전권지하라」이다. 상권은 27장 전면 12행까지이고, 하권은 28장 1행부터 64장 후면 1행까지이다. 매 장마다 전면 상단에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64장 2행부터 86장까지는 「玉丹春傳」이 합철되어 있다. 서체는 투박한 형태의 반흘림체로 쓰였다. 72장본은 상권 권수제가 「심청전권지상」이고 하권 권수제는 「ㅎ 권이라」이다. 상권은 30장 전면 8행까지, 하권은 72장 후면 2행까지 반흘림체로 필사되어 있다.

사본 『심청전』 중 완판본 전사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사본 『심청전』 중 완판본 전사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	심청전 권지상 심청전 권지하	2권 1책 (48장)	1900년(광무 4) 이후	미상	국한문 혼용	정자체	국립 한글박물관
심청전	심청전이라 상 沈淸傳 上	2권 1책 (77장)	1913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충남대 도서관
沈淸傳	심청전권지상 심청전권지하라	2권 1책 (46장)	1916년	경기도 안성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심청전	심청전 권지상이라	2권 1책 (69장)	1920년	미상	한글	정자체 반흘림체	박순호
沈淸傳	심청전권지상이라 심청전권지하라	2권 1책 (64장)	1922년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沈淸傳	심청전권지상 ㅎ 권이라	2권 1책 (72장)	1937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4.1.1.3 완판본 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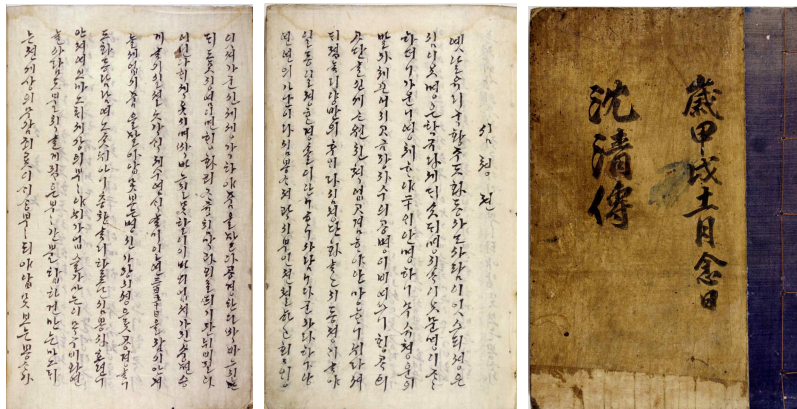
완판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은 7종 7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99년(광무 3)에 용기리(충북 진천)필사된 45장본 「沈淸傳」(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은 본문이 45장 전면 8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심청을 본받아 부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장하는 후기가 덧붙여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이지만 글자의 형태가 졸렬하고 일정하지 않다. 다른 내용이 인쇄된 종이를 뒤집은 다음 그 위에 필사하여 종이의 질이 떨어지고 지저분하다.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처럼 심청의 효성이 드러나는 대목과 뽕덕어미가 심봉사와 황봉사를 유혹하는 대목처럼 골계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나

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1902년(광무 6)에 필사된 44장본 「심청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는 본문이 44장 전면 12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혼용되었다. 시·공간적 배경이 송나라 원풍 말년이고, 심청의 전생 신분이 서왕모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에서 심청을 동냥 보내놓고 걱정하는 심봉사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심봉사의 한양 상경 대목에서 황승상댁 노비들을 심하게 호통치는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권말의 심봉사와 안씨매인의 결연 대목은 생략되었다.

셋째, 1910년(융희 4)에 필사된 39장본 「심천가」(국립한글박물관 소장)와 1934년에 필사된 53장본 「심청전」(이태영 소장)은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완판본 『심청전』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39장본 「심천가」는 본문이 39장 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일정하게 쓴 흘림체여서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심청은 심천으로, 심봉사는 심문으로, 심봉사 부인은 양씨부인으로 바뀌었다. 심봉사의 출신은 송나라 홍무원 연초의 유리국 도화촌으로 설정되어 있다. 53장본 「심청전」은 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53장 후면 2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역동적이고 기교가 넘치는 흘림체로서, 강한 힘이 느껴지면서도 가볍게 이어지는 필획이 특징이다.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부녀간의 상봉 대목에서 심황후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심봉사가 심황후의 말을 들은 후 눈을 번쩍 뜨게 되는 대목에서 끝난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53장본 「심청전」(이태영 소장) 제1장, 표지

넷째, 1910년(융희 4)에 필사된 49장본 「회중 심청전」(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과 1920년대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87장본 「심청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1931년에 필사된 72장본 「심청전 沈淸傳」(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은 완판 71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49장본은 1장 전면이 희미하여 권수제를 알 수 없다. 본래 2권 1책이었는데 하권이 낙질되어 현재는 상권만 전해지고 있다. 본문은 46장 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에서 낙장되어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다. 서체는 단정하게 쓴 반흘림체이다. 심청의 전생이 서왕모의 딸로 설정되어 있으며, 곽씨부인의 기자치성 장면과 심봉사가 제문을 읽는 장면, 장승상 부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완판본과 유사하다. 87장본은 필사기나 장서기가 없어서 정확한 필사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완판 71장본의 내용과 유사하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서두 부분이 낙장되어 곽씨부인의 기자치성 장면부터 시작되며, 부녀간의 상봉 대목과 후일담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필사되어 있다. 72장본은 첫 장이 낙장되었으며, 본문은 용궁에 간 심청이 옥진부인이 된 모친과 상봉하는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흘림체로 쓰여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들이 많다.

사본 『심청전』 중에서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5>과 같다.

<표 35> 사본 『심청전』 중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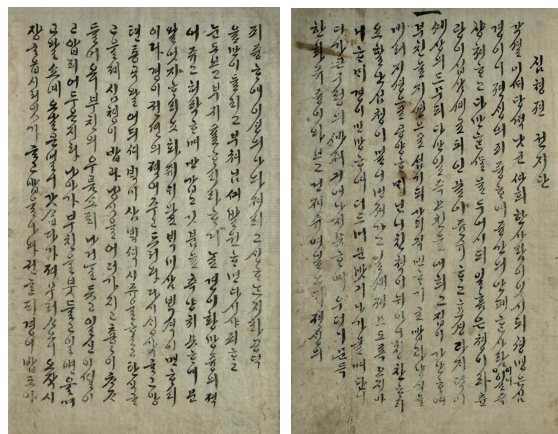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沈淸傳	-	1책(45장)	1899년 (광무 3)	용곡리 (충북 진천)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을곡 기념도서관
심청전	심청전	1책(44장)	1902년 (광무 6)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심청가	-	1책(39장)	1910년 (융희 4)	미상	한글	흘림체	국립 한글박물관
회중 심청전	-	1책(49장, 낙장)	1910년 (융희 4)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서울대 중앙도서관
심청년	-	1책(87장)	1920년대 초반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국립 한글박물관
심청전 沈淸傳	-	1책(72장, 낙장)	1931년	미상	한글	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沈淸傳	심청전	1책(53장)	1934년	미상	한글	흘림체	이태영

4.1.2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이 계열은 세책본 및 경판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하였거나 경판본과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한글본 5종 5책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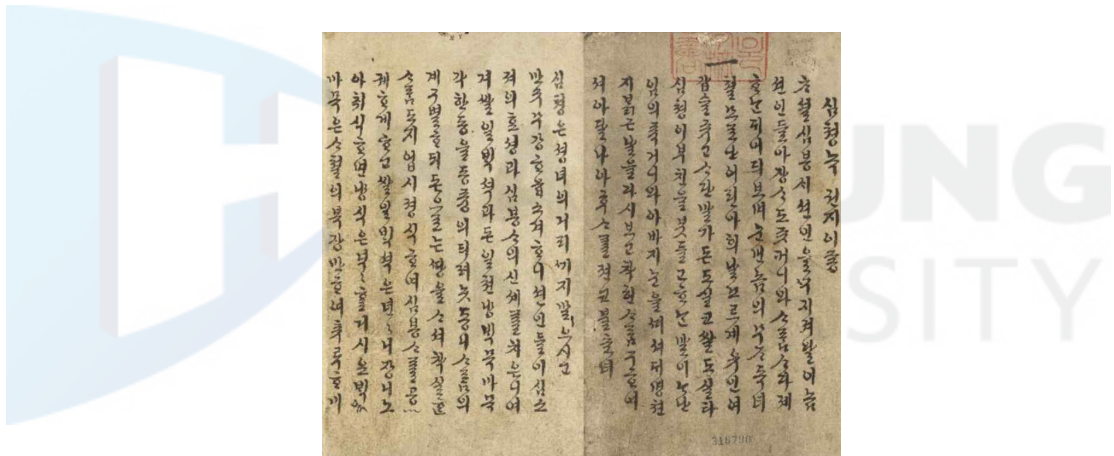
첫째, 1892년(고종 29)에 필사된 12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과 1898년(광무 2)에 파곡에서 필사된 30장본 「심청록」(서울대 규장각 소장), 1909년(융희 3)에 필사된 63장본 「심청전나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경판 20장본과 2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적이다.

12장본은 표제 「沈淸傳」이고 본문은 12장 후면 12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표지에는 ‘附四明堂’이 부기되어 있고, 표지 안쪽에는 ‘沈淸傳卷’이라고 쓰여 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스명등 흥록」이 합철되어 있다. 서체는 유려한 흘림체이지만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매 장마다 전면 상단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세책본으로 유통되었던 책이거나 아니면 세책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경판 20장본, 24장본과 유사하지만 시·공간적 배경이 ‘당썩 남군 짜희’로 설정되어 있고, 심봉사의 이름은 ‘심경’으로 바뀌었으며, 심봉사의 부인이 등장하지 않는다(〈그림 30〉 참조).



〈그림 30〉 12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30장본은 『심청전』을 2권으로 분권화하여 유통한 세책본으로 추정된다. 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30장 후면 8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본래 2권이었는데 권1이 낙질되어 현재는 권2만 전해지고 있다. 권2는 심봉사가 선인(船人)들을 꾸짖는 대목에서부터 시작한다. 서체는 유려한 흘림체이고,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는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경판 20장본 및 24장본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과 심봉사와 여인들이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방아타령 대목이 축약되었다. 말미에는 심봉사가 눈을 뜬 후 초왕이 되어 재혼하고 평안하게 지냈다는 후일담이 덧붙여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30장본 「심청전」(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1장

63장본 「심청전나라」는 표제가 「심청전」이고 본문은 63장 후면 3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혼용되었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나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판 20장본과 2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비현실적인 내용을 축소하고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개작하였다. 말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청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장하는 내용의 후기가 길게 덧붙여 있다. 또한 심봉사가 눈을 떴다는 말은 광대의 재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며, 판소리 창본과 완판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둘째, 1911년(융희 5)에 필사된 23장본 「심창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와 1914년 안현에서 필사된 43장본 「심청전」(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경판 2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 23장본은 표제가 「심청전」이고 본문은 23장 후반 14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는 ‘권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심청전」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43장본은 경판 20장본을 축약한 것으로, 서체는 유려한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사용되었다. 필사지가 ‘안현’이라는 점에서 세책본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본 『심청전』 중에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사본 『심청전』 중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沈淸傳	심청전	1책(12장)	1892년 (고종 29)	미상	한글	흘림체	국립 한글박물관
沈淸傳	심청록	1책(30장, 낙질)	1898년 (광무 2)	파곡(서울)	한글	흘림체	서울대 규장각
심청전	심청전나라	1책(63장)	1909년 (융희 3)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심청전	심창전	1책(23장)	1911년 (융희 5)	미상	한글	반흘림체	국립 중앙도서관
심청전	-	1책(43장)	1914년	안현(서울)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서울대 중앙도서관

4.1.3 강상련 계열

이 계열은 강상련 계열에 속하는 신연활자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전사 또는 개작한 것으로, 현재 6종 6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924년에 필사된 36장본 「출천회여심청전이라」(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와 1930년에 필사된 93장본 「심청전」(박순호 소장)⁸¹⁾은 광동서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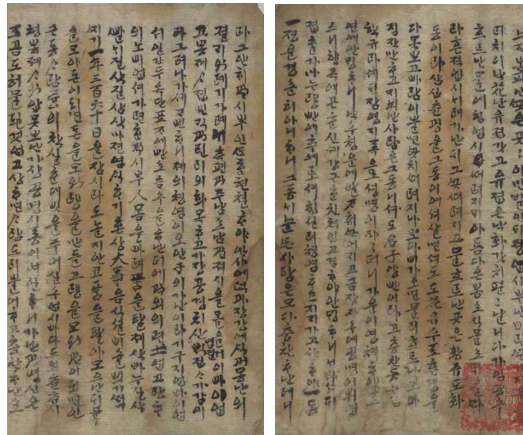
81)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72.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380-566.

간행된 「강상련」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다.

36장본은 표제가 「출천환여심청전 出天孝女沈淸傳」이고, 본문은 36장 후면 12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1924년에 필사하여 책으로 만들었고, 표지가 훼손되어 1937년에 다시 씌운 것이다. 서체는 작고 촘촘하게 필사된 반흘림체인데,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두의 시·공간적 배경이 대송시절 조선국 황해도 황주군 도화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강상련」의 내용과 동일하다. 권말에는 『심청전』을 보는 사람은 효열(孝烈)이 바르지만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심황후만 못하니, 효성을 숭상하라는 내용의 후기가 길게 덧붙여져 있다. 93장본은 광동서국에서 간행한 「강상련」 10판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다. 본문은 93장 후면 10행까지 필사하였으며, 심봉사와 안씨매인의 결연 대목에서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부터 낙장되었다. 서체는 세로로 길게 늘어 쓴 형태의 반흘림체와 정자체인데, 글자 크기와 획의 굵기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18년에 필사된 45장본 「심청전이라 沈淸傳 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와 1925년에 필사된 85장본 「증상연명 심청전이라」(박순호 소장)는 「증상연명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다.

45장본은 1917년에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 6판을 필사한 것이다. 권수제가 없고, 본문은 45장 후면 7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11회의 회장체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1장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지만 2장부터는 한글로만 쓰여 있다. 서체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반흘림체로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필사지는 후동리(춘천시 남면)이고, 표지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서기가 남아 있다(〈그림 32〉 참조). 85장본은 1922년에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 10판을 필사한 것이다. 표제가 「심청전」이고, 본문은 85장 후면 8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나 이후 내용이 낙장되어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다. 47장과 48장은 전면과 후면 가운데에 4행씩만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글자 크기가 큰 반흘림체와 흘림체인데,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심봉사가 무릉태수에게 원정을 올리는 부분에서 낙장되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회장체 형식은 「증상연명 심청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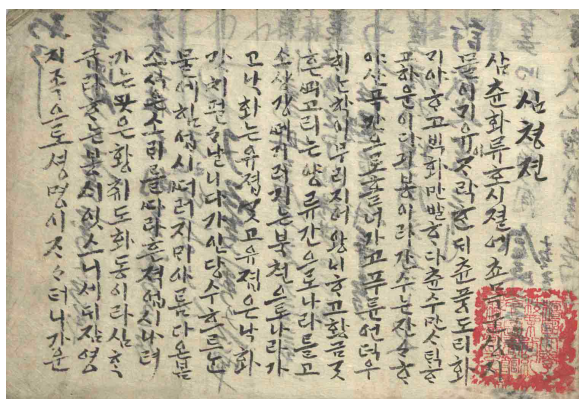
〈그림 32〉 45장본 「심청전이라 沈淸傳 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셋째, 1923년에 필사된 53장본 「沈淸傳」(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과 1933년에 충북 음성군에서 필사된 30장본 「심청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1920년에 간행된 「교명 심청전」 9판을 필사한 것이다. 일부 어휘의 표기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53장본은 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53장 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표제에는 ‘大宋 黃州 桃花洞 出天大孝 沈淸傳 卷之單’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체는 유려한 형태로 일정하게 쓴 반흘림체이다. 본문 앞에는 「심청전」의 내용을 여덟 대목으로 나눠 요약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⁸²⁾ 30장본은 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30장 후면 17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심청이 부친에게 공양미 시주를 알리는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이후 내용은 낙장되어 있다. 서체는 글자의 크기가 크고 넓은 형태의 정자체인데, 그 형태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형태가 권자본처럼 폭이 좁고 가로로 긴 형태이며, 다른 내용이 필사된 종이를 뒤집은 다음 그 위에 필사하여 지저분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30장본에는 충북 음성군에서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신연활자본 「교명 심청전」이 충북 지역의 독자

82) 1. 沈奉事가 沈靑을 안고 니집저집 단니면서 젓 어더 먹닌다, 2. 기특흔 沈靑이 七歲부터 父親을 위하야 동양 단닌다, 3. 不祥흔 沈靑이 人堂水의 풍덩실 싸지다, 4. 沈靑이 夢中の 龍宮의 가니 龍宮니 侍女를 明하야 水晶宮으로 引導하다, 5. 沈奉事가 沐浴하다 옷설 벗고 아즈 우딘 츄의 黃州刺使 지닌다가 보고 옷설 주고 治行하여 京城으로 보닌더라, 6. 沈靑이 揀擇次로 入闕하난 光景니라, 7. 모든 奉事들리 宮中の 참례츠로 八道 장님 모여든다, 8. 沈靑니 王后되냐 父親을 뵈셔들리닌 光景니라

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30장본 「심청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전면

사본 『심청전』 중에서 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사본 『심청전』 중 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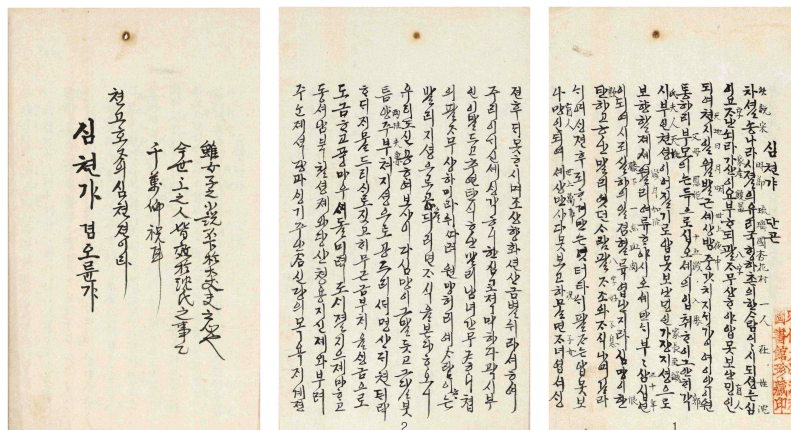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심청전	심청전이라 沈淸傳 이라	1책(45장)	1918년	후동리 (춘천 남면)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을곡 기념도서관
沈靑傳	沈靑傳	1책(53장)	1923년	미상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고려대 중앙도서관
출천회여 심청전이라	출천회여심청전 出天孝女沈淸傳	1책(36장)	1924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심청전	중산연명 심청전이라	1책(85장)	1925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박순호
심청전	-	1책(93장)	1930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박순호
沈靑傳	심청전	1책(30장)	1933	충북 음성군	국한문 혼용	정자체	단국대 을곡 기념도서관

4.1.4 기타 계열

이 계열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여 모본을 알 수 없거나 완판본과 경판본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11종 11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89년(고종 26)에 필사된 56장본 「심창전」(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여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권수제는 1장이 낙장되어 알 수 없으며, 본문은 56장 후면 11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글자 형태가 졸렬하고 일정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매 장마다 전면 상단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빈칸으로 놔두었다. 부녀간의 상봉 대목에서 심청이 ‘목명(目明)’이란 글자를 써서 심봉사에게 붙이고 주문을 외자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 심청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선녀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등이 첨가되어 독특하다. 표지에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서 소장하였다는 장서기가 남아 있다.

둘째, 1893년(고종 30)에 일본인 하시모토 아키히가 경상도 부산에 머무는 때 필사한 32장본 「심천가」(엔칭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琉璃國沈氏傳」이고, 속 표제는 「심천가 겸오륜가」이다. 본문은 32장 후면 6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33장부터는 「오륜가라」가 합철되어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혼용되었으며, 1장의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32장본 「심천가」(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필사기, 제1장

셋째, 1905년(광무 9)에 미공리(美恭里)에서 필사된 28장본 「심청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여 모본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권수제는 없고, 본문은 28장 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반부 내용이 만히 축약되어 심봉사와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자치성 대목도 나타나지 않는다. 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대목,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과 용궁 생활 대목은 간략하게 서술한 반면에 심봉사와 안씨맹인의 결연 대목에서 잔치상을 차리는 장면, 권말의 후일담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넷째, 1907년(융희 1)에 필사된 41장본 「심청가」(김광순 소장)는 새로 첨가된 내용이 많고 개작의 정도가 심하여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본문은 41장 후면 4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41장 전면과 후면은 절반이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서체는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글자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의 괘씨부인 등장 대목은 간략하게 축소하였다. 반면에 심청이 인당수로 가기 전에 동네 처녀들과 서로 이별곡을 지어주는 장면, 심청이 투신한 후 만고효녀 심청비 건립이 추진되는 장면, 심봉사가 한양으로 상경하는 길에 방아품을 팔아 끼니를 연명하는 장면, 맹인잔치 대목에서 심황후가 ‘비가’를 부르는 장면 등 독특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권말에는 심청을 본받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는 필사자의 후기가 덧붙여 있다.

다섯째, 1910년(융희 4)년에 필사된 33장본 「심청전」(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과 같은 해 ‘호난동’에서 필사된 27장본 「심청전이라」(박순호 소장)는 개작의 정도가 심하고 골계적인 대목들이 대부분 축약되었다.

33장본의 표제는 「沈淸傳」이고 속표제는 「심청전」이다. 본문은 33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반흘림체로 쓰였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필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심청의 효성이 드러나는 대목은 축소하고,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다. 심청과 심봉사의 관계보다는 심청의 상대역인 소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왕이 된 후 심청과 재회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심청이 선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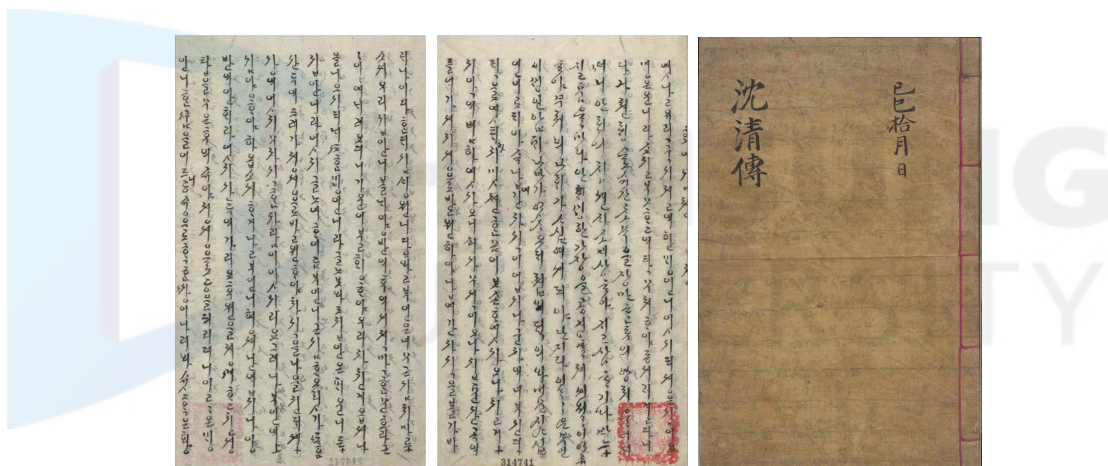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심봉사는 맹인잔치에 가기 전에 약을 먹고 눈을 뜬다고 설정되어 있다. 뽕덕어미와 안씨맹인이 등장하는 대목을 생략하여 골계적인 내용이 축소되었다. 27장본에도 뽕덕어미가 등장하는 대목과 방아타령 대목 등 골계성이 강한 대목들이 대부분 축약되었다. 27장본의 표제는 「심청전」이고 본문은 27장 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심청의 모친이 꿈에서 양주 목사를 만나 심청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며, 심봉사와 부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되었다.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에서 심청이가 동냥하러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개한테 물릴 뻔한 장면이 있어서 독특하다. 권말에는 부모에 대한 효성을 권장하는 후일담이 29장 후면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다.

여섯째, 1914년에 필사된 25장본 「沈淸傳」(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과 1920년에 필사된 30장본 「소상팔경이라」(정명기 소장)는 『심청전』의 일부분만 필사되어 있어서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25장본은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에서 장승상 부인이 심청을 수양딸로 삼으려 하는 장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이후 내용은 낙장된 것은 아니고 필사하던 도중에 멈춘 것으로 보인다. 권수제는 알 수 없으며, 본문은 25장 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정자체이고 그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30장본은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에서 ‘소상팔경’ 사설만 발췌하여 필사한 것이다. 표제가 「소상팔경」이고 본문은 30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이후 내용은 낙장되어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다. 표지의 ‘되정 구년’은 표지를 씌운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크고 넓직한 모양의 정자체이고, 글자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1928년에 필사된 28장본 「효여심청전」(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은 경판본과 완판본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축약과 개작이 심하여 모본을 명확히 알 수 없다. 표제는 「沈淸傳」이고 본문은 28장 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말미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필사자가 시누이 남편의 오복 즉,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기원하는 내용의 후기가 덧붙여 있다.⁸³⁾ 서체는 유려하게 쓴 흘림체로서, 글자의 형태가 세로로 길고 일

83) 무진정월 엽이날 등서호여시나 가이 글씨 아람답지 못호여 타인 보시면 취절을 면치 못홀 뜻 참디참디 호오니다 심청전 혼 뒤문 소일홀만 호외다 우리 시미씨게서 심칠세 등서호여 주옥갖

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유리국이고 시간적 배경은 알 수 없으며, 심봉사의 이름은 ‘심운’이고 부인은 ‘양처’라고만 제시되어 있다. 청의 출생과 성장, 심청모의 죽음과 장례, 심봉사의 심청 양육, 심청의 구출과 용궁 생활, 심봉사와 안씨매인의 결연 대목 등이 간략하게 축약되었다. 반면에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과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 등 심청의 효성과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나는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말미에는 권선징악적 구조를 취하여 심봉사는 부원군, 안씨매인은 정절부인, 심봉사를 도와준 목동은 좌영장이 되며, 뽕덕어미와 황봉사는 국문을 받고 유배당하는 것 끝난다(〈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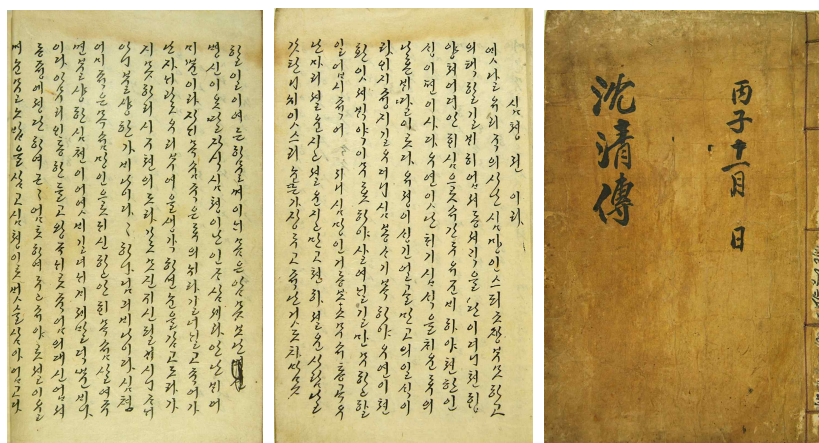
〈그림 35〉 28장본 「효여심청전」(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여덟째, 1929년에 필사된 37장본 「심청전」(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은 개작과 축약이 심하여 모본을 명확히 알 수 없다. 표제가 「박시전」이고 본문은 37장 후면 8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흘림체이고 흘림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글자 형태는 비교적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1장부터 60장까지는 「박시전」이 합철되어 있으며, 61장부터 97장까지가 「심청전」이다. 중간에 낙장된 부분이 있어

탄 옥필만디 유전호여 물삼물실허라 우리 시미씨 아모 조록 오복이 충성호여 만인이 우러러 충
 춘호게 흐리드... (28장 전면 6행~29장 11행)

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시공간적 배경은 옛날 유리국이고, 전반부에 나오는 심봉사와 심청의 어머니 이름, 곽씨부인의 기자치성 대목은 생략되었다.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은 장승상 부인이 등장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축소되었으며, 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심청이 환세하는 대목도 축약되었다. 반면에 심봉사가 자결하려는 안씨매인을 말리고 결연하는 대목처럼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대목은 길게 서술되어 있다.

아홉째, 1936년에 필사된 39장본 「심청전 이라」(이태영 소장)는 계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세책본으로 유통되었거나 세책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39장 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부드럽고 미끈한 느낌의 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의 좌측 하단과 후면의 우측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말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효성을 권장하는 내용의 후기가 덧붙여 있다. 40장부터 46장 앞면까지는 제목을 알 수 없는 4·4조의 가사가 합철되어 있으며, 주로 병인년에 일어난 일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어 표기법이 적용된 어휘가 보이기도 한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39장본 「심청전 이라」(이태영 소장) 제1장, 표지

사본 『심청전』 중에서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8>와 같다.

<표 38> 사본 『심청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서체	소장처
심창전	-	1책(56장)	1889년 (고종 26)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琉璃國沈氏傳	심청가	1책(32장)	1893년 (고종 30)	경상도 부산동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심청전	-	1책(28장)	1905년 (광무 9)	미공리 (지역 미상)	한글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심청가	-	1책(41장)	1907년 (융희 1)	미상	한글	정자체 반흘림체	김광순
沈淸傳	심청전	1책(33장)	1910년 (융희 4)	미상	한글	반흘림체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심청전	심청전이라	1책(27장)	1910년 (융희 4)	흥난동 (지역 미상)	한글	반흘림체	박순호
沈淸傳	-	1책(25장)	1914년	미상	국한문 혼용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소상팔경	소상팔경이라	1책(30장)	1920년	미상	국한문 혼용	정자체	정명기
沈淸傳	효여심청전	1책(28장)	1928년	미상	한글	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박시전	심청전	1책(37장)	1929	미상	한글	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沈淸傳	심청전 이라	1책(39장)	1936	미상	한글	흘림체	이태영

4.2 간행본

4.2.1 목판본

목판본 『심청전』은 현재 11종 22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한글로 된 방각본이다. 간행지역에 따라 경판본 3종 8책과 안성판본 2종 2책, 완판본 6종 12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목판본 『심청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1 경판본 『심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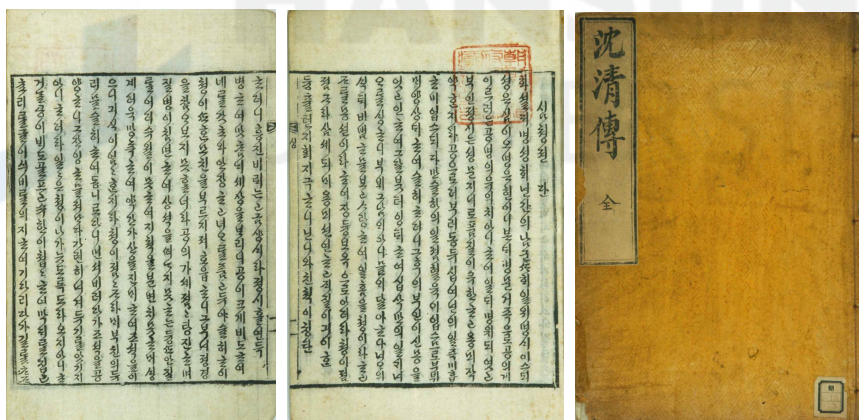
경판본 『심청전』은 3종 8책으로서, 24장본 2종 7책과 20장본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두 판본의 권수제는 「심청전」으로 동일하다.

첫째, 경판 24장본은 1920년 8월 한남서림에서 간행된 경판 24장A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같은 해 9월에 판권지만 바뀌서 다시 간행된 경판 24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있다. 판소리 창본의 문체와 사설보다는 소설화된 형태의 문체와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심봉사와 심황후의 후일담이 생략되었다.

경판 24장A본은 표제가 「沈淸傳」이고 권수제는 「심청전」이다. 간행지는 경성이고 편집검발행자는 백두용이다. 본문은 24장 후면 5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간기는 없지만 권말에 판권지가 붙어 있다.⁸⁴⁾ 행자수는 면당 14행이고 21~28자로 일정하지 않다. 판심제는 1~24장 모두 ‘심’이고 상어미 아래에 있다. 1~23장의 판심제는 판심 우측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24장의 판심제는 판심 중앙에 있다. 어미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로 일정하며, 판심 하단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자체는 흘림체이고, 1~23장은 그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24장은 자체의 크기가 작고 흘림의

84) 경판 24장A본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2책, 서강대 로올라도서관에 1책,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의 내용은 ‘大正九年八月二十五日 印刷 大正九年八月三十日 發行,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 編輯兼發行者 白斗鏞, 高陽郡 龍江面 五百四十番地 印刷者 金鉉秀,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 印刷所 翰南書林 印出部, 發行兼總發賣所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 翰南書林’이다.

정도가 더 심하여 전체적으로 판식이 조밀하다. 모본에 있는 2~3장 분량의 내용을 1장으로 축약하여 보판한 것으로 보인다. 24장은 ‘조석 봉양치 못하물 혼하더라’고 끝나고 있어서, A본의 모본은 24장보다 분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10장, 19~23장은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진하거나 흐릿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매장마다 전면의 마지막 행 하단과 후면의 첫 번째 행 하단은 독자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세책본을 판하본(板下本)으로 하였거나 간행자가 책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권지에는 인쇄 및 발행년월일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남서림에서 발행하는 구서(舊書)와 신서적(新書籍) 목록을 책값과 함께 소개하였다. 구서는 방각본을, 신서는 신연활자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남서림이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을 모두 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발행자와 인쇄소, 발매소의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남서림이 출판과 판매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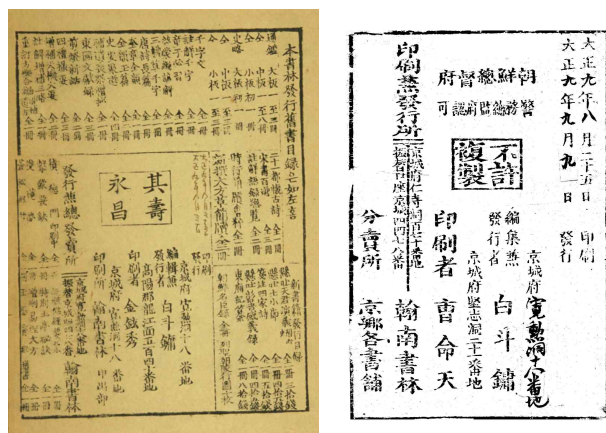


<그림 37> 경판 24장본 「심청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경판 24장B본은 일반 양지에 양면인쇄된 것으로 내용과 판식이 경판 24장A본과 동일하다. 간기는 없지만 권말에 판권지가 붙어 있다. 발행년월일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인쇄자는 김현수에서 조명천으로 바뀌었다. 한남서림의 주소지도 관훈동 18번지에서 인사동 170번지로 바뀌었다.⁸⁵⁾ A본에서는 한남

85) 판권지의 내용은 ‘大正九年八月二十五日 印刷 大正九年九月九日 發行, 京城府 寬勳洞 十八

서림이 출판과 판매를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B본에서는 한남서림이 인쇄 및 발행을 담당하고 경향명서포가 판매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경판 24장A본 판권지(좌), 경판 24장B본 판권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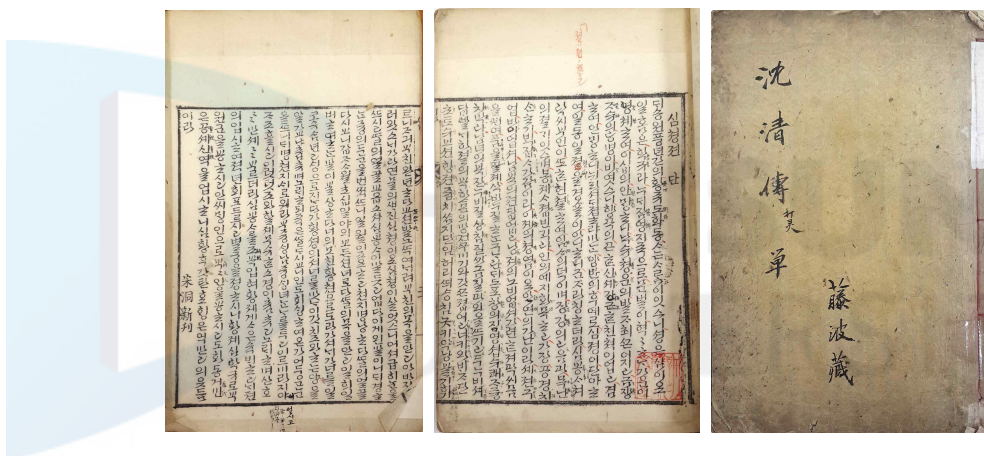
둘째,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20장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은 판소리 창본 및 완판본과 친연성이 강한 판본이다. 표제는 「沈淸傳 打靈 單」이고 권수제는 「심청전」이다.⁸⁶⁾ 간행지는 송동(宋洞, 서울 명륜동)이고 간행자는 알 수 없다. 본문은 20장 후면 15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宋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송동은 주로 1850~1890년대 사이에 운영된 방각소로 알려져 있다(이창현, 2000, pp.450-451). 행자수는 면당 15행에 25~30자로 일정하지 않다. 행간에는 작은 글씨로 한자를 추가(追記)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판심제는 1~20장 모두 ‘심’이고 판심 상단에 있으며, 판심 중앙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어미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로 일정하다. 자체는 가늘게 새겨진 흘림체이고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쇄

番地 編集兼發行者 白斗鐸, 京城府 堅志洞 二十一番地 印刷者 曹命天, 印刷兼發行所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 翰南書林, 分賣所 京鄉名書舖이다. 상단에는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認可’, 가운데는 ‘不許複製’가 있다.

86) 경판 20장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은 국내 유일본으로서, 그동안 실물의 소재가 불투명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영인본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교서관에 소장된 사본과 간행본을 전수 조사하던 중에 세종대 학술정보원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 20장본을 발견하였다. 본문에 낙서된 부분이 있지만 판본의 보존 상태는 훼손된 부분 없이 양호하였다.

상태가 고르지 못해 흐리거나 진한 부분이 많지만 자체와 판식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초간본(初刊本)으로 보인다(<그림 39> 참조).

경판 20장본 『심청전』은 서두 부분과 등장인물 설정, 심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 등이 강산제 판소리 창본과 동일하다.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과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대목의 범피종류 사설, 심봉사가 의복을 잃어버리는 장면도 축약된 형태로 들어 있다. 심봉사와 안씨매인의 결연 대목에서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다른 대목에 비해 장황하다. 외설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방아타령 대목이 생략되었으며, 골계적인 성격이 강한 뽕덕어미 등장 대목도 축약되는 등 경판 24장본의 특징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경판 20장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 제20장 후면 간기, 제1장 전면, 표지

경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3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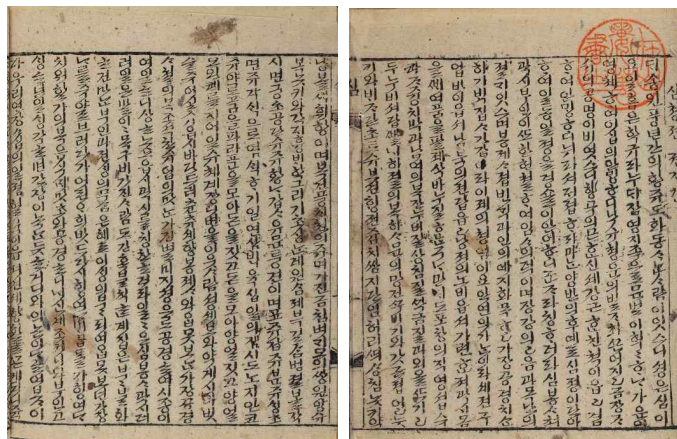
<표 39> 경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경판 24장A본	沈清傳	심청전	1책(24장)	1920년	한남서림(서울)	백두용	흘림체	국립중앙도서관
경판 24장B본	沈清傳	심청전	1책(24장)	1920년	한남서림(서울)	백두용	흘림체	국립중앙도서관
경판 20장본	沈清傳 打靈	심청전	1책(20장)	19세기 후반	송동	미상	흘림체	세종대 학술정보원

4.2.1.2 안성판본 『심청전』

안성판본 『심청전』은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판 21장 A본(동양문고 소장)과 1917년 11월 박성칠서점에서 간행된 안성판 2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안성판 21장A본은 송동에서 간행된 경판 2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경판 20장본과 동일하며, 일부 어미나 음절, 단어가 바뀌었다. 안성과 충청도 지역의 방언이 추가되면서 글자수와 장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沈靑傳」이고 권수제는 「심청전」이며, 권수제의 위치가 계선(界線) 밖에 있다. 본문은 21장 전면 8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간기가 없어서 간행자는 알 수 없다. 1장 전면에는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장서인 ‘재산루수서지일(在山樓蒐書之一)’이 찍혀 있다(〈그림 40〉 참조). 21장 전면에는 마에마 교사쿠가 동양문고에 책을 기증할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東洋文庫’, ‘K. Mayema’가 찍혀 있다. 마에마 교사쿠는 1891년(고종 28)에 조선에 입국하였으며, 그의 장서인은 1900년 이전에 수집한 책에 찍어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⁷⁾ 이를 고려하면, 마에마 교사쿠가 안성판 21장A본을 수집한 시기는 1891년에서 1900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림 40〉 안성판 21장A본 「심청전」(일본 동양문고 소장) 제1장

87)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Z.0000.4155-20120608.TOYO_0304

안성판 21장A본의 판식은 면당 15행이고 23~29자로 일정하지 않다. 판심제는 1~21장 모두 ‘심’이고 상어미 위에 있으며, 하어미 위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어미는 1~20장은 상하내향흑어미이고, 21장은 상하향일엽화문어미와 하상향흑어미 혼합이다. 21장 전면에만 계선이 있는데, 12행의 폭이 다른 행에 비해 넓다. 21장은 판목에 새겨져 있던 간기를 제거한 후 보판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는 흘림체이지만 그 형태가 거칠고 조잡하며 여러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성판 21장B본은 1912년 7월에 간행된 초간본의 재판본이다. 표제는 「심청전」이고 권수제는 「심청전」이다. 간행지는 안성이고 발행자 박성칠이다.⁸⁸⁾ 판식과 자체는 A본과 동일하며, 권말에 판권지가 붙어 있다. 7~9장, 12~13장, 16~17장은 글자의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아주 진하거나 흐릿한 부분이 나타난다. A본과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여 책을 인출한 후 판권지를 붙여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권지에는 안성판 『춘향전』과 달리 인쇄 및 간행일자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판권지에 명시된 초간본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 없다. 다만 판권지를 통해 초간본이 1912년 7월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촌서포에서 안성판 20장B본 『춘향전』이 간행된 시기와 동일하다. 이로 볼 때, 안성판 21장B본의 초간본도 북촌서포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서인과 종이의 질, 인쇄 상태를 고려할 때, A본이 B본의 초간본보다 선행하는 판본으로 추정된다.

안성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0>과 같다.

<표 40> 안성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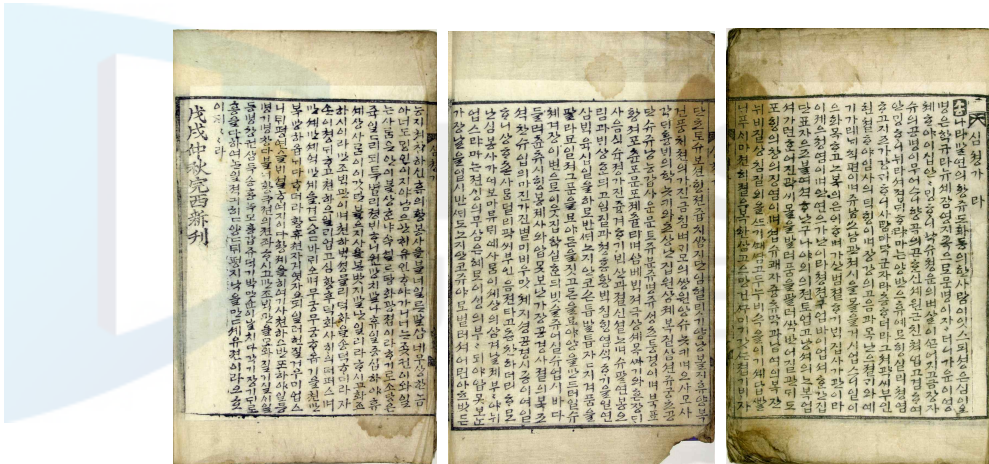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안성판 21장A본	沈靑傳	심청전	1책(21장)	19세기 후반	안성	미상	흘림체	일본 동양문고
안성판 21장B본	심청전	심청전	1책(21장)	1917년 11월(재판본)	朴星七書店 (경기 안성)	朴星七	흘림체	국립중앙 도서관

88) 판권지의 내용은 ‘明治四十五年七月十六日 印刷 明治四十五年七月二十日 發行 大正六年十一月二十一日 發行 二板, 定價金拾錢,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發行者 朴星七,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五百九十三番地 印刷者 芮一成,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印刷兼發行所 朴星七書店’이다.

4.2.1.3 완판본 『심청전』

완판본 『심청전』은 6종 12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장수에 따라 41장본 1종 1책과 71장본 5종 11책으로 나뉜다.

첫째, 1898년(광무 2)에 간행된 완판 41장본(이태영 소장)은 강산제의 판소리 창본 「심청가」를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심청가」와 대체로 일치하며, 권말에는 명창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주덕기, 박만순의 장기가 태평연의 흥을 돋운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⁸⁹⁾ 완판 71장본에서는 권말에 후일담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41장본에서는 후일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완판 41장본 「심청가 라」(이태영 소장) 제41장 후면 간기, 제1장

완판 41장본의 표제는 「一笑一〇母 沈淸傳」이고 권수제는 「심청가 라」이다. 권수제 위에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가 새겨져 있다. 간행지는 완서(完西, 지금의 전주)이고 간행자는 알 수 없다. 본문은 41장 후면 14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서 마지막 행에 ‘戊戌仲秋完西新刊’이라고 간기가 새겨져 있다. 행자수는 면당 16행이고 23~28자로 일정하지 않다. 판심제는 13장은

89) 황휴 천자겨 엿자오되 일러헌 질거우미 업스니 툇평연을 비설혀여지이다 황제 올히 여기사 천하의 반포하야 일등 명기 명창 다 불너 황극전의 전좌하시고 만조 박관을 모와 질기실시 일등 명창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주덕기 박만순 이날치 다 각기 장기되로 흥을 다하여 놀이 적기 히 ○양○ 툇평지낙을 만○제 유전이라 오호 이치○○라 戊戌仲秋完西新刊(41장 후면)

‘심청가’, 40장은 ‘심’, 나머지 장은 모두 ‘심청가’이며, 하어미 위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어미는 주로 상하내향흑어미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이다. 4장은 어미가 없으며, 31장의 어미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와 하상향흑어미 혼합이다.⁹⁰⁾ 자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판각 상태는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며, 인쇄 상태도 고르지 못하여 흐리거나 진한 부분이 나타난다. 25장 전면과 후면에는 인출 과정에서 번진 흔적이 남아 있다. 33장은 전면 16행과 후면 1행의 아랫부분이 훼손되어 다른 종으로 배접한 후 7자를 추가하였다.

둘째, 완판 71장본 『심청전』은 완판 41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으로, 결말과 후일담의 내용만 일부 개작되었다. 본문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 본문(1~30장)은 완판 41장본의 1~19장과 동일하고, 하권 본문(31~71장)은 완판 41장본의 20~41장과 동일하다. 결말 부분은 완판 41장본과 달리 명창들을 언급하지 않고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서술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어 심봉사의 부인 안씨와 황후 심청이 아들을 낳고, 심봉사와 심청의 아들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내용, 심봉사의 아들이 이부상서에 제수되는 내용, 심봉사가 80세에 별세하는 내용 등 후일담이 장황하게 이어진다.

1905년(광무 9)에 간행된 완판 71장A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⁹¹⁾의 표제는 「沈淸傳」이고, 상권 권수제는 「심청전이라」, 하권은 권수제 없이 「각설이라」로 시작한다. 상권 권수제와 1행의 ‘송나라’, 하권 1행의 ‘각설이라’는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상권 권수제 위에는 하향일이엽화문어미가 있다. 간행지는 완산(完山, 지금의 전주)이고 간행자는 알 수 없다. 상권은 30장 전면 13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간기 ‘乙巳未月完山開刊’이 새겨져 있어서 음력 6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권은 71장 전면 5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간기 ‘乙巳仲秋完山開刊’이 새겨져 있어서 음력 8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지에는 ‘戊申○月○日’라는 장서기가 있는데, 1908년

90) 1~3, 9, 10, 13, 14, 21, 25, 26, 33~35, 37, 38, 40, 41장은 上下內向黑魚尾이고, 5~8, 11, 12, 15~20, 22~24, 27~30, 32, 36, 39장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91) 완판 71장A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은 필자가 대학교서관에 소장된 사본과 간행본을 전수 조사하던 중에 세종대 학술정보원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발견하였다. 본문에 일부 낙서된 부분이 있지만 판본의 인쇄 상태와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완판 71장A본은 성균관대 존경각과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에도 1책씩 소장되어 있다. 존경각 소장본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단국대 소장본은 상권과 하권의 일부가 훼손된 낙질본이다.

(용희 2)에 책을 소유했던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행자수는 면당 13행 20자로 일정하며, 판심제는 ‘심청, 심청, 심청전, 심청전, 심청가, 심청전, 심청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⁹²⁾ 하어미 위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어미는 대체로 상하내향흑어미이고, 상하향흑어미와 상하향이엽화문어미, 상하향이엽화문어미·하상향흑어미 혼합, 상하향일엽화문어미·하상향흑어미 혼합도 나타나고 있다.⁹³⁾ 하권 5장은 하어미에 장차 ‘五’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15장은 상어미에 ‘心’, 하어미에 ‘日’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자체는 정자체이고, 글자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쇄상태와 판식이 고르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상권 1장과 하권 13, 21, 25, 29, 26, 32, 33, 35~40장은 후대에 보판된 부분으로 보인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완판 71장A본(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 상권 간기, 제1장

1911년(용희 5) 서계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7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A본을 판하본으로 하여 1906년(광무 10)에 새로 판각한 목판으로 책을

92) 상권의 경우 3~5, 13, 19, 20, 23, 25~28장은 ‘심청전上’, 12, 14, 17, 21, 22, 24, 29, 30장은 ‘심청전上’, 1, 2, 7장은 ‘심청上’, 8, 10, 11장은 ‘심청가上’, 15, 16, 18장은 ‘심청전上’, 6, 9장은 ‘심청上’이다. 하권의 경우 2~18, 22~25, 27~32, 34, 36, 39, 40장은 ‘심청전下’, 26, 33, 35, 37, 38장은 ‘심청下’, 19, 21장은 ‘심청下’, 41장은 ‘심청전下’, 20장은 ‘심청전下’, 1장은 ‘심청전下’이다.

93) 상권의 경우 1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下上向黑魚尾 혼합, 2~30장은 上下內向黑魚尾이다. 하권의 경우 1~12, 14~20, 22~24, 27, 28, 30, 31, 34, 41장은 上下內向黑魚尾, 13, 26, 33, 35~40장은 上下向黑魚尾, 25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 32장은 上下向黑魚尾·下下向一葉花紋魚尾 혼합, 21장은 上下向一葉花紋魚尾·下上向黑魚尾 혼합이고 29장은 어미가 없다.

인쇄한 후 판권지를 붙여 발행한 것이다.⁹⁴⁾ 표제는 「심청전」이고 상권 권수제는 「심청전권지상이라」, 하권은 권수제 없이 ‘각설이라’로 시작한다. 상권 권수제가 음각으로 된 ‘심청전이라 상’에서 양각으로 된 ‘심청전권지상이라’로 바뀌었고, 권수제 위의 문양도 일엽화문어미에서 연꽃 문양으로 바뀌었다.



〈그림 43〉 완판 7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하권 제71장 후면 간기, 상권 제1장 전면

완판 71장B본의 본문과 판식은 ‘심청→심청’, ‘신세→신세’처럼 일부 단어의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면, 완판 71장A본과 동일하다. 간기는 30장 후면에 ‘심청전 상종 完西溪新板’, 41장 전면에 ‘大韓光武十年丙午 孟秋完西溪新刊 심청전 상하권종’이라고 새겨져 있다(〈그림 43〉 참조). 판심제는 ‘심청전, 심청전, 심청, 심청, 심청전, 심청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⁹⁵⁾ 어미는 대체로 상하내향흑어미이고, 상하내향일엽화문어미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상하향이엽화문어미와 하상향일엽화문어미가 혼합된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⁹⁶⁾ 상권 27장의 하어미에는 ‘七’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자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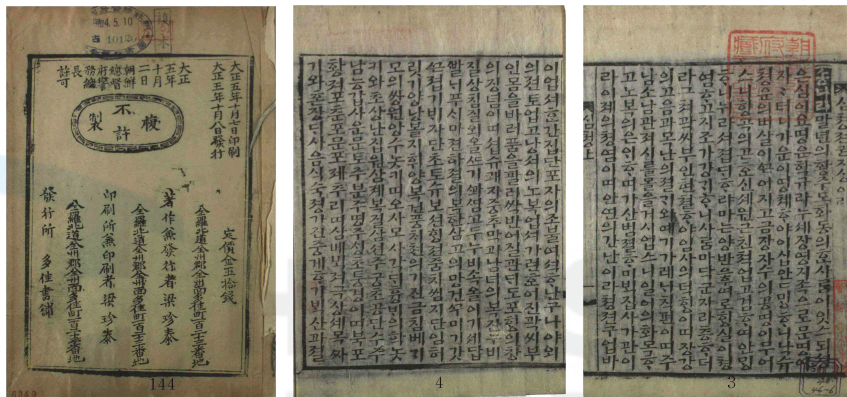
94) 완판 71장B본은 전주 완판본 문화관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 내용은 ‘明治四十四年八月二十二日 發行, 定價金四拾錢, 著作兼發行者 全州郡府西四契十三統六戶 卓鐘佺 印刷兼發行者 全州郡府西四契十七統六戶 梁元仲, 印刷兼發行所 全州郡府西四契 西溪書舖’이다.

95) 상권의 경우 4, 5, 11~16, 19~22, 25, 26장은 ‘심청전上’, 17, 18, 23, 24, 29, 30장은 ‘심청전上’, 2, 7, 9, 10, 28장은 ‘심청上’, 1, 6, 27장은 ‘심청上’, 3장은 ‘심청전上’, 8장은 ‘심청가上’이다. 하권의 경우 2, 4, 7, 8, 12, 16~18, 20, 22, 23, 25, 28~32, 34, 39장은 ‘심청전下’, 5, 6, 15, 19, 26, 35, 36, 38, 40장은 ‘심청下’, 14, 21, 33, 37장은 ‘심청下’, 9, 10, 24, 27장은 ‘심청전下’, 11, 13, 41장은 ‘심청전下’, 1, 3장은 ‘심청전下’이다.

96) 상권의 경우 1~16, 23, 24, 27~29장은 上下內向黑魚尾, 17, 22, 25, 26장은 上下內向一葉

완판 71장A본과 동일한 정자체이지만 글자의 크기가 커지고 폭이 넓어졌다.

1911년(융희 5) 서계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71장C본(서울대 규장각 소장)은 B본의 후쇄본이다. 간기는 30장 후면에 ‘심청전 상종’, 41장 전면에 ‘孟秋完西溪新刊 심청전 상하권중’이라고 새겨져 있다. B본의 간기 중에서 일부를 제거한 후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량과 내용, 판권지는 B본과 동일하다. 인출에 사용한 판목이 닳고 마모되어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탈각된 채로 인쇄된 글자도 있어서 정교함이 떨어진다.



〈그림 44〉 완판 71장D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상권 제1장

1916년 다가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71장D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B본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운 판하본을 필사한 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⁹⁷⁾ 권수제의 연꽃 문양이 일엽화문어미로 바뀌었으며, 간기는 모두 생략되었다(〈그림 44〉 참조). 권말에는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가격은 40전에서 50전으로

花紋魚尾, 20, 21장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18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下上向一葉花紋魚尾 혼합, 19장은 上下向一葉花紋魚尾·下上向黑魚尾 혼합, 30장은 上下向黑魚尾·下上向一葉花紋魚尾 혼합이다. 25장의 상어미는 다른 장과 달리 花紋魚尾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하권의 경우 7, 8, 11, 15~20, 22~24, 27, 28, 30~32, 34~36, 40장은 上下內向黑魚尾, 3~6, 37, 39장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1, 2, 10, 13, 14, 21, 25, 41장은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 12, 29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下上向黑魚尾 혼합, 9장은 上下向黑魚尾·下上向一葉花紋魚尾 혼합, 33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下上向一葉花紋魚尾 혼합, 38장은 上下向黑魚尾·下上向二葉花紋魚尾 혼합, 26장은 上下向一葉花紋魚尾·下上向黑魚尾 혼합이다.

97) 완판 71장D본은 영남대 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씩 더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五年十月七日 印刷, 大正五年十月八日 發行,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著作兼發行者 梁珍泰,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印刷所兼印刷者 梁珍泰,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發行所 多佳書鋪’이다.

올랐다. 자체는 획이 굵고 크기가 넓어진 형태의 정자체이다. 판심제는 ‘심청전, 심청, 심청, 심청가, 심청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⁹⁸⁾ 상권 어미는 1~30장 모두 상하내향흑어미이다. 하권의 경우 2~32, 34, 41장은 상하내향흑어미이고, 35~40장은 상하향흑어미, 1장은 상하향일엽화문어미·하상향흑어미 혼합, 33장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하상향일엽화문어미 혼합으로 나타났다.

1916년 다가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71장E본(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D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다른 형태의 판권지가 붙어 있다.⁹⁹⁾ 분매소 경향각서관이 추가되었고, 판매가격과 인쇄자는 차후에 가필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두었다.

완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1>와 같다.

<표 41> 완판본 『심청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완판 41장본	一笑一〇 母 沈淸傳	심청가 라	1책(41장)	1898년 (광무 2)	완서 (전북 전주)	미상	반흘림체	이태영
완판 71장A본	沈淸傳	심청전이라	2권 1책 (71장)	1905년 (광무 9)	완산 (전북 전주)	미상	정자체	세종대 학술정보원
완판 71장B본	심청전	심청전	2권 1책 (71장)	1911년 (융희 5)	서계서포 (전북 전주)	卓鐘估	정자체	국립 중앙도서관
완판 71장C본	심청전	심청전	2권 1책 (71장)	1911년 (융희 5)	서계서포 (전북 전주)	卓鐘估	정자체	서울대 규장각 소장
완판 71장 D본	沈淸傳	심청전	2권 1책 (71장)	1916년	다가서포 (전북 전주)	梁珍泰	정자체	국립 중앙도서관
완판 71장E본	沈淸傳	심청전	2권 1책 (71장)	1916년	다가서포 (전북 전주)	梁珍泰	정자체	단국대 을곡 기념도서관

98) 판심제는 상권의 경우 1~4, 6, 7, 9, 10, 13, 20, 22, 25, 28~30장은 ‘심청上’, 13~19, 21, 23, 24, 26, 27장은 ‘심청上’, 5, 11장은 ‘심청전上’, 8, 12장은 ‘심청가上’이다. 하권의 경우 1~4, 7~13, 16~18, 20, 22, 23, 25, 28~32, 36, 39, 41장은 ‘심청전下’, 6, 14, 15, 19, 24, 26, 33, 35, 37, 38, 40장은 ‘심청下’, 5, 21장은 ‘심청下’, 27장은 ‘심청전下’, 34장은 ‘심청가下’이다.

99) 완판 71장E본은 서울대 규장각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4.2.2 신연활자본

신연활자본 『심청전』은 현재 6종 27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강상련 계열 4종 23책과 비강상련 계열 2종 4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신연활자본 『심청전』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2.1 강상련 계열

강상련 계열은 1912년에 간행된 한글본 「강상련(江上蓮)」과 이를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현재 4종 23책이 전해지고 있다.

1) 「강상련(江上蓮)」

「강상련(江上蓮)」은 이해조가 1912년 3월 17일부터 같은 해 4월 26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심정순 창본 「심청가」를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¹⁰⁰⁾ 전체적인 내용은 판소리 창본과 동일하지만 각 대목의 장단 표시가 생략되었다. 1912년 초판을 시작으로 1922년 12판까지 매년마다 간행되었다. 현재 1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재판과 6판, 7판은 실물 판본이 없어서 내용과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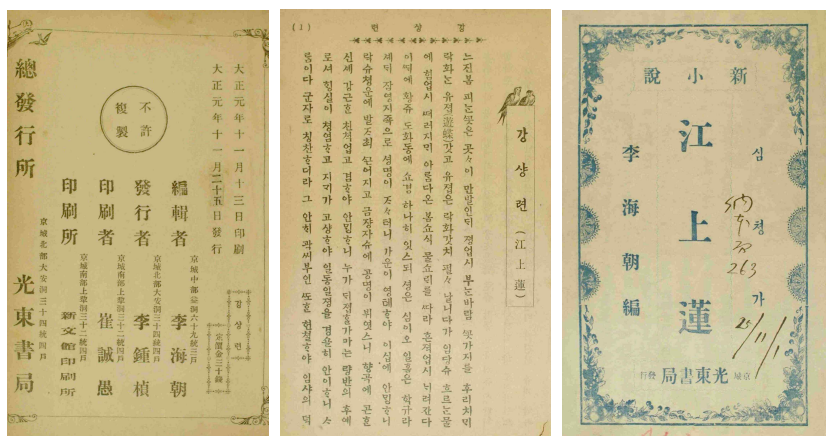
첫째, 1912년 8월 광동서국에서 발행한 초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新小説) 심청가江上蓮」이고 권수제는 「강상련(江上蓮)」이다. 편집자는 이해조이고 발행자는 이종정이며 판매가격은 30전이다.¹⁰²⁾ 본문은 120면 7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면당 12행이고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고전이나 한문 어구를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창 부분은 아니리와 구분하기 위해 한 칸 내려 썼으며, 매

100) <매일신보> 연재면에는 ‘江上蓮’이라는 표제와 ‘沈淸歌 講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名唱 沈正淳 口述 解觀子 刪正’이라는 설명이 있다.

101)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13책이 소장되어 있다. 판차별로는 초판 2책, 3판 1책, 4판 1책, 5판 2책, 8판(A) 1책, 8판(B) 1책, 9판 1책, 10판 1책, 11판 2책, 12판 1책이다.

102) 판권지 내용은 ‘大正元年十一月十三日 印刷 大正元年十一月二十五日 發行, 京城 中部 益洞 六十九統三戶 編輯者 李海朝, 京城 北部 大安洞 三十四統四戶 發行者 李鍾楨, 京城 南部 上犁洞 三十二統四戶 印刷者 崔誠愚, 京城 南部 上犁洞 三十二統四戶 印刷所 新文館印刷所, 京城 北部 大安洞 三十四統四戶 總發行所 光東書局’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면 상단에는 ‘강상련’이란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강상련(江上蓮)」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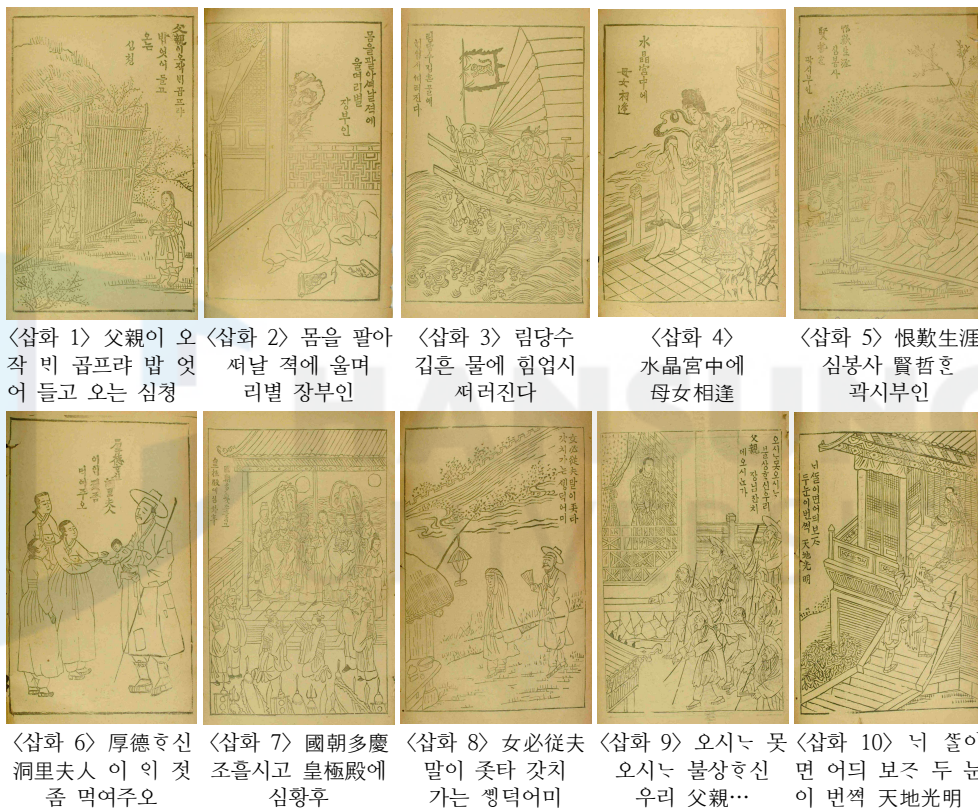
1913년 9월 광동서국에서 간행된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1914년 5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판식과 내용이 초판과 동일하다. 3판은 판권지에 총발매소 신구서림이 추가되었다.¹⁰³⁾ 광동서국에서 발행과 판매를 동시에 했던 초판과 달리 3판은 광동서국에서 발행하고 신구서림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지는 편집자의 이름을 생략하고 표제 좌우에 총발매소와 발행소를 표시한 형태로 바뀌었다. 4판은 신구서림에서 발행되었으며, 표지의 외곽선 문양만 일부 바뀌었을 뿐 3판과 동일하다.¹⁰⁴⁾ 3판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신구서림이 광동서국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여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16년 1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5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초판본과 동일하지만 행자수가 면당 13행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103) 판권지 내용은 ‘大正二年八月三十日 三刊 大正二年九月五日 發行, 京城 中部 益洞 六十九統三戶 編輯者 李海朝, 京城 北部 大安洞 三十四統四戶 發行者 李鍾楨, 京城 西部 玉瀑洞 百四十九統五戶 印刷者 劉聖哉, 京城 南部 上油洞 二十九七戶 印刷所 文明社, 京城 北部 大安洞 三十四統四戶 發行所 光東書局, 京城 南部 紫岩洞 四十二統十戶 總發賣所 新舊書林’이고, 상단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04) 판권지 내용은 ‘大正三年五月二十八日 四刊 大正三年五月三十日 發行, 京城 中部 益洞 六十九 `三戶 編輯者 李海朝, 京城 北部 大安洞 三十四 `四戶 發行者 李鍾楨, 京城 北部 淸風洞 三十六 `十戶 印刷者 金延根, 京城 鐘路 〇里洞 五 `十戶 電話 六十八番 印刷所 誠文社, 京城 南部 紫岩洞 四十二 `十戶 發行所 新舊書林’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표시되어 있다.

분량이 111면으로 줄어들었다.¹⁰⁵⁾ 신연활자본 『심청전』 중에서 처음으로 삽화 10장과 채색표지화가 사용되었다. 삽화는 소설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며, 본문 앞에 제시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삽화에는 화제가 제시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그림 이해를 돕고 있다(<그림 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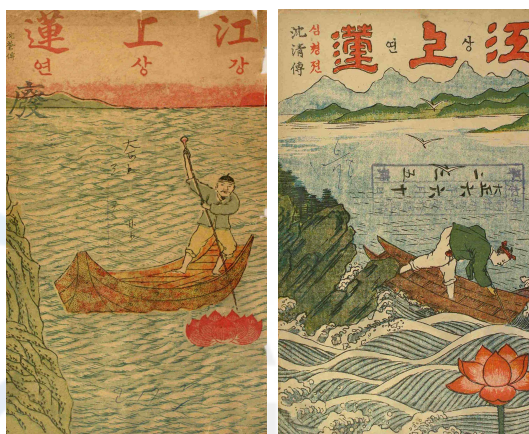


〈그림 46〉 「강상련(江上蓮)」 5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1~10

5판의 채색표지화는 인당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선인이 물 위로 떠오른 연꽃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원근법을 적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다(<그림 47> 참조). 표지와 삽화를 그린 화가는 누군지 알 수 없다.

105) 판권지 내용은 ‘大正五年一月二十日 印刷 大正五年一月二十四日 五版 發行, 京畿道 抱川郡 薪北面 編輯者 李海朝, 京城四 松峴洞 七十一番地 發行者 李鍾楨, 京城府 〇干洞 百〇三番地 印刷者 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十五番地(電話 六七八番)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蓬萊町 一丁目 七十七番地 振替口座 京城 二八五二番 發行所 新舊書林’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917년 6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8판(A)(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내용 및 판식이 5판과 동일하다. 채색표지화도 5판과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였지만 인당수의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과 선인이 노를 젓는 모습을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근경에 위치한 연꽃과 파도, 선인의 모습은 크고 돋보이게 묘사하였고, 중경과 원경에 위치한 기러기와 산세풍경은 작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다(〈그림 47〉 참조). 8판(A)에서는 5판의 〈삽화 5〉와 〈삽화 6〉이 〈삽화 1〉과 〈삽화 2〉로 옮겨져 삽화의 순서가 바뀌었다.¹⁰⁶⁾



〈그림 47〉 5판 채색표지화(좌), 8판(A) 채색표지화(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셋째, 1918년 2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8판(B)(국립중앙도서관 소장)와 1919년 1월 간행된 9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행자수가 면당 17행으로 늘어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전체 면수가 75면으로 줄어들었다. 삽화의 내용과 순서는 8판(A)와 동일하다. 1920년 2월 간행된 10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1921년 간행된 11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2년 간행된 12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판식은 5판과 동일하다. 삽화 순서는 〈삽화 7〉과 〈삽화 8〉의 순서가 앞뒤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8판(A)와 동일하다. 8판(B)부터 12판까지의 채색표지화는 8판(A)의 표지와 동일하며, 그림의 색감

106) 恨歎生涯 심봉사 賢哲호 관서부인(삽화 1), 厚德호신 洞里夫人 이 익 젓 좀 먹여주오(삽화 2), 父親이 오작 비곱프라 밥 얻어 들고 오는 심청(삽화 3), 몸을 팔아 써날 적에 울며 리별 장부인(삽화 4), 림당수 김흔 물에 힘업시 써러진다(삽화 5), 水晶宮中에 母女相逢(삽화 6), 國朝多慶 조홀시고 皇極殿에 심황후(삽화 7), 女必從夫 말이 좇타 갖치 가는 쟁덕어미(삽화 8), 오시는 못 오시는 불상호신 우리 父親 장님 잔치에 오시는가(삽화 9), 너 쫓아면 어디 보즈 두 눈이 번쩍 天地光明(삽화 10)

이 선명해지고 산세 풍경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신연활자본 「강상련(江上蓮)」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42>과 같다.

<표 42> 신연활자본 「강상련(江上蓮)」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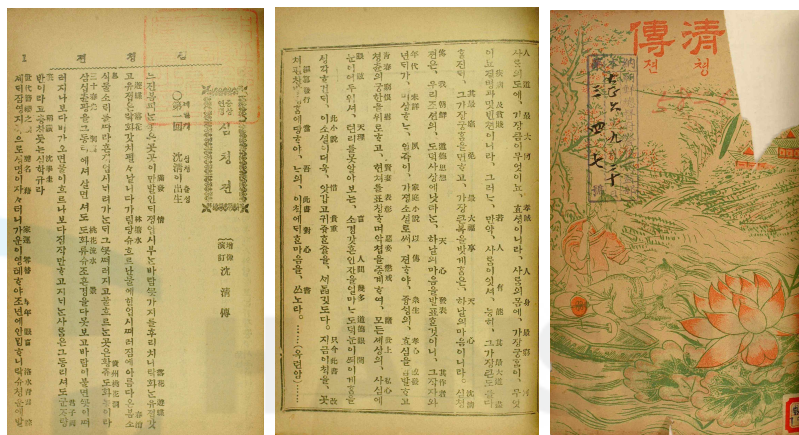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심청가 江上蓮	강상련 (江上蓮)	1912년 11월 25일	초판	李海朝	李鍾楨	光東書局	30전	120면	-	국립중앙 도서관
江上蓮 심청가	강상련 (江上蓮)	1913년 9월 5일	3판	李海朝	李鍾楨	光東書局	30전	120면	-	국립중앙 도서관
江上蓮 심청가	강상련 (江上蓮)	1914년 5월 10일	4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0전	120면	-	국립중앙 도서관
江上蓮 강상연	강상련 (江上蓮)	1916년 1월 24일	5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0전	111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17년 6월 10일	8판 (A)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0전	111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18년 2월 10일	8판 (B)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0전	75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19년 1월 25일	9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0전	75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20년 2월 26일	10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5전	111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21년 2월 28일	11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5전	111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강江상上 연蓮	강상련 (江上蓮)	1922년 12월 3일	12판	李海朝	李鍾楨	新舊書林	35전	111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2) 「증상연명 심청전」

1915년 3월에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은 1912년 간행된 「강상련(江上蓮)」의 내용을 11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한 것이다. 1922년까지 모두 10차례 발행되었으며, 현재 6판과 10판이 각각 1책씩 전해지고 있다.¹⁰⁷⁾

107) 6판의 판권지에 따르면, 초판은 1915년 3월 15일, 재판은 1915년 12월 15일, 3판은 1916년 3월 20일, 4판은 1917년 1월 18일, 5판은 1917년 3월 20일에 발행되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四年三月十五日 初版 發行, 大正四年十二月十五日 再版 發行, 大正五年三月二十日 三版 發行, 大正六年一月十八日 四版 發行, 大正六年三月二十日 五版 發行, 大正六年九月十五日 印刷 大正六年九月二十日 發行, 増像演訂 沈淸傳 定價金三十錢, 京城府 南大門 通一丁目 百

첫째, 1917년 9월 광동서국·박문서관·한성서관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6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沈淸傳 심청전」이고 권수제는 「증상연명 심청전」이다. 본문은 84면 4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5행이고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등장인물의 대화 부분은 지문과 구분하기 위해 한 칸 내려 썼으며, 대화 앞에는 괄호 안에 화자를 표시하였다.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2면까지는 행간에 한자를 병기하였다(〈그림 48〉 참조).



〈그림 48〉 「증상연명 심청전」 6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서문, 채색표지화

「증상연명 심청전」은 본문 앞에 옥련암이 쓴 서문과 목차, 삽화 10장을 제시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심청전』을 가정소설로 보고 윤리적·교훈적인 면을 중시하여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⁰⁸⁾ 목차는 ‘第一回 沈淸이 出生, 第二回 郭氏夫人喪事, 第三回 沈몽사 沈淸을 길는다, 第四回 沈몽사 夢雲寺에 施主하다, 第五回 沈淸이 몸을 팔아 供養米를 받들다, 第六回 沈淸이 林塘水에 빠지다, 第七回 水晶宮에 沈淸, 第八回 皇極殿에 沈淸, 第九回 皇城에 盲人宴, 第十回 沈몽사 썩덕어미 盲人宴에 간다, 第十一回 沈淸이 父子相

七番地 著作者 洪淳模, 京城府 堅志洞 三十八番地 發行者 李觀洙, 京城府 公平洞 五十四番地 印刷者 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十五番地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松○洞 七十一番地 發行所 光東書局, 京城府 南大門 通四丁目 十九番地 發行所 博文書館, 京城府 鐘路 通三丁目 七六番地 漢城書館」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08) 심청전은, 우리 조선의, 도덕사상에 나타난, 하늘의 마음을 발표할 것이니, 그 작자와 청춘의 궁핍을 위로하고, 현저를 표창하며 악점을 증계하여, 모든 세상의, 사심에 눈이 어두워져, 터리를 못알아보는, 소경 같은 인간을 얼마나 도덕인이 색이게 흠을 생각하건디, 이 소설이 더욱, 앓갑고 귀중한 줄을, 지늬듯도다. 지금 이 칙을, 꺾쳐 편찬 발행함에 당하야 …(옥련암)…

逢’이다. 소설의 주요 장면을 그린 삽화는 1916년 간행된 「강상련(江上蓮)」 5판과 동일한 그림이지만 배열순서가 바뀌었다. 「강상련(江上蓮)」 5판의 〈삽화 5〉와 〈삽화 6〉, 〈삽화 7〉은 각각 〈삽화 1〉과 〈삽화 2〉, 〈삽화 9〉로 순서가 옮겨졌다.¹⁰⁹⁾ 채색표지화는 배에 타고 있는 선인이 물 위로 떠오른 연꽃을 발견하고 건져 올리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둘째, 1922년 9월 광동서국·박문서관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10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增像演訂 沈淸傳 심청전」이고 卷首題는 「증상연당 심청전」이다. 간행지와 저작자, 발행자는 6판과 동일하며, 판매가격이 25전으로 떨어졌다. 본문은 72면 14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7행이고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8면까지만 행간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면당 행자수를 늘려서 전체 분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6판의 서문과 목차를 생략하였으며, 본문의 서두 부분에 ‘각설디송시절에 조선국 황희도 황주군 도화동에는 곳곳마다 작작흔 도화가 만발호여’를 추가하였다. 본문 앞에는 6판과 동일한 삽화 10장을 제시하였는데, 「강상련(江上蓮)」 5판의 순서와 동일하다. 채색표지화는 물에 빠져 나무판자에 실려 떠내려 온 심청이 꿈 속에서 용왕을 만나기 위해 용궁에 갔다가 마중 나온 시녀와 만나는 장면을 그렸다. 표지 우측 하단에는 ‘沈淸이 夢中에 龍宮가니 龍王이 侍女를 명호야 水晶宮으로 引導함’이라는 그림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신연활자본 「증상연당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43>와 같다.

<표 43> 신연활자본 「증상연당 심청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沈淸傳 심청전	증상연당 심청전	1917년 9월 20일	6판	洪淳模	李觀洙	光東書局 博文書館 漢城書館	30전	84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增像演訂 沈淸傳 심청전	증상연당 심청전	1922년 9월	10판	洪淳模	李觀洙	光東書局 博文書館	25전	72면	10장	국립중앙 도서관

109) 恨數生涯 심봉사 賢哲흔 과시부인(삽화 1), 厚德호신洞里夫人 이 이 첫 좀 먹여주오(삽화 2), 父親이 오작 비곘프라 밥 얻어 들고 오는 심청(삽화 3), 몸을 팔아 저날 적에 울며 리별 장부인(삽화 4), 림당수 김흔 물에 힘업시 썩러진다(삽화 5), 水晶宮中에 母女相逢(삽화 6), 女必從夫 말이 좇타 갖치 가는 썩덕어미(삽화 7), 오시느 못 오시느 불상호신 우리 父親 장님 잔치에 오시느가(삽화 8), 國朝多慶 조흘시고 皇極殿에 심황후(삽화 9), 넌 쫓이면 어디 보즈 두 눈이 번쩍 天地光明(삽화 10)

3) 「교명 심청전」

1915년 3월 광동서국·박문서관·한성서관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교명 심청전」은 같은 해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 1920년까지 모두 9차례 출간되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은 1920년 1월에 간행된 9판(이하 「교명 심청전(A)」)이 유일하다.¹¹⁰⁾



〈그림 49〉 「교명 심청전(A)」(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첫째, 「교명 심청전(A)」(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표제는 「沈清傳 심청전」이고 권수제는 「교명 심청전」이다. 본문은 64면 4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3행이고 자수는 27~28자로 일정하다.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매면 상단에는 ‘심청전’이란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65면부터는 「심부인전」이 합철되어 있는데, 「교명 심청전(A)」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 권말에 심봉사의 딸 심향후와 이해룡의 부인 심씨의 선량하고 어진 성

110) 9판의 판권지를 통해서 초판과 8판, 9판의 간행일자 확인할 수 있다. 大正四年(1915)三月十五日 初版 發行, 大正八年(1919)十二月十日 八版 印刷 大正八年(1919)十二月十三日 八版 發行, 大正九年(1920)一月十五日 九版 印刷 大正九年(1920)一月二十五日 九版 發行. 9판의 판권지 내용은 ‘大正四年(1915)三月十五日 初版 發行, 大正八年(1919)十二月十日 八版 印刷 大正八年(1919)十二月十三日 八版 發行, 大正九年(1920)一月十五日 九版 印刷 大正九年(1920)一月二十五日 九版 發行, 增像演訂 沈清傳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府 南大門 通一丁目 百七番地 著作者 洪淳模, 京城府 堅志洞 三十八番地 發行者 李觀洙, 京城府 公平洞 五十四番地 印刷者 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十五番地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鐘路 通一丁目 五十一番地 發行所 光東書局, 京城府 蓬萊町一丁目 九十五番地 發行所 博文書館, 京城府 鐘路 通三丁目 七六番地 漢城書館’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품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소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주제로 하고 있어서 함께 엮은 것으로 보인다.¹¹¹⁾ 채색표지화는 나무판자에 실려 떼내려 온 심청이 꿈 속에서 용왕을 만나기 위해 용궁에 갔다가 시녀와 만나는 장면을 그렸다. 표지 우측 하단에는 ‘沈淸이 夢中에 龍宮가니 龍王이 侍女를 명하야 水晶宮으로 引導함’이라는 그림 설명이 있다(<그림 49> 참조). 이 장면은 「교명 심청전(A)」에는 나오지 않고 1916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1922년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 10판에도 색감은 다르지만 동일한 장면을 그린 표지화가 사용되었다.

둘째, 1920년 12월 대창서원에서 간행한 「교명 심청전(B)」(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교명 심청전(A)」에 합철되어 있던 「심부인전」을 제거하고 표지를 바꾼 후 간행한 것이다.¹¹²⁾ 표제는 「増像演訂 沈淸傳 심청전」으로 달라졌으며 내용과 판식은 「교명 심청전(A)」와 동일하다. 채색표지화는 사공이 연꽃을 타고 물위로 올라온 심청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근경에 있는 사공을 크게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은 작고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셋째, 1925년 10월 회동서관에서 간행한 「고딕소설 심청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교명 심청전(A)」의 권수제를 바꾸고 행자수를 면당 17행에 35자로 늘려서 전체 분량을 54면으로 줄여 간행한 것이다.¹¹³⁾ 본문 내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표기가 달라진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교명 심청전(A)」와 동일하다. 채색표지화는 심청을 마중 나온 용궁 시녀들의 외관과 배경 묘사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은 「교명 심청전(A)」와 동일하다.

넷째, 1928년 11월 시문당서점(時文堂書店)과 해동서관(海東書館)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교명 심청전(C)」(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고딕소설 심청전」

111) 심봉사의 짜님 신헌후며 심지평의 짜님 리희룡의 부인 심씨의 선심덕성을 모범하야 실천실행하면 음덕이 즈손의게 너리여 만덕령화도하려니와 류방빅제 홀터이라 천만부탁하오니 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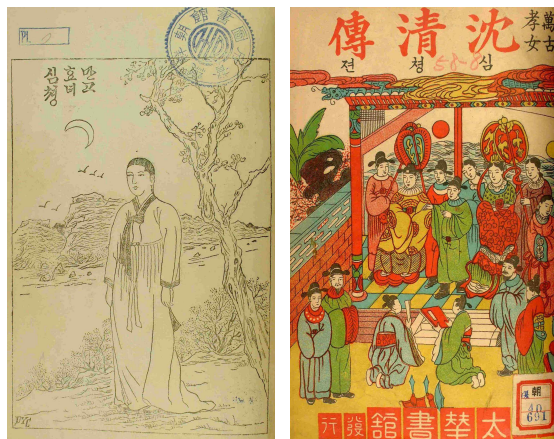
112) 「교명 심청전(B)」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에도 1책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九年十二月二十七日 印刷 大正九年十二月三十一日 發行, 沈淸傳 定價三十錢, 京城府 桂洞九十九番地 著作兼發行者 玄公廉, 京城府 黃金町一丁目一八一番地 印刷者 金聖杓, 京城府 黃金町一丁目一八一番地 印刷所 博文館印刷所, 京城府 鐘路通二丁目十九番地 發行所 大昌書院’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13) 판권지 내용은 ‘大正十四年十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十四年十月三十日 發行, 심청전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府 南大門 通一丁目 十七番地 著作兼發行者 高裕相, 京城府 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印刷者 金翼洙, 京城府 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印刷所 新文館, 京城府 南大門 通一丁目 十七番地 發行所 滙東書館, 電話 光化門 一五五八番 振替口座京城七一二番’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의 권수제만 바뀌서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 판식은 동일하다. 채색표지화의 구도와 내용은 「고딕소설 심청전」과 동일하지만 표제가 세로쓰기로 바뀌었고, 인물과 배경 묘사, 그림의 색감이 투박해졌다.

다섯째, 1930년 2월 신구서림에서 간행한 「심청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교명 심청전(A)」의 내용과 동일하며, 표제와 판식만 바뀌서 간행한 것이다. 표제는 「강상련 江上蓮」이고, 본문은 50면 9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행자수를 면당 18행에 36자로 늘리고 전체 분량을 줄여 간행하였다. 채색표지화는 1917년에 간행된 「강상련」 8판(A)와 동일하지만 그림의 색감이 진하고 투박한 느낌을 준다. 권말에는 고대소설 및 신소설 광고 내용이 덧붙여 있다.

여섯째, 1931년 2월 태화서관(太華書館)에서 간행한 「교명 심청전(D)」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본문의 내용과 판식이 「고딕소설 심청전」과 동일하다. 태화서관에서 간행한 「교명 심청전」은 1928년부터 1931년까지 모두 3차례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3판만 전해지고 있다. 표제는 「萬古孝女 沈淸傳 심청전」으로 바뀌었고, 본문 앞에 ‘만고효녀 심청(삽화 1)’과 ‘水晶宮中에 母女相逢(삽화 2)’이 추가되었다. 삽화 2는 1916년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강상련(江上蓮)」 5판의 삽화 4와 동일한 그림이다. 채색표지화는 황극전(皇極殿)에서 황제와 심향후가 신하들의 하례(賀禮)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색감이 선명하고 화려하며 인물의 표정과 행동, 공간적인 배경 묘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다(<그림 50> 참조).



<그림 50> 「교명 심청전(D)」(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삽화 1(좌), 채색표지화(우)

신연활자본 「교명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신연활자본 「교명 심청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교명 심청전(A)	沈淸傳 심청전	교명 심청전	1920년 1월 15일	洪淳模	李觀洙	光東書局 博文書館 漢城書館	25전	64면	-	국립중앙 도서관
교명 심청전(B)	增像舊訂 沈淸傳 심청전	교명 심청전	1920년 12월 27일	玄公廉	玄公廉	大昌書院	30전	64면	-	국립중앙 도서관
고딕소설 심청전	沈淸傳 심청전	고딕소설 심청전	1925년 10월 30일	高裕相	高裕相	滙東書館	25전	54면	-	국립중앙 도서관
교명 심청전(C)	沈淸傳 傳전	교명 심청전	1928년 11월	趙鍾虎	趙鍾虎	時文堂書店 海東書館	25전	54면	-	국립중앙 도서관
심청전	강상연 江上蓮	심청전	1930년 2월 25일	盧益煥	盧益煥	新舊書林	35전	50면	-	국립중앙 도서관
교명 심청전(D)	萬古孝女 沈淸傳 심청전	교명 심청전	1931년 2월	姜夏聲	-	太華書館	-	54면	2장	국립중앙 도서관

4) 「만고효녀 심청전」

「만고효녀 심청전」은 1922년에 간행된 「증상연명 심청전」 10판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다. 1925년 10월 덕흥서림에서 초판본이 간행되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은 재판본 1종이 유일하다. 초판본의 간행일자는 재판본의 판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⁴⁾

1926년 1월 덕흥서림에서 간행된 재판본(개인 소장)은 표제가 「增像演訂 沈淸傳 심청전」이고 권수제는 「만고효녀 심청전」이다. 본문은 56면 16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증상연명 심청전」과 동일한 11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구성

114) 「만고효녀 심청전」 재판본은 정확한 소장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우석 김기창 화백의 손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표지와 삽화, 본문 일부가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어서 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t84215&logNo=221100194091>). 초판의 간행일자는 재판의 판권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十四年(1925)十月三十日 初版 發行, 大正十四年(1925)一月十日 再版 印刷 大正十五年(1926)一月十五日 再版 發行, 沈淸傳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府 鐘路 二丁目 二十九番地 著作兼發行者 金東經, 京城府 鐘路 二丁目 二十番地 印刷者 申東受, 京城府 鐘路 二丁目 二十番地 印刷所 德興書林印刷部, 京城府 鐘路 二丁目 二十九番地 發行所 德興書林’이다.

되어 있다. 행자수는 면당 17행에 34~36자이며, 「증상연명 심청전」에서 행간에 병기했던 한자를 모두 생략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 행간을 좁히고 면당 행자수를 늘렸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재판본의 본문 앞에는 우석 김기창이 그린 삽화 7장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만교효녀 심청전」 재판본(개인소장) 삽화

삽화 1은 심청을 묘사한 그림이고, 삽화 2부터 삽화 7까지는 소설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삽화이다. 삽화 2~7은 한 면에 삽화 2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 삽화에는 김기창의 낙관이 찍혀 있다. 각 삽화에는 화제를 제시하여 그림 속 장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림 51〉 참조).

신연활자본 「만교효녀 심청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5〉과 같다.

〈표 45〉 신연활자본 「만교효녀 심청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삽화	소장처
萬古孝女 沈清傳 심청전	만교효녀 심청전	1926년 1월 15일	재판	金東縉	金東縉	德興書林	25전	56면	7장	개인소장

4.2.2.2 비강상련 계열

비강상련 계열은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강상련(江上蓮)」과 다르거나 개작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현재 2종 4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913년 9월 신문관에서 간행한 「심청전(권지단)」(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육전소설 시리즈로 만들어진 문고본으로서, 경판 20장분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¹¹⁵⁾ 표제는 「심청전」이고 본문은 48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행자수는 면당 11행 30자로 일정하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매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심청전’이란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 앞에는 육전소설 간행사가 나오는데,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책의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고쳐서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육전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¹⁶⁾ 표지에는 덩굴이 꼬여서 뻗어 나가는 모양을 표현한 당초문(唐草文)이 그려져 있다.

「심청전(권지단)」은 경판 20장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되 심청의 ‘효’를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개작되었다. 시간적 배경은 ‘고려 말년’이고, 심봉사에게 내려지는 벼슬은 고려시대의 관직인 ‘호부상서’로 설정하고 있다. ‘효’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작으로 보인다. ‘뽕덕어미’ 사설은 창본과 완판본에 주로 나타나는 대목으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여 소설의 골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1916년 6월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신정심청전 몽금도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경판 20장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소설의 형식을 희곡적으로 개작한 것이다. 표제는 「沈淸傳 심청전」이고 권수제 앞에 「演劇小說 沈淸傳」이라는 부제를 표시하였다. 본문은 80면 14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115) 「심청전(권지단)」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재)아단문고에도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二年九月三日 印刷 大正二年九月五日 發行, 京城 南部 上犁洞 三二’ 四著作兼發行者 崔昌善, 印刷者 崔誠愚, 印刷所 新文館, 總發行所 京城 南部 上犁洞 振替 京城 六六四番 新文館’이고, 중앙에는 ‘飜印不許’라고 되어 있다.

116) 네전부터 널니 흥헌던 칩을 구태 일흠을 밧고고 스연을 고치되 흔히 주옥을 변헌야 와록을 만들어 턱 업는 리를 탐헌는 재 만헌니 엇지 한심지 아니헌리오 우리가 이를 개연히 녀키여 이 폐단을 고칠 죄를 홀 식 먼저 넷 칩 가운데 가히 전홀만헌 것을 가리혀 스연과 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올치 못헌 것을 맛당토록 고치여 이 『육전소설』(六錢小說)이란 것을 내오니 스연은 넷 맛이 새로우며 글은 원 법에 마지며 칩은 암전헌며 갑슨 찌지라…….

행자수는 면당 15행이고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¹¹⁷⁾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일부 지명이나 사자성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매면 상단에는 ‘심청전’이란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등장인물 간의 대화 부분은 지문과 구분하기 위해 한 칸 내려 썼으며, 각각의 대화 앞에는 (심), (부), (부인)과 같이 괄호 안에 화자를 표기하였다. 채색표지화는 심청이 용궁에 가서 왕을 대면한 후 연꽃을 타고 환세(還世)하는 꿈을 표현한 그림이다. 다른 채색표지화보다 색감이 화려하고 장면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신정심청전 몽금도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채색표지화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은 『심청전』의 형식을 희곡적으로 개작하여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이 효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경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내용을 축소·생략하여 소설의 내용을 현실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 시간적 배경이 조선으로 바뀌었고, 몽금도를 용궁으로 설정하여 황해도 장산곶 북편 수십 리 거리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용궁에 가는 과정을 꿈으로 설정하였고, 심청이 물에 떠다니다가 우연히 배에 걸려서 살아 돌

117) 판권지 내용은 ‘大正五年六月十一日 印刷 大正五年六月十四日 發行,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南大門 通四丁目 六十九番地 編輯兼發行者 盧益亨, 京城府 中林洞 三三番地 印刷者 金重煥, 京城府 壽松洞 四四番地 印刷所 普成社, 京城 南大門 通四丁目 六十九番地 發行所 博文書館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아왔다고 설정하였다. 권말에는 독자들이 귀신에게 의지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심청의 ‘효’를 강조하는 후기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몽금도 앞에서 목숨을 버리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심청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책의 제목을 「몽금도전」으로 지었다고 밝혔다.¹¹⁸⁾

신연활자본 『심청전』 중 비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신연활자본 『심청전』 중 비강상련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소장처
심청전	심청전 (권지단)	1913년 9월 3일	초판	崔昌善	崔昌善	新文館	6전	48면	고려대 중앙도서관
沈淸傳 심청전	신경심청전 몽금도전	1916년 6월 11일	초판	盧益亨	盧益亨	博文書館	25전	80면	국립중앙도 서관

118) 심청전 갖은 효자의 칙칙과 춘향전 갖은 열녀의 칙칙을 기록하야 부인유자와 무식 서민으로 하야금 인륜의 덕도를 스람스람이 비호게 흐거슨 그 효력의 심이 광디흐거니와 그 중 심청전은 신명의게 비러 자식을 낳고 눈을 쏘다는 말과 룡궁에 드러갓나 나온거시 쑤도 안니오 실상 잇는 일노 만든거슨 눈을 윈 스실에 업는 일썬 안이라 스람의 정정흐 리치를 위반흐고 다만 넷닐 어 리석은 소견으로 귀신이 잇서 스람의 일을 주선흐난 줄노 밋는 허망흐 풍속디로 기록하야 후세 스람으로 하야금 귀신이란 말에 미혹하야 정당흐 리치를 바리고 비록 악흐 형위를 흐고도 귀신 의게 빌기만 흐면 관계치 안이흐고 도로혀 복을 밋을 줄노 싱각흐는 폐상이 만케 되야 점점 효 도의 본지는 업서지고 귀신을 밋고 인스를 문란케흐는 손히가 싱길 쏘이니 ... (중략) ... 죠션의 우부우부로 흐여금 모든 경전을 디용하야 룡리에 데일 가는 효도를 비양코져 흐며 ... (중략) ... 이 칙을 특별히 일흠하야 몽금도라 흠은 심청이 특이흐 효성으로 몽금도 압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기렵코져 흐고 쏘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하야 왕후의 위를 어든 것도 몽금도에서 목숨을 버림으로 된 것을 싱각흠이 쏘 고본 심청전에 심청의 몸이 참으로 룡궁에 들어갓다 나왔다는 말이 실노 업는 룡궁을 잇다흐 허망흐 것을 씨닷게 흠이오 쏘 장연 몽금도가 그 전에는 다만 금도라 불렀는데 심 왕후가 그곳서 쑤을 쏘 이후부터 비로소 몽금도의 일흠이 싱갓다는 말이 잇습이라

V.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의 계열 및 서지적 분석

5.1 사본

사본 『토끼전』은 현재 34종 34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3종 23책, 경판본 계열 2종 2책, 기타 계열 9종 9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계열별로 『토끼전』 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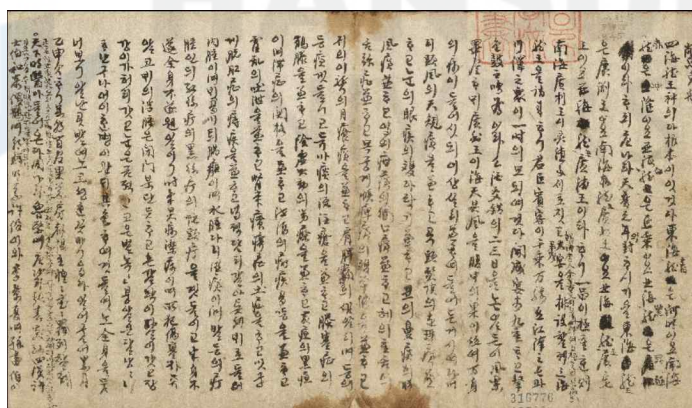
이 계열은 판소리 창본 「수궁가」 및 완판본 「퇴별가라」를 개작하였거나 내용의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23종 23책이 전해지고 있다.

5.1.1.1 판소리 창본 개작

판소리 창본 「수궁가」를 개작한 것은 15종 15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85년(고종 22)에 필사된 35장본 「토끼전다」(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다. 표지가 훼손되어 표제는 알 수 없으며, 본문은 35장 후면 13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1장과 2장 전면은 종이가 절반 이상 훼손되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2장 후면은 사신 택출을 위한 논란 대목부터 시작한다. 도사에 의해 별주부가 사신으로 정해지고, 토끼가 변심하자 대신에 호랑이를 데려가겠다고 회유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우생원 만남과 암자라 동침 대목, 토끼의 그물 위기와 독수리 위기 극복 대목 등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대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결말에는 토끼를 놓친 후 소상강으로 피신한 별주부가 용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는 것으로 끝난다. 서체는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혼용되었으며,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887년(고종 24)에 필사된 43장본 「鰲兔歌」(서울대 규장각 소장)는 판소리 창본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잘 나타난다. 표제는 「鰲兔歌」이고 본문은 43장 전면 11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1887년(고종 24)에 처음 필사된 후 1888년(고종 25)에 새로운 표지를 씌웠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혼용되었으며, 흘림의 정도가 심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들도 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행간에다가 작은 글씨로 추가한 부분도 보인다. 4·4조의 율문체가 나타나고, 판소리 창본의 욕설과 비속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용왕은 영덕전 낙성연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되고, 토끼와 자라 부인의 동침 대목이 있어서 특이하다. 결말은 자라가 소상강에 은거하고 용왕은 죽는 것으로 설정하여, 마지막까지 자라를 충신으로 묘사하고 있다. 43장 전면 12행부터 후면 10행까지는 「소상팔경(瀟湘八景)」이 필사되어 있으며, 내지에는 「관동팔경(關東八景)」과 「관서팔경(關西八景)」이 적혀 있다. 「鰲兔歌」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그림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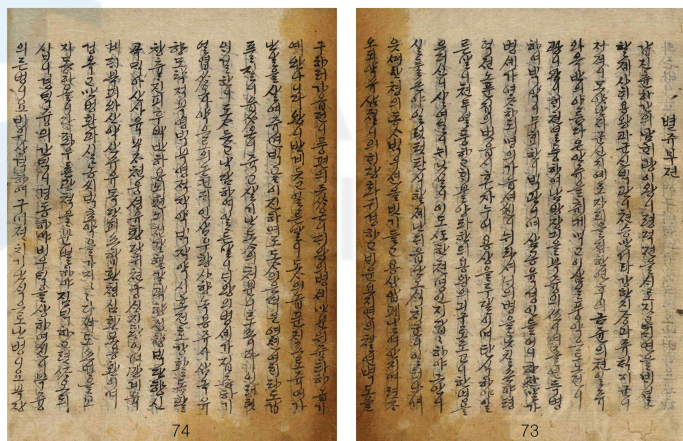


<그림 53> 43장본 「鰲兔歌」(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제1장

셋째, 1890년(고종 27)에 필사된 45장본 「뽕기전」(국립국어원 소장)은 표제가 「뽕기전」이고 본문은 45장 후면 9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 정자체가 혼용되었으며,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9장까지는 행간에 계선을 그어서 필사하였다. 필사기의 ‘경닌’은 ‘경인’을 잘못 쓴 것

으로 보인다.

넷째, 1897년(광무 1)에 일본인 하시모토 아키미가 전라도 남평(전남 나주)에 머무를 때 필사한 21장본 「별주부전」(엔칭도서관 소장)은 겉표제가 「沈淸傳」이고 본문은 21장 전면 6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가늘고 정갈하게 쓴 반흘림체로서,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별주부전」은 필사기가 없지만 36장본 「심청전」과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별주부전」과 「심청전」의 서체가 동일하고, 마지막 장에는 똑같은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모죽회의 대목을 생략하고, 너구리와 두꺼비가 등장하여 토끼의 수궁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말은 별주부가 수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용왕이 먼저 천상벽도를 먹고 병이 나았다는 내용으로 끝난다(〈그림 5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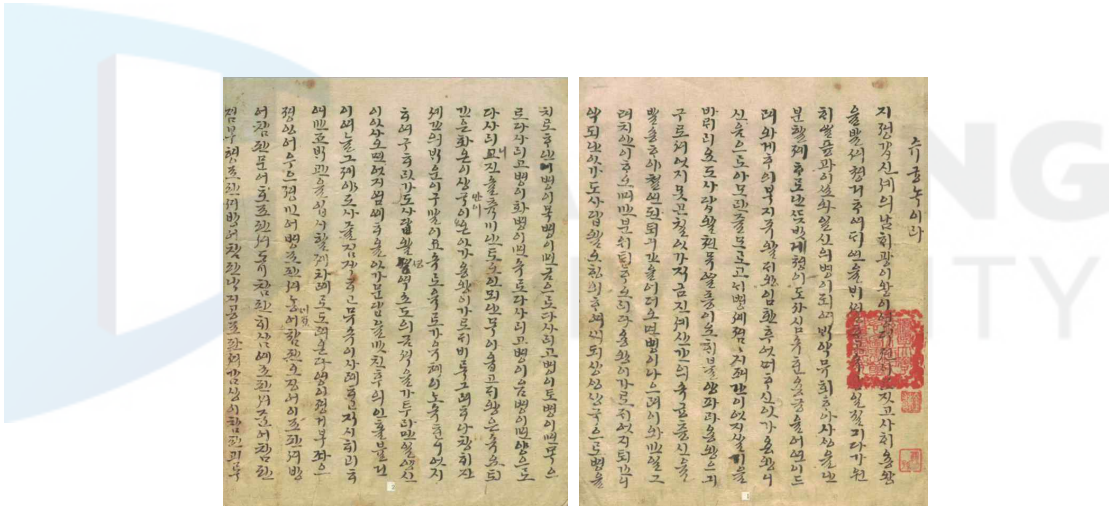


〈그림 54〉 21장본 「별주부전」(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다섯째, 1902년(광무 6)에 필사된 28장본 「특기전」(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은 표제가 「水宮歌 免의○」이고 본문은 28장 후면 4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권말에는 「春眠曲 第貳」, 「相思別曲」, 「短長歌 第肆」, 「玉設花談」 등이 32장까지 합철되어 있다. 1장 전면과 13장 전면은 글자가 흐릿하고 종이가 훼손되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혼용되었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주요 대목들이 축약되어 있으며, 육지로 나온 별주부가 남생이에게 자신의 집안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여섯째, 1908년(융희 2)에 필사된 20장본 「슈궁녹이라」(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水宮錄」이고 본문은 20장 전면 9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정갈하게 쓴 반흘림체로서,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 후면에는 봉황새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는 인선(人仙)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속표지에는 나비가 활짝 핀 꽃으로 날아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본문은 축약이 심하고 개작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전반부에 나오는 용왕의 명약 지시, 도사의 진맥과 처방, 별주부와 노모의 이별 대목 등이 생략되었으며, 토끼가 굴원, 오자서 등의 혼령과 상봉하는 대목에서 끝나고 있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20장본 「슈궁녹이라」(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933년에 필사된 22장본 「슈궁녹이라」(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는 20장본 「슈궁녹이라」를 모본으로 하여 일부 개작한 것이다.¹¹⁹⁾ 표제는 「兎先生龔主簿立傳」이고, 서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혼용되어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와 이중모음 표기가 사라지고 현대어로 표기된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결말에는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별주부에게 엉터리 약인 바람의 쓸개와 안개의 간, 구름의 발톱을 가르쳐 주고, 별주부가 수궁에 돌아가

119) 朴鍾洙, (1993). 『羅孫本筆寫本古小説資料叢書 75』, 영인본, 서울: 保景文化社, pp.589-640.

용왕에게 엉터리 약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

일곱째, 1909년(융희 3)에 필사된 35장본 「별주부전이라」(박순호 소장)는 표제가 「별주부전」이고 본문은 35장 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¹²⁰⁾ 모죽회의 대목이 생략되었고 별주부 전송 대목은 축약되었다. 결말은 포수에게 총을 맞아 두 귀를 잃은 토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월궁으로 가면서 끝난다. 서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혼용되었으며, 글자의 굵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여덟째, 1910년(융희 4) 금주군(경남 김해)에서 필사된 47장본 「鰲主簿曲」(홍운표 소장)은 표제가 없고 본문은 47장 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본문은 『擊蒙要訣』의 이면(裏面)에 필사되어 있다. 창본의 문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골계적이고 해학적인 대목들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별주부가 아내에게 입신 양명과 출세를 위해 육지에 간다고 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별주부·모친의 이별 대목과 모죽회의 대목, 토끼의 그물 위기 대목 등은 생략되었다. 토끼가 별주부를 침녕쿨로 매달았는데, 별주부가 바위로 떨어져 등판이 깨지게 되는 대목과 토끼가 별주부에게 욕설을 하고 용왕의 약재를 허무맹랑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아홉째, 1912년에 필사된 59장본 「토끼전」(경북대 도서관 소장)은 1912년 6월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창본 「수궁가」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¹²¹⁾ 필사기에 따르면 <매일신보>에 연재된 시기보다 한 달이 빠른 5월에 필사되었다. 표제가 「水宮龍王傳單」이고 본문은 59장 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슈리 분흙을 불승히고 비저ㅎ’로 끝나고 있다. 이하 내용은 낙장되어 정확한 분량은 알 수 없다. 서체는 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목판으로 찍어낸 종이에 사주단변과 계선을 그어 행간을 구분하였으며, 판심 부분에는 ‘表勲院’이란 판심제를 써 넣었다.

열째, 1912년에 필사된 19장본 「퇴기전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춘풍전 및 토끼전」이고, 1장부터 15장 전면 9행까지는 「이춘풍전」이 필사되어 있다. 15장 전면 마지막 행에 권수제 「퇴기전이라」가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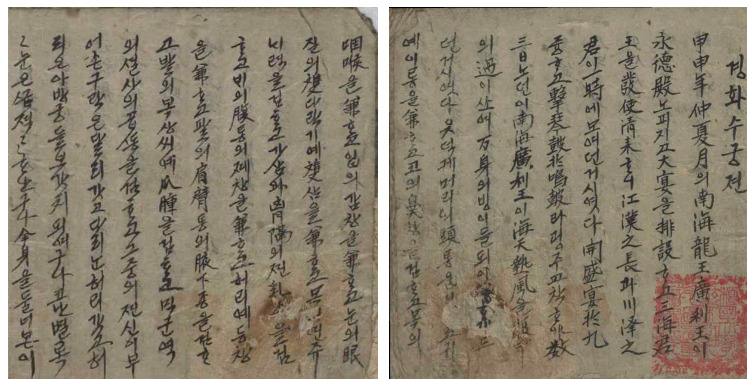
120)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7』.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669-735.

121) 金光淳. (1994). 『(金光淳所藏筆寫本) 韓國古小說全集 16』. 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pp.518-635.

고, 16장부터 34장 후면까지 본문이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춘풍전』과 『토끼전』은 지배층의 위선과 부조리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열한째, 1915년에 필사된 62장본 「토끼전이라」(윤해옥 소장)는 표제가 「兎傳」이고 본문은 62장 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다.¹²²⁾ 서체는 유려한 흘림체로서, 글자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토끼의 혼령 상봉 대목과 독수리 위기 극복 대목은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별주부의 모친과 아내가 육지행을 만류하는 대목과 토끼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만나는 대목은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가족들이 토끼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토끼가 돌아오자 아내가 계집질 갔다 오냐고 말하며 야단치는 대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결말은 용왕이 토끼의 얼굴을 보고 병이 나았다고 말하며 별주부의 공로를 치하하고 만호후에 봉하는 것으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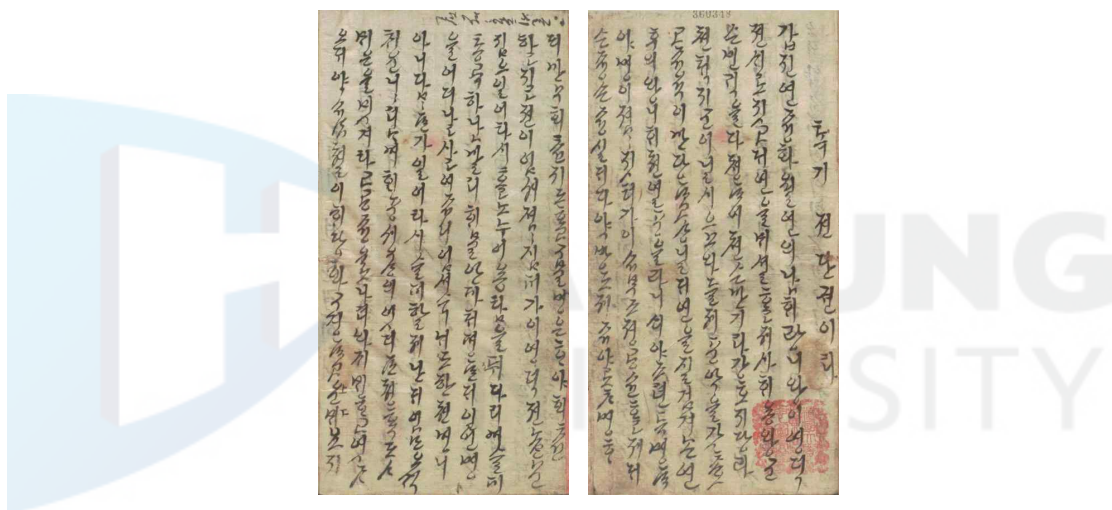
열두째, 1916년에 필사된 59장본 「경화수궁전」(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傳 單」이고, 본문은 59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표지는 1916년에 새로 씌운 것으로 보이며,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용왕은 영덕전 축하연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하늘에서 온 청의 도사가 토간을 지시하는 것으로 개작되었다. 사신 택출은 별주부가 자원한 것이며, 결말은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는 대목에서 끝난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59장본 「경화수궁전」(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122) 윤해옥. (1997). 『조선시대 우언 우화소설 연구』. 영인본. 서울: 박이정, pp.248-372.

열셋째, 1919년에 필사된 53장본 「특기 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되 사설의 문체나 어투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작되었다. 표제는 없으며 본문은 53장 전면 9행까지 필사되었다. 1919년에 필사된 것을 이듬해인 1920년에 책으로 매었으며, 붉은색 표지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서체는 역동적인 느낌의 흘림체로 일정하게 쓰였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모죽회의 대목과 별주부의 노모 이별 대목 등이 생략되었고, 별주부가 용왕의 미련함을 꾸짖는 대목이 첨가되었다(<그림 57> 참조).



<그림 57> 53장본 「특기 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제1장

열넷째, 1924년에 필사된 22장본 「특기전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표지가 훼손되어 표제를 알아볼 수 없으며, 본문은 22장 후면 9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별주부가 호랑이와 마주치는 대목에서 낙장되어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다. 1장 전면 1행부터 5행까지는 다른 소설의 끝부분이어서, 원래는 다른 소설과 합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서두 부분은 시공간적 배경이 당나라 천보 원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해용왕의 이름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별주부와 아내의 이별 대목

이 창본에 비해 길게 서술되어 있으며,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사본 『토끼전』 중에서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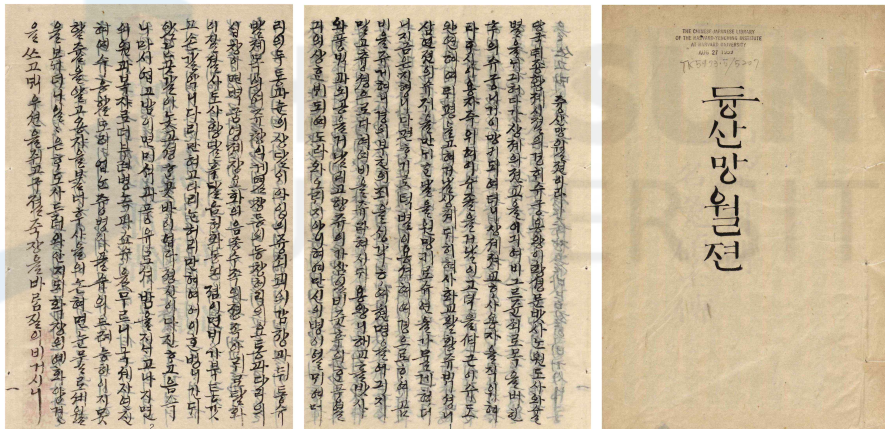
<표 47> 사본 『토끼전』 중 판소리 창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	토끼전다	1책(35장)	1885년 (고종 22)	미상	한글	정자체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兎歌	鰲兎歌	1책(43장)	1887년 (고종 24)	미상	국한문 혼용	흘림체 반흘림체	서울대 규장각
퇴기전	퇴기전	1책(45장)	1890년 (고종 27)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정자체	국립국어원
沈淸傳	별주부전	1책(21장)	1897년 (광무 1)	전라도 남평 (전남 나주)	한글	반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水宮歌 免의○	독기전	1책(28장)	1902년 (광무 6)	미상	국한문 혼용	흘림체 반흘림체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水宮錄	슈궁녹이라	1책(20장)	1908년 (융희 2)	미상	한글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	鰲主簿曲	1책(47장)	1910년 (융희 10)	금주군 (경남 김해)	국한문 혼용	반흘림체	홍윤표
별주부전	별주부전이라	1책(35장)	1909년 (융희 3)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박순호
水宮龍王傳單	토끼전	1책(59장)	1912년	미상	한글	흘림체	경북대 도서관
춘풍전 및 토끼전	퇴기전이라	1책(19장)	1912년	미상	한글	정자체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兎傳	토끼전이라	1책(62장)	1915	미상	한글	흘림체	윤해옥
경화수궁전	경화수궁전	1책(59장)	1916	미상	국한문 혼용	흘림체 반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	독기 전	1책(53장)	1919	미상	한글	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	퇴기전이라	1책(22장)	1924	미상	한글	흘림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兎先生 鰲主簿立傳	슈궁녹이라	1책(22장)	1933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율곡 기념도서관

5.1.1.2 중산망월전 계열

이 계열은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와 이를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 내용의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7종 7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95년(고종 32)에 하시모토 아키미가 부산에 머무를 때 필사한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엔칭도서관 소장)는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 표제는 「등산망월전」이고 속표제는 「中山望月傳 一名免碩士傳」이다. 내지에는 ‘별호는 중산망월전이요 명은 특기전이라’라고 쓰여 있다. 매 장마다 후면 좌측에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본문은 40장 후면 7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41장 전면에는 「시가라」가 수록되어 있다. 서체는 가늘고 정갈하게 쓴 반흘림체로, 한 사람이 일정하게 필사하였다(〈그림 58〉 참조).



〈그림 58〉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권말의 필사기에 따르면, 「중산망월전이라」의 모본은 임진년(1892)에 필사된 것으로 본래 부산진에 사는 김송여 씨 소장이었다. 1895년(고종 32)에 하시모토 아키미가 천석여 씨의 집에서 빌려다가 베껴 쓴 것이 「중산망월전이라」고 되어 있다.¹²³⁾ 전체적인 내용은 1890년(고종 27)에 필사된 45장본 「퇴

123) 임진 칠월 초구일 필서 후 엮더본는 리과 예자 낙서 만사오이 늘어보게 하옵쇼셔 金松汝 右一券 元釜山鎭金松汝所藏 今茲明治二十八年二月十七日獲之于千石汝家而起筆寫十張 翌未到其半而冊主遇求其返本 予切請夜以續日終全記寫了 于時十九日 日將出於東山之期也 於朝鮮旧館日本書堂天涯一寒生 蘇洲 橋本彰美誌(41장 후면)

기전」(국립국어원 소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우생원 만남 대목이나 암자라 동침 대목도 있어서 1887년(고종 24)에 필사된 43장본 「鰲兎歌」(서울대 규장각 소장)와도 친연성이 있어 보인다. 본문은 「唐太宗傳」의 내용을 수용하여 영웅소설과 같은 형태로 개작되었다(김동건, 2003). 서두 부분은 당태종 시절에 경해수 용왕이 비를 잘못 주어 옥황상제의 명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용자가 왕위를 잇는 것으로 시작한다. 육지로 나간 후 토끼 화상과 호랑이 화상을 그리는 대목이 있고, 토끼가 세상 풍경을 자랑하는 대목에서 화초타령, 새타령, 나무타령과 같은 사설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별주부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충신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매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결말은 별주부가 소상강에 숨어들었다가 용왕과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비(二妃)에게 원정을 올리며 죽는 것으로 끝난다.

둘째, 1895년(고종 32)에 필사된 61장본 「슈궁전」(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은 표제가 없고, 본문은 61장 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중산망월전이라」와 동일하지만 결말 부분은 토끼가 별주부의 집에 초대되어 향응을 받는 대목에서 끝난다. 토끼와 암자라의 동침 대목처럼 필사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대목은 생략하거나 축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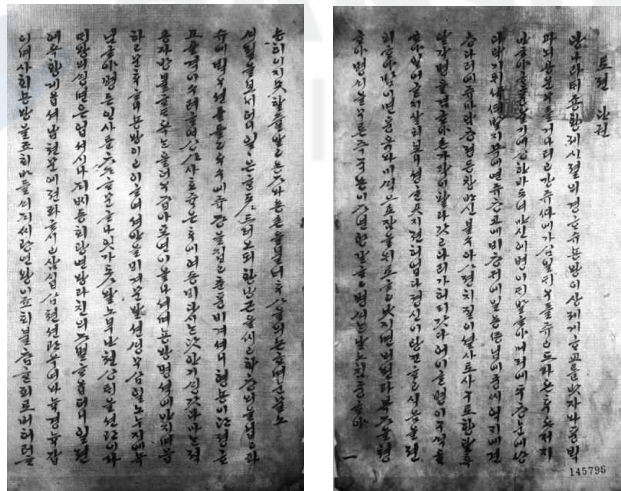
셋째, 1897년(광무 1)에 필사된 30장본 「별주부전」(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과 1901년(광무 5)에 필사된 61장본 「별토문답」(국민대 도서관 소장), 1907년(융희 1)에 창동(전북 남원)에서 필사된 52장본 「免處士傳」(임형택 소장), 1915년에 필사된 40장본 「토전」(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1920년에 필사된 38장본 「수육문답」(김광순 소장)은 「중산망월전이라」를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30장본 「별주부전」은 표제가 「별주부전」이고 속표제는 「兎記文集」이다. 본문은 30장 후면 9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말은 토끼가 육지로 올라온 후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하며 도망가고, 별주부는 하늘을 보면서 탄식한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61장본 「별토문답」은 본문이 61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이후 내용

은 낙장되어 전체 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중산망월전이라」를 모본으로 하였지만 창본의 문체와 어투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족회의 대목에서는 신하들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별주부가 용왕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소를 올리는 내용, 토끼가 너구리에게 사례하는 내용 등 다른 사본에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개작되었다.

52장본 「免處士傳」은 표제가 「民堡議 免處士傳」이고 본문은 52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민보의(民堡議)」라는 민병 조직에 관한 책 속에 함께 필사되어 있다. 1장 전면에는 「免處士傳」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당나라 태종황제 천년 간의 흥 남녀 이별’로 시작하고, 1장 후면은 도사가 용왕을 진맥하는 대목부터 시작한다. 서두 부분이 일부 낙장된 것으로 보인다. 도사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별주부의 사신 택출도 도사에 의해서 이뤄진다. 결말은 토끼를 놓친 용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별주부는 소상강에 피신하였다가 수궁 소식을 듣고 자결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림 59〉 40장본 「토전」(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제1장

40장본 「토전」은 표제가 「兎傳」이고 본문은 40장 전면 4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정갈하고 단아하게 쓴 반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9〉 참조). 매장마다 전면 하단에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으며, 전면 좌측과 후면 우측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 40장 전면 7행부터 42장 후면까지는 「월가라」가 합철되어 있다. 「월가라」는 정월부터 선달까지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정성을 표현한 월령체(月令體) 노래 ‘달풀이’로 보인다. 별주부 전송 대목에서 자식과 이별하는 모습, 별주부가 여색에 빠져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38장본 「수육문답」은 권수제가 없으며, 본문은 38장 전면 9행까지 필사되어 있다.¹²⁴⁾ 서체는 반흘림체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태우고 육지로 돌아가는 대목에서는 창본의 ‘범피중류’와 ‘소지노화’ 대목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사본 『토끼전』 중에서 중산망월전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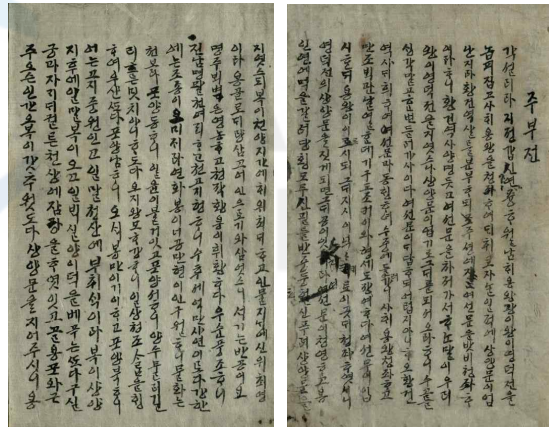
<표 48> 사본 『토끼전』 중 중산망월전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中山望月傳 一名免處士傳	중산망월전이라	1책(40장)	1895년 (고종 32)	부산	한글	반흘림체	하버드 엔칭도서관
-	슈궁전	1책(61장)	1895년 (고종 32)	미상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별주부전 (兎記文集)	-	1책(30장)	1897년 (광무 1)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올곡 기념도서관
별토문답	별토문답	1책(61장)	1901년 (광무 5)	미상	한글	반흘림체	국민대 도서관
民堡議 免處士傳	免處士傳	1책(52장)	1907년 (융희 1)	창동 (남원시 수지면)	한글	반흘림체	임형택
兎傳	토전	1책(40장)	1915	미상	한글	반흘림체	연세대 학술정보원
수육문답	-	1책(38장)	1920	미상	한글	반흘림체	김광순

124) 金光淳, (1994). 『(金光淳所藏筆寫本)韓國古小說全集 24』, 영인본, 서울: 景仁文化社, pp.511-587

5.1.1.3 완판본 개작

1922년에 필사된 32장본 「주부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은 완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이다. 표제는 「별주부」이고 본문은 32장 전면 6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22년에 책을 매었다는 장서기가 표지에 기록되어 있다. 뒷표지의 장서기는 1923년에 책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반흘림체와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1장과 12장에만 한자가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글로 쓰여 있다. 토끼의 그물 위기 대목과 독수리 위기 대목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결말에서는 토끼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청산녹수의 주인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그림 60> 참조).



<그림 60> 32장본 「주부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제1장

사본 『토끼전』 중에서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9> 사본 『토끼전』 중 완판본 개작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별주부	주부전	1책(32장)	1922	미상	한글	반흘림체 정자체	국립 한글박물관

5.1.2 경판본 계열

이 계열은 경판본 「토싱전」의 내용과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글본 2종 2책이 전해지고 있다.

1892년(고종 29)년에 필사된 22장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경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토기전 독집전」이고 권수제는 알 수 없다. 본문은 22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23장부터 49장까지는 「독집전」이 합철되어 있다. 서두 부분이 경판본과 유사하고 암토끼 등장 대목도 나타난다. 창본의 토끼화상 대목과 새타령 대목이 첨가되었으며, 경판본의 결말에 나오는 토끼 포획론과 용왕의 죽음, 태자 즉위 대목이 생략되었다.

1916년에 필사된 50장본 「별주부전」(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은 표제가 「兎先生傳 全」이고 속표제는 「兎先生傳」이다. 본문은 50장 후면 1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혼용되었다. 필사기의 ‘적룡(赤龍)’은 병진년(丙辰年)을 가리키는 것으로 1916년에 필사되었음을 알려준다. 결말에서는 별주부가 용왕에게 토끼가 거짓으로 알려준 약재를 전하여 능장을 맞고 쫓겨나서 죽게 된다. 경판본 계열의 22장본 「토기전」과 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40장본 「중산망월전」과 신연활자본 「토의간」, 판소리 창본 「수궁가」의 내용도 일부 첨가되었다.

사본 『토끼전』 중에서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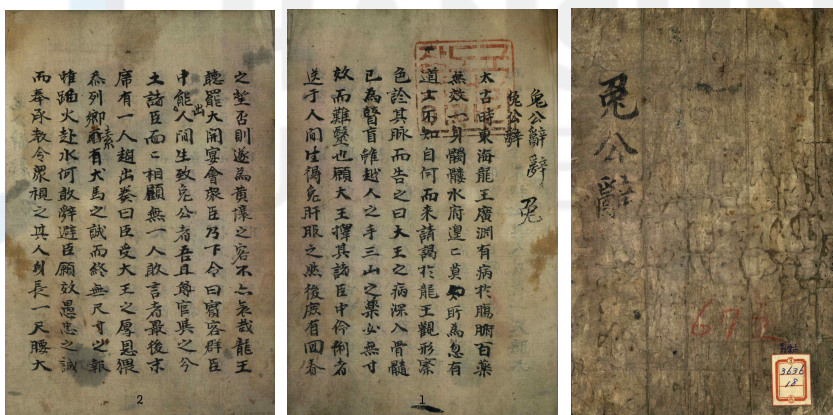
<표 50> 사본 『토끼전』 중 경판본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토기전 독집전	-	1책(22장)	1892년 (고종 29)	미상	한글	반흘림체	서울대 중앙도서관
兎先生傳 全 (兎先生傳)	별주부전	1책(50장)	1916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흘림체	연세대 학술정보원

5.1.3 기타 계열

이 계열은 개작의 정도가 심하여 모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현재 9종 9책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1885년(고종 22)에 필사된 22장본 「兔公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兔公辭」이고 본문은 22장 전면 8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일정하게 쓴 해서체이고, 필사자는 한문에 대한 소양이 있는 양반이나 중인 계층으로 추정된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별주부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고, 토끼의 독수리 위기 대목과 그물 위기 대목처럼 해학적인 내용들을 생략하였다. 결말은 토끼에게 속은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토끼를 잡아달라는 표문을 올리고, 이에 옥황상제가 용왕과 토끼의 입장을 들은 후 용왕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그림 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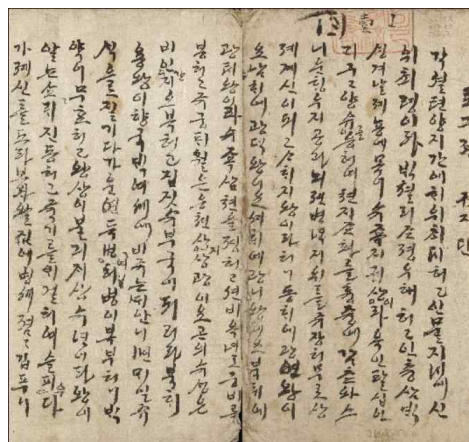
〈그림 61〉 60장본 「兔公辭」(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장, 표지

1890년(고종 27)에 문의 구룡산(충북 청원군)에서 필사된 10장본 「兔公傳」(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22장본 「兔公辭」를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가 「壬辰錄 兼兔事」이고 본문은 9장 후면 10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壬辰錄」과 합철되어 있다. 백호(白虎)년은 경인년에 해당하므로 필사 시기는 1890년으로 볼 수 있다. 서체는 단정하고 일정하게 쓴 해서체이다. 별주부 전승 대목과 모죽회의 대목, 별주부의 호랑이 위기 극복 대목이 생략되었고, 용

왕은 약자의 목숨을 빼앗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말의 옥황상제 판결 대목은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둘째, 1894년(고종 31)에 필사된 72장본 「兔公傳」(임형택 소장)은 본문이 72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반흘림체이다. 별부주의 사신 택출이 문어와의 대결을 통해 결정되고, 모족회의 대목과 별주부의 호랑이 위기 극복 대목 등이 생략되었다. 수궁에서 토끼를 다시 잡아오는 대목과 토끼와 용자가 논쟁을 벌이는 대목 등 결말의 내용이 길고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셋째, 1903년(광무 7)에 황성(皇城)에서 필사된 41장본 「토끼전」(서울대 규장각 소장)은 표제가 「토끼전」이고 속표제는 「토선생전」이다. 본문은 44장 전면 7행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31장과 32장, 33장은 낙장되어 실제로는 41장본이다.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3장까지는 면당 8행에 19~25자이고, 4장부터는 면당 10행에 21~34자로 늘어난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매장마다 전면 상단에 한자와 숫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글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행간에다가 작은 글씨로 추가한 부분도 있다. 전반부에는 수궁에서 별주부와 문어가 언쟁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토끼를 포획하기 위해 수궁제신이 군사를 일으키는 대목과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삼신산으로 가서 신선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 등 다른 사본에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새로 첨가되었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41장본 「토끼전」(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1장, 표지

넷째, 1912년에 필사된 6장본 「퇴공전이라」(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는 표제가 「兎公傳 玉屑和答」이고 본문은 6장 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한별록」, 「옥설화답」, 「짐로가」, 「낙빈가」, 「짐로가」, 「애죽가」, 「권농가」, 「제문」 등이 합철되어 있다. 내용의 축약이 심하고 줄거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결말은 용왕이 병으로 죽게 되고 뒤를 이은 용자가 별주부를 쫓아내는 것으로 끝난다.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 정자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1912년에 필사된 15장본 「별주부전」(박순호 소장)은 표제가 「별주부전」이고 본문은 15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¹²⁵⁾ 행자수가 처음에는 15~20자로 시작하지만 점점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필사되어 20~30자, 40자까지 필사되어 있다. 토끼와 암자라의 동침 대목은 토끼와 세양춘과의 동침 대목으로 바뀌었고, 토끼가 노구할미의 울타리 위기를 극복하는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결말은 토끼가 태백산에 들어가 불로초와 불로주를 먹으며 오래 산다는 것으로 끝난다. 대체로 축약이 심하고 개작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여섯째, 1917년에 필사된 35장본 「토끼전 玉兎傳」(사재동 소장)은 1장 전면이 ‘위급하야 회춘키 어려운 고로’로 시작하여 앞부분이 낙장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35장 후면까지 필사되어 있으며, 서체는 흘림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별주부와 아내의 이별 대목은 길게 서술한 반면에 토끼가 혼령과 상봉하는 대목은 생략하였다. 갈게가 토끼에게 ‘인간들에게 자기 자손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을 요청하는 대목과 물메기가 꼬리로 용왕을 치고 난 후 용왕이 꼬리 있는 신하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대목,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에 떨면서 무서워하는 대목, 토끼의 사냥꾼 위기 극복 대목 등 골격적인 내용들을 첨가하여 독특하게 개작하였다.

일곱째, 1927년에 필사된 19장본 「퇴기전이라」(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소장)와 1929년에 필사된 70장본 「토별산슈록」(박순호 소장)¹²⁶⁾도 내용의 개작과 축약이 심하여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19장본 「퇴기전이라」는 표제가 「兎生員傳」이고, 본문은 19장 전면까지 필사되어 있다. 70장본 「토별산슈록」(박순호 소장)은 표제가 없고 본문은 70장 전면 5행까지 필사되어 있다. 각 장마다 행자수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며, 글자의 크기와

125)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7』.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639-667.

126) 月村文獻研究所. (198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8』. 영인본. 서울: 昨晨社, pp.110-255.

형태도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다.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힌 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에 화답하여 독수리가 짝타령을 부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말은 남해 관음보살이 준 약을 먹고 용왕의 병이 낫는 것으로 독특하게 개작되었다.

사본 『토끼전』 중에서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사본 『토끼전』 중 기타 계열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필사년도	필사지	표기문자	자체	소장처
兔公辭	兔公辭	1책(22장)	1885년 (고종 22)	미상	한문	해서체	국립중앙도서관
壬辰錄 兼兔事	兔公傳	1책(10장)	1890년 (고종 27)	문의 (충북 청원군)	한문	해서체	고려대 중앙도서관
兔公傳	토공전	1책(72장)	1894년 (고종 31)	미상	한글	반흘림체	임형택
토끼전 (兎先生傳)	토끼전	1책(41장)	1903년 (광무 7)	황성 (서울)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서울대 규장각
兔公傳 玉屑和答	퇴공전이라	1책(6장)	1912년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정자체	단국대 올곡 기념도서관
별주부전	별주부전	1책(15장)	1912년	미상	한글	정자체	박순호
토끼전 玉兔傳	-	1책(35장)	1917년	미상	한글	흘림체 반흘림체	사재동
兎生員傳	퇴기전이라	1책(19장)	1927년	미상	한글	반흘림체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	토별산수록	1책(70장)	1929년	미상	한글	정자체 반흘림체	박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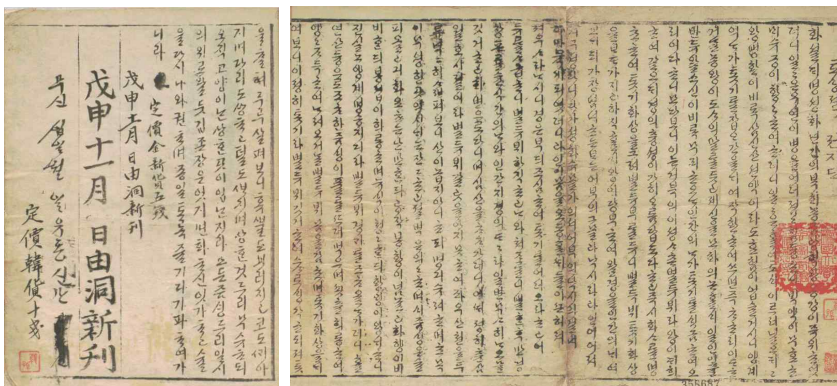
5.2 간행본

5.2.1 목판본

목판본 『토끼전』은 현재 3종 4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한글로 된 방각본이다. 간행지역에 따라 나뉘보면, 경판본 1종 1책과 완판본 2종 3책으로 나뉘지며, 안성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각 계열별로 『토끼전』 목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1 경판본 『토끼전』

1908년(융희 2)에 유동에서 간행된 경판 9장본(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은 표제와 권수제가 모두 「토싱전」이고, 속표제는 「兎生傳」이다. 본문은 9장 후면 3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이어서 15장까지 「노섬상좌괴」가 합철되어 있다. 행자수는 면당 14행이고, 21~29자로 일정하지 않다. 간기는 ‘戊申十一月日 由洞新刊(15장 전면)’이다. 간기 위에는 가필한 흔적이 있으며, 옆에는 ‘定價韓貨十錢’이라고 쓰여 있다. 자체는 흘림체이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마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은 손가락으로 집어 넘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놔두었다(〈그림 63〉 참조).



〈그림 63〉 경판 9장본 「토싱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제9장 후면 간기, 제1장

경판 9장본은 처음 판각된 후 1908년(융희 2)에 7장과 9장을 보판하면서 「노섬상좌괴」와 합철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1~6장과 8장의 어미는 상하향흑어미이고, 7장과 9장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이다. 1~6장과 8장은 글자의 크기가 작고 흘림의 정도가 심하며 판식이 조밀하다. 반면에 7, 9장의 자체는 글자 크기가 크고 반흘림체에 가까우며, 행간이 넓고 판식이 조밀하지 않아 인쇄 상태도 선명하다. 7장과 9장도 서로 자체와 판식이 다른데, 이는 7장과 9장이 서로 다른 시기에 보판된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보판하였지만 서로 다른 각수가 판각한 것일 수도 있다. 글자의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진하거나 변진 부분이 많고, 흐릿한 글자 위에는 가필한 흔적도 보인다.

경판 9장본은 『토끼전』 사본과 간행본 중에서 가장 분량이 짧다. 줄거리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축약되어 이야기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모본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방각본 간행자가 장수를 줄이고 이운을 높이기 위해, 『토끼전』의 서사 구조를 사건 중심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판 9장본의 그물 위기 대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34장본 「토싱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유사하다. 또한 경판 9장본은 1903년(광무 7)에 필사된 42장본 「토끼전」의 전반부는 축약하고 후반부에 새로운 이야기를 부연한 것이다(인권환, 1991, pp.163-185.).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용왕과 토끼의 문답 대목, 토끼가 수궁을 탈출하여 암토끼를 만나는 대목, 용왕이 토끼의 화상을 그려주는 대목, 자라가 자살하기 전에 용왕에게 표문(表文)을 올리는 대목, 용왕의 장례식 대목 등이 축약되었다. 용왕은 위엄과 절대적 권위를 지닌 인물로서, 토끼를 놓친 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죽음을 택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자라는 충신으로, 토끼는 꾀를 잘 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서 소설의 풍자성과 해학성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경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경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표제(속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토싱전 (兔生傳)	토싱전	1책(9장)	1908년 (융희 2)	유동	미상	흘림체	단국대 울곡 기념도서관

5.2.1.2 완판본 『토끼전』

완판본 『토끼전』은 1898년(광무 2)에 완서에서 간행된 완판 21장A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¹²⁷⁾과 1916년에 다가서포에서 간행된 완판 2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 2종 3책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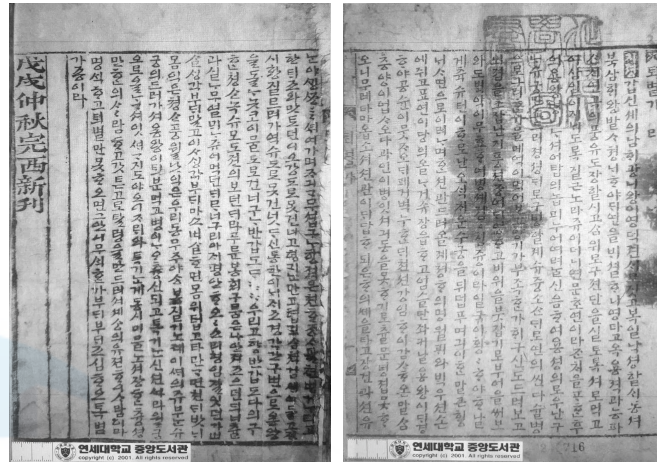
완판 21장A본은 표제가 「퇴별가 全」이고 권수제는 「퇴별가 라」이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세로로 ‘免公傳’이라 쓰여 있다. 권수제 위에는 상하향이엽화문어미가 있고, 1장 전면 1행의 첫 두 글자 ‘지정’은 음각으로 새겨 인쇄하였다. 본문은 21장 후면 13행까지 판각되어 있으며, 간기는 ‘무술중추완서신간(戊戌仲秋完西新刊, 21장 후면)’이다. 행자수는 면당 16행이고 24~31자로 일정하지 않다. 자체는 정자체와 반흘림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장, 2~4장, 5~8장, 9~10장, 11~20장, 21장은 서로 자체가 다르고 글자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판심제는 ‘퇴별ㄱ, 토별ㄱ, 퇴별가’이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상하내향일엽화문어미, 상하향이엽화문어미·하상향일엽화문어미 혼합 등이다.¹²⁸⁾ 판각 상태가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며, 판목 자체도 마모되어 인쇄 상태가 대체로 고르지 못하고 흐리거나 번진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2~4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대에 번각과 보판을 거친 판목으로 간행한 것이다(<그림 64> 참조).

완판 21장본 「퇴별가 라」는 신재효의 판소리 창본 「퇴별가」를 모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일부 표기와 어구가 다르고 오자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판소리 창본과 대체로 동일하다. 본문은 수령과 아전, 향리 같은 지배계층이 민중에게 가했던 횡포와 수탈을 비판하고 봉건사회의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한 내용들이 축약되었다. 창본의 모죽회의 대목에서 ‘산군은 수령 같고, 여우는 간물출패(奸物出牌), 사냥개는 세도아전, 너구리와 멧돼지, 쥐, 다람쥐는 굶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완판 21장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완판

127) 완판 21장A본은 여태명 교수도 1책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은 표제가 「免別歌」이고 권수제는 1장 전면이 훼손되어 알 수 없다. 1장 전면과 18장, 19장의 하어미 부분이 훼손되어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자체와 판식으로 볼 때,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128) 판심제는 4~11, 13~20장은 ‘퇴별ㄱ’, 2장과 3장은 ‘토별ㄱ’, 1장은 ‘퇴별가’이고, 12장과 21장은 확인할 수 없다. 어미는 5~7, 9, 10, 13~20장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4, 21장은 上下內向黑魚尾, 1, 8장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下上向一葉花紋魚尾 혼입, 11장과 12장은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이다.

방각업자가 방각본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최진형, 2008, pp.310-337). 경판본에서는 용왕이 별주부를 전송하는 반면에 완판 21장본에서는 별주부의 모친이 별주부가 육지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전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림 64〉 완판 21장A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제21장 후면 간기, 제1장 전면

완판 21장B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1898년(광무 2)에 완서에서 판각한 목판을 가지고 1916년에 다가서포에서 책을 인쇄하여 판권지를 붙여 간행한 것이다. 표제는 「退別歌」이고 권수제는 「퇴별가 라」이다. 저작겸발행자와 인쇄자는 양진태이고, 다가서포에서 발행과 인쇄를 모두 담당하였다.¹²⁹⁾

완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3〉과 같다.

〈표 53〉 완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구분	표제	권수제	권수(장수)	간행년도	간행지	간행자	자체	소장처
완판 21장A본	퇴별가	퇴별가 라	1책(21장)	1898년 (광무 2)	완서	미상	정자체 흘림체	연세대 학술정보원
완판 21장B본	退別歌	퇴별가 라	1책(21장)	1916년	전주	다가서포	정자체 흘림체	국립 중앙도서관

129) 판권지 내용은 ‘大正五年十月七日 印刷, 大正五年十月八日 發行,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著作兼發行者 梁珍泰,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印刷所兼印刷者 梁珍泰,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發行所 多佳書鋪’이다.

5.2.2 신연활자본

신연활자본 『토끼전』은 현재 한글본 4종 12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 및 구성에 따라 불로초 계열 3종 11책과 비불로초 계열 1종 1책으로 나뉜다. 각 계열별로 신연활자본 『토끼전』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2.1 불로초 계열

불로초 계열은 1912년 간행된 「불로초」와 이를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판본, 1903년(광무 7)에 필사된 「토끼전」과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3종 11책이 전해지고 있다.

1) 「불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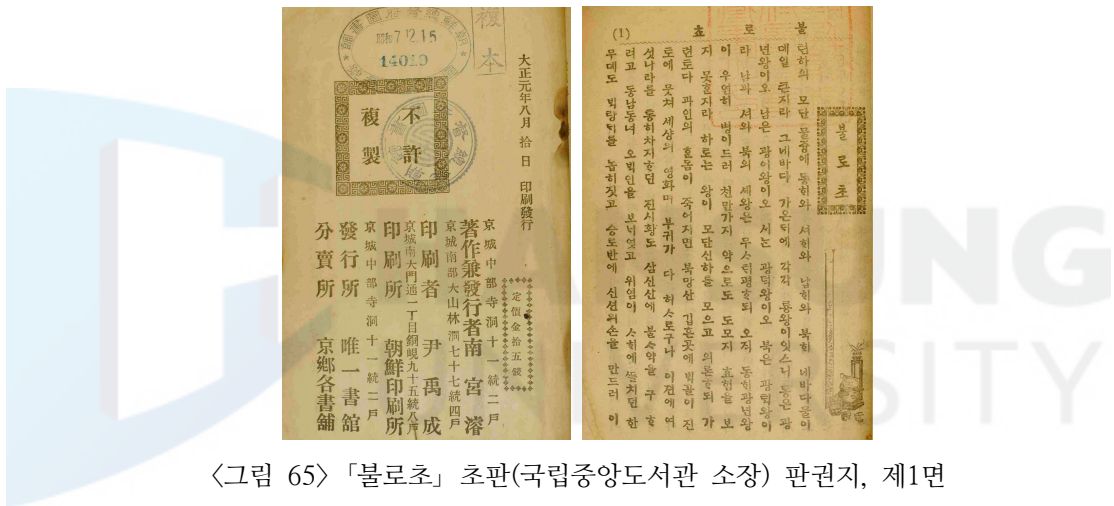
「불로초」는 1912년 8월 초판을 시작으로 1920년 5판까지 간행되었다. 모본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903년(광무 7)에 필사된 41장본 「토끼전」(서울대 규장각 소장)과 친연성이 높은 판본이다. 현재 초판과 재판, 3판, 4판, 5판이 각각 1책씩 전해지고 있다.

첫째, 1912년 8월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不老草 불로초」이고 권수제는 「불로초」이다. 저작검발행자는 남궁준이고 판매가격은 15전이다.¹³⁰⁾ 본문은 56면 11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4행이고 자수는 띄어쓰기 포함하여 30~31자로 일정하다. 본문은 지문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매면 상단에는 ‘불로초’라는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65〉 참조).

「불로초」 초판의 내용은 토끼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술자는 특정 인물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토끼와 별주부, 용왕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토끼는 스스로 고난과 위기

130) 판권지 내용은 ‘大正元年八月拾日 印刷發行, 定價金拾五錢, 京城 中部 寺洞 十一統 二戶 著作兼發行者 南宮濬, 京城 南部 大山林洞 七十七統四戶 印刷者 尹禹成, 京城 南大門 通一丁目 銅峴 九十五統 八戶 印刷所 朝鮮印刷所, 京城 中部 寺洞 十一統 二戶 發行所 唯一書館, 分賣所 京鄉各書舖’이고, 상단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를 극복한 영웅이라고 칭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며 별주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박한 인물로도 묘사되어 있다. 용왕은 작은 나라의 임금으로 주색과도 때문에 불치병에 걸려서 비웃음을 사는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별주부는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리한 인물로서 자신을 초패왕과 나폴레옹에 빗대며 헛된 공명에 목숨을 거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¹³¹⁾ 명의 초빙 대목, 별주부와 문어의 언쟁 대목, 사신택출 대목, 별주부와 토끼의 나이 자랑 대목, 별주부의 토끼 관상풀이 대목 등이 1903년(광무 7)에 필사된 41장본 「토끼전」과 유사하다.



〈그림 65〉 「불로초」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불로초」 초판의 채색표지화는 수궁에서 위기를 극복한 토끼가 별주부의 등 위에 타고 물 위로 올라와서 육지로 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원근법을

131) 의몽훈손 별주부오 미옥훈손 토기로다. 자라의 허허 말을 꺾치 달게 듯고 세 왕세계 엇뎃타고 디옥으로 드러가며 첩첩청산 바려두고 수중고혼 되려 가니 불상하고 가련하다. …(중략)… 일기 자라의 첩첩리구에 그 약은 테허던 경박한 토기가 속았구나(「불로초」 초판 26면). 왕이 굴으스디 과인이 신슈불길하여 우연이 병든지 지금수년이나 되도록 약시세도 만히허엿것마는 범상한약술이라 그러헌지 종시효험을 조금도보지못했오니 선싱은 이 죽게된 목숨을 살너주시기를 하늘 꺾치 바라노라헌즉 …(중략)… 대왕이 술과 식을 과도이혀사 이지경에 니르심이니 스스로 지으신 죄악이라 …(중략)… 이리저리 아모리 싱각허와도 국운이불형하고 천명이 궁진허심인지 대왕의 병환이 평복되시기가 과연 어렵도소이다(「불로초」 초판 3면~5면). 자라| 굴으디 …(중략)… 세상을 주름잡던 초패왕도 히하영에 띄허엿고 유로바에서 각국을 응시허든 나파룬도 히도중에도 갓쳤는디 요마한 내용뎡을 뉘압해서 번쩍이며 또는 무슴지식이 잇노라고 내지해를 헤아리노 참으로 내지조를 드러보이라 …(중략)… 톱기를 맞노보면 어린아히 젓국 먹이듯 쭈장이 과부호리듯 이췌저췌 두로써서 간스흔 더독기를 두눈이 멀게게 잡아올거시오 만일 시운이 불형허야 못잡아오는경우면 수궁에 도라와서 내목을 디신히리라(「불로초」 초판 8면~9면).

적용하여 근경에 있는 토끼와 별주부, 육지의 모습은 크게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배는 작게 그렸다. 표제 아래에는 해와 구름을 그려 넣어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66〉 참조).



〈그림 66〉 「불로초」 초판 표지(좌), 재판 표지(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둘째, 1913년 9월에 간행된 2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불노老초草」이고 권수제는 「불로초」이다. 판식과 내용은 초판과 동일하며, 인쇄자는 류성재, 인쇄소는 문명사로 바뀌었다.¹³²⁾ 표지화는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절벽 위에서 토끼가 불로초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초판과 달리 단색을 사용하여 그림의 색감과 묘사가 투박하고 섬세함이 떨어진다(〈그림 66〉 참조).

1915년 12월에 간행된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유일서관과 한성서관에서 공동 발행한 것으로, 表題가 「불노老초草」이고 卷首題는 「불로초」이다.¹³³⁾ 내용은 초판과 동일하지만 판식이 달라졌으며, 인쇄자가 김중환, 인쇄

132) 판권지 내용은 ‘大正元年八月十日 初版印刷發行, 大正二年九月三十日 再版印刷發行, 定價金拾伍錢, 京城 中部 寺洞 十一統 二戶 著作兼發行者 南宮濬, 京城 西部 玉瀑洞 一百四十七統五戶 印刷者 劉聖哉, 京城 南部 上油洞 二十九統七戶 印刷所 文明社, 京城 中部 寺洞 十一統 二戶(電話二四五六番) 發行所 唯一書館, 分賣所 京鄉各書舖’이다.

133) 판권지 내용은 ‘大正元年八月十日 初版印刷發行, 大正二年九月三十日 再版印刷發行, 大正四年十二月二十日 印刷, 大正四年十二月廿日 三版發行, 定價金拾伍錢, 京城府 寬勳洞 七十二番地 著作兼發行者 南宮濬, 京城府 中林洞 三三三番地 印刷者 金重煥, 京城府 壽松洞 四四番地 印刷所 普成社, 京城府 寬勳洞 七十二番地 發行所 唯一書館, 京城府 鐘路 通二丁目 十九番地 漢城書館’이다.

소가 보성사로 바뀌었다. 본문은 56면 9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행자수는 면당 13행으로 줄어든 대신에 구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여 전체 면수는 초판, 재판과 동일한 56면이다. 행자수가 13행으로 줄어서 행간이 넓어졌다. 1면부터 16면, 24면부터 50면까지, 57면은 면주가 ‘불로초’이고, 17면부터 23면, 51면부터 55면까지는 ‘불로초’이다. 채색표지화에는 재판과 동일한 그림이지만 색감이 분명하지 못하고 채도가 떨어져 보인다.

셋째, 1917년 3월에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불노老초草」이고 권수제는 「불로초」이다. 본문은 40면 11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6행이고 자수는 35~37자로 비교적 일정하다.¹³⁴⁾ 면당 행자수를 늘려서 전체 분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를 하였지만 행간이 좁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192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5판(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판식은 4판과 동일하다. 박문서관에서 신구서림 간행본의 판권지만 바뀌서 재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신연활자본 「불로초」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4>와 같다.

<표 54> 신연활자본 「불로초」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소장처
不老草 불로초	불로초	1912년 8월 10일	초판	南宮濬	南宮濬	唯一書館	15전	56면	국립중앙 도서관
불노老 초草	불로초	1913년 9월 30일	재판	南宮濬	南宮濬	唯一書館	15전	56면	국립중앙 도서관
불노老 초草	불로초	1915년 12월 20일	3판	南宮濬	南宮濬	唯一書館 漢城書館	15전	56면	국립중앙 도서관
불노老 초草	불로초	1917년 3월 15일	4판	南宮濬	南宮濬	唯一書館	15전	40면	국립중앙 도서관
불노老 초草	불로초	1920년	5판	-	-	博文書館	-	40면	영남대 중앙도서관

134) 판권지 내용은 ‘大正元年八月十日 初版發行, 大正二年九月卅日 再版發行, 大正四年十二月廿五日 三版發行, 大正年三月一日 四版 印刷 大正六年三月十五日 四版 發行, 京城府 寬勳洞七十二番地 著作兼發行者 南宮濬, 京城府 寬勳洞 三十番地 印刷者 鄭敬德, 京城府 寬勳洞 三十番地 印刷所 ○○○○印刷所, 京城府 寬勳洞 七十二番地 發行所 唯一書館’이다.

2) 「별繫주부簿전傳」

「별繫주부簿전傳」은 1913년 9월 초판을 시작으로 1917년 4판까지 간행되었다. 현재 초판과 3판, 4판이 1책씩 전해지고 있으며, 2판은 실물 판본이 없어서 내용과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 표제와 권수제만 바뀌서 재출간한 판본도 2책이 전해지고 있다. 모본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903년(광무 7)에 필사된 「토기전」(서울대 규장각 소장)과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13년 9월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와 권수제 모두 「별繫주부簿전傳」이다.¹³⁵⁾ 판권지에는 저작자가 이해조이고 발행자가 지송옥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해조가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문은 109면 6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89면부터 96면까지는 낙장되어 있다. 행자수는 면당 11행이고 자수는 34~35자로 일정하다.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매면 상단에는 ‘별주부전’이라는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판소리의 창 부분은 아니리와 구분하기 위해 행을 달리하여 한 칸 내려 썼으며, 등장인물의 대화 앞에는 ‘(별), (범), (오)’와 같이 괄호 안에 화자의 이름을 표기하였다.



〈그림 67〉 「별繫주부簿전傳」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135) 판권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正二年九月二十日 印刷 大正二年九月二十五日 發行, 定價金三十錢, 京城 中部 益洞 六十九統三戶 著作者 李海朝, 京城 南部 紫岩洞 四十二統十戶 發行 者 池松旭, 京城 西部 玉瀑洞 一百四十七統五戶 印刷者 劉聖哉, 京城 南部 上油洞 二十九統七戶 印刷所 文明社, 京城 南部 紫岩洞 四十二統十戶 發行所 新舊書林’이다.

서두 부분은 ‘어화 벗님네야 이내 말슴 들어보소’로 시작하여 마치 판소리 현장에서 소리꾼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채색표지화는 토끼가 별주부의 등 위에 타고 수궁으로 가기 위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멀리 보이는 배 두 척과 해, 구름, 산, 나무 등은 작게 그렸다. 색감이 풍부하고 산과 나무 묘사가 섬세하며, 바다의 물결과 파도는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67〉 참조).

「별繫주主부簿전傳」 초판에서 별주부는 충성심이 강하여 천지신명이 도와 주는 인물로 나오고, 토끼는 허욕이 많고 간사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¹³⁶⁾ 별주부가 명약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와서 짐승들을 만나게 과정이 전체 109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서술되어 있다. 결말에서는 토끼를 놓친 후 자살을 시도하려는 별주부에게 화타(華陀)가 나타나 용왕에게 줄 선단(仙丹)을 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용왕과 별주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별주부의 모습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묘사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별繫주主부簿전傳」 초판은 현학적인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별주부가 사신으로 태출되는 대목에서는 전문적인 약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토끼화상을 그리는 대목에서는 유명한 화공들의 이름을 나열하였으며, 한문 고사를 활용하여 얼굴 묘사를 장황하게 서술하였다.¹³⁷⁾ 육지에 도착한 별주부가 이비, 굴원, 강태공, 조조, 제갈공명, 조자룡, 소동파, 이태백 등 여러 인물과 만나는 내용도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 주요 대목마다 이야기의 흐름에 부합하는 한시들도 다수 삽입되어 있다. 용왕이 용궁을 떠나는 별주부에게 내리는 한시에는 별주부가 좋은 약을 구해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 있다. 이에 화답하여 별주부가 용왕에게 보내는 한시에는 약을 구하지 못하면 돌아

136) 더 자라의 충성이 지극함으로 신명이 굽어 살피샤 더 간사한 특기를 주심이 니 엇지 괴이한 일이 아니리오(「별繫주主부簿전傳」 초판 86면).

슬허다. 특기 무단히 허욕을 말허야 자라를 조차왔다가 슈국 원혼이 될지니 이 눈 즈취홈이라. 구를 원망허며 구를 한허리오. 세상의 아모 지덕도 업시 명리를 탐허는 자ㅣ 가히 이를 보아 징계홀지로다(「별繫주主부簿전傳」 초판 93면).

137) 특기 화상(畫像)을 그려 드리라 혼디 여러 화공들이 모혔는디 인물(人物)에는 모연수(毛延壽)와 산수(山水)에는 오도조(吳道子)와 왕마힐(王摩詰)과 룡 그리는 리장군(李將軍)과 여러 화공 둘러안져 특기 화상 그리랴고 문방스우(文房四友) 츠려 놀 제 …(중략)… 오의항구(烏衣巷口) 빗긴 석양(夕陽) 왕사당전(王謝堂前) 제비소리 출즈유곡(出自幽谷) 천우고목(遷于喬木) 산심스 월황잉성(山深四月黃鶯聲)과 홍료안(紅寥岸) 백빈주(白濱洲)에 함로버하(含芦飛下) 홍안성(鴻雁聲)과 려관한등독불면(旅館寒燈獨不眠)에 보신년지계명성(報新年之鷄鳴聲)과 쇼상강(蕭湘江) 김 혼밤에 이비(二妃)의 눈물인가. (「별繫주主부簿전傳」 초판 16~17면)

오지 않겠다는 별주부의 강인한 충성심이 드러난다.¹³⁸⁾ 또한 토끼가 노래한 한시에는 수궁이 육지의 산보다 크고 좋으며, 그곳에 가서 부귀영화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쁨과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화답하여 별주부가 노래한 한시에는 간사한 토끼를 데리고 가서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병환을 없게 하여 종묘사직을 평안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¹³⁹⁾ 이처럼 한시를 창작하여 삽입한 것은 고전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저작자 이해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16년 4월 신구서림에서 간행한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별繫주부簿전傳」이고 권수제는 「별주부전」이다. 초판에서는 저작자가 이해조, 발행자는 지송옥이지만 3판에서는 저작겸발행자 지송옥으로 바뀌었다. 본문은 초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93면 4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행자수가 면당 11~14행, 자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7~38자로 늘어나서 전체 분량이 93면으로 줄어들었다. 채색표지화는 초판본과 동일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인 색감이 흐릿한 느낌이지만 배경 묘사는 좀더 세밀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그림 68〉 참조)¹⁴⁰⁾.

138) 此日君行爲我催 此일군행위아취하니 오날날 그딴의 감을 나를 위하야 좃촉하니
 葵花灼灼酒邊開 규화작작주변기라 규화는 낙낙히 술가헤 피엿도다
 白雲流水悠悠路 백운류수유유로에 흰 구름과 흐르는 물 멀고 먼 길에
 須得靑山好藥來 슈득청산호약리하라 모름직이 푸른 산에 죠흔 약을 얻어 올지어다
 (「별繫주부簿전傳」 초판 23면)

丹綸飛下使程催 단륜비하사정취하니 붉은 조서 | 느라느려와 스신의 길을 지촉하 제
 漏盡宮壺曉色開 루진궁호효식기라 유수는 궁중구슈통에 다하고 새벽빛치 열엇도다
 此去孤臣無限意 치거고신무한의는 이번 가는 외로운 신하의 한정이 업는 뜻슨
 不將靈藥不歸來 부장령약불귀리라 신령하 약을 엿지 못하면 도라오지 아니하리로다
 (「별繫주부簿전傳」 초판 24면)

139) 辭紅塵而長往兮 스홍진이장향헤여 홍진을 하직하고 길이 감이여
 水國大於中山 슈국대어중산이라 물나랴 이 중산보담 크도다
 登繫背而行行兮 등별비이흥행헤여 자라의 등에 올라가고 감이여
 笑白雲之謾往還 쇼백운지만왕환이라 흰구름의 부질업시 갔다왔다 흠을 웃는도다 …(중략)…
 富貴兼以淸閑兮 부귀겸이정한헤여 부귀하고 맑고 한가흠을 겸하이여
 期百年之平安 기백년지평안이로다 백년의 평안흠을 기약하리로다
 (「별繫주부簿전傳」 초판 86~87면)

抱一片之丹衷兮 포일편지단충헤여 혼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幾奔走於靑山 기분주어청산인고 몇 번이나 청산에 분주히 돈넛고 …(중략)…
 得狡而告功兮 득교토이고공헤여 간사하 특기를 엿어 공을 알힘이여
 觀有喜之龍顏 도유희지룡안이로다 깃분 빛치 잇는 인군의 얼굴을 뵈을지로다
 吾王庶幾無疾病兮 오왕이서기무질병헤여 우리 왕이 거의 병환이 업스심이여
 賀宗社之尊安 하종사지던안이로다 종묘와 사직의 다시 평안흠을 하례 하노라
 (「별繫주부簿전傳」 초판 87~88면)



〈그림 68〉 「별장주부전」 3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채색표지화

셋째, 1917년 6월 간행된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별장주부전」이고 권수제는 「별장부전」이다.¹⁴¹⁾ ‘흐느니다→흐느이다(93면:4행), 닉여→내여(93면:1행)’처럼 일부 단어의 표기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내용과 판식은 3판과 동일하다. 채색표지화도 3판과 동일한 그림으로, 색감이 진하고 선명해졌으며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넷째, 1925년 영창서관·한홍서림·진흥서관에서 공동 간행한 「原本 鰲主簿傳」(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과 1925년 11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古代小說 兎에肝」(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별장주부전」 초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제와 권수제를 바꾸고 판권을 달리하여 재출간한 것으로 보인다.¹⁴²⁾ 면당 행자수를 늘리고 장수를 줄여서 행간이 좁고 판식이 조밀하다.

140) 판권지 내용은 ‘大正二年九月二十五日 初版發行, 大正四年一月二十五日 再版發行, 大正五年四月二十三日 印刷, 大正五年四月二十八日 三版發行,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府 蓬萊町 一丁目 七十七番地 著作兼發行者 池松旭, 京城府 孝子洞 一〇三番地 印刷者 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十五番地(電話 六七八番)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蓬萊町 一丁目 七十七番地 振替口座 京城 二八五二番 發行所 新舊書林’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41) 판권지 내용은 ‘大正二年九月二十五日 初版發行, 大正四年一月二十五日 再版發行, 大正五年四月二十八日 三版發行, 大正六年六月二十五日 四版印刷, 大正六年六月三十日 四版發行, 定價金二十五錢, 京城府 蓬萊町 一丁目 七七番地 著作兼發行者 池松旭, 京城府 公平洞 五十四番地 印刷者 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十五番地 電話 六七八番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 蓬萊町 〇丁目 七七番地 振替口座 京城 二八五二番 發行所 新舊書林’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142) 판권지 내용은 ‘大正十四年十一月十五日 初版 印刷, 大正十四年十一月二十日 初版 發行,

「原本 鰲主簿傳」은 표제가 「鰲主簿傳」이고 표제 밑에는 ‘兎의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본문은 66면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면당 13행이고 자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4~35자로 일정하다. 「古代小說 兎에肝」은 표제가 「별주부가」이고 본문은 67면 10행까지 인쇄되어 있다. 1~8면까지는 행간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매면 상단에는 ‘토의간’이란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행자수는 7면까지는 13행, 8면은 14행, 9~67면까지는 17행이고 자수는 37~38자로 일정하다.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행간이 좁고 판식이 조밀하다. 판소리의 창 부분은 아니리와 구분하기 위해 행을 달리하였으며, 인물의 이름을 표기하여 화자를 구분하였다. 채색표지화는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와서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세는 높고 험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거센 파도와 물결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색감이 흐리고 투박하며 정교하지 못하다(〈그림 69〉 참조).



〈그림 69〉 古代小說 兎에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면, 채색표지화

신연활자본 「별鰲主簿傳」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55〉와 같다.

兎의 肝, 定價廿五 錢, 京城府 堅志洞 六十番地 著作兼發行者 朝鮮圖書株式會社 右代表者 洪淳模, 京城 黃金町 二丁目 二一番地 印刷者 金翼洙, 京城 黃金町 二丁目 二一番地 印刷所 新文館, 京城府 堅志洞 六十番地 發行所 朝鮮圖書株式會社(振替京城八二五五番 電話光化門一七七番)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표 55〉 신연활자본 「별繫주부簿전傳」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소장처
별繫주부 簿전傳	별繫주부 簿전傳	1913년 9월 20일	초판	李海朝	池松旭	新舊書林	30전	109면	국립중앙 도서관
별繫주부 簿전傳	별繫주부 簿전傳	1916년 4월 23일	3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25전	93면	국립중앙 도서관
별繫주부 簿전傳	별繫주부 簿전傳	1917년 6월 30일	4판	池松旭	池松旭	新舊書林	25전	93면	국립중앙 도서관
繫主簿傳	原本 繫主簿傳	1925년	-	-	-	永昌書館 韓興書林 振興書館	-	66면	고려대 중앙도서관
兎의肝별주 부가	古代小説 兎에肝	1925년 11월 20일	초판	洪淳模	洪淳模	朝鮮圖書 株式會社	25전	67면	국립중앙 도서관

3) 「토끼전」

1937년 2월 중앙인서관(中央印書館)에서 간행한 「토끼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불로초」를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다.¹⁴³⁾ 『朝鮮文學全集』 제6권 소설집(2)에 「창선감의록」, 「홍길동전」, 「박씨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제는 「토끼傳(全)」이고, 본문 분량은 36면(331~366면)이다. 매 면마다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와 같은 고어 표기가 사라지고 현대어 표기법과 띄어쓰기가 적용되었다. 대화 부분은 「」를 사용하여 지문과 구분하였다. 해설에는 인도 불경에서 유입된 설화와 『삼국사기』 토구설화(兎龜說話)에 대해 설명하고, 『토끼전』을 동화가 소설화 된 작품이라고 소개하였다. 화타가 토끼를 놓친 별주부에게 용왕의 병을 낫게 할 선약을 주는 대목은 「별繫주부簿전傳」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연활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56〉과 같다.

143) 판권지 내용은 ‘昭和二十年一月三十日 印刷, 昭和二十年二月五日 發行, ¥1.00, 著作兼發行人 申明均 京城府 安國町 一五三番地, 印刷人 趙洙誠 京城府 安國町 一五三番地, 印刷所 中央印刷所 京城府 安國町 一五三番地, 京城府 安國町 一五三番地, 發行所 中央印書館 (振替京城 一二一七番八番 電話光二五九五番)’이고, 중앙에는 ‘版權所有’라고 되어 있다.

〈표 56〉 신연활자본 「토끼전」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소장처
토끼傳	토끼전	1937년 2월 5일	초판	申明均	申明均	中央 印書館	1.00₩	36면	국립중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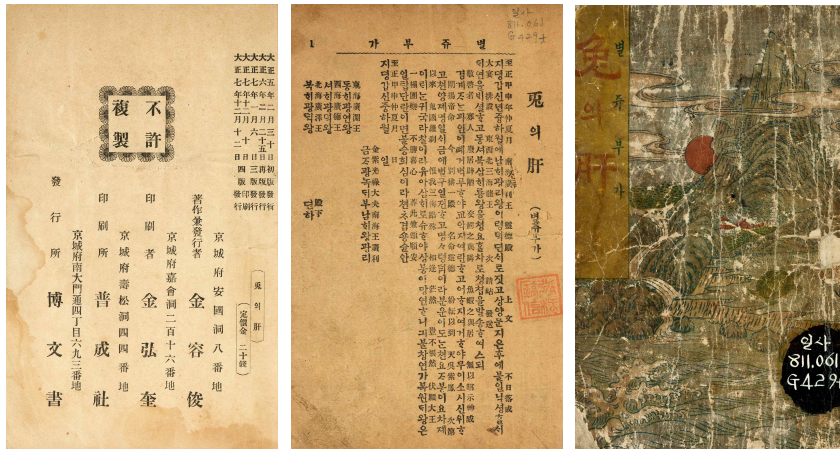
5.2.2.2 비불로초 계열

이 계열은 「불로초」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兎의肝(별주부가)」은 이해조가 1912년 6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심정순, 곽창기의 창본 「兎의肝(토끼타령)」을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창본과 동일하지만 각 대목의 장단 표시는 생략하였다. 1916년 2월 초판을 시작으로 1918년 4판까지 간행되었다. 현재 4판 1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초판과 재판, 3판은 실물 판본이 없어서 내용과 판식을 확인할 수 없다.

1918년 12월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4판(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兎의肝 별주부가」이고 권수제는 「兎의肝(별주부가)」이다.¹⁴⁴⁾ 본문은 88면 6행까지 인쇄되어 있으며, 짝수면 상단에는 ‘兎의肝’, 홀수면 상단에는 ‘별주부가’라는 면주와 면수가 표시되어 있다. 행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판소리의 창 부분은 행을 달리하여 한 칸 내려써서 아니리와 구분하였다. 대화 내용은 (토), (별)이라고 화자를 표시하여 지문과 구분하였다. 행간이 좁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판식이 조밀하며 가독성이 떨어진다. 채색표지화에는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와서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판소리 창본의 고고천변(皐皐天邊) 대목처럼 별주부의 눈에 비친 해와 구름, 산과 바다 풍경을 영험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였다(〈그림 70〉 참조).

144) 초판(1916년 2월 30일)과 재판(1917년 2월 25일), 3판(1918년 1월 6일)의 간행일자는 4판의 판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권지 내용은 ‘大正五年二月三十日 初版發行, 大正六年二月二十五日 再版發行, 大正七年一月六日 三版發行, 大正七年十二月十日 四版印刷, 大正七年十二月十二日 四版發行, 兎의 肝, 定價金二十錢, 京城府 安國洞 八番地 著作兼發行者 金容俊, 京城府 嘉會洞 二百十六番地 印刷者 金弘奎, 京城府 壽松洞 四四番地 印刷所 普成社, 京城 南大門 通四丁目 六九三番地 發行所 博文書’이고, 중앙에는 ‘複製不許’라고 되어 있다.



〈그림 70〉「兎의肝(별주부가)」 4판(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판권지, 제1면, 채색표지화

「兎의肝(별주부가)」 4판의 내용은 사신 택출과 길짐승 상좌 다툼, 별주부와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는 대목 등 주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부분이 확장되어 있다. 다른 신연활자본과 달리 도사가 북두성군의 명을 받아 수궁에 오게 되고, 용왕은 도사가 준 약을 먹고 병이 낫는다고 설정되어 있다. 별주부가 남생이를 만나 밤에는 집에 오지 말라고 직접 당부하는 대목처럼 독특한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

신연활자본 「兎의肝(별주부가)」의 서지사항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신연활자본 「兎의肝(별주부가)」의 서지사항

표제	권수제	간행년월	구분	편집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가격	면수	소장처
兎의肝 별주부가	兎의肝 (별주부가)	1918년 2월 12일	4판	金容俊	金容俊	博文書館	20전	88면	서울대 중앙도서관

Ⅵ. 판소리계 소설의 종합적 분석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은 영웅소설, 애정소설, 우화소설 등과 함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대중소설로서 우리나라 고소설사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 및 삽화를 통한 소설의 시각화 양상으로 나눠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소설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1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은 앞에서 분석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의 계열과 서지적 특징을 종합하여, 형성기, 발달기, 쇠퇴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소설별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의 계열을 같거나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크게 4가지 계열로 다시 분류하였다.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경판, 안성판)을 하나로 묶고,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완판)을 하나로 묶었다.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의 사본과 신연활자본을 하나로 묶었으며, 기타 계열의 사본과 비옥중화/비강상련/비불로초 계열의 신연활자본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을 형성기, 발달기, 쇠퇴기로 나누어 도표화하였다(〈표 58〉 참조). 형성기는 판소리계 소설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시작한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이고, 발달기는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이 확대되어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으로 활발하게 유통된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를 말한다. 쇠퇴기는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이 급격히 감소한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가 해당된다.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8〉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계열별 현황

계열 \ 시기(연대)			형성기 (1860년대~ 1880년대)	발달기 (1890년대~ 1920년대 중반)	쇠퇴기 (1920년대 후반 ~1940년대)	계
춘향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1종 1책	5종 5책	-	6종 6책
		목판본(경판)	3종 4책	4종 13책	-	7종 17책
		목판본(안성판)	-	3종 4책	-	3종 4책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1종 1책	20종 20책	2종 2책	23종 23책
		목판본(완판)	-	7종 15책	2종 8책	9종 23책
	옥중화 계열	사본	-	5종 5책	2종 2책	7종 7책
		신연활자본	-	10종 45책	3종 6책	13종 51책
	기타 및 비옥중화 계열	사본(기타)	2종 2책	5종 5책	-	7종 7책
		신연활자본(비옥중화)	-	6종 38책	1종 1책	7종 39책
소계			7종 8책	65종 150책	10종 19책	82종 177책
심청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	5종 5책	-	5종 5책
		목판본(경판)	-	3종 8책	-	3종 8책
		목판본(안성판)	-	2종 2책	-	2종 2책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	14종 14책	4종 4책	17종 17책
		목판본(완판)	-	6종 12책	-	6종 12책
	강상련 계열	사본	-	4종 4책	2종 2책	6종 6책
		신연활자본	-	3종 18책	1종 5책	4종 23책
	기타 및 비강상련 계열	사본(기타)	1종 1책	7종 7책	3종 3책	11종 11책
		신연활자본(비강상련)	-	2종 4책	-	2종 4책
	소계			1종 1책	46종 74책	10종 14책
토끼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	2종 2책	-	2종 2책
		목판본(경판)	-	1종 1책	-	1종 1책
		목판본(안성판)	-	-	-	-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2종 2책	20종 20책	1종 1책	23종 23책
		목판본(완판)	-	2종 3책	-	2종 3책
	불로초 계열	사본	-	-	-	-
		신연활자본	-	2종 10책	1종 1책	3종 11책
	기타 및 비불로초 계열	사본(기타)	1종 1책	6종 6책	2종 2책	9종 9책
		신연활자본(비불로초)	-	1종 1책	-	1종 1책
소계			3종 3책	34종 43책	4종 4책	41종 50책
합계			11종 12책	145종 267책	24종 37책	180종 316책

6.1.1 형성기(1860년대~1880년대)

형성기(1860년대~1880년대)는 판소리 사설을 개작한 판소리계 소설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형성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11종 12책이 확인되었으며, 소설별로는 『춘향전』 7종 8책, 『심청전』 1종 1책, 『토끼전』 3종 3책이고 형태별로는 사본 8종 8책, 목판본 3종 4책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판소리의 인기를 눈여겨 본 세책업자들이 사설을 개작하여 직접 필사하였거나 전문 필사자에게 의뢰하여 세책본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판소리 창본과 세책본을 읽은 개인 필사자나 독자들은 모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취향에 맞도록 이야기를 개작하였다. 특히 세책본은 당시 유행하던 설화나 재담에서 새로운 소재를 가져오고, 민요와 시조, 가사 등을 삽입하여 원작의 이야기를 길고 풍부하게 확장시켰다. 각 소설별로 형성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전』은 사본 4종 4책과 목판본 3종 4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1종 1책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 1책, 기타 계열 2종 2책이며, 목판본은 모두 경판 30장본으로 확인되었다.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남원고스」는 세책업자가 질 좋은 종이에 유려한 흘림체로 정성을 다해 쓴 상품화 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기생 춘향과 열녀 춘향의 모습을 대비하여 비장함과 안타까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개작하였다. 또한 권선징악적인 서사 구조와 다양한 삽입가요를 통해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을 흥미롭고 풍성하게 서술하였다. 「남원고스」를 읽는 독자들은 고급스러운 서책의 느낌이 들면서도 대중적인 이야기가 담긴 장편소설 『춘향전』을 접할 수 있었다. 반면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30장본 「춘향전」은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대목을 축약하여 세책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책본 「남원고스」의 일부 내용은 목판본인 경판 30장A본으로 수용되었는데, 이 판본에는 당시 유행하던 판소리 창본의 사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중성이 강한 세책본과 민중성이 강한 창본의 특징이 혼합되면서, 경판 30장A본은 당시 방각업자와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번각과 보판을 거쳐 경판 30장B본이 간행되었고, 이 판본을 축약한 경

판 23장본이 연이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계열의 한문소설 25장본 「春香新說」과 103장본 「益夫傳」은 양반과 중인 계층에서도 춘향의 사랑과 비장한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다. 「春香新說」에서는 이도령의 집안을 4대에 걸쳐 소개하는 내용과 춘향의 처지를 동정하는 신관의 모습이 춘향의 기생 신분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益夫傳」에서는 세책본 「남원고스」와 같이 기생으로서의 춘향과 열녀로서의 춘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양반층과 중인층 독자들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강인한 의지에 흥미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심청전』은 기타 계열에 속하는 사본 1종 1책이 확인되었다. 56장본 「심창전」은 개작이 심하여 모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880년대에 구전설화나 판소리 공연을 통해 심청의 효행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토끼전』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 2종 2책과 기타 계열의 사본 1종 1책이 확인되었다. 35장본 「토끼전다」와 43장본 「鰲兔歌」는 창본 「수궁가」의 읍문체와 해학적인 대목을 수용하였으며, 결말에서 별주부를 충신으로 묘사한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기타 계열의 22장본 「兔公辭」는 해학적인 대목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별주부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옥황상제가 용왕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결말은 지배계층의 유교적 가치관을 옹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층의 어리석음을 알리고자 하는 필사자의 비판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성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이 1860년대에 먼저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심청전』과 『토끼전』은 1880년대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춘향전』은 산문체로 개작된 사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점차 판소리 창본의 사실과 문체가 가미된 형태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심청전』과 『토끼전』은 창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본만 유통되었고, 산문체로 개작된 소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춘향전』의 인물과 서사는 형성기 때부터 널리 알려진 상태여서 일찌감치 판소리계 소설로 개작되었지만 『심청전』과 『토끼전』은 아직까지 판소리 공연의 인기와 창본의 영향력이 더 컸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문본 『춘향전』과 『토끼전』을 필사한 지식인이나 양반, 중인층은 봉건사회의 이념과 체제를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배층과 권력층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6.1.2 발달기(1890년대~1920년대 중반)

발달기(1890년대~1920년대 중반)는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이 확대되어 사본이 급격히 증가하고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된 시기이다. 발달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146종 272책이 확인되었는데, 소설별로는 『춘향전』 66종 155책, 『심청전』 46종 74책, 『토끼전』 34종 43책이고, 형태별로는 사본 92종 92책, 목판본 28종 58책, 신연활자본 26종 122책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는 1890년대 24종 25책, 1900년대 31종 37책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10년대 들어 73종 135책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서울 지역의 세책업자들은 「남원고소」를 모본으로 하여 장편화 된 세책본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창본이나 세책본을 읽은 독자들과 판소리 공연을 본 청중들은 개인적으로 필사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설로 개작하였다. 작가는 어휘나 문장, 단락의 첨가와 삭제부터 인물의 역할이나 주요 대목의 순서를 바꾸고 새로운 사건을 첨가하거나 결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 사설의 울문체가 줄어들고, 산문체 형태로 서술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방각업자와 출판업자들은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방각업자들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본이나 창본을 개작하여 방각본으로 간행하였고, 출판업자들은 상업성이 검증된 방각본을 모본으로 하여 신연활자본을 간행하였다.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은 한글본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대중화와 독자층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신연활자본에는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설의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었다. 각 소설별로 발달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변모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2.1 『춘향전』

『춘향전』은 사본 35종 35책, 목판본 14종 32책, 신연활자본 17종 88책 등 66종 155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0종 20책,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5종 5책, 옥중화 계열 5종 5책, 기타 계열 5종 5책으로 나타났다.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 7종 15책, 경판본 계열 4종 13책, 안성판본 계열 3종 4책으로 나타났으며,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 10종 45책과 비옥중화 계열 7종 43책이 확인되었다.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을 같은 계열끼리 묶어 시기별·계열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은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 『춘향전』과 밀접한 교섭 관계를 형성하며 1890년대 5종 5책, 1900년대 4종 4책, 1910년대 11종 11책 등으로 꾸준히 필사되었다. 30장본 「別春香傳이라」와 26장본 「별춘향전이라」는 완판 29장본과 친연성이 강하고, 52장본 「별춘향전 중 別春香傳」과 94장본 「별춘향전」은 완판 29장본 및 33장본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이 중에서 30장본과 94장본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대목에 비중을 두고 사랑가와 음양가, 비점가 등 다양한 시가가 삽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30장본은 광한루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에 한자를 적어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며, 94장본은 조정에서 춘향에게 열녀 직첩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35장본 「춘향가 타령이라」와 59장본 「춘향전」, 28장본 「별춘향가라」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대목을 축약하고, 다른 사본에 없는 독특한 내용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35장본은 춘향모가 오리정에서 이도령을 전송하는 대목과 옥에 갇힌 춘향이 전생에 선녀였다는 꿈을 꾸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59장본과 28장본에는 이도령이 방자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말하면서 도서관 읍창색을 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이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변모하기 시작할 무렵에 전주에서는 완판본 『춘향전』이 26장본과 33장본으로 간행되다가 소설의 서사 구조를 확장시킨 84장본 형태로 정착되었다. 완판 26장본 「별춘향전이라」와 33장

본 「열녀춘향수절가라」는 모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완판 26장본의 권말에는 경판 30장본과 동일한 후기가 있어서, 방각업자가 경판본을 참고본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완판 33장본은 천자뒤풀이 대목과 삽입가요가 길게 서술되어 창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각업자들은 완판 33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춘향의 열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창본의 사실과 삽입가요, 각종 재담을 첨가하여 문학적으로 풍부해진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라」를 간행하였다. 2권 1책으로 분권화된 84장본은 1908년(융희 2)에 구동(전주)에서 완판 84장A본이 처음 간행된 후 세 차례나 더 간행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흘림체와 반흘림체로 판각된 26장본이나 33장본과 달리 크고 넓은 형태의 정자체로 판각되어 독자들이 글을 읽기에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독성이 높은 자체와 판식은 이후 간행된 84장본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1912년에는 완흥사서포에서 A본의 판목에 새겨진 간기를 제거한 후 완판 84장B본을 간행하였고, 완서계서포에서는 B본을 저본으로 하여 새로운 판목을 판각한 후 완판 84장C본을 간행하였다. 1916년에는 다가서포에서 B본의 판목으로 책을 인출한 후 판권지를 붙여서 완판 84장D본을 다시 간행하였다. 다가서포에서는 1914년에 완판 29장A본 「⊗별춘향전이라극상」도 간행하였다. 완판 33장본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많고, 판소리 창본의 소리 대목 부호와 광대의 연창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 보판되어 판식과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판 29장A본의 저본은 1914년보다 앞선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완판본 『춘향전』이 간행되어 유통되면서, 1910년대에는 완판본을 전사하였거나 해학성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개작한 사본들이 여러 지역에서 필사되었다.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라」는 완판 33장본을 전사하였고, 90장본 「열녀춘향전」과 67장본 「춘향전」은 서계서포에서 간행한 완판 84장본을 개작하였다. 39장본 「별춘향가」와 75장본 「춘향전」은 완판 33장본과 84장본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으며, 30장본 「春香歌」는 완판 29장본 및 8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하였다. 94장본 「別春香傳抄 별춘향전」과 72장본, 59장본, 70장본 「춘향전」도 모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완판본 『춘향전』과 친연성이

있는 사본이다. 이중에서 67장본은 신관이 춘향을 회유하다가 실패하는 대목과 옥사장이 춘향의 목에 걸린 칼을 풀어주었다가 발각되는 대목이 나타나고, 75장본은 춘향을 잡으러 간 사령들이 술을 먹고 헛소리를 하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94장본과 72장본에는 춘향의 꿈을 해몽해주는 허판수가 개똥을 짚는 대목이 삽입되었으며, 94장본과 50장본, 70장본에는 이도령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춘향을 잡아서 곤장을 치자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 대목들은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독특한 내용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특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33장본이 마동면 장○리(충남 서천), 67장본이 괴산군 칠성면, 39장본이 청주군 북면, 94장본이 청원군 용흥면, 72장본이 청주 동촌에서 필사되었다는 것은 완판본 『춘향전』이 충청도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동군 임하면에서 필사된 30장본은 경상도의 양반 사대부가에서도 완판본 『춘향전』을 읽고 소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경판본 『춘향전』은 1880년대에 간행된 경판 30장B본을 번각하여 경판 30장C본 「춘향전」이 간행되었으며, 경판 23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경판 17장본 「춘향전」과 안성판 20장본 「춘향전」이 연이어 간행되었다. 경판 17장본은 경판 23장본의 1~10장을 번각하고, 11~23장을 7장으로 축약·보판하여 간행되었다. 경판 23장본을 축약·보판한 안성판 20장본은 판각 상태가 거칠고 조잡하지만 서울의 미동과 궁내정동에서 소장하였다는 장서기가 남아 있다. 또한 출판법이 시행된 후 1912년에는 북촌서포, 1917년에는 박성칠서점에서 판권을 붙여 각각 안성판 20장B본과 C본을 간행하였다. 1910년대에 경판본 『춘향전』은 간행되지 않은 반면에 안성판 20장본은 2차례나 재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서울과 안성 지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에는 한남서림에서 경판 17장본의 1~10장을 번각하고, 11~17장을 6장으로 축약하여 경판 16장본을 두 차례 간행하였다. 경판 16장본은 후반부로 갈수록 글자 크기가 작고 판식이 조밀하며, 자체의 흘림의 정도가 심해진다. 방각업자가 간행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면당 행자수를 늘리고

장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이야기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주요 대목과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춘향전』을 접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경판본과 안성판본이 간행될 무렵에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도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10권 10책(287장) 「춘향전」과 9권 2책(238장) 「춘향전」은 「남원고소」를 개작하였고, 2권 1책(73장) 「춘향전」은 경판 30장본을 개작하였다. 이들은 각각 항목동과 간동, 은곡(운곡)에서 필사된 세책본으로, 서체가 유려하고 일정한 흘림체로 쓰였다. 한글 서체에 조예가 있는 세책업자가 직접 필사하였거나 아니면 전문 필사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책업자들은 유통 과정에서 책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마다 독자들이 손가락으로 집어 넘기는 부분을 빈칸으로 놔두었다. 또한 서책의 보수와 관리를 위해 전면 상단에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이후로는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꾸준히 필사된 점과 대조를 이룬다. 1912년에 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이 간행되어 서울 지역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옥중화 계열

1912년에 보급서관에서 「獄中花(春香歌演訂)」이 간행된 후 이를 개작한 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 9종이 출간되었으며, 「獄中花(春香歌演訂)」를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사본들도 다수 필사되었다.

「獄中花(春香歌演訂)」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박기홍 창본 「춘향가」를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17판까지 재출간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신역 별춘향가」와 동미서사에서 간행된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증상연예옥중가인」, 조선서관에서 간행된 「특별무쌍춘향전」은 「獄中花(春香歌演訂)」를 모본으로 하여 『춘향전』의 서사 구조를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하였다. 「신역 별춘향가」와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과 상관없는 내용을 축약하고, 두 사람의 사랑과 정절을 나타내는 대목은 길게 서술하였다. 「증상연예옥중가인」은 13판까지 간행되어 「獄中花(春香歌演訂)」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인기를 얻

었다. 4판까지 간행된 「특별무쌍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두고 비속하거나 음란한 내용들을 축약하였다. 이처럼 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에는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고 이도령과의 사랑 및 결연 과정을 중시하는 서술자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창서관에서 간행된 「獄中佳花」, 한성서관에서 간행된 「(演)연訂정춘춘향傳전」, 대창서원에서 간행된 「절디가인 춘향전」, 영창서관과 한홍서림에서 간행된 「만고 열녀 춘향전」에도 나타난다.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판본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옥중화 계열의 사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89장본 「獄中花」와 77장본 「訂正五刊 獄中花(春香歌演訂)」, 71장본 「옥중화라 춘향傳이라」, 64장본 「獄中花 春香歌演訂」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獄中花(春香歌演訂)」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고, 54장본 「옥중화」는 인재양성과 풍속개량 등 근대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개작하였다. 이 중에서 89장본은 필사시기가 「獄中花(春香歌演訂)」 초판본보다 한 달이 빠르고, 77장본과 71장본은 세책본처럼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 하단을 빈칸으로 놔두었다. 강릉군 사천면에서 필사된 71장본과 산정리(경기 안성)에서 필사된 64장본은 서울에서 간행된 「獄中花(春香歌演訂)」가 강원도와 경기도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4) 기타 계열 및 비옥중화 계열

기타 계열의 사본과 비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다른 계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개작되었다. 87장본 「춘향전」은 이도령이 오리정에서 춘향의 울음소리를 듣는 대목이 나오고, 68장본 「춘향전」은 신관 생신잔치에서 적벽가와 심청가를 부르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2권 1책(69장) 「춘향전」은 춘향의 꿈에서 원귀들의 인명과 죄목이 나열되며, 결말은 방자와 향단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다. 45장본 「춘향전」은 방자가 이도령의 가문을 언급하며 춘향을 설득하는 대목과 오리정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인에게 하소연하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20장본 「추월가」는 소설의 배경을 평양으로 설정하고, 주색을 좋아하는 정도령과 정절을 지키는 열녀 추월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이

러한 개작은 비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 「약산동덕」에서도 나타난다. 광동서국에서 간행된 「약산동덕」은 소설의 배경을 평안북도 영변군 약산으로 설정하였으며, 고귀한 혈통과 탁월한 재주를 지닌 유생 송경필과 현실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기생 빙옥의 사랑 이야기로 개작되었다.

비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비속한 내용들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다. 신문관에서 간행된 「고본 춘향전」은 성춘향과 이몽룡을 열녀와 사내의 본보기로 묘사하기 위해 음란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순수한 사랑을 부각시켰다. 동창서옥에서 간행된 「懸吐漢文春香傳」은 기타 계열의 사본 「춘향신설」을 개작한 것으로, 사랑가와 농부가, 기생점고 등 비속하고 골계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생략되었다. 동양서원에서 간행된 「倫理小說廣寒樓」도 서문에서 밝혔듯이 춘향의 지조와 절개가 귀중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고금서해에서 간행된 한문본 「原本春香傳(廣寒樓記)」과 남원군청에서 발행한 한문본 「廣寒樓記」는 사본 「廣寒樓記」를 신연활자본으로 간행하여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신명서림에서 간행한 「우리덜전」처럼 두 명의 재담가가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개작된 소설도 전해지고 있다.

6.1.2.2 『심청전』

『심청전』은 사본 30종 30책, 목판본 11종 22책, 신연활자본 6종 23책 등 47종 75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4종 14책,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5종 5책, 강상련 계열 4종 4책, 기타 계열 7종 7책으로 나타났다.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 6종 12책, 경판본 계열 3종 8책, 안성판본 계열 2종 2책이고, 신연활자본은 강상련 계열 3종 18책과 비강상련 계열 3종 5책으로 확인되었다.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을 같은 계열끼리 묶어 시기별·계열별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은 1890년대 3종 3책, 1900년대 2종 2책, 1910년대 5종 5책, 1920년대 중반까지 4종 4책으로 꾸준히 필사되었다. 이

사본들은 판소리 공연이나 창본을 보고 산문체의 소설로 개작한 것이며, 본문 곳곳에 판소리의 사설과 문체가 남아 있다. 남평(전남 나주)에서 필사된 36장본 「심청전」은 마치 판소리 공연 현장에서 곽씨부인의 상여소리와 심봉사가 축문을 읊는 대목을 듣는 것처럼 실감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나타난다. 29장본 「심청전」은 곽씨부인의 득병과 장례 대목 등 전반부를 축약하였으며, 맹인잔치에 간 심봉사가 눈을 뜬 후 과거를 회상하고 뽕덕어미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대목처럼 소설의 후반부를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46장본 「효녀실기심청」은 판소리 창본의 사설과 문체가 나타나며, 뽕덕어미 등장 대목과 방아타령 대목의 음란한 내용들은 축약하였다. 28장본 「심청가라」는 창본에서 인기가 있는 소상팔경과 범피중류 대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28장본의 표지에는 성북리(경북 경주군)에서 소장했다는 장서기가 남아 있어서, 늦어도 1910년대에는 판소리 「심청가」가 경상도 지역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꾸준히 필사되어 유통될 무렵에 전주에서는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완판본 『심청전』이 간행되었다. 먼저 강산제 창본 「심청가」를 모본으로 한 완판 41장본 「심청가 라」가 완서에서 간행되었다. 이어 완판 41장본의 결말과 후일담을 개작하고, 2권 1책으로 분권화한 형태의 완판 71장A본 「심청전이라」가 완산에서 간행되었다. 완판 41장본은 명창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등의 장기가 태평연의 흥을 돋운다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완판 71장A본은 명창의 이름을 생략하고 단순히 연회를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심봉사의 부인 안씨와 황후 심청이 낳은 아들이 서로 혼례를 치르고, 심봉사가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후일담이 추가되었다. 완판 71장A본은 1910년대에만 4차례 더 간행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1911년에는 서계서포에서 A본을 판하본으로 삼아 새로 판각한 목판을 이용해 완판 71장B본을 간행하였고, 같은 해에 B본의 후쇄본인 완판 71장C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1916년에는 다가서포에서 B본을 새로 필사한 판하본으로 완판 71장D본을 간행하였고, 같은 해에 다른 판권지를 붙여서 완판 71장E본을 간행하였다. 완판 41장본의 자체는 반흘림체로 판각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완판 71장본의 자체는 넓은 형태의 정자체로 판각되어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방각업자와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판본 『심청전』이 간행되어 유통되면서, 1900년대부터는 완판본을 전사하거나 개작한 사본들이 여러 지역에서 필사되었다. 48장본 「심청전」은 완판 41장본을 그대로 필사하였고, 77장본 「심천전」과 46장본 「沈淸傳」, 69장본 「심청전」, 64장본 「沈淸傳」은 완판 71장본의 체제를 따라 2권 1책으로 필사하였다. 45장본 「沈淸傳」과 44장본 「심청전」, 49장본 「회중 심청전」, 39장본 「심청가」, 87장본 「심청던」은 완판 41장본과 71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하였다. 45장본은 심청의 효성이 드러나는 부친 봉양 대목과 골계성이 나타나는 뽕덕어미의 심봉사 유혹 대목을 길게 서술하였다. 44장본은 심봉사가 동냥하러 간 심청을 걱정하고, 황승상댁 노비들을 호통 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49장본은 괘씨부인의 기자치성 대목과 심봉사가 제문을 읽는 대목, 장승상 부인의 등장 대목이 완판본과 유사하다. 46장본과 45장본은 각각 경기도 안성과 용기리(충북 진천)에서 필사되었는데, 이는 완판본 『심청전』이 1910년대에 경기도와 충청도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2)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경판본 『심청전』과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은 서로 밀접한 교섭 관계를 맺으면서 필사 및 간행되었다. 먼저 19세기 후반에 송동에서 간행된 경판 20장본 「심청전」은 경판 30장A본 「춘향전」처럼 강산제 창본의 사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등장인물의 특성과 서두 부분을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범피중류 대목과 장승상 부인 대목 등을 축약하였다. 이것은 경판 20장본이 간행될 무렵에 이미 판소리나 판소리 창본 「심청가」가 서울 지역까지 알려져 있었으며, 방각업자가 대중의 인기를 고려하여 판소리 창본을 참고본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판 20장본 「심청전」에는 외설적이고 골계적인 방아타령 대목과 뽕덕어미 대목이 축약되어 있어서, 1920년에 한남서림에서 두 차례 간행된 경판 24장본 「심청전」의 특징도 함께 나타난다. 또한 경판 20장본에는 창본의 문체와 사설이 남아 있지만 경판 24장본은 대체로 소설의 산문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봉사와 심황후의 후일담도 생략되었다.

경판 20장본은 안성판 21장A본 「심청전」의 모본이 되었다. 일부 어미와 음절, 단어가 바뀌고 방언이 추가되어 장수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서사 구조

는 동일하다. 1917년에는 박성철서점에서 안성판 21장B본을 간행하였는데, 이 판본의 판권지에는 1912년에 간행된 초간본의 재판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간본은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 없지만 B본의 판권지를 통해 안성판 20장B본 『춘향전』이 북촌서포에서 간행된 날과 같은 날짜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본들은 판식 및 자체가 대체로 동일한 변각본이거나 후쇄본으로, 판각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진하거나 흐릿하게 인쇄된 부분이 나타난다.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12장본 「심청전」과 30장본 「심청록」, 63장본 「심청전나라」은 경판 20장본 및 24장본과 친연성이 높은 사본이며, 23장본 「심창전」과 43장본 「심청전」은 경판 20장본을 개작하고 축약하였다. 30장본과 43장본은 각각 파곡과 안현에서 필사된 세책본으로, 범피종류 대목과 방아타령 대목 등 「심청전」의 주요 내용을 축약하였다. 1910년대에 필사된 63장본은 경판 20장본과 24장본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축약하였으며, 권말에는 ‘심봉사 눈을 떴다는 말은 광대의 재담일 뿐이다’라고 필사자의 후기를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은 판소리 창본과 완판본 『심청전』에 대한 독자들의 시각이 합리적인 서사 구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3) 강상련 계열

1912년에 광동서국에서 신연활자본 「강상련(江上蓮)」이 간행된 후 이를 개작한 강상련 계열의 「증상연명 심청전」과 「교명 심청전」이 간행되었다. 또한 「강상련(江上蓮)」과 「증상연명 심청전」을 전사하였거나 개작한 강상련 계열의 사본들도 다수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먼저 「강상련(江上蓮)」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창본 「심청가」를 일부 개작한 것으로, 이후 간행되는 강상련 계열의 「증상연명 심청전」과 「교명 심청전」의 모본이 되었다. 「증상연명 심청전」은 「강상련(江上蓮)」을 11회의 회장체 형식으로 개작한 것이며, 「증상연명 심청전」을 다시 개작하여 「교명 심청전」이 간행되었다. 「강상련(江上蓮)」은 12판까지 간행되었으며, 「증상연명 심청전」은 10판, 「교명 심청전」은 9판까지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들은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고 윤리적·교훈적인 대목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설의 주제와 인물에 대한

시각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후가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을 잊지 않은 심청의 모습은 당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45장본 「심청전이라 沈淸傳 이라」와 85장본 「중산연등 심천전이라」는 각각 「증상연등 심청전」 6판과 10판을 전사하였으며, 53장본 「沈靑傳」은 「교등 심청전」 9판을, 36장본 「출천회여심청전이라」는 「강상련(江上蓮)」을 필사하였다. 36장본의 권말에는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심황후만 못하니 효성을 숭상하라’는 내용의 후기가 덧붙여 있다. 45장본의 표지에는 후동리(춘천 남면)에서 소장하였다는 장서기가 남아 있어서 서울에서 간행된 「증상연등 심청전」이 강원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기타 계열 및 비강상련 계열

기타 계열의 사본과 비강상련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다른 계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개작되었다. 56장본 「심창전」은 심청이 주문을 외자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심청이 선녀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대목이 나온다. 부산에서 필사된 32장본 「심청가」는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오륜가라」와 합철되어 있다. 이것은 『심청전』이 경상도 지역에 유통되면서 부모에 대한 효행을 권장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임혀졌음을 짐작케 한다. 1900년대 이후에 필사된 28장본 「심청전」과 41장본 「심청가」, 33장본 「심청전」, 27장본 「심청전이라」는 곽씨부인의 죽음과 장례,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처럼 심청의 효성이 드러나는 전반부를 축약하였다. 그러면서도 28장본은 심봉사와 안씨맹인의 잔치상을 차리는 대목과 후일담을 길게 서술하였다. 41장본은 심청과 동네 처녀들의 이별곡 대목과 심청이 투신한 후 만고효녀 심청비 건립이 추진되는 대목, 심봉사가 황성길에 방아품을 파는 대목, 맹인잔치에서 심황후가 ‘비가’를 부르는 대목 등 독특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33장본과 27장본은 뽕떡어미와 안씨맹인이 등장하는 대목과 방아타령 대목처럼 골계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축약되었다. 특히 33장본은 심청의 상대역인 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왕이 된 후 심청과 재회하는 이야기로 독특하게 개작되었다.

비강상련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경판 20장본 『심청전』을 모본으로 하여 심

청의 효성을 강조하고, 현실성과 개연성이 드러나도록 개작하였다. 신문관에서 육전소설 시리즈의 하나로 간행된 「심청전」도 시간적 배경을 고려 말년으로 바꾸고, 심봉사에게 내려지는 벼슬을 고려시대 관직인 호부상서로 설정하였다.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은 시간적 배경을 조선으로 바꾸고, 황해도 장산곶 북편에 있는 몽금도를 용궁으로 설정하였으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용궁에 가는 대목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처리하였다. 또한 소설을 희곡적으로 재구성하여 독자들이 인물 간의 대화를 읽으면서 효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개작하였다.

6.1.2.3 『토끼전』

『토끼전』은 사본 28종 28책, 목판본 3종 4책, 신연활자본 3종 11책 등 34종 43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경판본 계열 2종 2책,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0종 20책, 기타 계열 6종 6책으로 나타났다. 목판본은 경판본 계열 1종 1책, 완판본 계열 2종 3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불로초 계열 2종 10책과 비불로초 계열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을 같은 계열끼리 묶어 시기별·계열별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은 판소리 창본의 주요 대목을 축약하고 독특한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소설의 결말이 다양한 내용으로 개작되었다.

먼저 45장본 「톱기전」과 21장본 「별주부전」, 28장본 「톱기전」, 20장본 「수궁낙이라」, 35장본 「별주부전이라」는 창본의 주요 대목을 축약하면서 다른 계열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들이 첨가되었다. 남평(전남 나주)에서 필사된 21장본은 모죽회의 대목을 생략하고 너구리와 두꺼비가 토끼의 수궁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첨가되었다. 28장본은 별주부가 남생이에게 자신의 집안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첨가되었으며, 20장본은 용왕의 명약 지시부터 별주부와 노모의 이별 대목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대부분 축약하였다. 21장본은 별주부가 수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용왕이 천상벽도를 먹고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며, 35장본은 토끼가 포수에게 총을 맞은 후 구름을 타고 월궁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처럼 독특한 내용으로 개작된 사본과 달리 47장본 「鰲主簿曲」과 59장본 「토끼전」, 62장본 「토끼전이라」, 59장본 「경화수궁전」, 53장본 「토끼 전」은 판소리 창본을 축약하면서 특정 대목을 길게 서술하였다. 금주군(경남 김해)에서 필사된 47장본은 별주부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대목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별주부가 아내에게 임신양명을 위해 육지에 간다고 말하지만 토끼의 꾀에 넘어가 등판이 깨지게 되고, 용왕의 약재를 엉뚱하게 알려주는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한다. 62장본은 별주부의 어머니와 아내가 육지로 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대목과 가족들이 토끼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토끼가 돌아오자 아내가 야단치는 대목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53장본은 별주부와 어머니의 이별 대목과 모족회의 대목을 생략하고, 별주부가 용왕의 미련함을 꾸짖는 대목이 길게 첨가되었다. 62장본은 용왕이 토끼를 보고 병이 나았다고 말하며 별주부를 만호후에 봉하는 것으로 끝나며, 59장본은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 중에는 1895년(고종 32)에 필사된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와 이를 개작한 61장본 「슈궁전」, 30장본 「별주부전」, 61장본 「별토문답」, 52장본 「免處士傳單卷」, 40장본 「토전」, 38장본 「수육문답」 등이 전해지고 있다.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는 화초타령과 새타령, 나무타령 등 다양한 사설이 삽입되어 있고, 수궁에 간 토끼가 암자라와 동침하는 대목도 첨가되었다. 별주부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충신이면서도 우매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61장본 「슈궁전」은 「중산망월전이라」의 서사를 따르면서도 암자라 동침 대목처럼 토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은 축약하였다. 산문체로 개작된 61장본 「별토문답」에서는 별주부가 용왕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52장본에서는 용왕이 아닌 도사가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다. 40장본 「토전」은 별주부가 여색에 빠져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40장본 「중산망월전이라」와 52장본은 토끼를 놓친 후 소상강으로 숨어든 별주부가 용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반면에 30장본의 결말은 토끼가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하며 도망가고, 별주부는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난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어 유통될 무렵에 전주에서는 신재효의 판소리 창본 「퇴별가」를 모본으로 하여 완판본 『심청전』이 간행되었다. 1898년(광무 2)에 완서에서 간행된 완판 21장A본 「퇴별가 라」는 지배계층의 횡포와 수탈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축약하였다. 1916년에는 다가서포에서 A본의 판목으로 책을 인쇄한 후 판권지를 붙여 완판 21장B본을 간행하였다. 이후 완판 21장본 『토끼전』을 개작한 사본이 필사되기도 하였다. 32장본 「주부전」은 토끼의 위기 극복 대목을 길게 서술하였으며, 결말에서는 토끼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2) 경판본 계열

경판본 계열의 사본인 22장본 「토끼전」과 50장본 「별주부전」은 경판본 「토싱전」의 내용과 친연성이 있다. 1908년(융희 2)에 유동에서 간행된 경판 9장본 「토싱전」은 용왕과 토끼의 문답 대목부터 별주부가 자살하기 전에 용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대목까지 사건 중심으로 간결하게 축약되어 있다. 대체로 지배계층을 옹호하는 시각이 느껴지고, 소설의 풍자성과 해학성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22장본 「토끼전」은 경판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경판본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본의 토끼화상 대목과 새타령 대목도 첨가되어 있어서, 필사자가 판소리 사설에서 인기 있는 대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0장본 「별주부전」의 결말은 토끼가 엉터리로 알려진 약재를 용왕에게 전한 별주부가 쫓겨나서 죽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판본과 달리 별주부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개작된 사본도 있음을 보여준다.

3) 불로초 계열

1912년에 유일서관에서 신연활자본 「불로초」가 간행된 후 이를 개작한 불로초 계열의 「별鰲主부簿전傳」이 간행되었다. 「불로초」와 「별鰲主부簿전傳」은 같은 계열에 속하지만 주제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불로초」는 토끼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토끼와 별주부, 용왕에 대해서는 누구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별繫주부簿전傳」은 육지로 나온 별주부가 짐승들을 만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별주부에게 화타가 나타나 용왕의 병을 낫게 할 선단(仙丹)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별주부는 충성심이 강한 신하로서 천지신명이 도와주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토끼는 허욕이 많고 간사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불로초」와 「별繫주부簿전傳」은 각각 5판과 4판까지 간행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특히 「별繫주부簿전傳」은 지배층을 옹호하고 한시나 한문고사 같은 현학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권수제를 바꿔 재출간되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4) 기타 계열 및 비불로초 계열

기타 계열의 사본은 소설의 내용을 줄거리 위주로 축약하고 독특한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결말의 내용을 다양하게 개작하였다. 22장본 「兔公辭」를 전사한 10장본 「兔公傳」과 72장본 「兔公傳」은 모죽회의 대목과 별주부의 호랑이 위기 극복 대목을 생략하면서도 결말 부분은 장황하게 확대하였다. 41장본 「토끼전」은 별주부와 문어의 전쟁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수궁제신이 토끼를 포획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 대목이 첨가되었다. 15장본 「별주부전」은 토끼가 노구할미의 울타리 위기를 극복하는 대목을 첨가하여 독특하게 개작하였다. 35장본 「토끼전 玉兔傳」은 갈게가 토끼에게 ‘인간들에게 자기 자손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을 요청하는 대목처럼 다른 계열에서는 보지 드문 내용을 첨가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계열의 사본들은 결말의 내용도 다양하게 개작되었다. 10장본은 옥황상제가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72장본은 수궁에서 토끼를 다시 잡아온 후 토끼와 용자가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끝난다. 41장본은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삼신산으로 가서 신선의 제자가 되며, 6장본은 용왕이 죽은 후 뒤를 이은 용자가 별주부를 쫓아내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15장본은 태백산으로 들어간 토끼가 불로초와 불로주를 먹으며 오래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비불로초 계열의 신연활자본으로는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곽창기

의 창본을 개작한 「兎의肝(별주부가)」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도 4판까지 재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兎의肝(별주부가)」 4판을 보면, 별주부의 사신 논란과 길짐승들의 상좌 다툼, 별주부와 토끼의 위기 극복 대목이 길게 확장되어 해학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말은 다른 신연활자본과 달리 수궁에 온 도사가 준 약을 먹고 용왕의 병이 낫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발달기에 만들어져 유통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모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꾸준히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반면에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은 191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10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볼 수 있는 신연활자본이 활발하게 간행되면서 세책본이나 경판본을 찾는 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세책점에서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을 대여해주기도 하면서, 세책업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세책본 판소리계 소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향전』과 『심청전』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이 두루 필사되었지만 『토끼전』은 대부분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만 전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춘향전』과 『심청전』에 비해 『토끼전』의 판소리 공연과 창본의 인기가 1910~20년대까지도 지속되었으며,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세책본은 아니지만 세책본의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본이 『춘향전』 3종 3책, 『심청전』 4종 4책, 『토끼전』 4종 4책 등 11종 11책으로 확인되었다. 이 책들은 매장마다 전면 마지막 행과 후면 첫 번째 행의 하단을 빈칸으로 비워두고, 전면 상단에는 한자로 장차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경판 24장본 「심청전」과 경판 9장본 「토끼전」에도 나타난다. 판소리계 소설을 읽는 독자와 필사자, 간행자들이 책의 훼손을 방지하고 서책 관리와 독서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세책본의 방식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판본 및 완판본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간행되었으며, 이어 『심청전』과 『토끼전』 순으로 나타났다. 『춘향전』은 경판본이 먼저 간행된 반면에 『토끼전』은 완판본이 먼저 간행되었으며, 『심청전』은 경판본과 안성판본, 완판본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다. 안성판본 『춘향전』과 『심청전』은 경판본을 축약하여 간행되었으며, 안성판본 『토끼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판본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자체는 모두 흘림체로 판각되었다. 반면에 완판본 『춘향전』과 『심청전』의 자체는 흘림체에서 넓은 형태의 정자체로 변화하였으며, 완판본 『토끼전』은 정자체로 판각되었다. 경판본 『춘향전』과 『심청전』에는 창본의 사설과 율문체가 줄어들고 산문체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끼전』은 사건 중심으로 간결하게 축약되어 이야기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창본의 서사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완판본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은 판소리 창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하였다. 그런데 『춘향전』과 『심청전』은 사설과 재담, 삽입가요 및 후일담을 첨가하여 확장시켜나가는 형태로 간행되었고, 반면에 『토끼전』은 봉건 사회의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풍자한 내용들을 축약시킨 형태로 간행되었다.

넷째,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과 「강상련(江上蓮)」, 「兎의肝(별주부가)」은 이해조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창본을 개작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獄中花(春香歌演訂)」와 「강상련(江上蓮)」을 개작한 판본이 꾸준히 간행된 반면에 「兎의肝(별주부가)」을 모본으로 한 판본은 간행되지 않았다. 또한 신연활자본 『춘향전』과 『심청전』은 각각 춘향의 정절과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는 주제와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이 판본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토끼전』은 토끼와 별주부, 용왕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 판본도 있고, 용왕과 별주부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토끼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판본도 있다.

다섯째, 기타 계열의 사본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독자들이 소설 읽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 개작의식을 발휘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향전』과 『심청전』은 개작의 폭이 넓지 않고, 대체로 해학성과 골계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토끼전』은 인물의 특성부터 결말의 재구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개작되었다.

6.1.3 쇠퇴기(1920년대 후반~1940년대)

쇠퇴기(1920년대 후반~1940년대)는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이 줄어들어 사본과 간행본이 급격히 감소하고 쇠퇴한 시기이다. 쇠퇴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25종 40책이 확인되었는데, 소설별로는 『춘향전』 11종 22책, 『심청전』 10종 14책, 『토끼전』 4종 4책이고, 형태별로는 사본 16종 16책, 목판본 2종 8책, 신연활자본 7종 16책이다. 연대별로는 1920년대 후반 9종 15책, 1930년대 13종 16책으로 감소하였으며, 1940년대 이후에는 완판본 『춘향전』 3종 9책만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과 완판본, 신연활자본을 전사하거나 개작하여 유통되었지만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춘향전』만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의 지나친 상업화와 출판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설의 서사 구조가 획일화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책이 유통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또한 현대어 표기법이 적용된 판소리계 소설이 간행되어 독자들이 읽기 쉽고 편한 책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각 소설별로 쇠퇴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변모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전』은 사본 4종 4책, 목판본 2종 8책, 신연활자본 5종 10책 등 11종 22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종 2책과 옥중화 계열 2종 2책으로 나타났으며, 목판본은 완판본 계열 2종 8책,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 3종 6책과 비옥중화 계열 2종 4책이 확인되었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61장본 「춘향전」은 오리정 이별 대목에서 이도령이 춘향에게 자신의 칼을 내어준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39장본 「춘향전」은 창본과 완판 29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주요 대목들을 축약하였다. 완판본 『춘향전』은 완판 29장A본을 번각하고 보판하여 완판 29장B본 「불별춘향전이라」가 간행되었다. 조선진서간행회에서는 완판 84장C본의 판목을 이용하여 완판 84장E본을 50부 한정판으로 간행하였다.

옥중화 계열의 151장본 「증상연예 옥중가인」과 88장본 「옥중가인」은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증상연예옥중가인」을 전사한 것이다. 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은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된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의 재판본

과 광한서림에서 간행된 「懷中 春香傳 춘향년」 재판본이 있다. 영창서관·한흥서림·진흥서림에서 간행된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과 세창서관·삼천리서관에서 간행된 「만고렬녀 도상옥중화」에는 각각 19장과 39장의 삽화가 실려 있다. 이 삽화들은 인물과 배경 묘사가 섬세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마치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비옥중화 계열의 신연활자본으로는 회동서관과 홍문당에서 공동으로 간행한 「오작교(烏鵲橋)」와 문화서림에서 간행된 「春夢緣(漢詩春香歌)」이 있다. 개작의 정도가 심한 「오작교(烏鵲橋)」는 대체로 인물의 사설과 재담이 속되지 않고 고상한 편이다. 「春夢緣(漢詩春香歌)」에서는 춘향을 봉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으로, 이도령을 점잖은 인물로 묘사하였으며, 음란하고 골계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생략하였다.

둘째, 『심청전』은 사본 9종 9책과 신연활자본 1종 5책 등 10종 14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4종 4책, 강상련 계열 2종 2책, 기타 계열 3종 3책으로 나타났으며, 신연활자본은 강상련 계열로 확인되었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72장본 「심청전 沈淸傳」은 완판 71장본을 전사하면서 일부 개작한 것이고, 59장본 「심청전」은 창본을 전사하면서 완판본을 일부 수용하였다. 53장본 「심청전」은 모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완판본 『심청전』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상련 계열의 93장본 「심청전」은 광동서국에서 간행된 「강상련」을 전사하였으며, 30장본 「심청전」은 강상련 계열의 「교명 심청전」 9판을 전사한 것이다. 덕흥서림에서 간행된 「만고효녀 심청전」 재판본은 「증상연명 심청전」 10판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친구서림에서 간행된 「심청전」은 「교명 심청전(A)」의 표제와 판식만 바뀌서 간행한 것이고, 태화서관에서 간행된 「교명 심청전(D)」 3판은 「고딕소설 심청전」을 재출간한 것이다.

기타 계열의 28장본 「효여심청전」과 37장본 「심청전」, 39장본 「심청전 이라」는 축약과 개작이 심하고 경판본과 완판본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28장본은 심청의 부친 봉양 대목과 심청이 인당수로 가는 대목처럼 심청의 효성과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길게 서술하였다. 또한 심봉사와 안씨매인에게는 벼슬이 내려지고, 뽕덕어미와 황봉사는 유배당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야기의 권선징악적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개작되었다. 37장본은 괘씨부인의 기자치성 대목부터 심청이 용궁으로 가는 대목까지 소설의 전반부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후반부의 심봉사와 안씨매인이 등장하는 해학적인 대목은 길게 서술하였다.

셋째, 『토끼전』은 사본 3종 3책과 신연활자본 1종 1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 1책과 기타 계열 2종 2책이며, 신연활자본은 불로초 계열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22장본 「슈궁녹이라」는 20장본 「슈궁녹이라」를 그대로 필사하면서 결말의 내용만 별주부가 토끼에게 들은 엉터리 약을 용왕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개작하였다. 기타 계열의 19장본 「퇴기전이라」와 70장본 「토별산슈록」은 내용의 축약과 개작이 심하여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70장본은 남해 관음보살이 준 약을 먹고 용왕의 병이 낫는 것으로 개작되어 독특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인서관에서 간행된 「토끼전」은 「불로초」를 개작하면서 현대어 표기법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독자들이 읽기 쉬운 형태로 간행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쇠퇴기에는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기타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목판본은 완판본 『춘향전』만 간행되었으며, 신연활자본도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만 간행되었다. 쇠퇴기에 유통된 사본과 간행본에는 ‘·’ 표기의 사용이 줄어들고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어 표기법이 적용된 어휘들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본과 간행본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판소리계 소설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의 지나친 상업화와 출판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책이 유통되면서 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이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층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출판사들이 간행비용을 낮추려고 무리하게 장수를 줄이면서 인쇄 상태가 졸렬한 판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경판본은 소설의 내용을 사건 위주로 축약하여 서사 구조의 짜임새가 부족하게 되었다. 신연활자본은 행간을 좁히고 대화와 지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삽화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체 분량을 줄였다. 이로 인해 이야기의 완성도와 책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의 내용과 서사 구조가 획일화되어, 독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은 본래 구비

문학과 기록문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문학 갈래이다. 필사자와 간행자 누구나 전승 과정에서 첨가, 부연, 축약, 삭제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은 당대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변모하며 전승되었다. 그러나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은 동일한 판본을 이용하여 재출간하거나 일부 내용을 축약, 개작하여 간행함으로써 판소리계 소설의 장점인 구비성과 서사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신연활자본은 많은 인기를 얻은 판본의 재판본을 간행하거나 서두와 결말의 일부만 수정하여 출간하는 방식, 여러 출판사에서 동일한 판본을 간행하는 방식, 표지와 권수제만 살짝 바뀌서 재출간하는 방식이 성행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을 간행한 출판사가 30여 곳에 이르고 저작관련자가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설의 내용과 형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소설의 내용과 서사 구조가 고정되면서 독자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의 판소리계 소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각종 주석서가 출판되고 여러 문예지와 신문을 통해 현대어 표기법이 적용된 판소리계 소설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이 기존의 사본이나 목판본, 신연활자본보다 훨씬 읽기 쉽고 편한 책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적 가치관이 반영된 문학 작품들이 대거 발표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더 빠르게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6.2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필사 및 간행 지역, 책을 소장하고 있던 지역을 알 수 있는 것은 105종으로 확인되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62종, 『심청전』 30종, 『토끼전』 13종이며, 형태별로는 사본 39종, 목판본 33종, 신연활자본 33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2종, 전라도 24종, 충청도 10종, 경기도 9종, 경상도 6종, 강원도 2종, 지역 미상 2종으로 나타났다. 판소리계 소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59〉 참조).

〈표 59〉 판소리계 소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계열			지역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미상	계
춘향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4		1						5
		목판본(경판)	7								7
		목판본(안성판)		3							3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1	5	2		1			9
		목판본(완판)	1			8					9
	옥중화 계열	사본	1	1		1	1	1			5
		신연활자본	13								13
	기타 및 비옥중화 계열	사본(기타)			1						1
		신연활자본(비옥중화)	9			1					10
소계			35	5	7	12	1	2		62	
심청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2								2
		목판본(경판)	3								3
		목판본(안성판)		2							2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1	1	2		1			5
		목판본(완판)				6					6
	강상련 계열	사본			1		1				2
		신연활자본	3								3
	기타 및 비강상련 계열	사본(기타)		1				1	2		4
		신연활자본(비강상련)	3								3
소계			11	4	2	8	1	2	2	30	
토끼전	세책본· 경판본 계열	사본									
		목판본(경판)	1								1
		목판본(안성판)									
	창본· 완판본 계열	사본				2		2			4
		목판본(완판)				2					2
	불로초 계열	사본									
		신연활자본	3								3
	기타 및 비불로초 계열	사본(기타)	1		1						2
		신연활자본(비불로초)	1								1
소계			6		1	4		2		13	
합계			52	9	10	24	2	6	2	105	

6.2.1 서울 지역

서울은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출판과 서적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세책가 20여 개와 방각소 19개, 신연활자본 출판사 60여 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판소리계 소설이 만들어져 유통될 수 있었다. 서울에서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35종, 『심청전』 11종, 『토끼전』 6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8종, 목판본 12종, 신연활자본 32종으로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이 20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17종, 기타 및 비옥중화/비강상련/비불로초 계열이 14종,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은 1종으로 나타났다.

사본의 필사지는 누동, 향목동, 은곡, 간동, 중국동, 파곡, 안현, 황성 등 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필사된 사본은 각각 1종씩 전해지고 있다. 누동과 향목동, 은곡, 간동, 파곡, 안현은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춘향전』과 『심청전』이 필사된 곳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세책본을 만들어 대여해주던 세책가들이다. 당시 운영되었던 20여 곳의 세책가 중 6곳에서 세책본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심청전』이 세책업자들과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동(서울 광진구)에서는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이 필사되었으며, 황성에서는 기타 계열의 『토끼전』이 필사되었다. 황성은 지명이라기보다는 고종 황제가 머물고 있는 도성 안을 가리킨 표현으로 추정된다.

목판본의 간행지는 효교, 송동, 유동, 인사동, 관훈동 등 5곳이 확인되었다. 효교와 송동, 유동은 경판본 계열의 목판본이 간행된 곳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방각본을 간행했던 방각소이다. 효교와 송동, 유동 일대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중인이나 평민층의 상인들이 모여 살면서 상업 활동을 했던 지역이다. 효교에서는 경판 30장본 『춘향전』, 송동에서는 경판 20장본 『심청전』, 유동에서는 경판 9장본 『토끼전』이 간행되었다. 경판 30장본 『춘향전』과 경판 20장본 『심청전』은 판소리 창본 및 완판본과 친연성이 있는 판본으로, 서울 지역의 방각업자들과 전주 지역의 방각업자들 간에

교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방각업자들이 창본이나 완판본을 참고본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동은 개화기 때 설립되어 1910~20년대에 고소설과 신소설을 왕성하게 간행했던 한남서림이 있던 곳으로, 경판 16장본 『춘향전』과 경판 24장본 『심청전』 등 모두 4종이 간행되었다. 관훈동(서울 종로구)은 판소리계 소설의 쇠퇴기인 1940년대에 조선진서간행회가 위치했던 곳으로, 완판 84장본 『춘향전』 1종이 간행되었다.

신연활자본의 간행지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18곳이 확인되었다. 종로 이정목에서는 5종이 간행되었으며, 종로통삼정목 4종, 남대문통사정목 3종, 자암동 3종, 대안동(송현동) 3종, 관훈동 2종, 상리동 2종, 사동 2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남대문통일정목과 종로통일정목, 봉래정일정목, 소안동, 사동, 인사동, 대사동, 유창동, 철물교, 견지동, 안국정 등에서는 각각 1종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개화기에 조선인들이 운영하던 민간 출판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던 북촌(北村)에 속해 있다. 당시 북촌은 서울에서 가장 큰 도로였던 남대문통과 종로통 같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권이 매우 발달하였고, 각종 사립학교와 관립학교가 설립되어 출판업과 교육기관의 중심지였다(방효순, 2001, pp.23-25).

이처럼 서울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업과 교육기관이 발달하고, 서적 간행 및 유통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판소리계 소설이 활발하게 유통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6.2.2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사본과 목판본 판소리계 소설이 필사 및 간행되었다. 전라도에서는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가 발달하여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밀접한 교섭 관계를 형성하며 전승되었다. 또한 전주성 주변으로 산과 개천, 수공업 종사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서 방각본 간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였다. 전라도에서 필사 및 간행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12종, 『심청전』 8종, 『토끼전』 4종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7종과 목판본 16종, 신연활자본 1종으로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이 22종, 옥중화 계열 1종, 기타 및 비옥중화 계열 1종으로 나타났

으며,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과 강상련/불로초 계열, 비강상련/비불로초 계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본의 필사지는 남평(전남 나주), 동촌(전북 무주), 용계(전북 장수), 신림면 송룡리(전북 고창), 순창군 팔덕면(전남 순창), 창동(전북 남원) 등 6곳이 확인되었다. 남평에서 필사된 사본은 2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1종씩 필사되었다. 신림면 송룡리에서만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이 필사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이 필사되었다. 전남 나주와 전북 고창은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사본 고소설이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웅, 2014, pp.240-244).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전남 순천 일대에서 발달한 동편제 판소리와 전북 고창 일대에서 발달한 서편제 판소리가 점차 확산되면서,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은 판소리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이 다수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은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증상연예 옥중가인」을 전사한 것으로, 서울에서 간행된 신연활자본이 1930년대에 전라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목판본의 간행지는 전주군 전주면 다가정, 전주군 부서면, 전주군 남문 외 구석리, 완서(전북 전주), 완산(전북 전주), 구동(전북 전주) 등 6곳이 확인되었다. 다가서포가 있는 다가정에서는 『춘향전』 완판 29장A본과 완판 84장D본, 『심청전』 완판 71장D본과 완판 71장E본, 『토끼전』 완판 21장B본 등 5종이 간행되었다. 완서에서는 『춘향전』 완판 26장본과 『심청전』 완판 41장본, 『토끼전』 완판 21장A본 등 3종이 간행되었다. 서계서포가 있는 부서면에서는 『춘향전』 완판 84장C본과 『심청전』 완판 71장B본, 완판 71장C본 등 3종이 간행되었으며, 완산에서는 『춘향전』 완판 33장본과 『심청전』 완판 71장A본 등 2종이 간행되었다. 구동에서는 『춘향전』 완판 84장A본 1종이 간행되었으며, 완흥사서포가 있는 전주군 남문 외 구석리에서는 『춘향전』 완판 84장B본 1종이 간행되었다. 구동은 남천변 반석리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흔히 구석리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완판 84장A본과 B본은 같은 지역에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완판본의 간행지들은 크게 전주성의 서문 밖과 남문 밖으로 나눌 수 있다. 다가정과 완서, 부서면은 서문 밖에 있었으며, 구동과 구석리는

남문 밖에 있었다. 서문과 남문 밖에는 각각 다가산과 고덕산이 있고 산 아래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물과 나무, 종이 등 방각본 간행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하기가 용이하였다. 또한 천변을 따라 수공업이나 상업을 하는 평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방각업자가 판각 능력을 보유한 각수를 고용하는데도 용이하였다. 그밖에 신연활자본의 간행지는 전북 남원군 1곳이 확인되었다. 남원군청에서 사본 「광한루기」의 대중적인 보급과 전승을 위해 비매품 형태로 두 차례 발행하였다.

이처럼 전라도 지역은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가 발달하여 성행하였고, 방각본 간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현전하는 고소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소설의 유형 또한 판소리계 소설과 영웅소설, 가정소설만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웅, 2014, pp.240-244). 이런 상황에서도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이 22종이나 만들어져 유통되었다는 것은 전라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인기와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2.3 충청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서는 사본 판소리계 소설만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도는 19세기 후반에 중고제 판소리가 발달한 지역으로, 고수관, 이동백, 심정순 등의 명창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판소리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이 다수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7종, 『심청전』 2종, 『토끼전』 1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 6종, 기타 계열 2종,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1종, 강상련 계열 1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의 필사지는 청주군 북면(충북), 마동면 장○리(충남 서천), 청원군 용흥면(충북), 청주 동촌(충북), 괴산군 칠성면(충북), 진천 서암면(충북), 용기리(충북 진천), 음성(충북), 문의(충북 청원) 등 9곳이 확인되었다. 청주군 북면에서는 2종이 필사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종씩 필사되었다. 오늘날 지명

으로 보면, 청주에서 3종, 청원과 진천에서 각각 2종, 괴산과 음성, 서천에서 각각 1종씩 필사되었다. 청원군은 2014년 청주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 청주 일대에서 필사된 사본은 5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 청주와 괴산은 충청도 지역 중에서도 사본 고소설이 풍부하게 전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웅, 2014, pp.245-246). 청주에서는 『춘향전』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1종과 창본 및 완판본 계열 2종이 필사되었다. 청원에서는 『춘향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과 『토끼전』 기타 계열 1종이 필사되었으며, 진천에서는 『춘향전』 기타 계열 1종과 『심청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이 필사되었다. 괴산에서는 『춘향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 음성에서는 『심청전』 강상련 계열 1종이 필사되었으며, 서천에서는 『춘향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이 필사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충청도 지역에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른 계열의 사본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중고제 판소리가 충청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성행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판소리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도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서울과 전라도, 경상도를 오고가는 양반이나 선비,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타 지역의 문물이 유입되어 전승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6.2.4 경기도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본과 목판본 판소리계 소설 9종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5종, 『심청전』 4종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4종, 목판본 5종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목판본 5종과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 2종, 옥중화 계열과 기타 계열의 사본이 1종씩 전해지고 있다.

사본의 필사지는 안성, 산정리(경기 안성), 양평 등 3곳으로 확인되었다. 안성에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춘향전』과 『심청전』이 각각 1종씩 필사되었고, 산정리(경기 안성)에서는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 1종, 양평에서는 기타 계열의 『심청전』 1종이 필사되었다. 서울과 전주에서 필사된 사본들은

경판본이나 완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에서 필사된 사본들은 경판본이나 안성판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판본의 간행지는 안성의 동문리, 기좌면 본리, 보개면 기좌리 등 3곳이 확인되었다. 동문리에서는 안성판 20장A본 『춘향전』 1종이 간행되었으며, 북촌서포가 있던 기좌면 본리에서는 안성판 20장B본 『춘향전』 1종이 간행되었다. 박성칠서점이 있던 보개면 기좌리에서는 안성판 20장C본 『춘향전』과 안성판 21장B본 『심청전』 등 2종이 간행되었다. 안성판 21장A본 『심청전』은 간기나 판권지가 없어서 정확한 간행지를 알 수는 없지만 판식과 내용으로 볼 때 안성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안성판본의 간행자인 박성칠은 동문리에서 방각소를 운영하다가 기좌면 본리로 자리를 옮겨 북촌서포를 개업하였으며, 1914년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박성칠서점으로 상호명을 변경한 후 서적 간행을 계속하였다. 1914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기좌면 본리가 보개면 기좌리로 변경되었으므로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기좌면 본리는 주변에 산이 많아서 예로부터 닥나무를 원료로 삼아 한지를 생산하던 곳으로, 방각본 간행에 필요한 나무와 한지를 수급하는데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은 경판본과 신연활자본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이 필사 및 간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판본이나 안성판본과 관련이 없는 사본들도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특히 안성은 전통적으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6.2.5 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는 사본 판소리계 소설 6종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도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적 전통이 공고하게 유지된 지역이다. 외부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가정소설이나 영웅소설, 장편가문소설을 필사하여 읽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판소리계 소설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웅, 2014, pp.236-239). 소설별로는 『춘향전』 2종, 『심청전』 2종, 『토끼전』 2종이 확인되었으며, 계열별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 4종과 옥중화

계열 1종, 기타 계열 1종이 전해지고 있다.

사본의 필사지는 부산, 부산동, 임하면(경북 안동), 성북리(경북 경주), 금주군(경남 김해) 등 5곳으로 확인되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부산 3종, 안동 1종, 경주 1종, 김해 1종 등이 확인되었다. 부산에서는 『춘향전』 옥중화 계열 1종과 『심청전』 기타 계열 1종, 『토끼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이 필사되었다. 임하면에서는 『춘향전』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종이 필사되었으며, 성북리와 금주군에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 『심청전』이 각각 1종씩 필사되었다.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경상도 지역의 양반과 선비, 평민층 사이에서도 전라도에서 성행한 판소리와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에서 필사된 옥중화 계열 『춘향전』은 「증상연예 옥중가인」을 그대로 필사한 것으로, 서울에서 간행된 신연활자본이 경상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1925년에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고딕소설 언문춘향전」의 판권지 뒷면에는 회동서관 대구지점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려 있다. 당시 서울 지역의 출판사가 경상도 지역에 지점을 내고,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을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6 강원도 및 기타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는 사본 2종이 필사되어 유통되었으며,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간행되지 않았다. 필사지는 사천면(강원 강릉)과 후동리(강원 춘천) 등 2곳으로 확인되었다. 사천면에서는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 1종이 필사되었고, 후동리에서는 강상련 계열의 『심청전』 1종이 필사되었다. 이 사본들은 서울에서 간행된 신연활자본 「獄中花(春香歌演訂)」와 「증상연명 심청전」 6판이 강원도 지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공리와 흥남동에서 기타 계열의 『심청전』 사본이 1종씩이 필사되어 유통되었는데,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필사지와 간행지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60>와 같다.

〈표 60〉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지와 간행지

구분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서울	사본	누동, 향목동, 은곡, 간동, 중곡동	파곡, 안현	황성
	목판본	인사동(2종), 효교, 관훈동	인사동(2종), 송동	유동
	신연활 자본	종로이정목(5종), 종로통삼정목(3종), 자암동(2종), 관훈동(2종), 소안동, 사동, 인사동, 대사동, 유창동, 철물교, 대안동, 상리동, 견지동, 남대문 통일정목	남대문통사정목(2종), 대안동, 송현동, 종로통삼정목, 종로통일정목, 봉래정일정목, 상리동	사동, 자암동, 남대문통사정목, 안국정
경기도	사본	안성, 산정리(경기 안성)	안성, 양평	
	목판본	안성(3종)	안성(2종)	
충청도	사본	청주 북면(충북, 2종), 청주 동촌(충북), 마동면 장○리(충남 서천), 청원 용흥면(충북), 진천 서암면(충북)	용기리(충북 진천), 음성(충북)	문의(충북 청원)
전라도	사본	동촌(전북 무주), 용계(전북 장수), 신림면 송룡리(전북 고창)	남평(전남 나주), 팔덕면(전남 순창)	남평(전남 나주), 창동(전북 남원)
	목판본	전주면 다가정(2종), 전주군 부서면, 완서, 완산, 구동, 구석리 (전북 전주)	전주면 다가정(2종), 전주군 부서면(2종), 완서, 완산 (전북 전주)	전주면 다가정, 완서(전북 전주)
	신연활 자본	남원(전북)		
경상도	사본	안동군 임하면(경북), 부산(경남)	성북리(경북 경주), 부산동(경남)	부산(경남), 금주군(경남 김해)
강원도	사본	강릉군 사천면(강원)	후동리(강원 춘천)	
지역 미상	사본		미공리, 흥난동	

6.3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한 소설의 시각화 양상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은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해 소설의 인물과 사건, 배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그림들은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른 소설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설의 주요 인물과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전통 민화 및 회화의 소재와 기법이 사용되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으로 이어지는 미술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채색표지화와 삽화는 서적의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어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신연활자본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에 사용된 채색표지화와 삽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⁴⁵⁾

6.3.1 채색표지화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채색표지화가 사용된 것은 24종으로 확인되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15종, 『심청전』 6종, 『토끼전』 3종으로 나타났다. 채색표지화의 수는 재출간된 판본까지 합쳐서 『춘향전』 30개, 『심청전』 15개, 『토끼전』 8개 등 모두 53개의 그림이 확인되었다. 그림의 소재에 따라 나눠보면, 소설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가 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징물(꽃, 나비, 새)을 소재로 한 표지화가 13개, 주인공의 외양을 묘사한 표지화가 9개로 나타났다. 소설별로 나눠보면, 『춘향전』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가 9개, 상징물을 소재로 한 표지화가 12개, 주인공의 외양을 묘사한 표지화가 9개로 나타났다. 『심청전』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가 14개, 상징물을 소재로 한 표지화가 1개로 나타났다. 『토끼전』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만 8개가 확인되었으며, 상징물과 주인공을 소재로 한 표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표지화를 중심으로, 신연활자본 채색표지화에 나타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5) 6.3장의 <그림 72~84>에 나온 서명(書名)은 신연활자본의 '권수제'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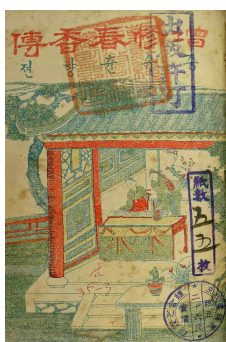
6.3.1.1. 『춘향전』의 채색표지화

『춘향전』의 채색표지화에는 주로 광한루나 춘향의 집에서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이 이뤄지는 장면, 이도령이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 그림들은 부감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듯이 묘사하였다.

먼저 「倫理小說 廣寒樓」 초판본과 재판본에는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을 바라보고, 방자가 오작교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광한루와 산수풍경이 부드럽고 화사하게 채색되어 마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원근법을 적용하여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묘사하였다.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4판과 재판본에는 춘향의 집 초당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춘향과 이를 지켜보는 이도령의 모습, 같은 장소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누각의 돌계단에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원근법을 적용하였지만 소실점이 정확하지 않고, 인물과 배경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오작교(烏鵲橋)」 재판본에는 달 밝은 밤에 이도령과 방자가 오작교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도령은 자주색 도포를 걸치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으며, 방자는 이도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림의 색감이 어둡고 이상야릇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기이한 인연을 강조한 표제 「奇緣小說 烏鵲橋」와 잘 어울린다(〈그림 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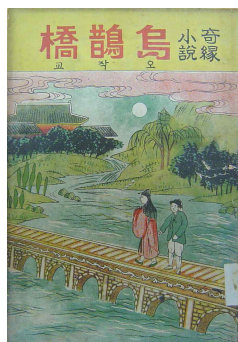
「倫理小說 廣寒樓」
초판본(1913)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4판(1918)



「증수춘향전 增修春香傳」
재판(1924)



「오작교(烏鵲橋)」
재판본(1927)

〈그림 71〉 『춘향전』의 주요 장면을 소재로 한 채색표지화

『춘향전』의 채색표지화 중에는 화중화(畵中畵) 방식으로 공간을 나눠 원 안에는 소설의 장면을 묘사하고, 원 밖에는 상징물이나 주인공의 모습을 표현하여 소설의 주제를 강조한 그림도 있다. 「특별 무쌍춘향전」 재판본에는 나귀를 탄 이도령이 방자를 앞세우고 광한루로 향하는 장면이 원 안에 그려져 있고, 원 밖에는 이도령의 입신출세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도령의 의복은 명암법을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며, 머리 위로 늘어진 버드나무 줄기들은 이도령의 위풍당당한 면모와 장원급제를 상징하고 있다.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의 원 안에는 광한루에서 방자가 춘향에게 이도령의 편지를 건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원 밖에는 나비 두 마리가 매화꽃 위로 날아드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소설에서는 춘향이 이도령에게 갈지 말지를 두고 방자와 옥신각신하는 대목이지만 채색표지화에서는 편지를 전해주는 모습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근경에는 춘향과 방자의 모습을, 중경에는 광한루에 앉아 있는 이도령의 모습을, 원경에는 광한루 주변의 산세풍경을 묘사하였다.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과 「만고렐녀 도상옥중화」 초판의 원 안에도 동일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원 밖에는 남녀 간의 사랑과 부부의 결연을 상징하는 나비 한 쌍이 나란히 서 있는 춘향과 이도령에게 날아드는 모습을 표현하였다(〈그림 72〉 참조).



「특별 무쌍춘향전」
재판본(1917)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1925)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1925)



「만고렐녀 도상
옥중화」 초판(1937)

〈그림 72〉 화중화 방식으로 『춘향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위 그림 중에서 「특별 무쌍춘향전」과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 「만고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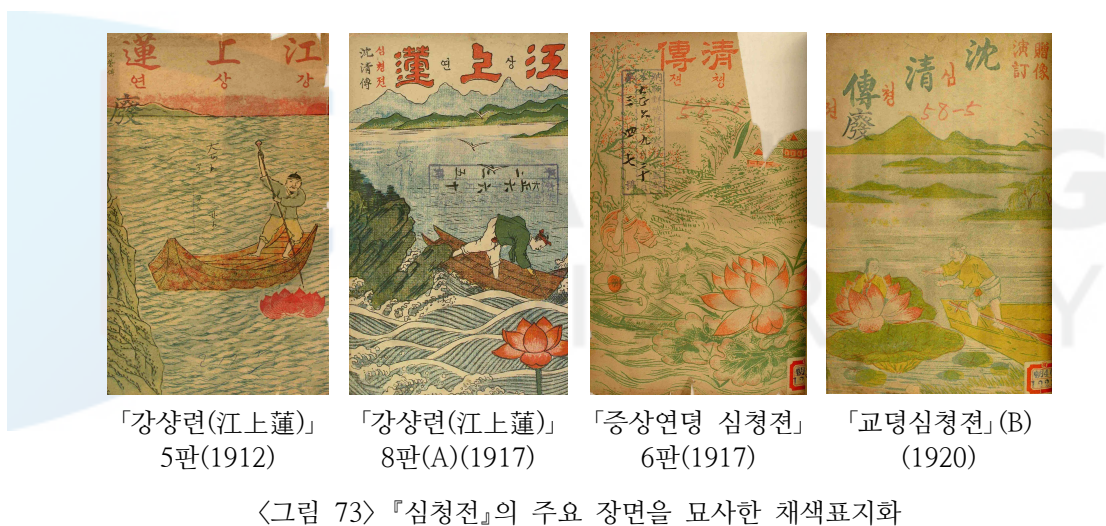
춘향전」 초판의 표지화는 장면 묘사가 세밀하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여 채색화로서의 묘미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반면에 「만고렐녀 도상옥중화」의 표지화는 색감이 어둡고 둔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에는 춘향과 이도령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면, 「만고렐녀 도상옥중화」 초판에는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만고렐녀 춘향전」과 「만고렐녀 도상옥중화」 초판에 그려진 춘향은 울긋불긋한 빗깁과 꽃무늬가 새겨진 채의(彩衣)를 입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남녀 간의 연애와 여성의 복식에 대한 인식이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3.1.2. 『심청전』의 채색표지화

『심청전』의 채색표지화에는 주로 인당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선인이 물 위로 떠오른 연꽃을 발견하는 장면과 물에 빠져 나무판자에 실려 떠내려 온 심청이가 꿈 속에서 용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들도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부감법과 원근법을 적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듯이 묘사하였다. 이 장면은 『심청전』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대목으로, 독자들의 흥미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내용이다. 이 장면을 그린 표지화가 강상련 계열의 초판본과 재판본은 물론 다른 출판사의 간행본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심청전』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당시 출판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상련(江上蓮)」 5판과 8판(A)에는 인당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선인이 물 위로 떠오른 연꽃을 발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5판에서는 인당수의 물결이 잔잔하고 선인의 행동도 단순하게 묘사하였다. 근경에 있는 연꽃과 선인은 크게 그리고 원경에 있는 산은 작게 그렸지만 그림의 색감이 흐리고 탁하여 원근법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8판(A)에서는 거세게 일렁이는 인당수의 물결과 노를 젓고 있는 선인의 움직임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근경에 위치한 연꽃과 파도, 바위, 선인의 모습은 크고 돋보이게 묘사하였으며, 중경 및 원경에 위치한 기러기와 산세풍경은 작고 희미하지만 형태와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8판(A)의 표지화는

5판의 표지화에 비해 전체적인 색감이 진하고 선명하여 인물과 배경 묘사가 분명하고 원근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표지화는 「강상련(江上蓮)」 9판과 11판, 12판에도 사용되었으며, 강상련 계열의 다른 판본에도 비슷하게 그려진 표지화가 사용되었다. 「증상연명 심청전」 6판과 「교명 심청전(B)」의 표지화에는 선인이 물 위로 떠오른 연꽃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건져 올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강상련(江上蓮)」 5판과 8판(A), 「증상연명 심청전」 6판에서는 독자들이 연꽃의 의미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도록 표현하였다면, 「교명 심청전(B)」에서는 연꽃 안에 심청이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들이 그림에 나타난 극적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그림 73〉 참조).



『심청전』의 채색표지화 중에도 화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표지의 공간을 나눠 소설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 「교명 심청전(A)」의 표지화 하단에는 물에 빠져 나무판자에 실려 떠내려 온 심청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우측에는 ‘沈清이 夢中에 龍宮가니 龍王이 侍女를 명하여 水晶宮으로 引導함’이라는 그림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상단에는 용왕을 만나기 위해 수정궁에 간 심청이가 마중 나온 시녀와 만나는 모습이 말풍선 안에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심청의 꿈 속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교명 심청전(A)」에는 나오지 않고 1916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표지화는 「

증상연등 심청전」 10판과 「고딕소설 심청전」, 「만고효녀 심청전」, 「교당 심청전」(C)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심청과 시녀들의 모습, 공간적 배경의 묘사가 일부 달라졌고 전체적인 색감이 거칠게 채색되어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그림의 구도와 내용은 「교당 심청전(A)」와 동일하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가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하는 대목은 『심청전』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감동적인 순간이다. 출판업자들이 독자들의 흥미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장 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채색표지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4> 참조).



「교당심청전」(A) 「만고효녀 심청전」 「신정심청전 몽금도전」 「교당심청전」(D)
(1920) (1926) (1916)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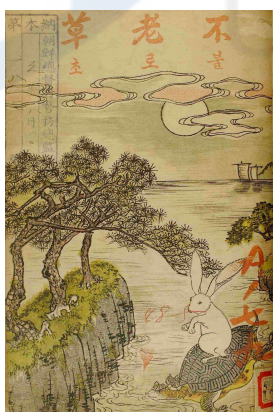
<그림 74> 『심청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신정심청전 몽금도전」에서는 심청이 용궁에 가서 왕을 대면한 후 연꽃을 타고 환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심청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용왕을 바라보고 있으며, 용왕과 시녀들은 손을 들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심청을 보내주고 있다. 명암법을 사용하여 용왕과 심청, 시녀의 표정과 행동부터 옷의 주름까지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색감이 회색빛과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심청이 환세하는 장면의 신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교당 심청전(D)」에는 황극전에서 황제와 심황후가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황제와 심황후는 물론 신하들의 표정과 행동까지 하나하나 다르게 묘사하였으며, 황제와 심황후의 옷에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림의 색감은 다채로운 색으로 진하게 채색되어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황후가 된 심청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황극전의 모습을 화려하고 돋보이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4> 참조).

6.3.1.3. 『토끼전』의 채색표지화

『토끼전』의 채색표지화에는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향하는 장면과 별주부가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찾기 위해 산으로 향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 장면은 『토끼전』에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내용 중 하나로, 독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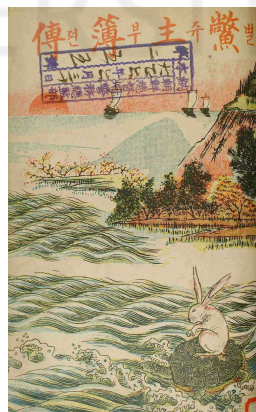
먼저 「불로초」 초판에는 수궁에서 위기를 극복한 토끼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별주부의 등 위에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근경에 있는 토끼와 별주부, 가파른 절벽과 소나무 세 그루는 크게 그렸으며, 멀리 보이는 배는 작고 희미하게 그렸다. 또한 부감법을 사용하여 토끼와 별주부의 모습과 주변 경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표현하였다. 절벽 위에는 푸른 풀이 뒤덮고 있으며, 소나무의 가지는 토끼와 별주부를 향해 길게 늘어져 있다. 소나무의 잎과 별주부의 등껍질 문양은 사실감이 느껴지도록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표제 아래에는 구름이 달을 휘감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어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75〉 참조).



「불로초」 초판
(1912)



「별궐주부簿전傳」
초판(1913)



「별궐주부簿전傳」
4판(1917)

〈그림 75〉 『토끼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화

「별궐주부簿전傳」 초판의 채색표지화는 「불로초」 초판과 달리 토끼가 별주부의 등 위에 타고 수궁으로 가기 위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근경에 있는 토끼와 별주부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산과 배 두 척은 작고 흐리게 표현하여 원근법의 묘미를 살렸다. 또한 바다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고 파도가 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중경에 있는 산과 나무에 분홍빛과 푸른빛이 감돌도록 묘사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 그림의 구도는 「별繁주主부簿전傳」 3판과 4판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3판에서는 그림의 색감이 흐릿해졌지만 오히려 공간적 배경은 현실감 있게 묘사되었다. 4판에서는 3판과 반대로 색감이 진하고 선명해졌지만 중경에 있는 산과 나무가 어둡고 투박하게 표현되었다(〈그림 75〉 참조).



「불로초」 재판
(1913)

「兎의肝(별주부가)」
4판(1918)

「古代小説 兎에肝」
초판(1925)

〈그림 76〉 『토끼전』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채색표지와

「兎의肝(별주부가)」와 「古代小説 兎에肝」에는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와서 산으로 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兎의肝(별주부가)」에서는 판소리 창본의 고고천변 대목처럼 별주부의 눈에 비친 해와 구름, 가파른 산과 바다의 풍경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높고 험한 산 봉우리를 구름이 휘감고 있으며, 절벽 사이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모습은 토끼가 살고 있는 산의 영험한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거센 파도와 물결은 별주부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토끼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76〉 참조). 「古代小

說 兎에肝」의 표지화에는 육지로 올라온 별주부 앞에 토끼가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단조롭고 투박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그림의 색감도 흐리고 둔탁한 느낌이 든다. 그밖에 「불로초」 재판(1913)과 3판(1913)에는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절벽 위에서 토끼가 불로초를 발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표지화는 수궁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불로초를 먹고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토끼를 지나치게 크게 그려서 그림의 구도가 불균형하며, 단색을 사용하여 그림의 색감이 투박하고 선명하지 못하다(〈그림 76〉 참조).

6.3.2 삽화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에 수록된 삽화는 소설의 인물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주고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신연활자본에 수록된 삽화들은 그림의 소재에 따라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삽화(이하 인물 삽화)와 소설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삽화(이하 장면 삽화)로 나눌 수 있다. 장면 삽화는 무채색 목판화만 사용되었으며, 인물 삽화는 유채색 목판화와 무채색 목판화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삽화의 위치에 따라서는 본문 앞에 실린 삽화와 본문 사이에 실린 삽화로 나뉘지며, 한 면에 본문과 삽화가 함께 제시된 경우도 있다.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에 수록된 삽화의 특징과 소설의 시각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삽화가 수록된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옥중화 계열 9종과 『심청전』 강상련 계열 4종으로 확인되었으며, 『토끼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에는 장면 삽화 3장이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으며, 6판에서는 장면삽화 1장은 본문 앞에, 3장은 본문 사이에 실려 있다. 17판에서는 유채색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10장이 모두 본문 앞에 제시되어 있다.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 초판에서는 인물 삽화 2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으며, 장면 삽화 6장은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같은 계열의 「증슈춘향전」 4판에는 장면 삽화 6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으며, 「증

슈춘향전」 초판에는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5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다.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에는 유채색 인물 삽화 1장과 무채색 인물 삽화 2장, 장면 삽화 6장이 본문 앞에 제시되어 있으며, 4판에서는 이도령을 그린 유채색 인물 삽화 1장이 추가되었다. 「특별무쌍춘향전」 초판에서는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1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으며, 4판에서는 유채색 인물 삽화 1장과 무채색 인물 삽화 2장, 장면 삽화 6장이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다. 4판의 인물 삽화들은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에 실린 삽화와 동일한 그림으로, 삽화를 그린 관재 이도영의 낙관은 생략되어 있다. 「(演)연訂정춘춘향傳」에는 유채색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11장이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다. 「만고렬녀 춘향전」 초판에는 장면 삽화 12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는데, 한 면을 2단으로 나눠 삽화 2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후 간행되는 「옥중 절 디가인 춘향전」에도 「만고렬녀 춘향전」 초판의 삽화와 동일한 그림이 수록되었으며, 본문 앞에는 이도령과 춘향을 함께 그린 인물 삽화가 1장 추가되었다.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에는 장면 삽화 19장이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으며, 「만고렬녀 도상옥중화」 초판에는 장면 삽화 39장이 본문과 같은 면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강상련(江上蓮)」 5판에는 장면삽화 10장이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삽화들은 「강상련(江上蓮)」 8판(A)부터 12판까지, 「증상연당 심청전」 6판과 10판에도 본문 앞에 실려 있다. 「교당 심청전D」 3판에는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1장이 본문 앞에 실려 있는데, 장면 삽화는 「강상련(江上蓮)」 5판의 〈삽화 4〉와 동일한 그림이다. 「만고료녀 심청전」에는 인물 삽화 1장과 장면 삽화 6장이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다. 장면 삽화는 「만고렬녀 춘향전」 초판의 삽화처럼 한 면에 2장씩 제시되어 있다.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에는 장면 삽화 못지않게 인물 삽화도 다수 사용되었지만 강상련 계열의 『심청전』에는 주로 장면 삽화만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활자본 『춘향전』과 『심청전』에 수록된 삽화의 현황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신연활자본 『춘향전』과 『심청전』에 수록된 삽화의 현황

단위 : 장

구분		삽화 소재		삽화 위치	
		인물	장면	본문 앞	본문 사이
춘 향 전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1913)		3		3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2	6	2(인물)	6(장면)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1913)	3(채색 1)	6	9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1914)		4	1	3
	「특별무쌍춘향전」 초판(1915)	1	1	2	
	「(演연訂정春춘향傳전)」(1917)	1(채색)	11	12	
	「특별무쌍춘향전」 4판(1920)	3(채색 1)	6	9	
	「獄中花(春香歌演訂)」 17판(1921)	1(채색)	10	11	
	「만고렐녀 춘향전」(1925)		12	12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1925)	1(채색)	12	13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1937)		19	19	
	「만고렐녀 도상옥중화」(1937)		39		39
심 청 전	「강상련(江上蓮)」 5판(1916)		10	10	
	「증상연명 심청전」 6판(1917)		10	10	
	「만고효녀 심청전」(1926)	1	6	7	
	「교명 심청전D」 3판(1931)	1	1	2	

둘째, 장면삽화는 인물과 사건, 배경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는 방식에서 인물의 행동은 확대하고 배경은 축소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회화적 기법보다는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과 6판,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 초판,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에 실린 장면 삽화는 세밀하고 간단명료한 선묘로 인물과 사건, 배경을 정밀하게 묘사하여 소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근경과 중경, 원경의 묘사를 다르게 하였으며, 부감법을

사용하여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삽화는 독자들이 장면 속 인물과 사건, 배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반면에 「만고렐녀 춘향전」,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만고렐녀 도상옥중화」의 장면 삽화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확대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과 배경은 축소하거나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인물의 움직임은 손짓 하나까지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매우 흥미롭지만 배경에 대한 묘사는 간략하게 처리하여 부수적인 부분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변화는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방자를 보내 춘향을 부르는 장면(1)과 춘향과 이도령이 오리정 또는 집에서 이별하는 장면(2), 신관사도가 도입하는 장면(3) 등에서 잘 나타난다(〈그림 77〉 참조).

〈장면 1〉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1914)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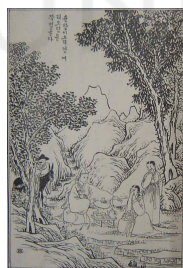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1937)

〈장면 2〉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1913)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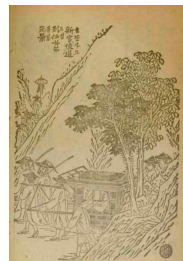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1937)

〈장면 3〉



「증상연예중가인」
초판(1913)



「獄中花(春香歌演訂)」
17판(1921)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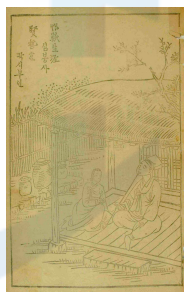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1937)

〈그림 77〉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장면 삽화

장면삽화가 인물의 행동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신연 활자본 『심청전』에도 나타난다. 「강상련(江上蓮)」 5판과 「증상연명 심청전」 6판에 실린 장면삽화는 세밀한 선묘와 원근법, 부감법을 적용하여 장면의 인물과 사건, 배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만고효녀 심청전」에 실린 삽화는 인물의 행위를 그림의 중심에 두고 확대하였다. 마치 「강상련(江上蓮)」 5판의 삽화에서 인물이 그려진 부분만 잘라내어 크게 확대한 것처럼 보이며, 독자로 하여금 장면 속 사건과 인물의 움직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한 변화는 심봉사와 괘씨부인이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장면(1),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드릴 밥을 얻어오는 장면(2), 황후가 된 심청이가 장님 잔치에 온 맹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면(3), 심봉사가 심청에게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장면(4)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78〉 참조).

〈장면 1〉



「강상련(江上蓮)」
5판(1912)

〈장면 2〉



「만고효녀 심청전」
(1926)



「강상련(江上蓮)」
5판(1912)



「만고효녀 심청전」
(1926)

〈장면 3〉



「강상련(江上蓮)」
5판(1912)

〈장면 4〉



「만고효녀 심청전」
(1926)



「강상련(江上蓮)」
5판(1912)



「만고효녀 심청전」
(1926)

〈그림 78〉 신연활자본 『심청전』의 장면 삽화

셋째, 『춘향전』의 인물 삽화는 춘향과 이도령을 따로 그린 삽화에서 함께

그린 삽화로 변화하였으며, 주인공 외에도 방자와 향단, 춘향모 등을 그린 삽화도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심청전』의 인물 삽화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심청의 모습만 그렸으며, 다른 인물을 그린 삽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과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에는 춘향과 이도령을 따로 그린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증상연예옥중가인」 8판과 「특별무쌍 춘향전」 4판,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이 함께 그려진 삽화로 교체되었으며, 알록달록하고 화사하게 채색되어 있다. 춘향은 대체로 볼살이 통통하고 둥근 형태의 얼굴을 띠고 있으며, 꽃무늬가 새겨진 노란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를 입고 있다. 이도령은 둥글고 가름한 형태의 얼굴로 검정색 복건(幘巾)을 쓰고 은주사(銀綢紗)로 된 자주색 도포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노란색 세조대(細條帶)를 두르고 있다(〈그림 79〉 참조).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1913)



「증상연예옥중가인」
4판(1916)



「증상연예옥중가인」
8판(1918)



「특별무쌍 춘향전」
4판(1920)



「獄中花(春香歌演訂)」
17판(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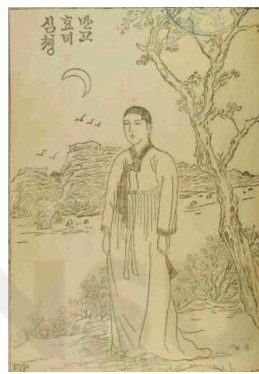


「증상연예옥중가인」
춘향전(1925)

〈그림 79〉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인물 삽화

「강상련(江上蓮)」 5판과 「증상연명 심청전」 6판, 「만고효녀 심청전」에 실

린 인물 삽화는 심청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심청의 얼굴은 둥근 형태이며, 양 손은 가지런히 내린 채 서 있다. 『춘향전』에서는 인물 그림 외에 나머지 공간을 여백으로 처리한 것과 달리 『심청전』에서는 나무와 바위 같은 자연물부터 멀리 보이는 새와 초승달까지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그림은 채색하지 않고 선묘로만 단순하게 표현되었으며, 인물의 외양과 배경이 단출하게 묘사되어 심청의 가련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80〉 참조).



「만고효녀 심청전」(1926) 「교명 심청전(D)」 3판(1931)

〈그림 80〉 신연활자본 『심청전』의 인물 삽화

6.3.3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그린 화가

6.3.3.1 관재 이도영

관재 이도영(1884-1933)은 조석진과 안중식의 문하에서 화업을 시작하여 출판 미술과 미술교육, 서화협회전람회, 조선미술전람회 운영 등 근대 미술계의 화단을 이끌었던 화가이다. 기명절지화와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각종 신문과 소설책의 삽화 및 표지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전통적 소재와 근대적 장르의 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교육회, 대한자강회 등에서 활동하며 도화교육을 위한 교과서 「연필화임본(鉛筆畵臨本)」과 「모필화임본(毛筆畵臨本)」을 제작하였다. 1906년(광무 10)부터는 보성관(普成館)에서

인쇄 관련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신연활자본의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그리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예진, 2013, 32-96).

관재 이도영이 그린 채색표지화와 삽화에는 전통 민화적인 소재와 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鮮漢文春香傳(선한문춘향전)」 초판에는 화중화 방식으로 공간을 나눈 후 원 안에 대나무 잎으로 둘러싸인 춘향의 모습을 그려 넣었고, 원 밖에는 우측에 매화나무, 좌측에 오동나무를 그렸다. 춘향의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맛자락은 다소곳하고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며, 굵은 선으로 표현된 나무껍질의 거친 질감은 이도영의 섬세한 기법을 보여준다(〈그림 81〉 참조).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1913)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1914)

〈그림 81〉 관재 이도영의 채색표지화

「增像演藝 獄中佳人」 초판에는 매화와 모란꽃 위로 나비 두 마리가 날아드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전통 민화에서 매화는 고결하고 강인한 지조를, 모란꽃은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박금희, 2014, pp.45-51). 나비 한 쌍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애정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인미애, 2012, p.20.) 그러므로 이 표지화는 춘향과 이도령이 함께 노닐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아한 전서체로 된 표제에다가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색채가 어우러져 전통 민화나 서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그림 81〉 참조).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에는 광한루의 경관이 그려진 서책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나머지 공간은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붉은색과 노란색 국화는 전통 민화에서 고

결함과 숭고함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박금희, 2014, pp.64-66). 이로 볼 때, 「獄中花(春香歌演訂)」 6판의 표지화는 광한루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춘향과 이도령의 고결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도영이 그린 삽화는 「獄中花(春香歌演訂)」 4판에 2장, 6판에 3장, 17판에 6장이 수록되어 있다. 「선한문춘향전」 초판에는 6장, 같은 계열의 「증슈춘향전」 4판에 3장, 「증슈춘향전」 초판에 2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에는 7장, 「특별무쌍 춘향전」 4판에는 4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삽화에는 이도영의 인장인 ‘貫齋’가 여러 형태로 찍혀 있다. 삽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문학적인 측면과 회화적인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및 배경에 대한 묘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여, 하나의 그림 속에 해당 대목의 사건을 충분히 담아내었다. 이처럼 이도영이 그린 삽화는 단순히 그림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소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시각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선묘(線描)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부감법과 원근법, 음영법을 적용하여 인물, 사건, 배경을 입체적이고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다. 이도영은 인물과 자연물을 위에서 아래로 조망하듯이 묘사하여 그림 속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근경과 중경, 원경을 모두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림의 여백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인물의 위치가 그림의 좌측이나 우측 하단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위와 같은 이도영의 삽화는 1797년(정조 21)에 간행된 『오륜행실도』에 수록되어 있는 목판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오륜행실도』의 목판화는 원경에 해당하는 배경 묘사를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생략하였다. 반면에 이도영의 삽화는 근경과 중경은 물론 원경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 배경을 충실히 전달해주는 시각 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이도영은 전통 회화와 목판화의 기법을 계승하고 서구적인 회화 기법을 적용하되, 소설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충실히 전해질 수 있는 삽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그림 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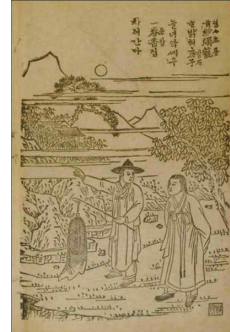
4판(1913) 오리명에 리도령을 작별한다



4판(1913) 어스가 춘향을 옥에 가 찾다



6판(1914) 리도령이 광한루에 춘향을 부른다



17판(1921) 靑紗蜀籠 불 밝혀 房子 들너 압세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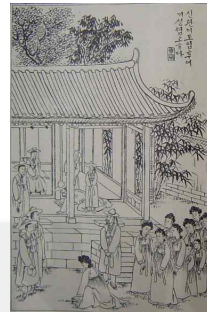
「獄中花(春香歌演訂)」의 삽화



리도령이 방죽 보너 춘향을 부른다



춘향모가 단을 모아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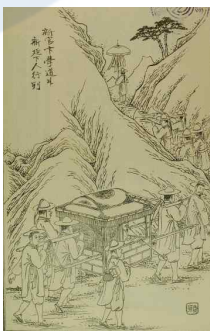


신관이 도입후에 기성점고한다



어스가 출도함미 춘향모가 춤을 춘다

「선한문춘향전」 초판(1913)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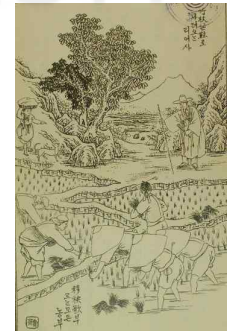
신관 도입 행렬



옥에 갇힌 춘향과 해몽하는 장님



어사 출도 하는 장면



이어사와 농부의 대화

「증상연예옥중가인」 초판(1914)의 삽화



〈그림 82〉 관재 이도영의 삽화와 낙관

6.3.3.2 우석 김기창

우석 김기창은 호접도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김기창의 후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한국전쟁 후 공주시 정안면에 정착하였고 나비를 잘 그려서 김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유작으로는 1956년에 그린 나비그림 1점이 전해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¹⁴⁶⁾ 김기창이 주로 삽화가로 활동했던 시기는 신연활자본의 간행년도를 고려할 때, 1920년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김기창의 삽화는 「만고렐녀 춘향전」 초판(1925)에 12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그림이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1925)에도 실려 있다. 「만고렐녀 심청전」(1926)에도 인물삽화 1장과 장면삽화 6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삽화들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형태로 그렸으며, 한 면을 상하로 나눠 2장씩 수록되어 있다. 위 그림에는 낙관이 없고 아래 그림에 ‘愚石 金基昌’이라는 낙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찍혀 있다. 삽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문학적인 측면과 회화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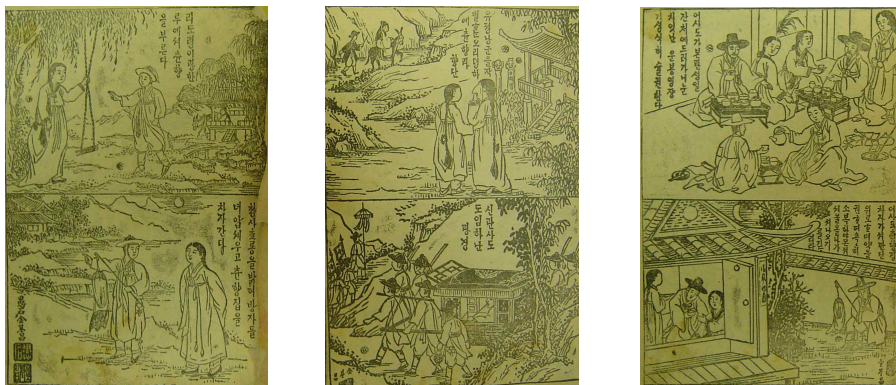
첫째,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으며, 건물이나 자연물 등 공간적 배경은 단순하거나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독자들이 그림 속에 묘사된 인물의 움직임과 사건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단순히 소설의 내용을 묘사한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마치 만화를 보는 것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그림이 대체로 평면적이어서 인물과 건물, 자연물을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렸지만 원경에 있는 자연물이나 배경에 비해 근경에 있는 인물이 너무 크게 묘사되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또한 선묘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선이 굵고 거칠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의 정교함이 떨어진단다.

이와 같이 김기창의 삽화는 전통 회화나 목판화의 기법에서 다소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삽화들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흥미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림의

14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t84215&logNo=221100194091>

묘사와 구도가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이도영의 삽화에 비해 회화적인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그림 8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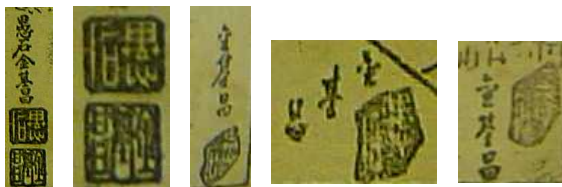
(위) 리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부른다 (위) 유경양군을 작별하는 오리명하에 춘향 (위) 어사도가 본관 심일 간척에 드러가니
(아래) 청사효룡 방자 들녀 압세우고 춘향... (아래) 신관사도 도입하난 광경 (아래) 어사도 춘향집 차자가서 만단위로...

「만고려녀 춘향전」 초판(1925)의 삽화



(위) 심봉사와 현철현 광시부인 (위) 아버지 림고푸살가 밥 얻어 들고오는 심청 (위)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장남잔차에 오사난가
(아래) 후덕하신 동네부인 이 아히 젓 줌... (아래) 몸을 팔어 가는 심청이를 싸 안고... (아래) 님 팔이면 어디 보자 두 눈이 번쩍...

「만고려녀 심청전」 초판(1926)의 삽화



〈그림 83〉 우석 김기창의 삽화와 낙관

VII. 결론

본 연구는 판소리계 소설의 필사 및 간행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각 소설별로 사본과 간행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계열을 구분하였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변모 양상, 지역별 분포 현황과 특징, 채색표지화와 삽화에 나타난 소설의 시각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서지적 특징과 계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은 ‘창자가 연행하던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되어 독서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형태의 소설로 개작된 문학작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판소리 사설이 개작을 거쳐 독서물 형태의 소설로 정착되었고,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형태로 모두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오늘날 판소리 사설과 소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현전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180종 316책으로 확인되었다. 소설별로는 『춘향전』 82종 117책, 『심청전』 57종 89책, 『토끼전』 41종 50책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사본 117종 117책, 목판본 33종 70책, 신연활자본 30종 129책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860년대 2종 2책, 1880년대 9종 10책, 1890년대 24종 25책, 1900년대 29종 32책, 1910년대 73종 135책, 1920년대 27종 87책, 1930년대 13종 16책, 1940년대 3종 9책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사본은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종수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은 『춘향전』에 비해 『심청전』과 『토끼전』의 종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본을 필사한 세책업자나 개인 독자들은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에 모두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각업자와 출판업자들은 『심청전』이나 『토끼전』보다 『춘향전』의 상업성과 대중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판소리계 소설은 한글과 한문, 국한문혼용 등 여러 문자로 표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글본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본은 151종 247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국한문혼용본은 24종 61책, 한문본은 5종 8책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판소리계 소설이 양반과 중인, 평민 독자들 사이에서 널

리 읽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판소리계 소설은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 기타 계열의 사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은 사본 64종 64책, 목판본 17종 38책이고, 기타 계열은 사본 27종 27책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본문에 판소리 사설의 문체나 어투가 남아 있고, 독자가 선호하는 대목이나 삽입가요가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을 읽고 나서 자기 생각과 취향에 맞는 이야기로 개작하는 독자 또는 개인 필사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소리계 소설은 형성기(1860~1880년대)에 판소리 사설을 이야기 형태로 개작하여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발달기(1880~1920년대 중반)에는 사본이 증가하고 방각본과 신연활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어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쇠퇴기(1920년대 후반~1940년대)에는 사본과 간행본의 제작 및 유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형성기에는 『춘향전』 7종 8책, 『심청전』 1종 1책, 『토끼전』 3종 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8종 8책과 목판본 3종 4책으로 확인되었다. 『춘향전』은 1860년대에 산문체로 개작된 사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점차 판소리 사설과 문체가 가미된 형태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심청전』과 『토끼전』은 1880년대에 들어서야 창본 계열의 사본이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산문체로 개작된 소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발달기에는 『춘향전』 66종 155책, 『심청전』 46종 74책, 『토끼전』은 34종 43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92종 92책, 목판본 28종 58책, 신연활자본 26종 122책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 모두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꾸준히 필사되었으며,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사본은 191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경판본 『춘향전』과 『심청전』이 창본의 사설과 율문체를 축소하고 산문체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도록 개작되었다면, 『토끼전』은 사건 중심으로 축약되어 서사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이야기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완판본은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 모두 판소리 창본을 개작하여 간행되었다. 그런데 『춘향전』과 『심청전』이 재담이나 삽입가요, 후일담을 첨가하여 분량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간행되었다면, 『토끼전』은 봉건 사회의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풍자한 내용을 축약시킨 형태로만 간행되었다. 또한 신연활자본 『춘향전』과 『심청전』은 춘향의 정절과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는 주제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토끼전』은 토끼와 별주부, 용왕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 판본도 있고, 특정 인물만을 옹호하거나 비판적으로 서술한 판본도 있다. 기타 계열의 『춘향전』과 『심청전』은 개작의 폭이 넓지 않고, 해학성과 골계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면, 『토끼전』은 인물의 성격부터 결말의 재구성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작되었다.

쇠퇴기에는 『춘향전』 11종 22책, 『심청전』 10종 14책, 『토끼전』 4종 4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형태별로는 사본 16종 16책, 목판본 2종 8책, 신연활자본 7종 16책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기타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었으며, 목판본은 완판본 『춘향전』, 신연활자본은 옥중화 계열의 『춘향전』만 간행되었다. 지나친 상업화와 출판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책이 유통되었고, 판소리계 소설의 서사 구조가 획일화되어 독자들의 다양한 흥미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판소리계 소설은 서울과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2종, 전라도 24종, 충청도 10종, 경기도 9종, 경상도 6종, 강원도 2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주로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과 옥중화/강상련/불로초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다.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가 발달한 전라도에서는 주로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과 목판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으며, 중고제 판소리가 발달한 충청도에서도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필사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의 목판본이 주로 간행되었으며, 창본 및 완판본 계열과 옥중화 계열의 사본도 필사되었다. 경상도에서는 창본 및 완판본 계열의 사본이 전해지고 있어서, 전라도에서 성행한 판소리와 완판본이 경상도 지역

에서도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신연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은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해 소설의 인물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설의 상품적 가치를 높였다. 채색표지화는 『춘향전』 15종, 『심청전』 6종, 『토끼전』 3종에 사용되었으며, 주로 소설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여 독자들이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삽화는 『춘향전』 9종과 『심청전』 4종에 수록되어 있으며, 주로 장면 삽화와 인물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춘향전』과 『심청전』, 『토끼전』의 장면 삽화는 인물과 사건, 배경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는 방식에서 인물의 행동을 확대하고 배경은 간략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춘향전』의 인물 삽화는 춘향과 이도령, 방자, 향단, 춘향모 등 여러 인물을 그렸다면, 『심청전』의 인물 삽화는 심청을 묘사한 그림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삽화들은 소설의 인물과 사건, 배경을 독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해주고 있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판소리계 소설은 일부 독자층이 즐기던 소설에서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본과 목판본, 신연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한글본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필사 및 간행 과정에서 독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변모하였다. 사본은 판소리 사설 중에서 인기 있는 대목을 적극 수용하고, 권선징악적인 서사 구조와 인물 간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개작되었다. 겉으로는 정절과 충효를 강조하여 유교적 규범을 중시하면서도 속으로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였다. 경판본은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서사 구조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성을 얻었다면, 완판본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설이나 삽입가요를 추가하여 문학적으로 풍부하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신연활자본은 채색표지화와 삽화를 통해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하였으며, 시각적인 즐거움과 더불어 소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판소리계 소설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꾸준히 필사 및 간행되어, 가장 인기 있는 대중소설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구사회, 김규선, 이대형, 이미라, 박상석, 유춘동. (2013). 『송만재의 관우희 연구』. 서울: 보고사.
- 김동건. (2001). 『토끼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건. (2003). 『토끼전 연구』. 서울: 민속원.
- 김대행. (2000). 판소리란 무엇인가. 13-36.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영진. (1996).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철. (1996a). 『판소리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종철. (1996b).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서울: 역사비평사.
- 김진영. (2000).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관계. 199-210.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재웅. (2014).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과 문화지도 작성. 『대동문화연구』, 88, 231-262.
- 김예진. (2013). 『貫齋 李道榮의 미술활동과 회화세계』.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곡삼변. (1985). 『朝鮮後期 小說讀者研究』.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류준경. (2003).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 31, 77-107.
- 박금희. (2014). 『민화 화조화의 소재와 상징에 관한 고찰』.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1995).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319-361. 『문학과 사회집단』. 서울: 집문당.
- 방효순. (2001).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연형. (2008). 『판소리 소리책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서대석. (2000). 판소리의 기원. 89-106.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서유리. (2009). 딱지본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 52-75.

- 서종문. (2006). 『판소리의 역사적 이해』. 서울: 태학사.
- 서혜은. (2017).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서울: 새문사.
- 신호림. (2016).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춘근. (2004).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서울: 범우사.
- 유광수. (2010).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29, 443-474.
- 유영대. (2000). 판소리의 유파와 기법적 특징. 107-120.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민희. (2007a).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서울: 역락.
- 이민희. (2007b). 『조선의 베스트셀러』. 서울: 프로네시스.
- 이옥성. (2015). 신연활자본 춘향전의 채색표지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4, 255-291.
- 이윤석. (2015a). 한글 고소설의 탄생과 유통. 『人文科學』, 105, 5-37.
- 이윤석. (2015b). 고소설의 작자와 독자. 『洌上古典研究』, 43, 115-147.
- 이윤석, 대곡삼변, 정명기. (2003). 『賞冊 古小說 研究』. 서울: 혜안.
- 이주영. (1998).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서울: 월인.
- 이진오. (2012). 서울대본 토끼전의 이본적 특징. 『판소리연구』, 34, 235-254.
- 이진오. (2014). 『토끼전의 계통과 지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 (2018). 완판방각본의 유통 연구. 『洌上古典研究』, 61, 144-171.
- 이창현. (2000).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창현. (2005). 한국 고전소설의 표기 형식과 유통 방식. 226-250.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서울: 돌베개.
- 인권환. (1991). 토끼傳群 결말부의 변화양상과 의미. 『한국학』, 14(3), 163-185.
- 인미애. (2012). 『조선 후기 호접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철. (1997).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연구』. 서울: 민속원.
- 임성래. (2008). 『조선 후기의 대중소설』. 서울: 보고사.
- 임형택. (1974). 18·1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한국학논집』, 2, 285-304.
- 장효현. (2002). 『韓國古典小說史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전상욱. (2006).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상욱. (2008).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소설연구』, 26, 239-274.
- 정명기. (2001).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古小說研究』, 12, 445-480.
- 정충권. (2002). 대중예술로 본 판소리의 미적 특성. 『국문학연구』, 8, 111-137.
- 정충권. (2005). 판소리계 소설의 민중성과 대중성. 『개신어문연구』, 23, 201-217.
- 정병설. (2005).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 263-297.
- 조동일. (1994a). 『한국문학통사 3』. 서울: 지식산업사.
- 조동일. (1994b). 『한국문학통사 4』. 서울: 지식산업사.
- 조동일, 김흥규. (1978). 『판소리의 이해』.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천해봉. (2007).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 최동현. (2000). 판소리 명창과 더늠. 121-134.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정락. (1998). 판소리계 소설과 판소리 사설 사이의 변별적 거리. 『고소설연구』, 4, 59-88.
- 최진형. (2008).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판소리 연구』, 25, 310-337.
- 최진형. (2016). 판소리계 소설 개념 재론. 『인문과학』, 60, 399-429.
- 최호석. (2013a). 활자본 고전소설 유형에 관한 연구. 『우리文學研究』, 38, 224-251.
- 최호석. (2013b). 활자본 고전소설 총량에 관한 연구. 『古典文學研究』, 43, 254-294.
- 판소리학회. (2000).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국고소설학회. (2019). 『한국고소설강의』. 서울: 돌베개.
- 허호구, 강재철. (1998). (譯注)春香新說·懸吐漢文春香傳. 서울: 以會文化社

2.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우석 김기창 선생의 손자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t84215&logNo=221100194091>>

부 록

1. 『춘향전』

1.1 寫本

1.1.1 세책본 및 경판본 계열

남원고소. 卷1~5 / [著者未詳]

寫本

[누동] : [刊寫者未詳], 高宗 1(1864)~
高宗 6(1869)

5卷1冊(216張): 無界, 半葉 12行15~
18字, 無魚尾 ; 17.5×27 cm

筆寫記: 卷1 세갑즈(1864)하늬월망간필서
卷2 세갑지(1864)늬월넌오필서 卷3 세지갑즈
(1864)칠월상순누동필서 卷4 세기스(1869)구
월넌오필서 卷5 기스(1869)구월넌팔누동필서
소장처: 파리 대학언어문명도서관

춘향전. 卷1~10 / [著者未詳]

寫本

[향목동] : [刊寫者未詳], 光武 4(1900)
~隆熙 5(1911)

10卷 10冊(287張): 無界, 半葉 11行13
~15字, 無魚尾 ; 18.5×21.0 cm

筆寫記 : 卷1 세기유(1909)구월일향목동서,
卷2 세기유(1909)구월일향목동서, 卷3 세기
유(1909)십월일향목동서, 卷4 세기유(1909)십
월일향목동서, 卷5 세신희(1911)스월일향목동
서, 6卷 세갑진(1904)늬월향목동서, 卷7 세신희
(1911)스월일향목동서, 卷8 세경즈(1900)
구월일향목동서, 卷9 세신희(1911)스월일향
목동서, 卷10 세신희(1911)스월일향목동서
소장처: 일본 東洋文庫

춘향전. 卷1~2 / [著者未詳]

寫本

[은곡] : [刊寫者未詳], 光武 6(1902)

2卷 1冊(73張): 無界, 半葉 12~13行
24~28字, 無魚尾 ; 23.0×26.0 cm

筆寫記: 壬寅(1902)孟秋 세직임인팅츄
염삼일은곡필서

소장처: 이재수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10(1906)

1冊(52張): 無界, 半葉 12行34~40字,
無魚尾 ; 20.3×32.2 cm

筆寫記: 병오(1906)정월회일의종니라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춘향전. 卷1~9 / [著者未詳]

寫本

[간동] : [刊寫者未詳], 隆熙 1(1907)

9卷 2冊(238張): 無界, 半葉 10行16~
19字, 無魚尾 ; 18.2×27.5 cm

筆寫記: 세정미(1907)슴월일간동서

소장처: 일본 阿川文庫

별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淸州] : [刊寫者未詳], 隆熙 3(1909)

1冊(42張): 無界, 半葉 11行24~29字,
無魚尾 ; 23.0×26.0 cm

筆寫記: 기유(1909)연十二月 초一日 필서라

소장처: 충남대학교 학산문고

1.1.2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 판소리 창본 개작

춘향가타령이라. / [著者未詳]

寫本

[동춘] : [송운서], 光武 5(1901)

1冊(35張): 無界, 半葉 11~12行28~35字, 無魚尾 ; 24.7×26.0 cm

筆寫記: 신축(1901)중추동춘송운서등서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44

1冊(39張): 無界, 半葉 12行15~18字, 無魚尾 ; 17.1×19.3 cm

筆寫記: 갑신(1944)十一月十二日솔필

소장처: 김광순

2) 완판본 전사 또는 개작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18(1881)

1冊(30張): 無界, 半葉 11~13行24~30字, 無魚尾 ; 24.5×21.5 cm

筆寫記: 辛巳(1881)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別春香傳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30(1893)

1冊(30張): 無界, 半葉 11~12行34~38字, 無魚尾 ; 20.8×25.1 cm

筆寫記: 冊主李氏宅辛卯(1893)…癸巳戊

■未時始畢…

소장처: 김진영

별춘향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小石] : [刊寫者未詳], 建陽 1(1896)

1冊(26張): 無界, 半葉 12行28~30字, 無魚尾 ; 19.5×24.2 cm

筆寫記: 丙申(1896)正月初十日膳 丙申元月初十日終 小石

소장처: 김일근

별춘향전 중 別春香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建陽 1(1896)

1冊(52張): 無界, 半葉 12行24~28字, 無魚尾 ; 23.8×27.9 cm

筆寫記: 丙申(1896)十二月 …

소장처: 사재동

별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安城] : [柳洋根], 光武 1(1897)

1冊(94張): 無界, 半葉 8行18~27字, 無魚尾 ; 11.7×21.0 cm

筆寫記: 丁酉(1897)十月初十日 京畿安城郡居士人柳洋根

藏書記: 大日本稿本蘇洲應需書之 丁酉冬至月初七日校閱了 全羅道南平望美樓 日本漫遊士 稿本蘇洲

소장처: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春香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柳景烈], 光武 3(1899)

1冊(40張): 無界, 半葉 10~11行23~29字, 無魚尾 ; 19.0×29.4 cm

筆寫記: 己亥(1899)正月…柳景烈執筆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용계] : [刊寫者未詳], 隆熙 1(1907)

1冊(59張): 無界, 半葉 9~12行24~29字, 無魚尾 ; 23.5×26.4 cm

筆寫記: 정미(1907)십니월 ... 용계양곡
선인등서호노라

소장처: 박순호

별춘향가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2(1908)

1冊(28張): 無界, 半葉 12行38~44字,
無魚尾 ; 22.0×34.0 cm

筆寫記: 무신(1908)삼월초팔일이라

소장처: 김광순

별춘향가. / [著者未詳].

寫本

[淸州] : [刊寫者未詳], 隆熙 3(1909)

1冊(39張): 無界, 半葉 14行22~27字,
無魚尾 ; 21.6×34.0 cm

筆寫記: 己酉(1909)陰二月旬七夕終 ...

藏書記: 忠淸北道 淸州郡 北面...

소장처: 국회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1

1冊(75張): 無界, 半葉 10~11行21~25字, 無魚尾 ; 21.0×23.0 cm

筆寫記: 明治四十四年(1911)三月十五日

소장처: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春香歌. / [著者未詳]

寫本

[安東] : [刊寫者未詳], 1911

1冊(30張): 無界, 半葉 10行23~27字,

無魚尾 ; 24.5×27.8 cm

筆寫記: 辛亥(1911)孟春 松軒新騰

藏書記: 冊主 安東郡 臨下面

소장처: 권영철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3

1冊(51張): 無界, 半葉 10~13行23~28字, 無魚尾 ; 22.5×23.5 cm

筆寫記: 계축(1913)연십이월십오일...

소장처: 사재동

열녀춘향수절가라. / [著者未詳]

寫本

[馬東] : [刊寫者未詳], 1914

1冊(33張): 無界, 半葉 11~12行31~35字, 無魚尾 ; 19.3×29.0 cm

筆寫記: 갑인(1914)중추신동흙

藏書記: 馬東面 長○里

소장처: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別春香傳抄 別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靑原] : [刊寫者未詳], 1914

1冊(94張): 無界, 半葉 10~11行23~26字, 無魚尾 ; 23.5×26.4 cm

筆寫記: 忠北 靑原郡 龍興面 ... 大正三年(1914) 陰正月十八日

소장처: 박순호

열여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5

1冊(90張): 無界, 半葉 9~12行19~22字, 無魚尾 ; 19.7×28.0 cm

筆寫記: 을묘(1915)셋달 ... 西溪書舖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6

1冊(50張): 無界, 半葉 12行24~26字,
無魚尾 ; 23×24.4 cm

筆寫記: 병진(1916)정월초구일필서라...

소장처: 김진영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淸州] : [刊寫者未詳], 1917

1冊(72張): 無界, 半葉 13~14行24~27
字, 無魚尾 ; 22.1 × 25.3 cm

筆寫記: 大正六年(1917)丁巳四月拾八日
淸州東村新版 ...

소장처: 충남대학교 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槐山] : [刊寫者未詳], 1918

1冊(67張): 無界, 半葉 13行25~26字,
無魚尾 ; 19.8×26.5 cm

筆寫記: 戊午年(1918)三月二十四日 槐
山郡七星面雙谷里抄 ...

소장처: 충주박물관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8

1冊(59張): 無界, 半葉 10~12行28~30
字, 無魚尾 ; 21.9×33.9 cm

筆寫記: 춘향전 단 大正七年(1918)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별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9

1冊(70張): 無界, 半葉 12~14行21~27
字, 無魚尾 ; 17×28.3 cm

筆寫記: 기미(1919)남월이십구일 필초라...

소장처: 사재동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7

1冊(61張): 無界, 半葉 10~11行25~31
字, 無魚尾 ; 18.0×29.0 cm

筆寫記: 丁卯(1927)正月二十四日 終

소장처: 김광순

1.1.3 옥중화 계열

옥중화. / [著者未詳]

寫本

[中谷洞] : [李容澈], 1912

1冊(89張): 無界, 半葉 12~15行23~28
字, 無魚尾 ; 24.7×26.0 cm

筆寫記: 明治四十五年(1912)七月二十日
... 中谷洞 ... 李容澈駿筆 ...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옥중화.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4

1冊(54張): 無界, 半葉 11~13行31~35
字, 無魚尾 ; 21.0×26.9 cm

筆寫記: 甲寅(1914)八月初九日始書하여
八月十九日畢謄冊主陣命錫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訂正五刊 獄中花.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6~1916

1冊(77張): 無界, 半葉 12行21~26字,
無魚尾 ; 20.6×23.0 cm

筆寫記: 乙卯(1915)正月二十七日始 丙
辰(1916)正月二十六日終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옥중화라 춘향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江陵] : [刊寫者未詳], 1916

1冊(71張): 無界, 半葉 12行24~29字,
無魚尾 ; 19.5×30.2 cm

筆寫記: 江陵郡 沙川面 芦洞里 後洞
膳書 丙辰(1916)正月二十三日 膳書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獄中花 春香歌演訂. / [著者未詳]

寫本

[산정리] : [刊寫者未詳], 1925

1冊(64張): 無界, 半葉 12行21~26字,
無魚尾 ; 22.5×19.1 cm

筆寫記: 冊主 河應甲 乙丑(1925)十二月
二日 加衣 … 筆執 山亭里 金成道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증상연에옥중가인. / [著者未詳]

寫本

[新林] : [刊寫者未詳], 1930

1冊(151張): 無界, 半葉 9~10行19~21
字, 無魚尾 ; 21.9×24.8 cm

筆寫記: 庚午(1930)正月五日 ■抄 … 新
林面 松龍理 …

소장처: 박순호

옥중가인. / [著者未詳]

寫本

[부산] : [刊寫者未詳], 1944

1冊(88張): 無界, 半葉 11行23~29字,
無魚尾 ; 22.0×16.3 cm

筆寫記: 소호십팔년 기미십이월초오일 밀
양군…박원히가 부산부 범일정자성덕우겨
시에 시작하여…익연십일십일에필서라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1.1.4 기타 계열

春香新說. / 睦台林

寫本

[泗川] : [刊寫者未詳], 1880~1890

1冊(25張): 無界, 半葉 10行23字, 無魚
尾 ; 19×29.5 cm

筆寫記: 靑鼠仲秋□望序

소장처: 화봉문고(여승구)

추월가. / [著者未詳]

寫本

[漢皓] : [刊寫者未詳], 1914

1冊(20張): 無界, 半葉 12行18~22字,
無魚尾 ; 24.0×33.1 cm

筆寫記: 을스(1905)팔월십사일필 漢皓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3年(1909)

1冊(87張): 無界, 半葉 11~14行20~24
字, 無魚尾 ; 18.5×29.5 cm

筆寫記: 기유(1909)남월二十二日 필중…

소장처: 사재동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鎮川] : [刊寫者未詳], 1911

1冊(68張): 無界, 半葉 12行23~26字,
無魚尾 ; 19×29.5 cm

筆寫記: 明治(1911)四十四年 辛亥十二月
終書 冊主 鎮川 西巖面內 錦城居 李聖烈
소장처: 사재동

춘향전. 卷1~2.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黃仲景], 1914

2卷1冊(69張): 無界, 半葉 16行24~26
字, 無魚尾 ; 25.5×25.3 cm

筆寫記: 甲寅(1914)年正月〇〇 黃仲景 抄記
소장처: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弄腕], 1915

1冊(45張): 無界, 半葉 12行30~38字,
無魚尾 ; 24.0×18.8 cm

藏書記 : 乙卯陽月念潑弄腕

筆寫記: 大正五年(1915)一月十四日 乙
卯(1915)十二月十一日 南湖居士弄腕
소장처: 홍윤표

1.2 刊行本

1.2.1 木板本

1) 경판본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31
(1894) 이전

1冊(30張): 四周單邊, 半郭 20.9×15.2
cm, 無界, 半葉 13~14行23~24字, 上
下向二葉花紋魚尾 ; 27.0×19.0 cm

소장처: 파리 대학언어문명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孝橋] : [刊寫者未詳], 高宗 24(1887)
이전

1冊(30張): 四周單邊, 半郭 21.1×15.8
cm, 無界, 半葉 13~14行23~24字, 上
下向二葉花紋魚尾 ; 27.0×19.0 cm

소장처: 하버드 엔칭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34
(1897) 이전

1冊(30張): 四周單邊, 半郭 21.5×16.1
cm, 無界, 半葉 13~14行23~24字, 上
下向二葉花紋魚尾 ; 27.0×19.0 cm

소장처: 동경외국어대학교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6
(1889) 이전

1冊(23張): 半郭 21.9×17.2 cm, 無界,
半葉 15行21~25字, 上下向黑魚尾 ; 26.1
×22.4 cm

소장처: 한국교회사연구소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7
(1903) 이전

1冊(17張): 四周單邊, 半郭 19.8×15.7 cm, 無界, 半葉 15行21~25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7.0×19.0 cm
藏書記: 陰曆癸卯(1903)四月廿六日 ...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京城]: [翰南書林], 1920

1冊(16張): 四周單邊, 半郭 17.6×15.6 cm, 無界, 半葉 15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8.7×19.6 cm

刊記: 大正九年(1920)八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京城]: [翰南書林], 1921[後刷]

1冊(16張): 四周單邊, 半郭 17.6×15.6 cm, 無界, 半葉 15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3.0×18.3 cm

刊記: 大正十一年(1921)月三十日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 안성판본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安城]: [刊寫者未詳], 光武 10(1906) 이전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20.2×15.3 cm, 無界, 半葉 15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5.0×18.3 cm

藏書記: 병오(1906)정월일공동칙 경술(1910)이월일미동궁낙정동칙

刊記: 안성동문이신판

소장처: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安城]: [北村書舖], 1912[後刷]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20.0×15.5 cm, 無界, 半葉 15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7.0×19.0 cm

刊記: 안성동문이신판

刊記: 明治四十五(1912)年七月

소장처: 김동욱

춘향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安城]: [朴星七書店], 1917[後刷]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20.1×15.3 cm, 無界, 半葉 15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5.0×17.0 cm

刊記: 안성동문이신판

刊記: 大正六年(1917)十一月二十一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3) 완판본

별춘향전이라. / [著者未詳]

木板本

[完西]: [刊寫者未詳], 隆熙 2(1908)

1冊(26張): 四周單邊, 半郭 20.4×15.1 cm, 無界, 半葉 12~14行22~26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5.5×18.3 cm

刊記: 戊申(1908)季秋完西新刊

소장처: 임형택

⊗ 별춘향전이라극상.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多佳書舖], 1914

1冊(29張): 四周單邊, 半郭 20.1×15.1 cm, 無界, 半葉 10~14行21~29字, 上下

內向黑魚尾·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25.1
× 18.4 cm

刊記: 大正三年(1914)十一月二十五日

소장처: 여태명

널 별춘향전이라. / [著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2 이진
1冊(29張): 四周單邊 半郭 19.0×16.3
cm, 無界, 半葉 12~14行21~23字, 上
下內向二葉花紋魚尾·上下內向黑魚尾 混
入 ; 26.9×18.9 cm

藏書記: 壬申(1932)年正月初七日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열녀춘향수절가. / [著者未詳]

木板本

[完山]: [刊寫者未詳], 光武 10(1906)
1冊(33張): 四周單邊 半郭 19.7×16.5
cm, 無界, 半葉 15行25~26字
刊記: 丙午(1906)孟夏完山開刊
소장처: 김동욱

열여춘향수절가라. 卷1~2 / [著者未詳]

木板本

[龜洞]: [刊寫者未詳], 隆熙 2(1908)
2卷1冊(84張): 四周單邊 半郭 20.1×15.8
cm, 無界, 半葉 13行21~24字, 上下內
向黑魚尾 ; 26.4×18.2 cm
刊記: 戊申(1908)仲夏龜洞新刊 … 戊申
(1908)季夏龜洞新刊 …
소장처: 화봉문고(여승구)

열여춘향수절가라. 卷1~2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完興社書舖], 1912

2卷1冊(84張): 四周單邊 半郭 20.1×15.8
cm, 無界, 半葉 13行21~24字數, 上下
內向黑魚尾 ; 26.4×18.3 cm

刊記: 明治四十五年(1912)二月二十二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열여춘향수절가라. 卷1~2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完西溪書舖], 1915 이진
2卷1冊(84張): 四周單邊 半郭 18.7×16.0
cm, 無界, 半葉 13行 21~24字, 上下內向
黑魚尾·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混入 ;
25.5×17.8 cm

刊記: 完西溪書舖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열여춘향수절가라. 卷1~2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多佳書舖], 1916[後刷].
2卷1冊(84張): 四周單邊 半郭 19.9×16.2
cm, 無界, 半葉 13行21~24字, 上下內
向黑魚尾 ; 25.5×18.3 cm

刊記: 大正五年(1916)十月八日發行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열여춘향수절가라. 卷1~2 / [著者未詳]

木板本

[서울]: [朝鮮珍書刊行會], 1949[後刷]
2卷1冊(84張): 四周單邊 半郭 19.2×16.0
cm, 無界, 半葉 13行 21~24字, 上下
內向黑魚尾 ; 28.9× 19.6 cm

刊記: 完西溪書舖

刊記: 1949年 10月 9日 發行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2.2 新鉛活字本

1) 옥중화 계열

訂正四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普及書館], 1913[四版]

1冊(188面): 插圖 3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字數不定, 無魚尾; 21.4×14.9 cm

刊記: 大正二年(1913)六月廿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訂正五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普及書館], 1913[五版]

1冊(188面): 插圖 3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字數不定, 無魚尾; 21.4×14.9 cm

刊記: 大正二年(1913)十月三十日

소장처: 화봉문고(여승구)

訂正六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普及書館], 1914[六版]

1冊(188面): 插圖 4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字數不定, 無魚尾; 21.4×14.9 cm

刊記: 大正三年(1914)二月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訂正七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普及書館], 1914[七版]

1冊(188面): 插圖 4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字數不定, 無魚尾; 21.4×14.9 cm

刊記: 大正三年(1914)十二月廿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17[九版]

1冊(157面): 插圖 4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20.3×14.5 cm

刊記: 大正六年(1917)五月二十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訂正八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勝木良吉]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20[八版]

1冊(18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
行字數不定, 無魚尾; 21.5×15.0 cm

刊記: 大正九年(1920)十二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訂正八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勝木良吉]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21[八版]

1冊(18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
行字數不定, 無魚尾; 21.5×15.0 cm

刊記: 大正十年(1921)十二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21[十七版]

1冊(157面): 插圖 11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20.2×14.4 cm

刊記: 大正十年(1921)十二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訂正八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玄公廉]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普及書館], 1923[初版]

1冊(174面): 插圖 11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20.5×13.5 cm
刊記: 大正十二年(1923)一月二十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盧益亨], 1926[六版]
1冊(157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行
字數不定, 無魚尾; 20.9×14.8 cm
刊記: 大正十五年(1926)十月十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역별춘향가. / [朴頤陽]
新鉛活字本

[京城]: [唯一書館], 1913
1冊(14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
行34~36字, 無魚尾; 21.2×14.6 cm
刊記: 大正二年(1913)七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鮮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東美書市], 1913[初版]
1冊(208面): 插圖 8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35~36字, 無魚尾; 23.0×16.8
cm
刊記: 大正二年(1913)十二月三十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증슈춘향전增修春香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淮東書館], 1918[四版]
1冊(110面): 插圖 6張, 四周無邊, 無界, 半
葉 11~16行35~36字, 無魚尾; 21.0×15.7 cm
刊記: 大正七年(1918)三月十七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슈춘향전增修春香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淮東書館], 1923[初版]
1冊(110面): 插圖 6張, 四周無邊, 無界, 半
葉 11~16行35~36字, 無魚尾; 21.0×15.7 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슈춘향전增修春香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淮東書館], 1924[再版]
1冊(110面): 插圖 6張, 四周無邊, 無界, 半
葉 11~16行35~36字, 無魚尾; 21.0×15.7 cm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新舊書林], 1914[初版]
1冊(221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35~36字, 無魚尾; 21.0×15.8 cm
刊記: 大正三年(1914)四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新舊書林], 1916[四版]
1冊(203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行35~36字, 無魚尾; 23.0×16.2 cm
刊記: 大正五年(1916)一月十三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新舊書林], 1916[五版]
1冊(203面): 插圖 8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行35~36字, 無魚尾; 23.1×16.3 cm
刊記: 大正五年(1916)五月十七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6[六版]
1冊(203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行35~36字, 無魚尾; 23.0×16.2 cm
刊記: 大正五年(1916)十二月十六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7[七版]
1冊(203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行35~36字, 無魚尾; 23.0×16.2 cm
刊記: 大正六年(1917)三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8[八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3.2×16.3 cm
刊記: 大正七年(1918)一月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9[十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2.9×16.0 cm
刊記: 大正八年(1919)三月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9[十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3.0×16.3 cm
刊記: 大正八年(1919)三月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0[十一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1.0×15.4 cm
刊記: 大正九年(1920)十月廿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2[十二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2.2×15.8 cm
刊記: 大正十一年(1922)一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예옥중가인.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3[十三版]
1冊(144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6字, 無魚尾; 21.0×15.4 cm
刊記: 大正十二年(1923)二月二十七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특별무쌍춘향던. / [朴健會]
新鉛活字本
[京城] : [朝鮮書館], 1915[初版]
1冊(148面): 插圖 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5行33~35字, 無魚尾; 22×16.2 cm
刊記: 大正四年(1915)十二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특별무쌍춘향전. / [朴健會]

新鉛活字本

[京城] : [朝鮮書館], 1917[再版]

1冊(149面): 插圖 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5行33~35字, 無魚尾 ; 22.0×16.2 cm

刊記: 大正六年(1917)一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특별무쌍춘향전. / [朴健會]

新鉛活字本

[京城] : [唯一書館], 1920[四版]

1冊(146面): 插圖 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34~35字, 無魚尾 ; 20.0×15.1 cm

刊記: 大正九年(1920)八月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獄中佳花.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 [世昌書館], 1916[初版]

1冊(14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

行35~36字, 無魚尾 ; 22.0×15.8 cm

刊記: 大正五年(1916)一月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獄中佳花.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18

1冊(10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

行34~35字, 無魚尾 ; 21.0×15.3 cm

刊記: 大正七年(1918)十一月廿一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演연訂정春춘香香傳傳전).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 [漢城書館], 1917

1冊(147面): 插圖 1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行35~37字, 無魚尾 ; 22.0×15.4 cm

刊記: 大正六年(1917)九月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 [南宮楔]

新鉛活字本

[京城] : [漢城書館·唯一書館], 1917

1冊(161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9行

28~30字, 無魚尾 ; 20.1×16.4 cm

刊記: 大正六年(1917)七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 [朝鮮圖書株式會社], 1917

1冊(161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9行

28~30字, 無魚尾 ; 22.0×17.1 cm

刊記: 昭和四年(1929)發行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절디가인 춘향전. / [李敏澤]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17[初版]

1冊(10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

13行36~40字, 無魚尾 ; 24.2×17.0 cm

刊記: 大正七年(1918)十一月廿十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新獄中佳人신옥중가인. / [石田孝次郎]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18[初版]

1冊(10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

行35~38字, 無魚尾 ; 24.0×16.9 cm

刊記: 大正七年(1918)十二月廿十四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절디가인 춘향전. / [李敏澤]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22[四版]

1冊(10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13行36~40字, 無魚尾; 24.1×17.2 cm

刊記: 大正十一年(1922)一月三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 / [姜義永]

新鉛活字本

[京城] : [永昌書館·韓興書林], 1925[初版]

1冊(108面): 插圖 13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35~38字, 無魚尾; 21.0×15.2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十月十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만고렐녀 춘향전. / [姜義永]

新鉛活字本

[京城] : [永昌書館·韓興書林], 1925[初版]

1冊(70面): 插圖 1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9行35~36字, 無魚尾; 20.2×16.8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四月二十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딕소설 언문춘향전. / [高裕相]

新鉛活字本

[京城] : [滙東書館], 1925[初版]

1冊(79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35字, 無魚尾; 20.0×16.0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十月三十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만고렐녀 춘향전. / [金東潛]

新鉛活字本

[京城] : [德興書林], 1926[再版]

1冊(70面): 插圖 1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9行35~36字, 無魚尾; 21.0×17.0 cm

刊記: 大正十五年(1926)一月六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懷中 春香傳 춘향전. / [金天熙]

新鉛活字本

[京城] : [廣韓書林], 1928[再版]

1冊(12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31~34字, 無魚尾; 16.9×11.4 cm

刊記: 昭和三年(1928)一月二十六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 [姜義永]

新鉛活字本

[京城] : [永昌書館·韓興書林·振興書館], 1934[初版]

1冊(157面): 插圖 1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6.1 cm

刊記: 昭和十三(1934)十二月二十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만고렐녀 도상옥중화. / [申泰三]

新鉛活字本

[京城] : [世晶書館·三千里書館], 1934[初版]

1冊(190面): 插圖 39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字數不定, 無魚尾; 19.8×14.3 cm

소장처: 한국현대문학관

2) 비옥중화 계열

倫理小說廣寒樓. / [閔濬鎬]

新鉛活字本

[京城] : [東洋書院], 1913年[初版].

1冊(119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3.1×16.6 cm

刊記: 大正二年(1913)四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倫理小說廣寒樓. / [金用濟]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18[再版]

1冊(85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
字數不定, 無魚尾; 19.0×13.0 cm

刊記: 大正七年(1918)十一月二十日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약산동덕 藥山東臺. / [李鍾楨]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 1913[初版]

1冊(171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9行
字數不定, 無魚尾; 20.1×15.2 cm

刊記: 大正二年(1913)十一月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약산동덕 藥山東臺. / [李鍾楨]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21[四版]

1冊(89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
36字, 無魚尾; 19.8×14.1 cm

刊記: 大正十年(1921)三月二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본 춘향전. / [崔昌善]

新鉛活字本

[京城] : [新文館], 1913[初版]

1冊(240面): 四周雙邊, 半郭 17.5×11.7
cm, 無界, 半葉 13行35字, 無魚尾;
21.7×15.1 cm

刊記: 大正二(1913)年十二月二十日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懸吐漢文春香傳. / [俞喆鎮]

新鉛活字本

[京城] : [東昌書屋], 1917[初版]

1冊(88面): 四周雙邊, 半郭 17.0×11.0 cm,
無界, 半葉 10行22字, 無魚尾; 21.3×14.5 cm

刊記: 大正六年(1917)十一月二十日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懸吐漢文春香傳. / [俞喆鎮]

新鉛活字本

[京城] : [東昌書屋], 1923[再版]

1冊(40面): 四周雙邊, 半郭 17.5×11.6 cm,
無界, 14行35字, 無魚尾; 22.2×15.0 cm

刊記: 大正十二年(1923)十二月十五日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原本春香傳(廣寒樓記). / [李鍾一]

新鉛活字本

[京城] : [古今書海], 1918[初版]

1冊(56面): 四周雙邊, 半郭 17.1×11.5 cm,
無界, 13行28字, 無魚尾; 21.5×15.1 cm.

刊記: 大正七年(1918)八月二十日 發行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廣寒樓記. / [水山過客 題; 雲林焦夫 編;
小广主人 評]

新鉛活字本

[南原] : [南原郡廳庶務課], 1924[初版]

1冊(50面): 四周無邊, 無界, 16行32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20.0×13.6cm

發刊辭: 歲癸亥(1923)之菊秋完山 小巖
李東漢

序: 時青蛇端陽 雲林樵客書

刊記: 大正十三年(1924)四月十日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廣寒樓記. / [水山過客 題; 雲林焦夫 編;
小广主人 評]

新鉛活字本

[南原] : [南原郡廳庶務課], 1927[重刊]
1冊(50面): 插圖 4張, 四周無邊, 無界,
16行32字, 註雙行, 無魚尾 ; 19.5×13.4cm
重刊廣寒樓記序: 丁卯(1927) 榴夏又天
堂主人 白定基 書于南城僑居
刊記: 昭和貳年(1927)七月十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우리덜전 권상. / [沈相泰]

新鉛活字本

[京城] : [新明書林], 1925[初版]

1冊(14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
行字數不定, 無魚尾 ; 20.9×14.1 cm
刊記: 大正十三年(1925)四月二十九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오작교(烏鵲橋). / [高裕相]

新鉛活字本

[京城] : [滙東書館·弘文堂], 1927

1冊(103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8
行37字, 無魚尾 ; 19.0×13.0 cm
刊記: 昭和二年(1927)十二月二十五日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2. 『심청전』

2.1 寫本

2.1.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 판소리 창본 개작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南平] : [橋本彰美], 光武 1(1897)

1冊(36張): 無界, 半葉 14行字數不定,
無魚尾 ; 23.1×27.2 cm

筆寫記: 丙申(1896) 二月初十日 丁酉(1897)
冬十月望日 謄書 全羅道 南平 … 蘇
洲 橋本彰美 ○筆

소장처: 하버드 엔칭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2(1898)

1冊(29張): 無界, 半葉 13行字數不定,
無魚尾 ; 20.5×19.8 cm

筆寫記: 무술(1898)정월초팔일 등서

소장처: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심천가라. / [著者未詳]

寫本

[성북리] : [이흥우], 1912

1冊(28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17.0×25.0 cm

筆寫記: 임자(1912)사월이십육일 … 성
북니 이통사호 이흥우 근서

소장처: 사재동

효녀실기심청.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1

1冊(46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17.3×24.8 cm

筆寫記: 시유(1921)원월 이십팔일 슈당
노인 서

소장처: 박순호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37

1冊(59張): 無界, 半葉 8~11行字數不定,
無魚尾 ; 24.0×24.0 cm
筆寫記: 정축(1937)이월십일일 필서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2) 완판본 전사

심청전. 卷1~2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武 4年
(1900) 이후
2卷1冊(48張): 無界, 半葉 14行19~21
字, 無魚尾 ; 19.5×24.8 cm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심청전이라. 卷1~2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3
2卷1冊(77張): 無界, 半葉 11行字數不
定, 無魚尾 ; 28.7×17.4 cm
筆寫記: 계축(1913)원일회일에 박현진
슈는 등서하노라
소장처: 충남대학교 도서관

심청전권지상. 卷1~2 / [著者未詳]
寫本
[安城]: [刊寫者未詳], 1916
2卷1冊(46張): 無界, 半葉 11行字數不
定, 無魚尾 ; 29.5×19.5 cm
筆寫記: 병진(1916) 정월 沈淸傳출천효
녀 심청전상하 出天孝女沈淸傳上下 …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심청전권지상이라. 卷1~2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0

2卷1冊(69張): 無界, 半葉 12行15~17字,
無魚尾 ; 18.0×26.0 cm
筆寫記: 덕정군연(1920)정신삼월초 여를날
소장처: 박순호

심청전권지상이라. 卷1~2 / [著者未詳]
寫本
[淳昌郡 八德面]: [刊寫者未詳], 1922
2卷1冊(64張): 無界, 半葉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28.0×20.5 cm
藏書記: 全○道 淳昌郡 八德面 … 冊主
李己憲 … 壬戌(1922) 十二月拾日 袞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심청전권지상. 卷1~2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7
2卷1冊(72張): 無界, 半葉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27.0×20.8 cm
藏書記: 丁丑年四月日 冊主 李元善
筆寫記: 정축년(1937) 사월이십육일 오
전 팔시의 필서라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3) 완판본 개작

沈淸傳. / [著者未詳]
寫本
[용기리]: [최종임], 光武 3(1899)
1冊(45張): 無界, 半葉 9行字數不定,
無魚尾 ; 28.0×16.2 cm
筆寫記: 기희(1899) 정월 십삼일의 투
필호노라 용기리 최종임은 서호노라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6 (1902)

1冊(44張): 無界, 半葉 13行16~20字, 無魚尾 ; 22.4×21.5 cm

筆寫記: 임인(1902)이월일 등서호노라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심천가.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4 (1910)

1冊(39張): 無界, 半葉 8行21~25字, 無魚尾 ; 16.0×25.5 cm

筆寫記: 大韓 隆熙四年(1910) 歲次 庚戌 二月 十五日 造成也 冊主 鄭南洞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회중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4 (1910)

1冊(49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10.5×25.8 cm

筆寫記: 庚戌(1910) 十二月

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심청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0~30

1冊(87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21.0×31.0 cm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沈淸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31

1冊(72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30.0×21.2 cm

筆寫記: 辛未(1931)至月日 ...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34

1冊(53張): 無界, 半葉 9行20~22字, 無魚尾 ; 19.0×26.0 cm

藏書記: 歲甲戌(1934)十一月念日

筆寫記: 갑술(1934)이월 초오일 寫

소장처: 이태영

2.1.2 경판본 계열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9 (1892)

1冊(12張): 無界, 半葉 12行15~22字, 無魚尾 ; 20.5×29.3 cm

筆寫記: 임진(1892)십이월일의 등서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심청록. / [著者未詳]

寫本

[파곡] : [刊寫者未詳], 光武 2年(1898)

1冊(30張, 零本): 無界, 半葉 10行14~16字, 無魚尾 ; 25.4×17.2 cm

筆寫記: 세지무술(1898)계춘년오파곡서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심청전나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3 (1909)

1冊(63張): 無界, 半葉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19.3×19.2 cm
筆寫記: 기유(1909)삼월초 이일리라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隆熙 5(1911)
1冊(23張): 無界, 半葉 14行28~32字,
無魚尾 ; 34.0×22.7 cm
筆寫記: 신희(1911)시월이십오일필이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안현]: [刊寫者未詳], 1914
1冊(43張): 無界, 半葉 12行21~25字,
無魚尾 ; 29.2×21.3 cm
筆寫記: 갑인(1914)이월초이일안현필서
소장처: 서울대 중앙도서관

2.1.3 강상련 계열

심창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後洞里]: [刊寫者未詳], 1918
1冊(45張): 無界, 半葉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30.0×19.3 cm
筆寫記: 大正七年(1918)陰...後洞里 謄書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沈靑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3
1冊(53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3.3×29.2 cm
筆寫記: 癸亥(1923)十二月二十日 始抄

소장처: 고려대 중앙도서관

출천원여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4
1冊(36張): 無界, 半葉 12行34~37字,
無魚尾 ; 35.3×22.6 cm
藏書記: 丁丑(1937)正月 初七日 加衣
筆寫記: 세직 갑자(1924)정월 초오일
훈송정은 근서호노라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산연명심창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5
1冊(85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18.1×26.8 cm
藏書記: 을축연(1925)정월 乙丑年 正月
소장처: 박순호

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0
1冊(93張): 無界, 半葉 10行14~21字,
無魚尾 ; 17.5×26.5 cm
藏書記: 庚午(1930)八月九日 加衣 ...
소장처: 박순호

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충북 음성군]: [刊寫者未詳], 1933
1冊(30張): 無界, 半葉 16行字數不定,
無魚尾 ; 18.0×27.0 cm
藏書記: 癸酉年(1933)十二月十四日, 冊
主 忠北 陰城郡 大所面 ... 吳東根也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2.1.4 기타 계열

심창전. / [著者未詳]

寫本

[楊平郡] : [刊寫者未詳], 高宗 26(1889)

1冊(56張, 落張): 無界, 半葉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29.8×17.3 cm

藏書記: 京畿道 楊平郡 戊辰(1928)元月初…

筆寫記: 기축(1889)원월십일이 일 필서호노라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심천가. / [著者未詳]

寫本

[부산동] : [刊寫者未詳], 高宗 30(1893)

1冊(32張): 無界, 半葉 11行19~20字, 無魚尾 ; 23.2×15.2 cm

筆寫記: 계사(1893)오월이십사일 절필리라 칙주인의 천석여 癸巳五月二十四日…

소장처: 하버드 앤칭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美恭里] : [刊寫者未詳], 光武 9(1905)

1冊(28張): 無界, 半葉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26.5×18.5 cm

筆寫記: 을스(1905)정월이십오일 종호노라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청가.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1 (1907)

1冊(41張): 無界, 半葉 12行21~23字, 無魚尾 ; 21.0×19.0 cm

筆寫記: 정미(1907)유월이십일의 맞치나…

소장처: 김광순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隆熙 4 (1910)

1冊(33張): 無界, 半葉 9行12~14字, 無魚尾 ; 31.0×21.0 cm

筆寫記: 경술(1910)연 정월이십일 필호노라

소장처: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심청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호난동] : [刊寫者未詳], 隆熙 4(1910)

1冊(27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16.1×25.2 cm

筆寫記: 경술(1910)십월십일일 야익 필호노라 …

소장처: 박순호

沈淸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4

1冊(25張): 無界, 半葉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18.4×20.2 cm

筆寫記: 甲寅(1914)一月二十日 筆寫本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소상팔경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0

1冊(30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18.5×28.0 cm

筆寫記: 덕정구년(1920)陰 시무리십구일…

소장처: 정명기

효여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8
1冊(28張): 無界, 半葉 11行22~24字,
無魚尾 ; 32.9×20.7 cm
筆寫記: 무진(1928)정월염이닐등서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9
2卷1冊(37張): 無界, 半葉 11行23字,
無魚尾 ; 31.3×19.2 cm
筆寫記: 기스(1929)정월 ...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심청전 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36
1冊(39張): 無界, 半葉 11行17~20字,
無魚尾 ; 18.5×28.1 cm
筆寫記: 병즈(1936)이월밍춘이십일...
소장처: 이태영

2.2 刊行本

2.2.1 경판본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京城] : [翰南書林], 1920
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22.0×17.6
cm, 無界, 半葉 15行18~22字, 上下向
二葉花紋魚尾 ; 29.3×20.6 cm
刊記: 大正九年(1908)八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京城] : [翰南書林], 1920[後刷]
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21.7×18.0
cm, 無界, 半葉 15行18~22字, 上下向
二葉花紋魚尾 ; 23.5×19.2 cm
刊記: 大正九年(1920)九月九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宋洞] : [刊寫者未詳], 19세기 후반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25.0×23.0
cm, 無界, 半葉 15行25~30字, 上下向
二葉花紋魚尾 ; 32.0×25.0 cm
刊記: 宋洞新刊
소장처: 세종대 학술정보원

2.2.2 안성판본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安城] : [刊寫者未詳], 19세기 후반
1冊(21張): 四周單邊 半郭 19.8×17.2
cm, 無界, 半葉 15行23~29字, 上下內
向黑魚尾 ; 23.4×19.2 cm
藏書印: 在山樓蒐書之一
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安城] : [朴星七書店], 1917
1冊(21張): 四周單邊 半郭 24.2×18.8
cm, 無界, 半葉 15行23~29字, 上下內
向黑魚尾 ; 28.4×19.1 cm
刊記: 明治四十五年(1917)七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2.2.3 완판본

심청가 라. / [著者未詳]

木板本

[完西] : [刊寫者未詳], 光武 2(1898)

1冊(41張): 四周單邊 半郭 21.1×15.5 cm, 無界, 半葉 16行23~28字, 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混入 ; 26.4×18.9 cm

刊記: 戊戌仲秋完西新刊

소장처: 이태영

심청전이라. / [著者未詳]

木板本

[完山] : [刊寫者未詳], 光武 9(1905)

2卷1冊(71張): 四周單邊 半郭 23.1×15.4 cm, 無界, 半葉 13行21~22字, 上下內向黑魚尾 ; 28.5×19.2 cm

刊記: 乙巳(1905)未月完山開刊(상권), 乙巳(1905)仲秋完山開刊(하권)

소장처: 세종대 학술정보원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完西] : [西溪書舖], 隆熙 5(1911)

2卷1冊(71張): 四周單邊 半郭 19.3×16.3 cm, 無界, 半葉 13行21~22字, 上下內向黑魚尾 ; 26.7×18.2 cm

刊記: 大韓光武十年(1906) 丙午孟秋完西溪新刊

판권지: 治四十四年(1911)八月二十二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完西] : [西溪書舖], 隆熙 5(1911)[後刷]

2卷1冊(71張): 四周單邊 半郭 20.2×17.0 cm, 無界, 半葉 13行21~22字, 上下內向黑魚尾 ; 25.5×19.2 cm

刊記: 孟秋完西溪新刊

판권지: 治四十四年(1911)八月二十二日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 [多佳書舖], 1916

2卷1冊(71張): 四周單邊 半郭 18.8×16.5 cm, 無界, 半葉 13行21~22字, 上下內向黑魚尾 ; 26.1×18.8 cm

刊記: 大正五年(1916)十月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청전. / [著者未詳]

木板本

[全州] : [多佳書舖], 1916[後刷]

2卷1冊(71張): 四周單邊 半郭 20.0×15.5 cm, 無界, 半葉 13行21~22字, 上下內向黑魚尾 ; 24.9×18.3 cm

刊記: 大正五年(191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2.2.2 新鉛活字本

1) 강상련 계열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 1912[初版]

1冊(12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字數不定, 無魚尾 ; 21.0×15.0 cm

刊記: 大正元年(1912)十一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 1913[三版]
1冊(12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
字數不定, 無魚尾 ; 21.0×15.0 cm
刊記: 大正二年(1913)九月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4[四版]
1冊(12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
字數不定, 無魚尾 ; 21.0×15.0 cm
刊記: 大正三年(1914)五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6[五版]
1冊(111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字數不定, 無魚尾 ; 21.0×15.3 cm
刊記: 大正五年(1916)一月二十四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7[八版]
1冊(111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字數不定, 無魚尾 ; 21.0×15.3 cm
刊記: 大正六年(1917)六月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8[八版]
1冊(75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字數不定, 無魚尾 ; 21.1×15.7 cm
刊記: 大正七年(1918)二月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9[九版]
1冊(75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字數不定, 無魚尾 ; 21.0×15.5 cm
刊記: 大正八年(1919)一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0[十版]
1冊(111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字數不定, 無魚尾 ; 21.1×15.2 cm
刊記: 大正九年(1920)二月二十六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1[十一版]
1冊(111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字數不定, 無魚尾 ; 21.0×15.1 cm
刊記: 大正十年(1921)二月二十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강상련(江上蓮).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22[十二版]
1冊(111面): 插圖 10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字數不定, 無魚尾 ; 21.2×15.4 cm
刊記: 大正十一年(1922)二月二十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명 심청전. / [洪淳模]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博文書館·漢城書館], 1917[六版]
 1冊(8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5行
 字數不定, 無魚尾 ; 21.3×15.8 cm
 刊記: 大正六年(1917)九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증상연명 심청전. / [洪淳模]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博文書館], 1922[十版]
 1冊(72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
 字數不定, 無魚尾 ; 21.3×15.4 cm
 刊記: 大正十一年(1922)九月二十四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교명 심청전. / [洪淳模]
 新鉛活字本
 [京城] : [光東書局, 博文書館, 漢城書館], 1920[六版]
 1冊(6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
 27~28字, 無魚尾 ; 21.9×15.0 cm
 刊記: 大正九年(1920)一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교명 심청전. / [玄公廉]
 新鉛活字本
 [京城] : [大昌書院], 1920
 1冊(6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
 27~28字, 無魚尾 ; 21.5×15.0 cm
 刊記: 大正九年(1920)十二月三十一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딕소설 심청전. / [高裕相]
 新鉛活字本
 [京城] : [滙東書館], 1925

1冊(5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
 35字, 無魚尾 ; 21.0×16.0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十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교명 심청전. / [趙鍾虎]
 新鉛活字本
 [京城] : [時文堂書店·海東書館], 1928
 1冊(54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
 35字, 無魚尾 ; 21.0×16.0 cm
 刊記: 昭和三年(1928)十一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심청전. / [盧益煥]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30
 1冊(5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8行
 36字, 無魚尾 ; 21.2×15.6 cm
 刊記: 昭和五年(1930)二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교명 심청전. / [姜夏聲]
 新鉛活字本
 [京城] : [太華書館], 1931
 1冊(54面): 插圖 2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35字, 無魚尾 ; 21.0×16.0 cm
 刊記: 昭和六年(1931)二月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만고효녀 심청전. / [金東縉]
 新鉛活字本
 [京城] : [德興書林], 1926[再版]
 1冊(56面): 插圖 7張, 四周無邊, 無界, 半葉 17行34~36字, 無魚尾 ; 21.5×14.8 cm
 刊記: 大正十五年(1926)一月十五日
 소장처: 개인소장

2) 비강상련 계열

심청전. / [崔昌善]

新鉛活字本

[京城] : [新文館], 1913

1冊(48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
30字, 無魚尾 ; 15.0×11.0 cm

刊記: 大正二年(1913)九月五日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정심청전 몽금도전. / [盧益亨]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16

1冊(80面): 四周無邊, 無界, 半葉 15行
字數不定, 無魚尾 ; 21.0×15.1 cm

刊記: 大正五年(1916)六月十四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3. 『토끼전』

3.1 寫本

3.1.1 창본 및 완판본 계열

1) 판소리 창본 개작

토끼전다.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2
(1885)

1冊(36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2.0×21.0 cm

筆寫記: 으류연(1885) 이월초...뱃긴 칩이라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鰲兔歌.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4
(1887)

1冊(43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1.8×21.0 cm

筆寫記: 丁亥(1887) 臘月 旬望間 華川新
社 錦南 筆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획기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7
(1890)

1冊(45張): 無界, 半葉 12行25~28字,
無魚尾 ; 25.2×16.1 cm

筆寫記: 경년(1890) 납월 효일일 필서라

소장처: 국립국어원

별주부전. / [著者未詳]

寫本

[全羅道 南平] : [橋本彰美], 光武 1
(1897)

1冊(21張): 無界, 半葉 14行字數不定,
無魚尾 ; 23.1×27.2 cm

筆寫記: 丙申(1896) 二月初十日 丁酉(1897)
冬十月望日 謄書 全羅道 南平...蘇洲 橋

本彰美 ○筆

소장처: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특기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6
(1902)

1冊(28張): 無界, 半葉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28.3×18.9 cm

筆寫記: 壬寅(1902) 正月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수궁녹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隆熙 2
(1908)

1冊(20張): 無界, 半葉 12行22~27字,
無魚尾 ; 25.5×22.5 cm

筆寫記: 隆熙歲在戊申(1908)正月念日...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수궁녹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3

1冊(22張): 無界, 半葉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23.2×21.0 cm

筆寫記: 癸酉(1933) 六月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별주부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隆熙 3
(1909)

1冊(35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2.0×19.0 cm

筆寫記: 기유(1909)이월초삼일...

소장처: 박순호

鯢主簿曲. / [著者未詳]
寫本

[金州郡]: [刊寫者未詳], 隆熙 4(1910)
1冊(47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7.5×22.1 cm

筆寫記: 庚戌(1910)臘月院日 戲抄干陳墓
新坪, 庚戌 臘月 日 金州郡 四蒲 ○基里

소장처: 홍윤표

토끼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2

1冊(59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5.0×19.0 cm

筆寫記: 明治四十五年(1912) 壬子 五月

소장처: 경북대학교 도서관

퇴기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2

1冊(19張): 無界, 半葉 12行20~24字,
無魚尾 ; 33.0×18.5 cm

筆寫記: 壬子(1912)년 초구닐 시죽하여
십삼닐 필초하연노라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토끼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5

1冊(62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8.0×22.0 cm

筆寫記: 갑인년의 시서하야 을모년 춘
정○○○ 필서 하여시나...

소장처: 윤해옥

경화수궁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6

1冊(59張): 無界, 半葉 10行13~17字,
無魚尾 ; 17.8×18.7 cm

筆寫記: 丙辰(1916)正月二十七日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독기 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9

1冊(53張): 無界, 半葉 9行19~20字,
無魚尾 ; 29.4×17.5 cm

筆寫記: 기미연(1919) 니월 순닐 필서...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택기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4

1冊(22張): 無界, 半葉 9行14~16字,
無魚尾 ; 27.4×19.8 cm

筆寫記: 上元甲子(1924)臘月念五日 膳
畢于○安○外亭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2) 중산망월전 및 중산망월전 개작

중산망월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釜山]: [橋本彰美], 高宗 32(1895)

1冊(40張): 無界, 半葉 12行21~23字,
無魚尾 ; 29.0×22.0 cm

筆寫記: 임진 칠월 초구일 필서 ... 金松
汝 右一券 元釜山鎮金松汝所藏 今茲明
治二十八年二月十七日獲之于千石汝家而
起筆寫十張 翌未到其半而冊主遇求其返
本 予切請夜以續日終全記寫了 于時十九
日 日將出於東山之期也 於朝鮮旧館日本
書堂天涯一寒生蘇洲 橋本彰美誌

소장처: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

슈궁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32
(1895)

1冊(61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8.0×22.0 cm

筆寫記: 을유(1895) 납월 십팔 니서하라
소장처: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별주부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武 1
(1897)

1冊(30張): 無界, 半葉 15~16行字數不
定, 無魚尾 ; 26.0×29.5 cm

筆寫記: 경유(1897)원월초십일 시즉하여
필어십오일라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별토문답.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武 5
(1901)

1冊(61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1.0×31.0 cm

筆寫記: 신축(1901)원월직싱빅등서 우
관곡정사

소장처: 국민대학교 도서관

免處士傳. / [著者未詳]

寫本

[蒼洞]: [刊寫者未詳], 隆熙 1(1907)

1冊(52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17.2×23.2 cm

筆寫記: 丁未(1907)正月二十四日 蒼
洞新刊...

소장처: 임형택

토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15

1冊(40張): 無界, 半葉 10行28~31字,

無魚尾 ; 31.5×20.7 cm
筆寫記: 을묘(1915) 경월 흥순에 궁금
흥여 등서하야스나…
소장처: 연세대 학술정보원

수육문답.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0

1冊(38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16.0×27.0 cm

筆寫記: 大正九年(1920)陰 庚申二月…

소장처: 김광순

3) 완판본 개작

주부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2

1冊(32張): 無界, 半葉 12行25~28字,
無魚尾 ; 18.0×26.0 cm

筆寫記: 壬戌(1922)十二月初九日 加衣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3.1.2 경판본 계열

토기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9
(1892)

1冊(22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3.0×19.0 cm

筆寫記: 임진년(1892) 유월초 구일 필서

소장처: 서울대 중앙도서관

별주부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6

1冊(50張): 無界, 半葉 8行20~23字,
無魚尾 ; 31.2×21.6 cm

筆寫記: 歲在赤龍(1916)陽月念日畢

소장처: 연세대 학술정보원

3.1.3 기타 계열

兔公辭.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22
(1885)

1冊(22張): 無界, 半葉 8行16~17字,
無魚尾 ; 30.0×20.5 cm

筆寫記: 을유(1885) 오월 초치일 모는
서하노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兔公傳. / [著者未詳]

寫本

[文義] : [刊寫者未詳], 高宗 27(1890)

1冊(10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 29.0×22.0 cm

筆寫記: 歲在白虎(1890)仲夏望日 文義
西九龍山下見佛庵 或曰懸寺畢書 同年
同月十二日始十七日終

소장처: 고려대 중앙도서관

兔公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高宗 31
(1894)

1冊(72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
魚尾

筆寫記: 甲午(1894)二月 日畢

소장처: 임형택

토끼전. / [著者未詳]

寫本

[皇城] : [刊寫者未詳], 光武 7(1903)

1冊(41張): 無界, 半葉 7~10行字數不定, 無魚尾 ; 29.6×17.5 cm

筆寫記: 癸卯(1903)元月 日 移字冊 皇城居金筆書 主人 李文寧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퇴궁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2

1冊(6張): 無界, 半葉 21行字數不定, 無魚尾 ; 25.1×21.5 cm

筆寫記: 임궽(1912)원월넙구일 취필서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별주부전.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2

1冊(15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22.0×32.0 cm

筆寫記: 임궽(1912) 지월이십육일

소장처: 박순호

토끼전 玉兔傳.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17

1冊(35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17.5×29.5 cm

筆寫記: 丁巳(1917)至月小梅謄書

소장처: 사재동

뜯기전이라.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7

1冊(19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26.5×20.3 cm

筆寫記: 정묘연(1927) 월의 쓴노르

소장처: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토별산슈록. / [著者未詳]

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29

1冊(70張): 無界,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 ; 27.0×20.0 cm

筆寫記: 기사(1929) 구월 망일 홍소지
첫 필적 ...

소장처: 박순호

3.2 刊行本

3.2.1 木板本

1) 경판본

토싱전. / [著者未詳]

木板本

[由洞] : [刊寫者未詳], 隆熙 2(1908)

1冊(9張): 四周單邊 半郭 22.2×17.5 cm,
無界, 半葉 14行21~29字, 上下向黑魚
尾·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混入 ; 24.2×
19.0 cm

刊記: 戊申(1908)十一月 日 由洞新刊

소장처: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

2) 완판본

퇴별가. / [著者未詳]

木板本

[完西] : [刊寫者未詳], 光武 2(1898)

1冊(21張): 四周單邊 半郭 19.8×15.5 cm, 無界, 半葉 16行字數不定,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混入 ; 24.3×17.3 cm
刊記: 戊戌(1908)仲秋 完西新刊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퇴별가. / [著者未詳]

木板本

[전주]: [多佳書鋪], 1916

1冊(21張): 四周單邊 半郭 20.3×15.6 cm, 無界, 半葉 16行25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24.8×18.3 cm

刊記: 戊戌仲秋完西新刊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3.2.2 新鉛活字本

1) 불로초 계열

불로초. / [南宮濬]

新鉛活字本

[京城]: [唯一書館], 1912[初版]

1冊(56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4行30~31字數不定, 無魚尾 ; 21.0×16.0 cm

刊記: 大正元年(1912)八月拾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불로초. / [南宮濬]

新鉛活字本

[京城]: [唯一書館], 1913[再版]

1冊(56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4行30~31字數不定, 無魚尾 ; 21.0×16.2 cm

刊記: 大正二年(1913)九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불로초. / [南宮濬]

新鉛活字本

[京城]: [唯一書館·漢城書館], 1915[三版]

1冊(56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字數不定, 無魚尾 ; 24.0×17.0 cm

刊記: 大正四年(1915)十二月廿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불로초. / [南宮濬]

新鉛活字本

[京城]: [唯一書館], 1917[四版]

1冊(40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7字, 無魚尾 ; 21.0×16.0 cm

刊記: 大正六年(1917)三月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불로초. / [南宮濬]

新鉛活字本

[京城]: [博文書館], 1920[五版]

1冊(40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6行35~37字, 無魚尾 ; 21.0×16.0 cm

刊記: 大正九年(1920)...

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별繫주주부簿전傳. / [李海朝]

新鉛活字本

[京城]: [新舊書林], 1913[初版]

1冊(109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行34~35字, 無魚尾 ; 21.0×15.0 cm

刊記: 大正二年(1913)九月二十五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별繫주주부簿전傳.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新舊書林], 1916[三版]

1冊(93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14行37~38字, 無魚尾 ; 21.0×15.8 cm

刊記: 大正五年(1916)四月二十八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별鰲主부簿전傳. / [池松旭]

新鉛活字本

[京城] : [新舊書林], 1917[四版]

1冊(93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1~

14行37~38字, 無魚尾 ; 21.1×15.9 cm

刊記: 大正六年(1917)六月三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原本 鰲主簿傳.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 : [永昌書館·韓興書林·振興書館],

1925

1冊(66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行

34~35字, 無魚尾 ; 20.0×15.0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 ...

소장처: 고려대 중앙도서관

古代小說 兎에肝. / [洪淳模]

新鉛活字本

[京城] : [朝鮮圖書株式會社], 1925[初版]

1冊(67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3~

17行37~38字, 無魚尾 ; 21.2×16.1 cm

刊記: 大正十四年(1925)十一月二十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2) 비불로초 계열

兎의肝(별주부가). / [金容俊]

新鉛活字本

[京城] : [博文書館], 1918[四版]

1冊(88면): 四周無邊, 無界, 半葉 12~

13行字數不定, 無魚尾 ; 22.0×16.5 cm

刊記: 大正七年(1918)十二月十二日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ABSTRACT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Manuscripts and Published Editions of Pansori-based Novels

– Centered Around *Chunhyangjeon*, *Simcheongjeon*, *Tokkije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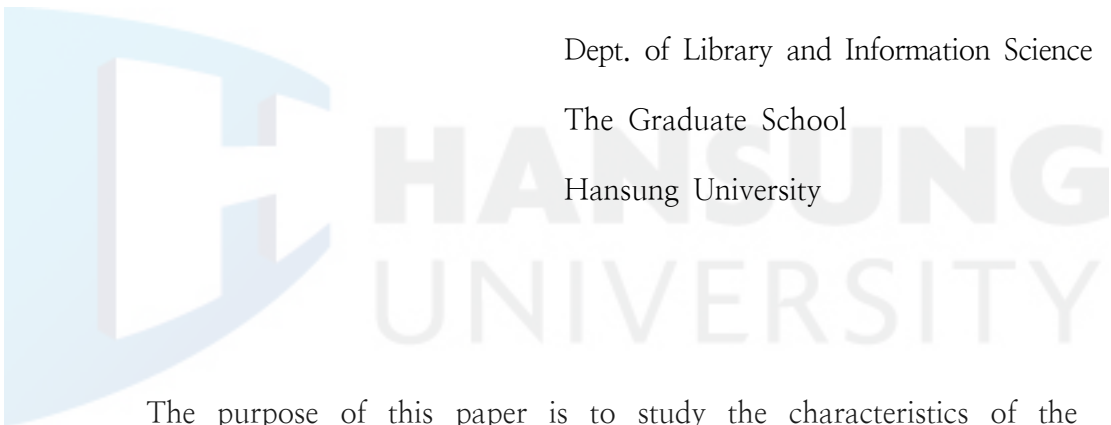
Lee, Ock-Seong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consists of a stylized blue 'H' shape with a white square in the center. To the right of the logo,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arge, light blue, sans-serif font, serving as a background waterm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novel in the pansori-based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o modern Korea. To this end I studied the pansori-based novels' transcription and publication background from a historic perspective, then surveyed the current state of the manuscripts and published editions of each novel and analyzed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to classify the series. I also di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ansori novels'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aspects by time period, their region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visual aspects as shown in the colored cover paintings and illustr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has been confirmed that 180 types of 316 volumes of pansori novels exist to this day. By novel there are 82 types of 117 volumes of *Chunhyangjeon*, 57 types of 89 volumes of *Simcheongjeon*, 41 types of 50 volumes of *Tokkijeon*. Form-wise there are 117 types of 117 volumes of manuscripts, 33 types of 70 volumes of woodblock type editions, 30 types and 129 volumes of shinyeon type editions. In terms of the written letter, 151 types of 247 volumes were written in hangul, 24 types of 61 volumes were written in combined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and 5 types of 8 volumes we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y classification 81 types of 102 volumes are changbon and wanpanbon, 29 types of 45 volumes are secheakbon and gyeongseongbon, 33 types of 98 books are *Okjunghwa/Gangsangryeon/Bullocho* volumes, and 37 types of 71 volumes remain that are not the *Okjunghwa/Gangsangryeon/Bullocho* volum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ansori novels' manuscripts and published book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pansori novels began to be adapted into story form from pansori saseol, or words or story, and distributed starting from the formative period (1860~ 1880s). Pansori novel manuscripts increased while banggakbon and shinyeon type editions were published actively in the developmental period (1880~mid-1920s), establishing pansori novels as popular novels. In the period of decline (late 1920s~1940s), the making and distributing of manuscripts and published books decreased sharply. From the formative period, there are 7 types of 8 volumes of *Chunhyangjeon*, 1 type of 1 volume of *Simcheongjeon*, 3 types of 3 volumes of *Tokkijeon*. Form-wise we can confirm that there remain 8 types of 8 volumes of manuscripts and 3 types of 4 volumes of woodblock type editions. *Chunhyangjeon* transformed from the prose style form into which it was adapted to a form with saseol and writing style added, while *Simcheongjeon* and *Tokkijeon* only circulated manuscripts

with changbon characteristics. From the developmental period there remain 66 types of 155 volumes of *Chunhyangjeon*, 46 types of 74 books of *Simcheongjeon* and 34 types of 43 books of *Tokkijeon*. Form-wise there are 92 types of 92 volumes of manuscripts, 28 types of 58 volumes of woodblock type editions and 26 types of 122 volumes of shinyeon type editions. At this period *Chunhyangjeon*, *Simcheongjeon*, and *Tokkijeon* were all steadily transcribed and published in changbon and wanpanbon manuscript and woodblock type books. Works handed down from the period of decline are *Chunhyangjeon*'s 11 types of 22 volumes, *Simcheongjeon*'s 10 types of 14 volumes, *Tokkijeon*'s 4 types of 4 volumes. Form-wise there are 16 types of 16 volumes of manuscripts, 2 types of 8 volumes of woodblock type editions and 7 types of 16 volumes of shinyeon type edition. At this period usually manuscripts of changbon and wanpanbon were transcribed.

Secondly, of the pansori novels 52 types came from Seoul, 24 types from Jeolla-do, 10 types from Chungcheong-do, 9 types from Gyeonggi-do, 6 types from Gyeongsang-do and 2 types from Gangwon-do. In Seoul, manuscripts and woodblock print editions of sechaekbon and gyeongpanbon, as well as manuscripts of *Okjunghwa*, *Gangsangryeon*, *Bullocho* in shinyeon type editions were made and distributed. Jeolla-do usually produced and distributed manuscripts and woodblock type editions of changbon and wanpanbon, Chungcheong-do transcribed manuscripts of changbon and wanpanbon. Gyeonggi-do usually published woodblock type editions of sechaekbon and gyeongpanbon, while Gyeongsang-do handed down many manuscripts of changbon and wanpanbon.

Thirdly, shinyeon type edition pansori novels show the novel's characters and contents visually through colored cover paintings and illustrations, inducing the readers' curiosity and expectations and

increasing the commercial value of the novel. *Chunhyangjeon* has 15 types of colored cover paintings, *Simcheongjeon* has 6 and *Tokkijeon* has 3, with the covers usually depicting a dramatic scene from the novel. As for illustrations, *Chunhyangjeon* has 9 and *Simcheongjeon* has 4, with the illustrations being either of scenes or characters.

Pansori novels were made and distributed in various forms such as manuscripts, woodblock type editions, shinyeon type editions, among others. They were also largely handed down as hangul versions and adapted during transcription or publication to suit the readers' tastes. Hence, pansori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modern Korea are popular novels that can be an entertaining read for all.

[Keywords] Pansori, Pansori-based Novels, *Chunhyangjeon*, *Simcheongjeon*, *Tokkijeon*

HANSUNG
UNIVERSITY